

ISSN 2508-3139

# 성무

星武

2024. October  
Vol. 53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사단 성무안보연구소



# 교훈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 공사십훈

하나. 용의단정(容儀端正)하라

하나. 청렴결백(清廉潔白)하라

하나. 성심복종(誠心服從)하라

하나. 책임완수(責任完遂)하라

하나. 신의일관(信義一貫)하라

하나. 공평무사(公平無私)하라

하나. 침착과감(沈着果敢)하라

하나. 신상필벌(信賞必罰)하라

하나. 솔선수범(率先垂範)하라

하나. 은위겸비(恩威兼備)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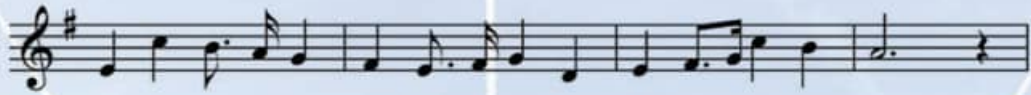


# 공군사관학교 교가

작사 최용덕  
작곡 김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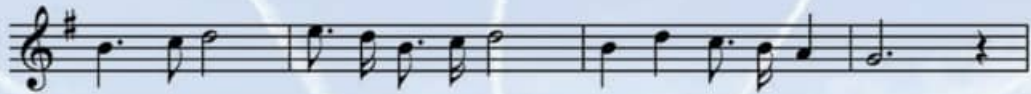
1.우 리\_는 피 끓\_는 배 달 의\_아\_ 들  
2.우 리\_는 하 늘\_을 배 우 는\_젊은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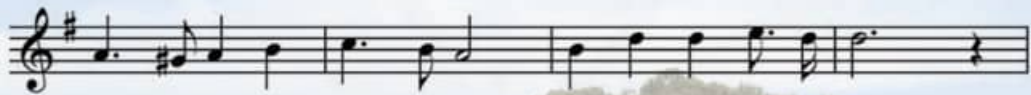
높 고 빛 나 는 한 배 님 정 신 이 어\_받 아 서  
높 고 참 다 운 군 대 의 정 신 새 로\_이 룝 해



누 리 에 떨\_\_치 고 자 하 늘 로 솟 나 니  
나 라 를 지\_\_키 는 힘 하 늘 로 달 린 다



우 리 들 영 혼 의 기 지 공 군 사 관 학 교  
우 리 들 충 성 의 원 천 공 군 사 관 학 교



하\_\_늘 은 우 리 의 일 터 요 싸 움 터



하 늘 에 살 면\_서 하 늘 에 목 숨 바 친 다



Global **KAI** Beyond Aerospace

**우주모빌리티 개발을 통해 대한민국  
우주경제를 실현하겠습니다.**



서울 서초동 본사



# 삼양 (주) SAMYANG COMPOSITE TECHNOLOGY

21세기 K방산을 이끌어가는 저희 삼양컴텍은 1962년 창업 이래 방탄분야의 대표기업으로서 지상장비 방호제품과 개인방호제품, 항공부품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서울본사, 경기도 안성과 광주, 그리고 경북 구미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최첨단 소재들을 생산, 가공하고 기술연구소와 소재연구소, 방탄시험소를 갖추고 글로벌 방호전문업체로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공장 / 소재연구소



경북 구미 공장



안성 공장 / 기술연구소



## 방탄/방호 분야

미래전에 점차 증가하는 각종 위협으로부터 장비 및 장병을 보호하기 위한 장갑과 방탄기술의 연구에 혼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항공 분야

각종 항공기의 연료탱크 (F5, 500MD, LAH)와 방탄구성품(조종석/바닥 방탄판, 방탄좌석) 및 항공기 인테리어 전문업체입니다.



## 복합재 분야

이중 소재가 적용된 복합재료를 통해 높은 내구성 및 내부식성, 전파특성 및 비강도 등의 장점을 가진 다양한 부품을 제조합니다.



## 소재 분야

다양한 방탄세라믹 소재를 제작하고 있으며 우수한 복합방탄소재를 성형/소결 공정을 통해 제조하고 있습니다.



## 방탄 시험 분야

(주)삼양컴텍 방탄시험소는 국내 최초로 방탄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 받은 방탄분야 전문 시험기관입니다.



## R&D

여러 가지 물질과 조건을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충돌해석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적인 설계와 생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27길 16, 8층 (서초동 파크빌딩)  
tel. 02-3488-5552 infodesk@samyangct.com  
www.samyangct.com

국방종합훈련체계의 글로벌 리더

# H 한길씨앤씨 주식회사

## 비전과 추진전략

“기대 이상의 가치 제공 및 혁신기술 선도”

### KNOW-HOW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강력한 인적자원

### 기술력

다년간의 성공적 프로젝트  
수행을 통한 기술력 축적

### R&D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한  
역동적 비전 달성

AR/VR, TMS

M&S

시뮬레이터,  
항공전자시스템

ILS

MRO

## 한길과 함께하는 성무원

신용인(33)	나시중(30)	전용성(33)	박이창(33)	조상용(33)	김중수(34)	최재훈(34)
강병철(34)	강우석(34)	김태재(34)	정하봉(36)	김주영(37)	이준혁(37)	서해원(37)
안병규(38)	윤형모(41)	김창림(42)	임성균(44)	강경식(46)	이태승(48)	

본사/시스템통합사업본부(서울) : 서울시 금천구 서부샛길 632, 904(대림 테크노타운 5차)  
(T) 02-3143-2486 (F) 02-3143-2488 <https://www.hangilcnc.com>

전략사업본부(대전)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3로 65, 613호(관평동, 한신에스메카)  
(T) 070-7167-5355 (F) 042-825-2489

디지털콘텐츠사업본부(사천) :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공단1로 78 한국항공우주산업(주) 내  
(T) 055-852-0267 (F) 02-3143-2488





## 주요 사업 영역

한길씨앤씨(주)는 공군 전투기와 훈련기, 해군 초계기와 잠수함, 육군 헬기 등 주요 국방무기체계에 대한 CBT, VR/AR 솔루션, TIMS, 시뮬레이터 등을 개발 및 운영하는 종합훈련체계 전문기업 입니다.

## 주요 생산품

정비훈련체계 : T/FA-50, KF-16, F-15K, KUH, UAV, KT-1 등



T/A-50

KF-16

F-15K



KT-1 / Cessna

KUH

UAV

비행/정비훈련관리체계



비행/정비훈련관리체계(TIMs)

지상장비



FA-50 지원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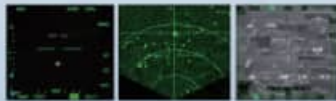


이동형 제습기

항공전자 및 임베디드 SW



탑재형 훈련장비



레이더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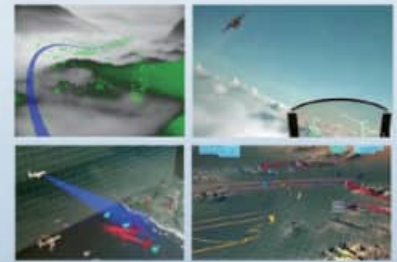
TGP/AGM-65

시뮬레이터 및 영상장비



고정익 및 회전익 시뮬레이터

L-V-C 연동



LVC 연동 및 통합

## VR / AR / MR / AI 솔루션

100인 이상 원격/다중 접속



T-50B 블랙이글 비행체험



조종석/항전장비 정밀 조작



VR 기반 손상통제훈련



증강현실 엔진 개발



세스나 172 정비훈련



XR 메타버스 기술회의체계



## 답겨진 이야기들

2024. October Vol. 53

- 008 『성무』 53호를 발간하며! \_ 정석환(회장)
- 010 공사 연혁, 공사 기념물 소개
- 012 <권두시> 빨간마후라의 불굴 정신 계승되어야  
\_ 이준희(31기)
- 015 祖國 \_ 김병오(23기)
- 016 공사 총동창회와 함께라면 \_ 서교선(30기)
- 017 제31차 총동창회 발자취
- 025 총동창회와 함께하는 성무안보연구소
- 027 모교 소식
- 030 공군 소식

### 특집 기고!

- 038 변화의 시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_ 공승배(39기)
- 041 콜롬비아 소개 및 대사로서 임무를 수행  
\_ 이왕근(31기)
- 046 공군통신장교에서 미 주립대 경영학 교수로  
\_ 권희봉(31기)
- 050 공군사관학교 중형 아음속 풍동의 탄생 비화  
\_ 장조원(30기)
- 058 대한민국 공군, 이제는 우주력을 높여야 한다  
\_ 이상률
- 061 수고했다 팬텀~, 그리고 고맙다.  
\_ 이형걸(32기)
- 066 만화로 보는 공사 75년 \_ 문정주(32기)

### 함께해요! 공군, 응원합니다!

- 082 꿈은 만들어 가는 것! \_ 영화배우 채시라
- 085 화성 우주작전,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_ 김민석
- 089 위용을 떨치는 대한민국 공군...  
'공군인' 자부심을 갖자 \_ 김귀근
- 091 동상의 의미 \_ 양낙규
- 093 격오지 부대 - 의상봉 방공관제대대 방문후기  
\_ 김종명(31기)

- 096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과의  
소중한 인연 그리고 기대 \_ 송기훈(해사 37기)

### 명예로운 성무원, 함께하는 미래!

- 102 2023년 자랑스러운 공사인 수상자
- 103 2024년 명예졸업증서 수여자
- 104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_ 조준원(38기)
- 106 명예회원 소개
- 107 어명이요 \_ 이범욱(명예회원)

### 자랑스러운 사관생도, 우리의 미래!

- 112 공군사관학교 생도중대 소개 \_ 이수완(31기)
- 116 新 三士體典, 공사 우승하다! - 육·해·공 야구  
교류전('23년) \_ 이상호(31기)
- 120 멀리, 더 멀리 \_ 정재훈(73기)
- 123 비상(飛上)의 길을 따라 날기 \_ 이예은(73기)
- 127 변화와 관성 \_ 이동훈(73기)
- 130 특별한 경험, 튀르키예 공군사관학교  
\_ 배강민(74기)

### 공군인! 알쓸상식!

- 134 공군 태동기 역사의 "1호", "최초", "초대",  
"최고" 인물들! \_ 김용덕(31기)
- 139 블랙이글스 특수비행 소개 \_ 김준수(64기)
- 146 대한민국의 주요 비행장과 K-SITE CODE  
\_ 김승규(39기)
- 150 숫자로 읽는 공사(0, 4)의 의미 \_ 이준희(31기)

### 항공 우주관련 소개

- 154 공군의 항공우주력 건설 \_ 김소영(55기)
- 157 KAI, 우주기술 고도화로 우주로 향하는 공군과  
함께 퀀텀 점프 \_ 장준건(40기)



- 160 우주를 향해 열린 문, 민관군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우주시대 \_ 오승호
- 163 우주 산업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  
\_ 김종필
- 166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의 결실, KAFASAT  
- 교육용 위성 개발의 첫걸음을 떼다 -  
\_ 강전영(72기)
- 169 항공우주력 시대의 문제와 시사점 \_ 김학준(34기)
- 173 인공지능(AI) 시대에 공군 장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 \_ 윤석준(32기)

## 우리들의 특별한 이야기!

### [임관 기념]

- 180 하늘과 함께한 50년, 함께한 동기들 \_ 이영하(22기)
- 185 하늘에 산다(22기 임관 50주년 행사를 보고)  
\_ 임병호
- 187 공군사관학교 임관 40주년 기념 소회  
\_ 이형걸(32기)
- 189 푸르매 42기의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  
30주년을 기념하며 \_ 조관행(42기)
- 191 천다솜 52기에 대한 중간 기록: 다정함과 꾸준함  
\_ 52기 동기회
- 195 공군사관학교 62기 임관 10주년 회고록  
\_ 이후인(62기)

### [성무대의 추억]

- 199 향기(香氣)나는 사람 동기생 박재준 \_ 이준희(31기)
- 202 보라매 마음의 고향, 대방동 \_ 장호근(17기)
- 207 성무대 메추리 시절을 회고함 \_ 홍성표(28기)
- 212 애교심(愛校心) 덕분에 출간 작가가 되다  
\_ 김범수(69기)
- 216 맑고 푸른 하늘을 찾아서 \_ 김 훈(34기)

### [공군의 추억]

- 219 미리쓰는 이임사 \_ 박지원(49기)

- 222 별뿔별 동지 \_ 김익래(16기)
- 225 비행대대에서 배운 육아의 지혜 \_ 최현욱(56기)
- 228 빨간 마후라 출격, 새벽하늘 \_ 송기준(25기)
- 230 파도의 최후, 상사화 \_ 김병오(23기)
- 232 나의 아버지 \_ 이영종(24기)

### [인생, 여행, 봉사]

- 234 태권도와 한국의 얼 \_ 정지수(11기)
- 238 인연(因緣) 60년, 그 은빛별무리들 \_ 배기준(12기)
- 241 인생에 대한 소고(小考) \_ 박창용(19기)
- 244 나의 인생 3막 5부작에 대한 회고 \_ 주신희(24기)
- 249 나는 왜 미국사진협회 인증작가가 되었나  
\_ 금기연(21기)
- 254 바다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다 \_ 최환중(32기)
- 259 곧대라떼 \_ 이덕대(27기)
- 263 世上을 求하는 風流 \_ 강임구(24기)
- 266 젊어서는 조국영공수호를, 은퇴 후에는...  
\_ 박성보(26기)
- 268 조종사의 부동산 \_ 박지청(46기)
- 270 유럽 자전거 여행 \_ 이성복(32기)
- 276 87일간의 미국 국립공원 일주 자동차 여행  
\_ 한경표(27기)
- 281 정들면 고향 \_ 김기일(30기)

- 286 성무인 저술 도서 \_ 조승균(31기)
- 289 동문·지회 동정
- 294 총동창회·연구소 알림
- 303 교육진흥재단 현황
- 304 자랑스러운 공사인 수상자 현황(부록 #1)
- 306 동문작가 기증 도서 현황(부록 #2)
- 309 편집 후기

\* 표지 사진은 금기연(21기) 동문이 찍은 에어쇼 장면입니다.

## 『성무』 53호를 발간하며!!



정석환(31기)

“하늘은 와닿다, 마음은 하얗다.  
그렇게 우리의 청춘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세월의 흐름 속에 자연스러운 반백의 모습  
지금의 모습이 아름답고 자랑스럽다.”

2024년, 공군사관학교 개교 75주년 !!

1949년 6월에 개교한 이래 고난과 격동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안정되고 번영의 시대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75년 전 우리나라 공군을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보라매 양성을 위한 최고의 교육기관으로 빛나는 역사를 써 내려가  
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공사 1기생 83명(97명 입학)이 졸업한 이후 우리의 동문  
은 현재 1만 명을 넘었고 10만, 100만의 동문이 배출되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영원  
할 것입니다.

우리 31기 ‘한돌’ 동기생들은 항공우주군으로 퀀텀 점프(Quantum Jump)를 지향  
하는 우리 공군과 공군사관학교의 발전을 위해 총동창회의 역할을 높이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제31차연도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를 개교 75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청룡(靑龍)의 해, 일출과 함께 힘차게 출발하였습니다.



**성무인, 하늘사랑 75년!**

**다 함께! 즐겁게! 건강하게!**



“성무인, 하늘사랑 75년!”을 기억하고 “다 함께! 즐겁게! 건강하게!” 미래로 발전하는 총동창회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 중점을 설정하였습니다.

1. 동창회원 친목 및 참여 활성화
2. 자랑스러운 성무 문화 계승 및 발전
3. 공군과 공사 발전을 위한 역할 제고

그리고 어느덧 봄, 여름, 가을을 지나 겨울을 바라보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함께 고민하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기억했던 시간이 추억으로 변하고 있는 지금의 순간이 아름답기도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아쉽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무』 53호를 발간할 수 있어 마음에 위안이 됩니다. 그동안의 31차 총동창회의 활동, 개교 75주년 기념 특집 기고, 만화로 그려보는 다양한 모교의 모습, 스토리 있는 동문, 다양한 동문의 활약상 소개 등을 통해서 동문 모두가 편안한 마음으로 지나간 시간들을 즐겁게 기억하며 그리워 하면서 읽을 수 있도록 알림 형식의 편집을 추구하였습니다. 또한 QR코드 추가, 교가 음원 삽입, 광고 위치 변경 등을 통하여 공사인들의 정체성 부각 및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성무』 53호를 발간하기까지 동문여러분의 열정적인 참여에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모교 및 관련기관, 업체 등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많은 고민과 함께 헌신적인 노력을 경주해 주신 편집위원을 포함한 우리 31차 총동창회의 그간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변화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할 수 있지만 앞으로도 보다 나은 우리 ‘성무지’를 위해 변화를 기대해 봅니다.

『하늘로 !! 우주로 !!』

2024년 10월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장 정 석 환

### 1. 공군사관학교 개교 (1949. 10. 1.)

1949. 1. 14. 설치된 육군항공사관학교를 같은 해 10월 1일 공군 창설과 동시에 공군사관학교로 개칭하였다.



### 2. 6·25 전쟁 발발 시기 (1950. 6. 25~1951. 5. 1.)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교사(校舍)를 수원-대전-대구-진해로 옮겼다가 서울 성남중학교에 임시 교사를 마련하였으나, 중국군 개입으로 다시 대구와 제주도로 이동하였다가 생도 교육을 지속하기 위해 1951. 5. 1. 진해에 캠퍼스를 마련하였다.

### 3. 진해 캠퍼스 시기 (1951. 5.~1958. 12.)

진해에서 1952. 5월 5일 입교한 제4기 사관생도부터 4년제 학사학위가 적용되었다. 이 시기 해군사관학교와 육군사관학교도 함께 진해에 있어 1954. 10. 20. 제1회 3군 사관학교 체육대회가 열렸다.



### 4. 서울 캠퍼스 시기 (1958. 12.~1985. 12.)



영구적인 공군사관학교 교정(校庭)을 마련하기 위해 1958. 12. 12. 서울 동작구 공군본부 근처(현 보라매공원 자리)에 캠퍼스를 마련하였다.

### 5. 청주(청원) 캠퍼스 시기(1985. 12. ~ 현재)

1970년대 서울 행정기관 지방 이전정책에 따라 1985. 12월에 충청북도 청원군 남일면으로 이전하였다. 1997년 3군 사관학교 중 처음으로 여자 사관생도(49기)가 입교를 시작하였다.







### 〈성무탑〉

서울 보라매공원 성무탑은 사관생도들과 송영수 작가가 힘과 뜻을 합쳐 1966년 제작하였으며, 청주 사관학교에는 이를 확대하여 건립되었다. 탑신은 승리(Victory)를 나타내고자 V형으로 제작했고, 탑 중심의 원형은 우주와 인간의 공존이라는 의미를 가진 결합체를 나타낸다.

### 〈영원의 빛 추모비〉

6.25 전쟁 60주년을 기념하여 공중근무 중 전사 순직한 조종사와 공중근무자를 추모하기 위해 2010. 6월 제17차 총동창회와 공군이 힘을 합쳐 제작하였다.



### 〈보라매 상징탑〉

사관생도의 정신적 지표가 되는 상징물로 지구본 위에 보라매가 있으며, 네 귀에는 지(智), 덕(德), 체(體), 기(氣)를 연마하는 미래 항공우주시대의 주역인 사관생도상이 있다.



## 빨간마후라의 불굴 정신 계승되어야



이준희(31기)

꽃보다 더 아름답고 태양보다 더 뜨거운 젊음과  
피가 끓듯 넘치는 열정(熱情)을

단 한 번 불태워 보거나 부귀영화에 현혹(眩惑)되지 않은 채  
한 번 죽어 영원히 사는 방법 일찍이 터득,  
오로지 정의(正義) 위해, 침략자 섬멸코저  
위국헌신(爲國獻身) 온몸으로 실천하다  
저 하늘의 별이 되신.. 이름하여 창공(蒼空)에 핀 살신성인

천금(千金)보다 더 귀한 목숨이  
단 하나밖에 없음 알면서도 한 번 가면 두 번 다시 되돌아올 수 없음도  
뻔히 알면서도 자유(自由) 수호 위해, 위기에 처한 나라 구하기 위해  
귀하디귀한 목숨 초개(草芥)와 같이 던졌을지언정  
누굴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임무 완수했음에 안도(安堵) 숨을 쉬면서  
자신 죽음을 자랑스러워했다. 이제야 제 몫 다했기에 영면(永眠)하면서  
비로소 존재 이유 깨닫게 되었다고 ..

숭고(崇高)한 정신에 의해 길이 빛날 업적은  
저 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어둠 떨쳐내듯 조국산하 밝히며  
사람들의 뇌리(腦裏) 속에 영원히 남게 될 것

면훗날 역사가들은 이들을 의인(義人)이라 일컫고  
풍전등화(風前燈火) 조국 혈기(血氣)로 지켜낸 전쟁영웅으로 기록하며

자라나는 후손들은 한 손에 국화꽃 다발 들고 그들의 값비싼 죽음 애도(哀悼)하며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남겨준 그 열 가슴에 되새긴다.  
하늘에 살다 하늘에 목숨 바친 거룩한 희생이 있었기에  
자랑스러운 오늘이 있었다고 주절주절 읊으면서..

그대는 아는가? 6.25 참전 조종사들의 구슬픈 무용담을  
 열악한 상황임에도 조국산하 적에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신념 하나로  
 (실탄을 실어 절대로 저서는 안된다는 기백 하나로)  
 육탄으로 적과의 교전에 임했다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어찌할 수 없는 가슴 아픈 현실이었어  
 부랴부랴 유엔군(미국)으로부터 F-51 무스탕 10대 지원받은  
 보라매들은 불과 4일간 기종 전환 훈련받고 바로 실전에 투입되었지  
 6.25 초창기 북한, 많은 전투기 보유했음에도 위협적이지 못했지

하지만 우리 공군은 달랐어  
 특유 은근과 끈기, 신념(信念)의 조인(鳥人)이라는 이름으로  
 목숨까지 내놓은 보라매들 휴전 시까지 14,163회의 출격으로 혁혁한 전과(戰果) 거둬  
 하늘에선 당해낼 자 없었다네, 제공권 장악했다네

이름하여 3대 전승작전, 6.25 당시 공군 위용 말해주고 있지  
 첫 번째 승호리 철교차단작전이야, UN군은 불법 남침하여  
 1달도 안 돼 낙동강까지 남하한 북한군 전력 약화시키기  
 위해 승호리 철교 폭파에 사활(死活) 걸었던 거지,  
 미 공군 B-29 투입, 500소티 공격했지만 전부 실패하였지 설마하며  
 대한 공군에 그 임무 맡겨 본 것이지, 결과는 뻔할 것이니까?

하지만 대한 공군은 남다르잖아 임무 부여받은 김신 대령 결연(決然)한 각오로 이렇게  
 외쳤지

“미 공군이 못한 것 대한공군의 명예를 걸고 기필코 성공하자.”라고  
 처음 1-2차 미 공군 교리와 똑같이 시도를 해봤는데,  
 결과는 똑같았어 그래서 실패 이유 정밀 분석해 보았지  
 “바로 그거야” 숨겨진 비밀 찾아낸 거지 “목숨을 걸지 않았던 거야”  
 미 공군은 지상 2,400m로 비행하다 안전 고려, 고도 900m에서 폭탄을 투하했어  
 대한공군(유치곤 중위를 비롯한 6명의 불사조)은 절반이 1,200m로 비행하다가 북한군의  
 격렬한 대공포 위협 알면서도 초저공 침투 공격법에 의해 450m에서  
 폭탄을 투하한 것이지 그래서 마침내 승호리 철교를 폭파 시킨거야



한 마디로 '목숨 걸었기에' 가능한 것이고 미 공군이 알면 경악할 행위이지  
하지만 대한 공군은 임무완수 위해, 북한의 전투력 약화시키기  
위해 불구덩이라도 몸을 던져야 할 판이었어  
그래서 3회 만에 임무 완수하는 쾌거 이룬 거지

두 번째는 북한전력에 치명상 입히고 북한정권 압박하기 위해 전폭기 354대 투입  
평양 대폭격(52. 8. 29) 단행함으로써 그 결과 휴전회담 촉진 시켰어  
세 번째는 동부전선(강원도 고성) 351고지에서 육군 제1군단은 적들과 맞서  
치열한 전투 벌였지, 이때 대한 공군 혜성같이 나타나  
F-51전폭기 900여 회 공지합동작전 수행, 고지점령에 지대한 공헌하였지

이외에도 공비토벌 위해 가야산 포격하라는 명령(미군사령부) 떨어지자  
천년고찰 해인사와 팔만대장경 보호하기 위해 명령 불복죄 감수하며  
기수를 돌려버린 김영환 대령의 초유 결단, 공과(功課) 결코 빼놓을 수 없어  
“영국인은 셰익스피어와 인도를 바꿀 수가 없다”고 했듯이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셰익스피어와 인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보물 중 보물이기에”...

이러한 빨간마후라의 정신, 오늘날에도 계승 발전시켜 면밀히 이어져 내려와  
하늘을 지키는 수호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위(安慰)와 평화번영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또한, 미래 우주항공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초석이 되고 굳건하게 의연한 자태 드리우고 있어  
그래서 외쳐볼 거야  
“대한 공군이 있어, 조국영공수호 문제없고 우주항공의 초강대국 될 것”이라고

## 조국(祖國)

나에게는  
사랑하는 조국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란  
어머니 품속 같은 조국이 있습니다.

계절을 따라 꽃 피고 새 우는  
아름다운 조국이 있습니다.

잃어버리고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조국이 있습니다.

아끼고 곱게 가꾸어야 할  
깨끗한 조국이 있습니다.

갈라져서는 안 될  
하나뿐인 조국이 있습니다.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남이 대신 지켜주지 않는  
나의 조국이 있습니다.

내가 사는 의미이기도 한  
참으로 소중한  
나의 조국이 여기에 있습니다.



김병오(23기)

## 공사 총동창회와 함께라면

하늘과 우주를 꿈꾸는 이들  
공사에서 배우고 익혀서  
하늘과 우주를 위해 살았네

하늘과 우주가 못내 그리워  
백설이 내리는 황혼 녘에  
공사 총동창회에 모였네

공사 총동창회와 함께라면  
성층권 넘어 우주로 가는길  
험하여도 두렵지 않겠네

공사 총동창회와 함께라면  
내조국 겨레의 하늘을 위해  
다 함께 손잡고 헤쳐 가겠네



서교선(30기)





# 제31차 총동창회 발자취

## 제31차 총동창회 출범 (2023. 12.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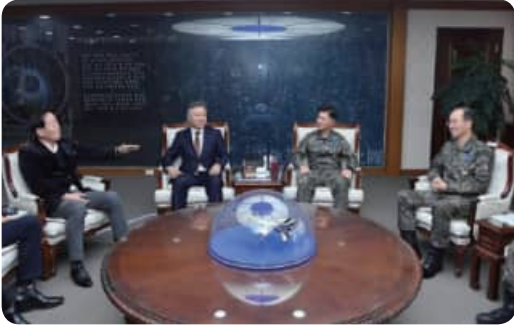
제31차 총동창회 정석환 회장과 임원진은 2023년 12월 21일 공군호텔에서 열린 제30차 정기총회에서 회원들의 인준을 받고 총동창회기를 인수받아 정식으로 제31차 총동창회 출범을 알렸다.

## 공군전우회 및 공군발전협회와 토론회 (2024. 1. 3.)

총동창회 및 성무안보연구소 임원진은 공군전우회 및 공군발전협회 김은기 회장(22기)을 방문하여 신년 인사와 함께 공군전우회와 총동창회의 상호 발전 방안과 공군발전협회와 성무안보연구소의 항공우주력 발전 학술 연구에 관한 협업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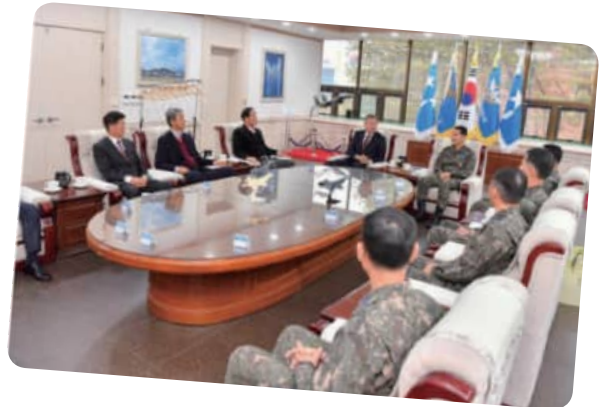
### 공군본부 예방 (2024. 1. 17.)



총동창회 임원진은 공군본부를 방문하여 이영수 참모총장 및 참모들과 공군의 항공우주력 발전을 위해 총동창회 및 성무안보연구소의 지원 방안과 예비역들의 복지정책 등에 관한 의견들을 나누었다.

### 공군사관학교 예방 (2024. 1. 17.)

총동창회 임원진은 모교를 방문하여 공승배 교장 및 참모들과 올해 개교 75주년을 맞아 총동창회의 모교의 발전, 동문들과의 친선 도모 강화 방안, 그리고 항공우주연구소와 성무안보연구소와의 협업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제31차연도 정기이사회 (2024. 2. 20.)



총동창회는 제31차연도 정기이사회를 공군호텔에서 개최하였다. 한 해 동안 추진할 친목 관련 사업, 자랑스러운 성무 문화 계승 및 발전사업, 공군과 공사발전을 위한 사업 등 3개 운영 중점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의결과 발전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 72기 생도 간담회 및 총동창회장상 시상 (2024. 2. 22.)



총동창회는 성무대를 떠나 새로운 출발과 도전하는 72기(하랑) 졸업생도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가졌다. 정석환 회장은 자신의 군인과 공직자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4차산업혁명과 AI 시대에 존경받는 리더가 되도록 조언하고, 강민성 생도에게 총동창회상을 시상하였다.

## 자문위원 초청 간담회 (2024. 3. 14.)

총동창회는 역대 총동창회장과 사무총장으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초청하여 공군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총동창회와 성무안보연구소의 '24년도 운영계획을 설명하였다. 자문위원단은 총동창회와 연구소의 발전을 위한 격려 말씀과 함께 생도 자금심 제고 방안, 성무 장학기금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주셨다.



## 예비역 이사기수 간담회 (2024. 4. 3.)



총동창회는 예비역 이사기수(23기~37기) 회장단을 초청하여 수원체력단장에서 운동을 하고, 31기 동문이 운영하는 클럽하우스 내 '에이스원'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예비역 이사기수 임원들은 '24년도 행사에 동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총동창회 발전을 위한 평생회비 납부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 자전거 라이딩 (2024. 4. 20. / 10. 12.)



총동창회는 춘계 및 추계 자전거 라이딩행사를 가지면서 동문 선·후배간의 친목을 다졌다. 올해 라이딩은 4월에는 반포대교 남단에서 출발하여 경인 아라뱃길을 따라 갑문까지 갔다가 서울 보라매공원 성무탑으로 오는 길을, 10월에는 공군 활주로였던 여의도 공원 내 공군 창설 60주년 상징탑에 도착하는 길을 달리면서 모교와 공군의 역사를 상기하였다.

## 현역 이사기수 간담회 (2024. 4. 25.)

총동창회는 계룡대지역에서 현역 이사기수(38기~51기) 회장단을 초청하여 함께 향적산 무상사까지 걷고 엄사지역 식당에서 간담회 겸 식사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역 이사기수 회장단은 총동창회와 성무안보연구소의 역할과 활동을 이해하며, 동기들에게 잘 전파하기로 하였고, 총동창회에서는 현역 동문들을 격려하며 참여한 동문들 간에 화기애애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 친선 테니스 대회 (2024. 5. 8.)

서울 대방동 용마테니스장에서 19기부터 37기까지 50여 명의 동문들이 참석해 참석자들 간에 자연스럽게 조를 편성하여 운동하면서 선·후배 동문 간의 친선을 다졌다. 이날 이영수 참모총장은 음료수를, 강봉수 항공안전단장은 텐트와 테이블을 지원해 주어 동문들이 편하고 시원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었다.



### 임관기념행사 및 개교 75주년 기념식수 (2024. 6. 1.)



공군사관학교에서 금년에 임관 50주년(22기), 40주년(32기), 30주년(42기), 20주년(52기), 10주년(62기)을 맞이하는 기수와 그 가족들을 위한 임관기념행사를 성대히 개최하였다. 총동창회 회장단은 50주년을 맞이한 22기 동기회에 축하금 500만 원과 기념우표를 전달하였고, 임관기수 회장단과 함께 개교 75주년을 기념하여 단풍나무를 식수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26기 2명, 38기 2명, 42기 2명의 명예졸업증서 수여식도 함께 실시하였다.

### 순직조종사부인회 초청 행사 (2024. 6. 4.)

총동창회 회장단은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순직조종사부인회(순조회) 회원들을 초청하여 오찬을 함께 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총동창회가 마련한 건강식품을 선물하였고, 이계훈(23기) 공군전우회장도 함께 자리하여 순조회에 찬조금을 전달하였다.



### 국립서울현충원 합동 참배 (2024. 6. 5.)

총동창회 회장단은 6월 호국보훈의 날을 맞이하여 공군전우회, 전공상유공자회, 학사장교회 임원 및 회원들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호국영령 및 순국선열, 전몰장병들의 호국정신과 위훈을 기리며 합동 참배하였다.



## 공군사관학교 개교기념 특식 지원 및 동문서가 도서 기증 (2024. 6. 10.)



총동창회 회장단은 모교의 개교 75주년을 기념하여 생도뿐 아니라 사관학교 근무장병 및 군무원 모두에게 특식을 제공하고 생도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특식은 31기 동문인 박재준 삼양화학 회장이 3,500여만 원을 희사하여 이루어졌다. 또한 오후에는 동문들이 발간한 시, 소설, 에세이 등의 인문 서적과 대학교재와 같은 전공 서적 등을 모아 모교 학술정보원에 동문서가와 서적을 기증하고, 공승배 교장과 학술정보원장 등과 함께 기념식을 가졌다.

## 총동창회 명예회원 증서 수여 (2024. 6. 10.)

총동창회 회장단은 모교에서 지난 25년간 모교의 발전과 생도 지원을 아끼지 않은 공군사관학교 발전후원회 이범욱 명예회장과 박종관 사무총장에게 명예회원 증서를 수여하였다. 이들 명예회원은 발전후원회를 창설하여 지역 내 덕망이 높은 학자, 사업가 등 약 25여 명의 회원들과 함께 바쁜 시간을 쪼개어 사관학교 발전과 생도 후원을 위해 기금 마련, 외국수탁생도 후원, 총동창회와 긴밀한 협조 등을 하는데 앞장서 왔다.



## 친선 바둑대회 (2024. 6. 18.)



총동창회는 서울 공군호텔에서 친선 바둑대회를 개최하였다. 8기 동문 2명을 포함하여 47기까지 34명의 바둑애호가들이 모여 개인전 및 복식전으로 나누어 열띤 대국을 펼치며 친목을 다졌다.



### 공군사관학교 발전후원회 초청 행사 (2024. 4. 13. / 6. 29.)

총동창회는 모교 발전후원회 회원들을 초청하여 2차례 골프 모임을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지속적인 모교 사랑을 당부드리며 상호 친선을 도모하였다.



### 격오지 부대방문 (2024. 7. 26.)

총동창회는 전북에 위치한 제 307관제대대를 방문하여 부대장병을 격려하고, 소정의 격려금을 전달하였다. 이준희 부회장 등 임원진 3명은 과거에 비해 비약적으로 발전시킨 모습과 공군 후배들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하였다.



### 친선 당구대회 (2024. 8. 24.)



총동창회는 작년에 이어 친선 당구대회를 개최하였다. 14기부터 35기까지 8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조 추첨을 통해 팀을 구성하고, 3구와 4구로 구분하여 열띤 경기를 펼치면서 선·후배 간 우애를 다졌다.

## 5~10년차 전역 동문 초청 간담회 (2024. 9. 12.)

총동창회는 처음으로 5~10년차 전역 동문을 초청하여 공군호텔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56~67기 전역 동문 100여 명 중 30명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전역하기로 마음먹고 어떻게 사회생활해야 하는지 멘토를 찾았으나 없어서 힘들었다. 앞으로 이런 자리를 통해 비록 일찍 공군을 떠났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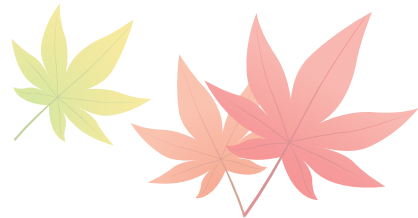
모교와 공군을 잊지않고 성무인으로 자랑스럽게 살겠다.”라고 말했다. 총동창회에서는 이들이 자체적으로 모임을 갖고 발전해 나가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하였다.



## 서울 보라매공원 걷기 행사 (2024. 10. 22.)



총동창회는 모교 자리였던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걷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7기부터 37기까지 250여 명의 동문이 참석하여 약 1시간 가량 보라매공원을 걸으면서 옛 모교를 회상하고, 생도 시절을 떠올리며 즐거운 추억의 시간과 선·후배 간의 친목을 다졌다.



# 총동창회와 함께하는 성무안보연구소

## 청운보육원 후원 방문 (2024. 1. 29.)

성무안보연구소 정석환 이사장은 불우이웃 돕기 일환으로 서울 동작구의 청운보육원을 방문하여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청운보육원은 가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능동적인 자립 지원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시설로서, 4년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 성무장학금 전달 (2024. 6. 27.)

성무안보연구소는 2024년도 성무장학금 수혜자로 신규 6명과 기존 22명을 포함해 총 28명의 동문 유자녀를 선정하고 2,93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하였다. 정석환 이사장은 45기 윤형순 부회장과 함께 45기 고)이진안 동문의 부인을 찾아 장학증서를 수여하고, 위로의 마음을 전하였다.





### (사)성무안보연구소 신임 연구소장 선임 (2024. 7. 1.)

성무안보연구소는 이사회를 열어 2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30기 조보근 박사의 후임으로 부소장인 32기 이종선 박사를 제3대 연구소장으로 선임하였다. 이종선 연구소장은 7월 1일부터 2년간 연구소를 이끌면서 세미나, 학술회의, 연구용역 과제 수주 등 많은 성과를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

### (사)성무안보연구소 제4회 안보학술세미나 개최 (2024. 7. 4.)

성무안보연구소는 서울 공군호텔에서 50명의 공사 생도를 포함하여 250여 명의 군·관·학계 참석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무인 항공우주무기체계 국내·외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이란 주제로 제4회 안보학술세미나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공사 항공우주연구소와 협약 체결 (2024. 10. 8.)

성무안보연구소는 공군사관학교에서 상호 연구협력과 학술교류를 위한 합의를 체결하였다. 이번 상호협력 합의서는 성무안보연구소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연구소와의 협력을 통해 상호 군사과학 및 안보전략과 관련한 정책과 기술을 연구하여 국가안보와 방위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 76기 사관생도 가입교 및 입교식 (2024. 1. 28. / 2. 23.)

공군사관학교 개교 75주년이 되는 2024년 1월 28일 76기 사관생도가 가입교하였다. 이들은 4주간의 군사훈련, 생활교육, 정신력 교육 등의 가입교 훈련을 거치고 2월 23일 정식으로 입교하였다.



76기 가입교(충청매일)



76기 사관생도 입학 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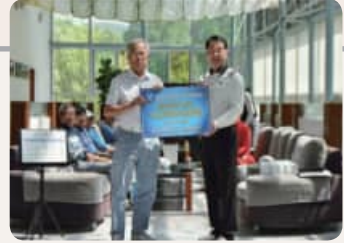
## 72기 사관생도 졸업 및 임관식 (2024. 3. 6.)

72기 사관생도들이 4년간의 학사과정과 군사훈련을 마치고 졸업과 동시에 공군소위로 임관하였다. 특히 76기 사관생도들은 임관과 동시에 총동창회비를 완납하여 동문으로서의 의지를 확고히 보여주었다.



## 공군사관학교 발전후원회 초청 행사 (2024. 4. 27.)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은 발전후원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초청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날 발전후원회에서는 1천만 원의 발전 기금을 공군사관학교에 전달하였다.



## 군사훈련 (2024. 4~5월)

공군사관학교는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4주간 군사훈련을 실시하였다. 첫 주에 기본훈련을 실시한 후에 1학년은 수중생환훈련과 패러글라이딩, 지상생환훈련을 실시하고, 2학년은 유격훈련과 해양생환훈련을 실시하였다. 3학년은 공중생환훈련을 실시하고, 4학년은 학년별로 조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 제1회 충청북도 대학스포츠 동아리 대회 (2024. 5. 18.~19.)

공군사관학교는 충청북도 체육회와 함께 대학생들의 건전한 스포츠 문화를 정착하고 이와 동시에 2027 충청권 하계 세계 대학 경기대회의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자 제1회 충청북도 대학스포츠 동아리 대회를 교내에서 개최하였다. 축구, 농구, 테니스 종목에 15개 대학 45개 팀이 참가하여 5. 18일과 19일 양일간 열띤 경기를 벌여 교류와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 제7회 외국군 졸업생 홈커밍 행사 (2024. 5. 31.)

공군사관학교는 우방국과 지속적인 교류 활성화와 유대감 강화를 위해 공사 졸업 외국군 장교를 대상으로 홈커밍 행사를 실시했다.



### 리더십 심포지움 (2024. 6. 28.)



공군사관학교는 “사관생도 생활 문화 발전을 위한 「자율과 책임」”이란 주제로 생도와 장교(훈육요원, 교수) 간 자유로운 토론으로 상호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리더십을 배양하는 심포지움을 진행하였다.

###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광화문 행진 (2024. 10. 1.)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은 건군 76주년을 기념한 국군의 날 행사의 하나로 오전에는 서울공항에서 기념식을 하고, 오후에는 서울 광화문 시가행진을 하였다.





##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251대대 36년 무사고 비행 (2024. 1. 10.)

제5공중기동비행단 제251비행대대는 36년 무사고 비행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제251대대는 1988년 창설 이후 49,424,406km를 비행하며 연합훈련, 물자·병력 공수, 인도주의적 국제 평화 활동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 이번 기록은 제251비행대대가 창설 이후 단 한 차례의 사고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 제11전투비행단 비수(PISU) 훈련 실시 (2024. 2. 6.)



제11전투비행단은 '비수(PISU: Punish Immediately, punish Strongly, punish Until the end)' 훈련을 실시했다. 'PISU'는 국방부에서 작성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의 영문 표현으로 한글식 발음인 '비수(匕首)'는 적의 심장에 비수를 꽂겠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11전비 F-15K 조종사들은 최신 전술 교리와 공중기동을 반영한 가상 상황 속에서 위기 조치 절차를 숙달하며 다중복합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 코프 노스(Cope North) 훈련 참가 (2024. 2. 3.~16.)

공군은 미국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진행되는 다국적 공군 훈련인 코프 노스(Cope North) 훈련에 참가했다. 한국 공군을 포함한 6개국 훈련 참가국들은 항공의무후송, 인원·화물 공수 등 다양한 훈련을 실시하며 연합작전 능력을 증진했다.



###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 실시 (2023. 3. 8.)



공군은 제10전투비행단에서 압도적인 공군력을 보여 주기 위한 엘리펀트 워크 (Elephant Walk)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에는 F-15K, KF-16, F-16, FA-50, F-5, F-35A 등 33대의 전투기가 참가하였으며, 특히 이번 훈련에는 퇴역을 앞둔 F-4 팬텀기가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 제3전투훈련비행단 제213비행교육대대 25만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 달성 (2024. 4. 23.)

제3훈련비행단 제213비행교육대대는 25만 시간 무사고 비행기록을 달성했다. 이는 공군 창군 이래 단일 비행대대가 수립한 최장 시간 무사고 비행 기록으로, 1983년부터 시작되어 약 40년의 시간에 걸쳐 완성되었다. 제213대대는 비행을 시작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학생조종사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해당 기록은 그 의미를 더했다.



### 서울 AI 허브 개관 및 공군 AI 신기술 융합센터 개소 (2024. 5. 29.)



공군은 서울시와 서초구에서 함께 AI 허브 개관식을 갖고, 공군 AI 신기술 융합센터를 개소하였다. 이날 이영수 참모총장은 축사를 통해 “미래전 핵심인 공군은 오늘 공군 AI 신기술 융합센터 개소를 계기로 민·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AI 기반의 강력한 미래 항공우주력을 건설해 나가겠다”며, “공군의 발전뿐만 아니라 서울시의 행정혁신, 스타트업의 방산 분야 진출 등 민·관·군 상생 발전의 성공적 모델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F-4 팬텀 퇴역식 (2024. 6. 7.)

제10전투비행단에서 지난 55년 동안 대한민국의 영공을 성공적으로 지켜온 F-4 팬텀의 퇴역식이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하에 거행되었다. 이날 마지막 출격을 끝으로 F-4 팬텀은 지난 55년 동안 이어온 대한민국 영공 수호의 사명을 명예롭게 마쳤다.



## 공군 우주작전전대 창설 (2024. 6. 28.)



공군은 우주작전 임무 전반을 담당하는 우주작전대대를 우주작전전대로 확대 개편하고, 오산기지에서 창설식을 가졌다. 우리 공군은 정찰위성 운영 등 우주작전이 날로 중요성을 더해가는 가운데 공군의 우주작전 수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부대 규모를 확대하여 운영하게 된 것이다.

## 호주 피치 블랙 훈련 참가 (2024. 7. 12.~8. 2.)

공군은 호주 다윈(Darwin)기지에서 열리는 대규모 다국적 연합공중훈련인 '2024 피치 블랙(Pitch Black)' 훈련에 참가했다. 이번 훈련은 F-15K 6대와 100여 명의 우리 공군 병력이 참가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발전시켰다. 특히, 이번 훈련에 참가하는 F-15K는 우리 공군의 다목적 급유기 KC-330의 공중급유를 받으며 기적 없이 호주 다윈기지에 도착했다. 이는 우리 공군이 급유를 받으며 무중단 페리(Ferry) 임무를 수행한 최초의 사례이다.





### 야간 수상 수중 전투 탐색구조훈련 (2024. 7. 17.)



제6탐색구조비행전대는 강릉 인근 동해상에서 전술 임무 집중 훈련을 연계한 야간 수상 수중 전투 탐색구조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에는 항공구조사(SART: Special Air Rescue Team) 15명과 HH-47, HH-60 탐색구조헬기 2대가 참가했다.

### 천궁 패트리엇 유도탄 공중수송절차 숙달 훈련 (2024. 8. 22.)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이하 미사일방어사)는 대구기지 활주로에서 패트리엇, 천궁 유도탄을 수송기를 통해 타기지로 운송하는 공중수송절차 숙달 훈련을 실시했다. 공군 군수사령부 예하 제601종합수송지원대대 장병들이 천궁과 패트리엇 유도탄들을 화물운반대(Pallet) 위에 쌓아 C-130J 수송기에 안전하게 적재했다. 이어 C-130J 수송기가 천궁 모의 탄 3발을 싣고 대구기지를 이륙해 목적지인 김해기지로 향했다. 착륙 후 유도탄을 하역하는 것으로 훈련이 종료되었다.



### 공군 군악대 제11회 벨기에 국제군악제 참가 (2024. 10. 5.~6.)

공군 군악대는 벨기에 오스텐데에서 개최된 2024년 국제군악제(Internationale Taptoe België 2024)에 국가 유산진흥원 소속 무용단원들과 함께 참가하여 한국의 K-팝을 행진(Marching) 형식으로 선을 보여 현지관객과 참가국 관계자들을 매료시켰다.



국제군악제에서 연주 장면



군악제 전날 시내 공연 장면



공연 실황





# 사랑으로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사랑으로」부영** -

부영은 더 큰 고객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함은 물론,  
기업 이윤의 사회환원에도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고교·대학교 교육시설 건립 기증



아·태지역 초등학교 교육기부 기증

ENSURING THOSE WE  
SERVE ALWAYS STAY

**AHEAD**  
OF  
**READY**



**LOCKHEED MARTIN** 



오늘을 지키는 기술, 세상을 향한 혁신

GO FORWARD

FOR WORLD

Leading Innovation Group

LIG

## 특집 기고

1. 변화의 시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 공승배(39기) \_ 38
2. 콜롬비아 소개 및 대사로서 임무를 수행 / 이왕근(31기) \_ 41
3. 공군통신장교에서 미 주립대 경영학 교수로 / 권희봉(31기) \_ 46
4. 공군사관학교 중형 아음속 풍동의 탄생 비화 / 장조원(30기) \_ 50
5. 대한민국 공군, 이제는 우주력을 높여야 한다 / 이상률 \_ 58
6. 수고했다 팬텀~~, 그리고 고맙다. / 이형결(32기) \_ 61
7. 만화로 보는 공사 75년 / 문정주(32기) \_ 66





## 변화의 시대,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공승배(39기)  
공군사관학교장

2024년! 공군사관학교 개교 75주년!  
지금 사관학교는 그 어느 때보다 사회·문화적 변화의 속도가 빠른, '대격변의 시대'를 마주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4차 산업혁명, 뉴-스페이스 시대로의 전환 및 지속되는 북한의 안보위협을 비롯해 미·중, 미·러 대립 같은 국제질서의 불안정성 증가, 세대갈등과 군 인권의식 재정립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는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우리 삶의 모습과 가치 기준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그 변화는 국내·국제적 이슈 및 과학기술 발전과 맞물려 국방의 영역은 물론 전 사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 MZ세대 사관생도들, 일명 '요즘 생도들'은 이런 변화의 물결 속에서 성장했다. 개교 75주년, 빛나는 전통을 간직한 채 힘찬 파도처럼 밀려온 시대가 낳은 변화를 수용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우리 공군사관학교는 공군의 백년대계

를 책임질 교육기관으로서 공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정예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인 만큼 공군의 그 어떤 부대보다 시대 변화를 잘 이해하고 미래형 인재를 양성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사관학교는 '요즘 생도들'에게 무슨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시대적 변화를 수용함과 동시에,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사관학교가 지향해야 할 고유의 가치를 내재화한 정예 공군장교를 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75년간 지켜온 사관학교의 빛나는 전통과 사관생도가 지향해야 할 가치는 지켜가면서, 시대적 변화를 수용하고 발맞춰 나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먼저, 변화를 받아들이는 주체인 '사람', '요즘 생도들'을 주목했다. 전통과 변화를 모두 받아들이고 융합할 수 있는 '능동적 리더'야말로 변화 속에서도 사관생

도의 정체성을 갖춘 유연하고 단단한 장교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도들의 생활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사관학교 교육목적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비합리적인 관행은 개선하거나 과감하게 폐지하면서 사관생도들에게 자율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고, 생도 교육·훈련 전반에서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예를 들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연합작전에 대한 이해와 역량 강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인식하여 美8비 견학(1학년), 합동순항 훈련(2학년), 유엔사 후방기지 안보견학(3학년), 괌/하와이 해외항법훈련(4학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고, 4학년 생도들은 연합사/유엔사, 연공구사(공작사/美7공군), 美51비 견학을 통해 한·미 간 지휘·통제·협조 관계 및 美 전력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장교로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관생도들은 ‘국가안보의 주역, 정예 공군 장교’로 성장할 것이다.

또한, 공군사관학교 교육은 과거형이 아니라 ‘미래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실 처음부터 언급하고 있는 ‘변화’는 ‘요즘 생도들’에게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관학교는 생도들이 변화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제반 교육·훈련 인

프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교육훈련체계 구축을 통해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전장환경 변화를 수용하고, 미래의 전 영역 통합작전을 주도할 첨단과학기술군 및 융·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이다. 이에 사관학교는 ‘인공지능학과’를 신설하고 AI관련 기초·필수 지식교육 및 사이버전 관련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더불어,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항공우주 분야가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방혁신 4.0’과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항공우주분야 특성화 교육을 심화·발전시키고 있다. 항공우주분야 민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등 미래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핵심인재 양성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끝으로, 공군사관학교가 국민과 소통하고 지역과 함께할 때 미래에 더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내년이면 1985년 서울 대방동에서 이곳 청주캠퍼스로 이전하여 뿌리를 내린지 40년이 된다. 공군사관학교의 75년 역사 중 청주캠퍼스에서의 역사가 50% 이상을 차지하게 되었지만, 공사는 서울도 청주도 아닌, 여전히 청원군에 있는 느낌을 받는다. 공사가 청주시에 상주한 지 꽤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소외된 것은 우리의 관심 부족과 청주시 지역에서의 역할이 적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함께가면 더 멀리



간다'는 말이 있듯이, 변화의 시대에서 미래를 보다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소통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소통', '상생'이라는 키워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현재, 국민·지역과의 소통·상생 협력은 학교장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일 것이다. 이에 작은 것부터 천천히 국민·지역과의 접점을 늘리고 소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개인적인 욕심일 수 있겠으나, 사관생도들이 아름다운 청춘을 바친 이곳 청주를 '제2의 고향'으로 여기고, 좋은 추억과 인연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요약하면, 공군사관학교는 4차 산업혁명과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 등 시대적 변화를 수용함과 동시에 시대의 변화와 무관하게 사관학교가 지향해야 할 고유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능동적 리더 양성', '첨단과학기술 기반 교육훈련체계 구축', '국민·지역과의 소통'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의 중심에는 우리가 끝까지 지켜야 할 가치

를 구별해 내고 그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사람', '사관생도와 교육관계관'이 있다. '사람이 곧 미래', '사관생도가 곧 공군의 미래'라는 신념으로 미래 대한민국의 하늘과 우주를 책임질 전문성과 경쟁력을 갖춘 '국가안보의 주역'을 양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교육이란 본래, 인재양성을 통해 다음 시대를 개척하는 험난한 도전의 연속임을 잘 알고 있다. 변화에 도전하는 것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개교 75주년이야말로 향후 100년, 그 이후를 고민해야 할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불확실한 앞날에 대처하는 최선의 방법은 스스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공군사관학교는 지난 75년간 선배 전우들이 쌓아온 빛나는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는 가운데, '공군의 미래는 사관학교가 만들어 나간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공사 개교 100주년 그리고 그 이후'를 향해 힘차게 도약할 것이다. ➔

# 콜롬비아 소개 및 대사로서 임무를 수행



이왕근(31기)  
콜롬비아 대사

## 1. 콜롬비아 대사로 임명

22년 8월 말 상부로부터 콜롬비아의 대사직을 제의받았다.

머나먼 나라 콜롬비아 대사?

순간 매우 당황하여 어떤 결정을 해야 할지 즉답을 하지 못했다.

해외에서 생활을 해본 경험이 없던 터라 과연 대사직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간 군에서 많은 부대를 지휘, 군사외교 경험 등 대사직 임무수행을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추었다고 생각하며, 많은 생각과 고민 끝에 국가를 위한 마지막 봉사라는 생각과 해외에서 첫 생활이라는 커다란 도전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실제로 대사직을 수행하기 위한 준비기간인 두 달 남짓 동안 공관장 교육, 콜롬비아 탐구, 여권 신청 및 발급, 서반어 수강, 해외이사준비, 모친과 자녀 그리고 손주들, 지인들과의 이별의 시간 등 매우 바쁜 준비기간을 보냈다.

드디어 12월 26일 대통령으로부터 신임장을 받고 29일 콜롬비아로 출국하였다.

인천에서 애틀랜타를 경유하여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까지 26시간 10분이란 시간이 걸린 길고 긴 여정이었다. 29일 아침에 출국했지만 시차 14시간을 포함하여 콜롬비아 시간으로 29일 밤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에 도착하였다.

30일 주콜롬비아 한국대사관에 첫 출근을 하였다. 매우 바쁜 준비 과정과 이곳에 온 긴 여정, 낮과 밤이 바뀐 시차 등으로 힘든 시간을 안고 첫 일과를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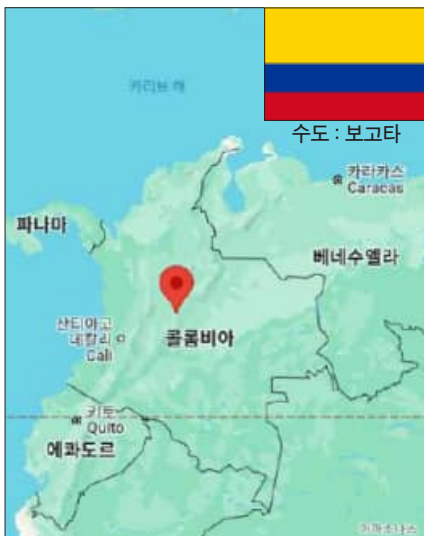
## 2. 콜롬비아는 어떤 나라?

### 가. 콜롬비아의 역사

콜롬비아는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비슷하게 스페인 식민 지배를 통해 근대 역사를 맞이했다. 1499년 최초의 스페인 탐험대가 콜롬비아에 도착한 이래, 1538년 보고타에 근거지를 세우고 식민지를 확장하여 1717년 현재의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파나마를 포함하는 지역에 대규모 스페인 식민국가를 건설하고 보고타를 통치하는 수도로 정하였다. 이후 스페인의 국력이 쇠퇴하면서 19세기 초 식민지에서도 독립의 기운이 싹트기 시작했다. 콜롬비아는 1810년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여 독립군을 이끌었던 시몬 볼리바르 장군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으나, 이후 정치적 갈등과 반목으로 인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가 분리 독립하고 1903년 파나마가 미국의 지원으로 독립하면서 콜롬비아는 현재의 국경을 형성하게 되었다.

20세기 들어서도 콜롬비아의 역사는 평탄치 못했다. 콜롬비아는 19세기 말부터 1960년까지 정당 간 경쟁이 과격화되면서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유혈사태가 지속되었다. 게다가, 1960년대 초반에는 무장혁명군(FARC), 국민해방군(ELN)과 같은 좌익계열 세력이 농촌벽지를 근거지로 세력을 키워나갔고, 여기에 우익민병대의 등장과 마약 카르텔, 테러 등의 확산으로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화되고 치안이 악화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리베 대통령(2002-2010), 산토스 대통령(2010-2018)을 거치면서 콜롬비아 정부는 우익민병대 및 마약·테러단체들과의 평화협상을 개

시하여, 마침내 2016년에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FARC)은 평화협정에 합의하여 무장혁명군 소속 계렬라 6,800여 명은 무기를 반납하고 민간 사회로 복귀하는 역사적 전기를 맞는다. 아울러 최근 국민해방군(ELN)과의 평화협정도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완전한 평화” 달성에 큰 성과를 이루고 있으나, 아직도 마약과 연계된 그 일부 잔당들이 정부를 어렵게 하고 있다.



### 나. 콜롬비아의 지리와 주요 도시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 및 페루에 이어 5번째로 큰 영토를 가지고 있으며, 북서쪽으로 파나마, 동쪽으로 베네수엘라, 남동쪽으로 브라질, 남쪽으로 페루, 에콰도르와 국경을 공유하고 있고, 남미에서 유일하게 태평양과 카리브해를 동시에 접하고 있는 나라다. 국토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11배이며, 인구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약 5천만여 명으로 수도인 보고타는 정치, 행정의 중심지로 인구는 약 900만 명에 육박하고, 볼리비아 라파스와 에콰도르 키토 다음으로 세계에서 3번째로 높은 해발 2,640m의 고원분지에 위치한 수도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백두산 높이 2,750m와 비교해보면 거의 백두산 높이에 도시가 형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콜롬비아 제 2의 도시 메데진은 인구 약 350만 명으로 경제, 산업 등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메데진의 케이블카는 도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메데인의 아름다운 도시 경관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곳이다. 하지만 실상은 산악지형에 거주하는 빈민가 주민들이 도심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2004년에 건설된 세계 최초의 대중교통 케이블카이다. 또한 메데진의 코무나13지역은 과거 마약왕 파블로 에스코바르가 이 지역을 기반으로 온갖 불법을 저지르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관광지로 개발되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관광 명소로 변모하였다.

북부 카리브해에 위치한 항구도시인 카르타헤나는 콜롬비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양도시 중 하나로, 스페인 식민지 시대의 수많은 수도원과 교회, 역사적인 건물, 박물관 등으로 유명한 곳이다. 산 펠리페 요새라 불리는 해안을 방어하는 성이나 구시가지의 오래된 성당 등에서 과거 카르타헤나의 영광을 짐작해 볼 수 있었다. 23년 9월에는 한국의 해군사관생도가 포함된 순항훈련전대가 이곳 카르타헤나를 방문하여 한국 해군의 위용을 과시하였으며 콜롬비아 해군과 유대를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 다. 콜롬비아의 정치

콜롬비아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삼권분립에 입각한 대통령 중심제이고, 지방 자치가 발달해 있으며 각 지역에 관한 사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해 결정하고 있다.

국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로, 상·하원 의원 모두 4년 임기에 직접투표로 선출하며, 의석수는 상원 108석, 하원 172석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원은 전국단위로 선출되며, 하원은 33개 지역구에서 선출된다는 차이가 있다. 콜롬비아의 정당은 15개가 넘는 군소정당이 난립하는 형태이며 이 중 여당이라 할 수 있는 좌파연합 역시 상원 20명, 하원 28명으로 의회의 다수당이 되기엔 역부족으로 주로 정치성향이 비슷한 정당들 간 연립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22년 8월 취임한 페트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에 장관들이 반대하고 있다며 연정 종료를 선언하고 취임 1년여 만에 9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등 독자 노선을 추구하고 있으며, 23년 말에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장(주시사, 시장 및 시의원) 선거에서 참패하는 등 향후 정국의 향방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 라. 콜롬비아의 경제

콜롬비아는 2023년 기준 명목 GDP 3,653억 불, 1인당 국민소득 7,044불로, 중남미에서 브라질, 멕시코, 아르헨티나에 이어 4번째로 큰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다. 콜롬비아 경제는 주로 석유·광업, 농업 등 1차 산업이 경제의 근간을 형성하고 있다. 석유 생산 세계 18위, 석탄 11위, 니켈 13위, 금 22위, 에메랄드 2위 등 광물·에너지 부국인 콜롬비아에서 광업은 콜롬비아 수출의 21%를 차지할 만큼 국가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콜롬비아는 남미국가 중 코카인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다.

또한, 콜롬비아는 세계 2위의 화훼 수출국으로 주로 미국, 캐나다 등에 수출하고 있고, 커피는 세계 3위 생산국으로 콜롬비아산 아라비카 커피는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로의 커피, 화훼 수출도 증가 추세에 있는데, 커피는 2023년 수입액 기준으로 브라질에 이어 2위(약 1.5억 불)를 차지했고, 화훼도 연간 2천 7백만 불 이상 수입하고 있으며, 한국 카네이션의 80%정도가 콜롬비아산이라고 추정된다.



### 마. 한국과의 관계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한국전 참전국으로써 당시 콜롬비아는 5,062명의 병력을 파견하였으며, 이중 214명이 전사 또는 실종되었고 610명이 부상을 입었다. 1951년 11월 1일 카르타헤나 항구에서 구축함 알미란테 파디아(Almirante Padilla)호가 한국전 참전 군인들을 태우고 출항한 것을 기념한 콜롬비아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가 2008년 11월 1일에 이곳에 세워졌다.

양국 간의 무역 규모는 '23년 기준 대 콜롬비아 수출 7.4억 불, 수입 10.7억 불로, 우리는 승용차, 석유화학, 중장비 등을 주로 수출하고, 콜롬비아로부터는 무연탄, 구리, 니켈 등 광물과 커피를 주로 수입하고 있다.

콜롬비아에는 2023년 말 기준 700여 명의 우리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 이 중 약 80%는 수도 보고타에 거주하면서 주로 의류 수입 및 도·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커피 수출 등 여러 분야로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현재 동포들은 보고타시 의류 전문 도·소매상가인 산안드레시토 시장에서 전체 상가의 15%를 차지하는 40여 개의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도 한류 붐은 대단하여 대사관에서는 지난해 7월에 콜롬비아 K팝 페스티벌을 성대하게 치루었으며, 올 6월에는 국기원의 태권도 순회 공연팀이 콜롬비아를 방문하여 한국의 태권도를 알리는 기회뿐 아니라 참전용사 위로행사에서 멋진 공연을 통해 많은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외에도 K뷰티의 대표라 할 수 있는 화장품, 세계최고 기술의 핸드폰, 자동차 등 한국 제품에 콜롬비아 인들은 열광하고 있다.

### 3. 맺음말

군사 전문가로 자부하는 대사로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콜롬비아 공군의 경공격기(T-50/FA-50) 도입을 포함한 각 군의 전력증강 사업이다.

콜롬비아는 아직도 반군이나 마약과 연계된 반정부세력이 상존하여 치안불안, 정부정책 추진 제한 등 국가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서 T-50/FA-50은 국가안전 보장 차원에서 매우 효과적인 공중전력이라 생각하며 콜롬비아 주요 국방 직위자들을 수시로 만나 조언을 하고 있다.

콜롬비아 지난 정부에서 T-50/FA-50 도입 사업이 많은 진전을 이루었지만 현 정부 들어 정책의 우선이 민생과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T-50/FA-50 도입사업은 현재는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상태이다. 대사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T-50/FA-50 도입사업이 재개되기를 기대해 보며, 재임기간 동안 국익증진과 재외국민 보호라는 대사관의 주요 임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2024년 2월 14일 한국 방위사업청과 콜롬비아 군 감항당국 간에 군용항공기 감항인증 상호인정 체결 보도 장면(KBS 경남 TV)





## 공군통신장교에서 미 주립대 경영학 교수로



권희봉(31기)  
미 콜로라도 주립대  
경영학과 교수

콜로라도,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다. 여름이 한창인 칠월의 콜로라도는 높푸른 하늘과 청명한 날씨 덕분에 옛적 고향 마을의 가을 정취마저 느끼게 한다. 특히, 내가 살고 있는 콜로라도 스프링스(Colorado Springs)는 미국 내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곳이기도 하다. 나의 하루는 40마일 떨어진 일터로의 드라이브로 시작된다. 한 시간 남짓 걸리는 거리지만 좌우에 펼쳐진 푸른 들판과 높은 산들은 내가 즐기는 일상의 풍광이 되었고, 특히 북미 방공사령부(NORAD) 등이 위치한 Cheyenne Mountain을 바라볼때면 마치 현역 시절 계룡대 출근길이 연상되곤 한다.

나는 현재 미 콜로라도 주립대(Colorado State University-Pueblo) 경영학과 종신 교수(Professor of Managementtenured)로 재직하고 있다. 한국을 떠난 지 20여 년, 적지 않은 시간이 어느새 지났다. 공군통신장교에서 미 주립대

비즈니스 스쿨 교수로 신분이 바뀌었으니 일면 많은 변화가 있었음은 분명한 것 같다. 나는 1983년 임관 후 참으로 다양한 직책을 거치며 많은 경험을 쌓게 되었다. 특히, 작사 근무 시 미 7공군과의 연합 통신 업무와 격오지라 불리던 일월산(당시 통상 호칭) 대대장 역임 그리고 국방부 정책 부서 근무 등은 지금도 많은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또한, 현역 시절 우리 공군의 배려로 미국에서 전자공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는 혜택도 입었다. 그러던 중, 군 생활 21년이 되던 2004년, 나는 많은 추억과 아쉬움을 뒤로한 채 중령 계급을 끝으로 명예 퇴직하였다.

개인적으로 변화를 도모하던 시기 -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새로운 일이 무엇이 있을까 스스로 자문하고 번민하던 때였다. 그러던 차에, 미국 내 경영학 교수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접하게 되었고 오래전 생도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다. 공허한

회상일 수 있으나 당시 고교 문과 출신이었던 내게 가장 큰 아쉬움은 사관학교내에 인문사회계통의 전공이 없었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라, 그야말로 So, what? 이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 줄기 가능성과 현실의 무게 사이에서 고민하는 나를 발견하였다. 내 나이 40중반에 아들은 고2, 딸은 중1이었다. 내 삶의 도전과 가장으로서의 책임 사이에 놓여진 그야말로 양단에 걸친 인생의 난제(life's conundrum) 그 자체였다. 그러나 아내의 전폭적인(100%) 지지에 힘입어 새로운 도전을 감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아이들은 막연한 호기심과 기대감에 의해 아빠의 결정을 따라주었다. 그 해 12월, 실낱같은 희망을 안고 워싱턴주 시애틀로 신속히 향하였고 이제 막 참된 도전이 시작되었다. 시애틀 인근 대학의 비즈니스 스쿨에 방문 연구원(Visiting Scholar) 자격으로 오게 되었지만, 체류 신분만 주어졌을 뿐 고용 관계는 아니었기에 인컴은 전무하였다. 실제로 비즈니스 전공자가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흔한 말로, 맨땅에 헤딩해야 할 상황으로 이제는 모든 것이 리셋되어야만 했다. 곧바로 유학생 신분으로 전환, 경영학 석사(MBA) 부터 다시 시작하였다. 아내는 살고 있는 동네의 한국 애기들을 돌보고 홈스테이 등을 하면서 살림을 꾸려가게 되었고 헌신적으로 뒷바라지 해주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런 건강 문제로 아내가 큰 수술을 치르면서 미국

생활 중 가장 큰 시련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 상태에서 기약도 없는 공부를 해야하는가? 안하면, 어찌 할 것인가? 참으로 맞닥뜨린 현실 앞에서 가야 할 바를 모르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러나, 나의 미국 행 티켓은 원 웨이였고 당장 취할 액션은 그대로 직진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도 아내의 건강은 회복되었고 모든 상황을 굳건히 감내하며 용기의 말을 잃지 않았다.

MBA가 거의 끝나갈 무렵, 비록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진짜 고민이 시작되었다. MBA가 나를 비즈니스 교수로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차마 답을 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었다. 그렇다면, 경영학 박사 학위까지 끝을 보아야 하는가? 요원한 문제였다. 고민이 깊어가던 중, 한 줄기 빛과 같은 공고가 눈에 띄었다. 비즈니스 스쿨 인증 및 평가 기관(일명, AACSB)에서 공인하는 박사 후 과정(Post doc.)이 나와 같은 타 분야 전공자(Non-Business Ph.D.)들을 대상으로 처음 개설된다는 것이었다. 이는 비즈니스 스쿨에서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공식 부여하는 것으로서 놓칠 수 없는 천금같은 기회였다. 망설임 없이 바로 신청함과 아울러 교수 채용 공고가 난 거의 모든 학교에 절실한 심정으로 그러나 많은 기대없이 이력서를 제출하였다. 2008년 초 어느 날, University of Toledo 개설 운영 관리(Operations Management) Post doc. 과정 입학 앞둔 내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웨스트 버지니아(West Virginia) 시골의 작은



학교에서 내게 관심이 있다는 내용이였다. 유일하게 주어진 기회,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일이었다. 미국 내 교수 채용 과정이 그렇듯 전화 인터뷰를 통과하고 실제 클래스에서 강의를 보여주어야만 하는 참으로 긴장되는 상황의 연속이었다. 동양인이 아예 없던 시골 학교,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학생들과 강의 참관 하던 교수들; 이 날, Country 가수 John Denver가 무척이나 고맙게 느껴지는 하루였다. 그의 노래, Take me home, country road와 한국의 노래방이 분위기 전환(icebreaking) 역할을 톡톡히 해주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2008년 가을, 3년 여의 우여 곡절 끝에 미국 경영학 교수로서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다.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품질 인증을 추진하던 이 학교에서 내 이력서에 기재된 Post doc. 계획(봄/여름) 한 줄과 공군 장교로서의 실무 경험을 높이 평가해 주었다. 이 후, 첫 기회가 주어진 만큼, 성실히 가르치며 부지런히 연구 실적을 쌓는 일이야말로 내 스스로 감당할 몫이었고 나를 열심히 하였다. 메인 캠퍼스와 분교를 오가며 거의 매일 한두 시간 웨스트 버지니아의 아름다운 시골 길(country road)을 누볐다. 많은 스토리 가운데, 2010년 여름 이 곳 학생 10여명을 인솔하여 강원대학교 글로벌 캠프에 참여한 것은 내게도 잊지 못할 보람된 일이었다, 한국 전통 문화 체험과 DMZ 방문 등은 이 들 학생들에게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경험이 되었으리라 본

다. 참으로 순수한 웨스트 버지니아 학생들과의 만남이었다. 몇 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이 학교는 앞서 언급한 인증 추진을 포기하였고 더 이상의 Post doc. 과정도 존재하지 않는다. 아마도 내가 그 프로그램의 유일한 수혜자가 아닐까 싶다.

2012년 가을, 나뉘의 변화와 발전을 목표로 현재 근무 중인 콜로라도 주립대로 옮겼다. 그 후 10년 넘도록 이 곳에 있으니 군 시절 잦은 이사에 익숙한 나로서는 참으로 통련하고 있는 셈이다. 이 곳에 온 이후 연구에 매진하며 일정 성과를 거두는 가운데 이전 학교의 경력까지 모두 인정 받아 2014년 종신(tenured) 교수에 임용되었다. 강의 외에 지속적인 연구 활동은 초기에 참으로 생소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연구 주제로 고민할 즈음, 옛날 전자공학 전공 시절 신 기술로 선보이던 인공지능 분야를 공부했던 기억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하여 초기 단계인 비즈니스 분야 응용에 초점을 맞(초점을 맞추며)추며 여러 편의 학술 논문을 저술하게 되었고 공로를 인정받아 최우수 교수상과 연구상을 몇 차례 수상하게 되었다. 현역 시절의 경험과 오래 전 덮어 두었던 타 전공 등이 모두 접목되는 참으로 아이러니한 케이스가 연출되었다. 흔치 않은 사례일 수 있으나, 수많은 선배님들께서 많은 본을 보이시고 새로운 길을 여셨던 것처럼, 나는 이 곳 콜로라도에서 인생 2막(2nd Act)을 펼치고 있다. 지난 시간을 통하여 깨닫는 바, 어제 없는 오늘이 있을



수 없고, 다만 다가올 내일은 우리 경험의 틀과 관념에 가두어 둘 필요는 없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벤치마크(Benchmark) 대신 프론티어를 높여 봐야 하지 않을까 (Pushing the Frontier)?

공군 장교로서의 21년의 삶 그리고 미국 교수로의 전환과 새로운 여정 20여 년- 삶의 외양은 바뀐 듯 하나 나의 identity는 변할 수 없음을 항상 깨닫는다. 미국에 살면서 많은 선후배들을 만났다. 2008년 처음 교수가 되어 웨스트 버지니아로 떠나기 전, 당시 보잉사에 파견 중이던 27기 김영만 대령 등 많은 선후배들의 따뜻한 환송 모임은 잊을 수가 없다. 모두 보고픈 얼굴들이다. 이 곳에서도 많은 후배들을 만난다. 미 공군사관학교에 교환 교수로 다녀가는 후배들과의 만남이 소중하게 여겨진다. 더욱이, 금년 가을 사관학교 교수인 53기 후배를 우리 학교로 초청하여 함께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으니 이 또한 아주 기대되는 기쁜 일이다. 나의 identity는 분명 성무인, 특히 공사 31기 한돌 멤버인 것이다. 우리 학교에 공군 팬이 한 명있다. 같은 과 교수이자 나와 동갑인 브래드(Dr. Brad Gilbreath,

사진 왼편), 요즘 말로 나의 베프인 그는 그의 아버지를 아주 자랑스러워한다. 냉전 시절 40,000 ft 소비에트 상공(Cold War Skies)을 누비던 RB-47의 조종사이자 예비역 대령이었던 그의 부친; 브래드의 오피스에는 조종복 차림의 부친과 크루를 담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놓여 있다. 스스로를 Air Force Kid라 칭하는 내 베프 브래드, 그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단다: “Hooray for South Korea, America, and NATO!” - Brad.

나는 참으로 공군에 빚진 마음이 있다. 오늘의 나와 우리 가족이 누리는 이 곳에서의 삶은 공군에서의 소중한 경험과 성숙의 시간 그리고 성무인으로서의 자부심이 밑받침이 되었다고 분명 말할 수 있다. 어린 나이에 부모의 결정으로 미국에 살게 된 아이들도 이미 장성하였다. 고2였던 아들은 화가이자 미대 교수가 되었고 철 없던 딸 아이는 비즈니스 전공 후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고 있으며 어느 덧 애 엄마가 되었다. 2024년 7월 오늘도 청명한 콜로라도의 아침, 잠시 생각해 본다. 나이 정년이 없는 미국 학교 그리고 앞에 놓인 시간들... 이제는 ‘무엇’보다는 ‘어떻게’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 오늘이 있기까지, 나의 노력으로 감당할 수 없던 상황마다 놓여진 징검 다리- 내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도움과 감사가 여기에 있다. 나 또한, 알 수 없는 누군가가 디딜 돌 하나 놓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공사 31기 한돌 멤버로서 말이다. ➡





## 공군사관학교 중형 아음속 풍동의 탄생 비화



장조원(30기)

### 들어가는 말

필자는 1982년 사관학교 졸업 후 교육 특기를 받고 대전 교육사 신병교육대대에 근무하다 공사 항공공학과 교수요원으로 선발됐다. 서울대 대학원 항공우주공학과 석사과정 2년을 마친 후, 1986년 1월부터 공사 교수부에 근무하기 시작했다. 1997년 3월 중령으로 예편할 때까지 사관학교에서 생도교육과 연구, 겸직에 따른 행정업무를 수행했다.

항공우주공학 중에서도 항공역학(풍동실험) 분야를 전공한 필자는 항공역학의 핵심 장비인 풍동(Wind tunnel, 인공적인 바람을 통과시켜 비행체에 작용하는 제반 현상을 관찰하고 측정하는 실험장치)에 대한 애착이 남달랐다. 필자가 석사과정 시절 서울대 풍동실험실에서 연구할 때도 풍동이 가동되는 소리가 들리면 비행기 소리를 듣는 것처럼 가슴이 뭉클했다. 필자는 공사 항공공학과(후 항공우주공학과로 개칭)에도 우수한 풍동 시설을 갖춰 최고의 교육 및 연구 기관으로 만들고 싶었다. 마침내 그 꿈은 이루어졌고 모교인 공사 항공우주공학과가 세계 최고의 교육기관에도 뒤지지 않는 교육 및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다. 1999년 공군사관학교 내에 완공된 아음속 풍동시설의 탄생과정과 비화를 성무지를 통해 동문과 함께 공유하고자 한다.

### '86~'88년 항공공학 육성 방안 작성

정확한 날짜는 기억나지 않지만 1986년 어느 날 정갑순 학과장(공사 22기)께서 불러 내일까지 항공공학과 발전계획을 작성해 오라고 하셨다. 강의를 마치고 우선 학과 선배 교수님들을 찾아다니면서 학과발전계획에 대한 의견을 들은 후 숙소에서 밤을 새워 학과 장기

발전계획을 작성해 다음 날 보고 드렸다. 보고서 주요 내용은 국내 최대 아음속 풍동 설치, 석사과정의 신설, 장기 교수(연구원) 확보, 항공우주과학연구소의 기능 강화 등과 함께 건의 사항으로 국내 최대 아음속 풍동 설치를 위한 예산(581만 5천 달러, 비슷한 규모의 풍동 가격 참조)을 지원해달라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를 토대로 1986년 10월에 국내 최대 풍동의 도입 필요성과 이에 따른 부속 장비와 편제, 예산 등 항공공학 육성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서를 작성했다. 핵심 내용은 시험부(또는 측정부) 크기가 3×4m로 국내 최대 규모이고 유질(Flow quality)이 좋은 아음속 풍동을 건설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공군사관학교에는 1976년에 3천만 원으로 제작한 시험부 크기 0.9×0.9m의 소형 아음속 풍동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때의 소형 풍동은 시험부 크기가 작아 높은 받음각 특성, 실속 및 스핀 특성, 전투기 1/5 축소모델 시험 등 생도교육 및 실험을 할 수 없었다. 이와 같은 항공공학 육성방안 보고서는 '87년도 졸업식 행사 때 대통령께 보고되면서 사관학교 장기발전계획의 일부가 됐다.

1987년 공사 35기 졸업식장에 오신 대통령께 학교장이 항공공학 육성방안을 보고하자 당시 대통령은 “항공분야 특성상 공군은 이 분야의 발전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하여야 하며, 공군사관학교는 항공공학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연구 및 교육 기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공사는 항공공학 분야 전문 인력을 양성과 연구역량을 갖추는 항공공학 발전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당시 학과 내에서는 새로운 풍동을 초음속 풍동 또는 수직 풍동으로 설치하자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지만, 가장 활용도가 높은 대형 아음속 풍동을 건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설치 예정인 대형 아음속 풍동은 미국에서 분류한 자료(NASA RP 1132)를 참고하니 A(초대형), B(대형), C(중형), D(소형) 중에서 C급 풍동이라 중형 아음속 풍동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과학연구소는 1987년에 상부 지시사항(특) 추진계획(공군 인사교 제4671호, '87. 10)을 보고했다. 주된 내용은 시험부 크기 3×4m의 중형 아음속 풍동 건설(추정 예산, 131억 원), 연구원 편제 인가, 연구소와 풍동 건물(추정 예산, 17.9억) 등이었다.

1988년 공사 36기 졸업식에서도 대통령께 항공공학 육성방안을 보고하자 당시 대통령께서는 “항공우주과학연구소 지속발전 강조”란 상부지시사항(특)을 지시했다. 그렇지만 국방부 예산안 심의 회의에서 국방부 훈령 제245호(무기체계 및 연구개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군사관학교는 무기개발 관련 장비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고 결정됐다. 공사는 생도 교육용 장비 예산(연 3억 규모) 내에서만 장비를 확보할 수 있으므로 아음속 풍동 건설 계획은 완전히 무산됐다.



## '89년 미국 아음속 풍동 연수와 '90년 중형 풍동에 관한 국고연구

1989년 초, 같은 과의 손명환 교수(공사 25기)는 자신의 미국 공군사관학교 연수계획을 필자보고 대신 가라고 제안하셨다. 풍동 건설에 아쉬움이 많았던 필자는 미 공사 대신 중형 아음속 풍동이 있는 미국 대학에 가서 풍동실험 경험을 얻고 싶었다. 중형 아음속 풍동이 있는 워싱턴 대학, 메릴랜드 대학, 미시간 대학 등에 방문학자를 지원했다. 메릴랜드 대학의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이자 글렌 엘 마틴 풍동 책임자인 발로우(J. B. Barlow) 교수로부터 초청장을 받았다. 필자는 중형 풍동 설치와 관련된 해외 연수보고서를 작성해 공사를 거쳐 공본 승인을 받았다. 그래서 '89년 9월부터 워싱턴 D.C. 근교의 메릴랜드 대학에서 6개월 동안 중형 풍동실험을 경험할 수 있었다. 미국에서 지내던 중에 에어로랩(Aerolab)을 방문해 타이완의 AIDC 아음속 풍동 관련 자료를 구하기도 했다.

1990년 3월 귀국 후 글렌 엘 마틴 풍동에서 경험한 실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공사 아음속 풍동 설치 사전 분석서를 작성했다. 또 사관학교 자체 연구비(국고연구)로 중형 아음속 풍동을 설계하겠다는 연구계획서를 손명환 교수와 함께 작성했다. 이 과제를 통해 확보한 풍동 자료와 타이완 AIDC 풍동 규모를 참고하여 설치 풍동의 시험부 크기를 2.45×3.5m로 결정했다. '91년 3월에는 국고연구 보고서 “중형 아음속 풍동의 개념적 설계”를 작성함으로써 자체 설계 능력을 보였다. 이 보고서를 기반으로 풍동 구성품의 제원과 성능, 개념 설계도 및 요구 성능, 풍동 건설 공정상의 흐름도 등을 논문으로 작성해 공사 논문집(제 31집, 1992년)에 게재했다.

## '93년도 아음속 풍동 예산 반영과 풍동건설사업단 구성

필자는 학과 선후배 교수진과 함께 풍동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에 낙담하지 않고 여러 각도로 차근차근 준비해온 국방중기계획(풍동)을 1993년도 신규 예산(안)에 신청했다. 다행히 아음속 풍동 설치 예산은 공군본부와 국방부 정책회의를 통과하고,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어 12월엔 국회 심의까지 통과했다. '93년도 첫째 예산 계획은 설계 용역비, 지반 조사비, 해외 출장비 등을 요구했으나, 다른 예산은 모두 삭감되고 풍동설계 용역비(1.1억 원)만 확정됐다.

1993년도 예산에 풍동 사업이 확정되자, '92년 12월에 강민수(공사 9기) 교장님께 아음속 풍동 설치 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고했다. '93년 1월에는 교수부장을 풍동건설사업단장으로 하는 사업단을 구성했다. 필자 역시 사업단에 소속되어 설계용역 기본설계를 위한 입찰요청서(RFP)를 작성했다. 입찰요청서는 기본 요구사항, 입찰자의 자격 요건, 설계 항목, 풍동 건물, 건설비용 산출, 전기 시설, 제2시험부, 부속 장비 등 아음속 풍동 기본설계

를 수행하는 내용이었다. 외부기관의 전문가와 학과 내 선배 교수님들로부터 조언을 받으면서 2월에는 “공사 아음속 풍동 설치 사업(교수 제92호)”을 작성해 상부에 보고했다. 핵심 내용은 풍동 조감도를 포함한 기본설계에 대한 영문 입찰요청서(RFP)였다. 93년도에 기본설계용역(1단계)을 계약하고, 풍동 부지를 선정하며, 세부설계(2단계), 시공(3단계), 풍동시험 및 인수(4단계) 등 풍동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일정계획도 포함됐다. 기본설계에 이은 94년도 2~4단계의 본 계약은 풍동 전문업체가 일괄 수주하여 수행하는 턴키방식(Turn key, 모든 설비가 완벽하게 가동되는 상태로 인도하도록 설계시공 일괄계약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 ’93년 풍동 기본설계 계약과 기술검토

입찰요청서를 기반으로 국방조달본부(현 방위사업청)는 1993년 9월에 풍동 기본설계에 대한 입찰공고(DLA-93010)를 냈다. 당시 필자는 입찰내용을 기술 검토하기 위해 풍동과 관련된 연구소들을 찾아다니며 입찰에 참여한 해외업체들의 풍동설계와 시공 능력에 대한 정보를 얻기도 했다. ’93년 12월 국방조달본부는 미국의 스버드럽(SVT, Sverdrup Technology)사와 기본설계 계약(KFX DLA-33AR08549)을 체결했다.

SVT사와 기본설계 계약에 따라 필자는 기본설계검증(PER)을 위해 2번에 걸쳐 미국 현지 출장을 다녀왔다. 94년 1월, 1차 PER을 위해 이순태 문관(풍동실험 담당 기술군무원)과 함께 테네시주 톨라호마에 있는 SVT사 현지로 출국했다. 이때 방문 교수로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 근무하던 손명환 교수는 현지 합류하여 기술검토에 참여해 주셨다. ’94년 3월의 2차 PER은 허원욱 교수(공사 20기), 정형석 교수(공사 37기) 등과 함께 SVT사 현지에서 최종 기본설계검증을 수행했다. SVT사의 KAFA 프로젝트 매니저인 러츠(R. L. Lutz)가 5월에 기본설계 최종 보고서를 한국에서 발표하기로 하기로 하고 귀국했다. 94년 5월 러츠가 공사 강당에서 최종 기본설계를 발표하고, 8월에 풍동 기본설계서가 완성되면서 기본설계 계약도 마무리됐다.

풍동의 상세설계 및 시공은 기본설계 계약과 분리되어 있어 SVT사가 아닌 다른 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이는 기본설계로 풍동 도입 항목을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그 후에 해외업체들끼리 본 계약을 경쟁시켜 예산을 절감하자는 의도였다. 이때 시설 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했던 풍동 건물은 시설감실 측에서 교육 장비이니 교육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해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 '94년 턴키방식(상세설계, 시공, 시험 및 인수) 계약

기본설계를 마치고 1994년도 상세설계 및 시공계약을 위해 예산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항공우주연구원(KARI, '99년 준공)과 국방과학연구소(ADD, '98년 준공) 등도 아음속 풍동 건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국회의원 중 한 분은 항공우주연구소 풍동과 예산 중복이라며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필자는 바로 의원실로 찾아가 공사 풍동은 생도들에게 높은 받음각과 실속현상을 체험시킬 수 있는 장비로 전투기 손실을 예방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는 요지로 설명했다. 또 KARI나 ADD와 비교하여 대학교육 기관인 공군사관학교 특성상 대학이나 기업체 연구소 등 외부기관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기도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1994년 본 계약을 위해 필자는 시험부 유질, 제어기기 및 자료 획득 장치, 선/스노우 실드, 피라미드식 밸런스(힘과 모멘트 측정 장비), 절충교역 프로그램 등 나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품목을 포함한 본 계약 입찰요청서를 작성했다. 풍동 도입은 주문 제작이라 어떤 항목들을 포함하느냐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달라진다. 일단은 풍동시험을 위해 빠진 기본 항목이 없는가를 일일이 점검하고, 일반 계약조건에 대해서도 다른 계약서를 참고하여 작성했다. 기본 장비와 향후 추가할 수 있는 항목, 그리고 장비 검사와 교육 등을 포함한 영문 입찰요청서를 작성하고 나니 1천 500쪽이나 되는 책자로 2권이나 됐다.

입찰요청서를 본 국방조달본부 담당자는 방대한 입찰요청서 2권을 10부 복사할 시간도 없고, 공개하고 계약하기에는 너무 일정이 촉박하다며 연내에 계약 체결이 어렵다고 했다. 그래서 필자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입찰요청서 10부를 충북대 근처의 복사실에서 밤새워 복사해 국방조달본부에 전달했다. 우여곡절 속에 94년 10월 21일 한국경제신문에 외자구매 입찰공고가 게재되었고, 캐나다 아이올로스(Aiolos), 미국 SVT사 등 해외업체가 입찰에 참여했다.

필자는 12월 17일 용산 국방조달본부에서 직접 가서 기술검토를 했다. 국방조달본부는 기술검토를 근거로 가격 협상(7.46% 절감)한 후 기본설계를 담당했던 미국의 SVT사를 선정했다. 드디어 12월 30일 조달본부 국제장비 계약팀은 SVT사와 1,199만 달러에 턴키방식으로 계약(KFX DLA-43RA08657)을 체결했다. 아슬아슬했던 '94년 한 해가 저물어 가고 '95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멋진 풍동이 도입된다고 생각하니 하늘로 날아갈 것만 같았다. 더군다나 '94년도 발표된 교육특기 중령 진급 예정자에도 포함됐다.

## '95년 아음속 풍동 상세설계 및 풍동건물 예산

SVT사와 턴키방식의 본 계약을 체결한 이후 '95년 초에 아음속 풍동 설치부지를 검토하기 위해 학교 내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다. 대략 1,200평 정도의 건물부지와 수전시설, 주

차장 등이 필요했다. 필자는 당시 미국의 공군 시스템 사령부(AFSC)와 같은 공군 자체의 연구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넓은 부지를 찾아봤다. 다양한 연구부서 건물이 들어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아음속 풍동 위치를 선정해 풍동 부지 보고서 초안을 작성했다.

'95년 5월 필자는 상세설계 30% 완료에 따른 기술검토와 중형 풍동 견학을 위해 공본 교육처와 시설감실 요원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게 됐다. 이때 공본 해외 출장 요원이 늦게 결정되는 바람에 출국일까지 미국 비자를 받기 어려웠지만, 국방부, 외교부, 대사관 등을 직접 문서를 들고 찾아가 해결했다. 현지 출장 가서 지반조사, 풍동 시험부와 건물의 인터페이스 부분, 수전시설, 캣워크(Catwalk) 등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었다. 필자는 출장 기간에 시설감실 요원들에게 동안정성 밸런스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풍동 건물을 지을 때 시험부 위치에 깊은 피트(Pit)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득했다. 풍동 시험부가 설치된 후에는 피트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당시 동안정 미세수 추출을 위한 스팅 밸런스를 구매할 예산은 없었지만, 차후 도입을 염두에 두고 피트를 만들었다.

풍동 연구동 건물의 설계용역 예산이 다행히 시설예산으로 반영되어 '95년 6월 경인종합건축과 기초공사와 풍동 연구동 건물 설계가 계약됐다. 그 이후 풍동부지 보고(초안)를 근거로 종합계획 보고를 통해 풍동 위치가 결정되고, '95년 12월에는 풍동설치 시기와 맞춘 풍동건물 시설공사 계약이 (주)대림산업과 체결됐다.

## '95년~'99년 상세설계, 풍동 건설 및 검증

'95년 후반부터는 풍동 건설과 관련된 업무는 학과 요원(강치형 교수 공사 23기, 백승욱 교수 공사 29기, 정형석 교수, 이순태 문관 등)을 주축으로 상세설계 기술검토(미국 톨라호마), 팬과 밸런스 검사(독일 터보루프트 테크닉, 영국 에어로텍), 시험부 및 수축부 풍동 회로 검사(주)신한기공, 충북 청원), 모터 및 제어 장비 검사(미국 Robicon사) 등이 이뤄졌다.

SVT사는 '96년 4월 풍동 상세설계 완료하고,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국내업체인 (주)신한기공을 선정하여 풍동 회로 제작 및 설치공사를 시작했다. (주)신한기공은 풍동 연구동 건설과 인터페이스 되는 부분을 조율하여 풍동회로 공사를 '98년 1월에 완료했다. 그 후 SVT사는 풍동 시험부 정렬을 조사하고, 시험부 유속 측정 센서를 장착해 시험부 유질 및 성능 실험을 준비했다. 시험부 경계층 제거장치와 제2시험부는 SVT사에서 상세설계만 했으며, 제작은 별도의 예산으로 국내업체와 계약을 추진했다. 초기 SVT사와의 본 계약 가격을 낮추고, 외화 절감 차원이었다. 경계층 제거장치는 서원풍력이 '98년 11월, 제2시험부는 동아기업이 '99년 11월에 제작을 완료했다.



1998년 8월부터 1999년 10월까지 1년을 넘게 SVT사 엔지니어는 아음속 풍동의 성능을 검증하는 시험을 수행했다. '99년 1월 스버드럽 엔지니어가 시험부 유질 실험을 수행하던 중, 풍동 회로의 열교환기 냉각수가 동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99년 7월에 열교환기를 다시 설치한 후 유질 성능시험을 진행했다.

풍동 시험부의 유질은 풍동 설치의 성공 여부를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다. 필자는 턴키방식으로 계약할 당시 전 세계 유명한 풍동 시험부 수준에 맞는 유질 조건을 제시했다. 시험부 유질은 95% 신뢰도 수준( $2\sigma$ )에서 오차를 해석하고, SVT사가 자체 시험을 해서 결과를 제출하라고 계약했다. 또 아음속 풍동의 시험부 캘리브레이션 결과를 미국 항공우주학회(AIAA)에 논문으로 발표해야 하는 조건을 본 계약서에 포함했다. AIAA 논문은 95% 신뢰도 수준의 오차 해석을 포함하지 않으면 심사조차 하지 않고 거절된다.

SVT사의 풍동 시험부 유질 및 성능 결과는 목표치에 도달해 '99년 10월 풍동 준공식을 거행하고 풍동 건설사업을 끝낼 수 있었다. SVT사의 엔지니어들은 2000년도에 공사 풍동의 유질 조사 결과를 AIAA Paper 2000-0290에 발표했다. 필자는 절충교역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SVT사가 공사 항공공학과에 동안정 미계수 추출 기법을 기술이전하는 계약조항을 포함했다. 이에 따른 연구 결과는 2000년 한국항공우주학회지(제28권 5호) 등 다수의 논문이 게재됐다.

### 중형 아음속 풍동에서의 연구 수행 결과

풍동이 한창 건설 중이던 '97년 3월, 필자는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고민 끝에 공군을 떠났다. 전역 후 KAIST에서 학위논문에 집중한 결과를 미국 항공우주학회 저널(AIAA Journal)에 게재해 '99년 2월에는 항공우주공학 박사학위를 받을 수 있었다.



교육용 전투기 모델이 장착된 시험부



공사 풍동과 연구동 모습

'99년 10월에 중형 아음속 풍동 준공식을 마친 후부터는 풍동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했다. 완성된 풍동은 전 생도들에게 KF-16 전투기의 높은 받음각과 실속현상을 체험 시키고, 항공우주공학과 생도에게는 교과목(항공공학실험)을 위한 교육 장비로 활용되고 있다. 또 공사 교수진은 “델타형 날개 실험”, “전투기 무장분리 실험”, “무인전투기 실험”, “동안정성 실험” 등 많은 연구를 수행해 일류대학 교수 못지않은 연구역량을 갖게 됐다. 그 결과 손명환 교수(항공우주학회 학술상, 2003년), 윤용현 교수(공사 25기, 항공우주학회 미연학술상, 2007년), 조환기 교수(공사 31기, 항공운항학회 특별학술상, 2018년), 정형석 교수(KAI 최우수논문 지도 특별상, 2018년) 등은 풍동실험 연구업적과 관련된 학술상을 받았다.

고가의 중형 풍동을 보유한 대학은 없으므로 많은 대학과 기업체, 일반 연구소 등에서 공사 풍동을 자주 이용하고 있다. 모교인 공군사관학교가 아음속 풍동을 보유해 국내 항공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필자는 2002년 한국항공대학교에 부임하여 근무하던 중 2011년 국방과학연구소 KFX 탐색개발연구센터에서 공고한 “전투기 Internal Weapons Bay Door 개폐에 따른 공력특성” 연구 과제를 수주했다. 이러한 KF-21 풍동실험 과제를 수행하면서 공사 아음속 풍동을 처음으로 사용했다. 공사 항공공학과에 근무할 때 10여 년 동안 애정을 쏟았던 중형 풍동으로 실험을 하니 감개무량했다.

## 맺는말

1986년 1월 공사 교수부에 부임한 후 중형 아음속 풍동을 도입하기 위해 열정을 갖고 뛰었던 생각이 아직도 어제 일처럼 생생하다. 밤을 꼬박 새워 발전계획을 짜던 일, 일부 사비를 써가며 서울과 계룡대, 해외를 왔다 갔다 하던 일, 기본설계 발표회 때 러츠(R.L. Lutz)에게 발표 잘하라고 겁을 주던 일, 미국 비자를 받기 위해 국방부, 외교부, 대사관 등을 뛰어다녔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숙소에서 밤을 새워 작성한 항공공학과 장기발전계획(석사과정과 아음속 풍동)이 이뤄지는 과정을 보니, 꿈을 갖고 미래를 위한 걸음씩 나아가면 모든 것이 이뤄진다는 것을 실감했다.

공사 아음속 풍동은 국방 분야에서 항공기, 유도무기 등의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험장비다. 현재 공사 풍동은 6개월 단위로 시험 계획을 수립하며, 외부 기관 실험을 포함해 대부분 일정이 꽉 차있다고 한다. 공사 풍동이 생도교육과 항공우주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공사 교수진이 아음속 풍동실험에 있어 독보적인 존재가 되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끝으로 공군사관학교 중형 아음속 풍동이라는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성된 데에는 공사 항공우주공학과, 공본 교육처, 시설감실 등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을 남기며 글을 마친다. ▶





## 대한민국 공군, 이제는 우주력을 높여야 한다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공군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으로 우리나라의 영공을 수호하고 있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영공은 국제법상 개별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으로 구성되는 영역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영공은 대기권으로 한정하고 있고 외기권은 국가 소유를 인정하지 않는 우주의 영역이지만 경계를 어디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쟁의 여지가 있다.

대한민국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창군이 되어 올해로 75주년을 맞이한다. 대한민국 공군도 시작은 매우 열악하여 창군 초기인 1950년에는 국민의 성금으로 구매한 최초의 비행기로 ‘건국기(建國機)’로 명명한 T-6 훈련기를 6·25전쟁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1969년에는 당시로는 최첨단 기종인 미국의 다목적 전폭기 팬텀 F-4D를 도입하면서 ‘전략공군’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현재 우리나라

공군은 KF-16 등 4세대 전투기, 5세대 전투기 F-35A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인 KF-21을 도입 계획 중이며, KF-21에 활용할 수 있는 국산 엔진 개발 계획도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우리 공군은 공중 급유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도 보유하고 뛰어난 역량을 자랑하고 있다.

사실 공군력은 20세기 초, 처음으로 항공기가 등장하고 전쟁에 사용되기 시작하여 제1차 세계 대전을 거치며 발전의 기점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제2차 세계 대전과 냉전 시기를 거치면서 급격히 발전하여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현대전에서 공군은 공중 우세 확보, 정밀 타격, 정보 수집 및 감시, 병력 및 물자 수송, 전자전 등의 핵심적인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방계획은 한반도 안보 환경과 군사적 요구에 따라 한반도 및 주변 지

역, 해양과 공중에서의 방어와 공격 능력 확보, 현대전에서 점점 중요해지는 사이버 전쟁과 우주공간에서의 경쟁을 포괄하고 있다.

특히, 우주는 우주공간 자체가 독립적인 전장이면서 동시에 위성통신, 위성항법, 감시·정찰위성 등 우주기술을 통하여 하늘, 바다, 육지, 사이버 전장에 필수적인 인프라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 즉, 우주기술을 바탕으로 위성 네트워크 구축, 우주 감시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을 강화할 수 있고 이는 미래 전장에서 주도권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인공지능과 결합한 우주기술을 활용해 정밀 타격 능력, 실시간 정보 공유, 군사 작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우주정보 지원, 우주영역 인식, 우주통제, 우주전략 투사와 관련된 우주기술은 이제 대한민국 국방계획에서 단순한 지원 역할을 넘어, 국가안보와 자주국방의 핵심 요소로서 자리잡고 있으며 우주기술의 발전은 전장에서의 우위를 제공하고, 한반도와 주변 지역의 안보를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상업용 항공기의 경우 10km 내외의 고도에서 비행하지만, 전투기의 경우 운용고도는 약 20km 내외까지도 가능하다. 이 이상의 고도에서는 고고도 무인항공기(UAV)나 성층권 태양광 무인기, 고고

도 장기체공 비행체(HALE), 고고도 기구, 준궤도 우주비행체 등을 운용을 고려할 수 있다. 인공위성의 경우 통상적으로 약 450km 이상의 고도에서 운용된다.

지금까지는 고고도 비행체와 통상적인 공위성 운용고도 사이의 영역은 적절한 비행체가 없었거나 매우 제한적이었다. 최근 우주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지구 표면에서 150~300km 정도의 고도에서 운영되는 초저고도 지구 저궤도(VLEO)위성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초저고도 위성은 상대적으로 더 작은 크기의 센서로도 고해상도의 지상 이미지를 촬영할 수 있으며 더 자주 지구의 특정 지역을 관측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시간에 가까운 정보 제공이 가능하며, 이는 특히 재난 대응이나 긴급 상황에서 중요하다. 또한, 지상과 위성 간의 거리가 짧아 통신 지연 시간이 극히 작고 이는 군사통신, 인터넷 서비스, IoT(사물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고속 통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초저고도 위성의 소형화 및 경량화 기술이 발전하면서, 위성 발사 및 운영 비용은 더욱 낮아질 것이다.

미래에는 초저고도 위성군이 확대되어 전 세계를 커버하는 네트워크가 구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술 혁신으로 위성의 수명이 연장되고 우주와 지상의 융합 시스템이 발전할 것으로 예측된다. 초저고도 위성은 군사적 정찰, 실시간 전장 감시,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에서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다. 특히, 초저고도 위성의 빠른 재배치와 빈번한 관측 능력은 전장 상황 인식에 매우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다양한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대지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도 보유하고 있으며, 공중방어 시스템의 K-방산 수출도 달성하였다. 앞서 언급한 우주기술의 중요성, 초저고도 위성의 미래 전망을 염두에 둔다면 신속 대응과 기동성을 고려하여 공군에서는 전투기를 활용한 초소형위성 공중발사 시스템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면 좋겠다. 이러한 기술을 확보한다면, 군사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사용된 러시아의 극초음속 미사일 ‘킨잘’ 같은 공중발사 탄도미사일(ALBM)이나 위성공격용 무기(ASAT) 기술 등과도 연계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은 우주개발 선진국보다 30년 이상 늦게 시작하였지만, 현재는 선진국 수준의 실용급 저궤도 및 정지궤도 위성 개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성공, 한국 최초 달탐사선 다누리 성공 등에 힘입어 세계 7대 우주 강국으로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2024년 5월 27일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서 보다 큰 도약을 위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우주개발 시대가 열렸다.

대한민국 공군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영공을 수호해 왔지만, 앞으로 우주공간에서의 역할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대한민국 공군은 새로운 우주개발 시대에 우주로도 비상하며 우주력을 높여야 한다. “전설을 넘어, 미래로”, “하늘을 넘어, 우주로” 대한민국 공군 항공우주력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 ✈



## 수고했다 팬텀~~, 그리고 고맙다.



이형걸(32기)

지난 2024. 6. 7일 금요일 전철을 타고 수원기지에 갔다. 세류역에서 내려 부대로 향하는 여러 사람과 같이 면회실로 갔다. 하늘은 더없이 푸르렀다. 입구에서 초청장을 제시하고 들어갔다. 차량들이 분주하게 지나가고, 부대 장병들은 안내하고 질서 유지에 바쁘게 움직였다. 초청장에 써 있는 “영웅의 해피엔딩, 전설을 넘어 미래로” 문구가 내 가슴 속으로 들어왔다. 팬텀 퇴역식이다. 행사는 경건과 웅장과 감동이 처음과 끝을 이어갔다.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최종 비행 명령을 받고 임무를 완수한 팬텀 전투기가 행사장까지 택싱해서 들어왔다. 그리고 엔진을 켜고 오프 했다. 팬텀은 이날 전역장을 받았다. 행사 일정 중 공군 전 장병을 대신하여 노선배님은 팬텀에게 그간의 노고를 치하했고, 먼저 하늘로 떠난 조종사와 팬텀에게 안식의 말을 남겼다. 팬텀과 이별을 아쉬워하는 노선배님의 말씀에 모두가 가슴이 울컥했다.

퇴역은 전역이 아니라 완전 은퇴다. 이럴 때 “수고했다. 참, 수고했다. 그리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도 그럴 것이 55년 동안 현직에서 일을 했다. 55년간 임무 수행, 존경스럽다. 팬텀은 쉬어야 할 때가 지났다고 생각한다.



팬텀 퇴역식 초청장



퇴역식 현장에서 만난 예비역 조종사와 팬텀 기념 티셔츠





팬텀은 미국에서 태어났다. 워낙 튼튼하고 용맹스럽고 강력해서 여러 나라에서 활동했다. 그중 대한민국에서 오랫동안, 너무 오랫동안 영공수호자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했다. F-4D는 1969년에 도입됐고, F-4E, RF-4C는 1977년, 1989년부터 각각 도입됐다. 나는 1980년 공군사관학교에 들어와서 2015년 퇴직했다. 나보다 먼저 공군에 들어왔고, 나보다 늦은 나이에 퇴역했다.



5057번째 마지막으로 생산된 F-4E 전투기는 한국 공군에 도입됐다고 한다. (이성형 동문 공사총동창회 밴드 댓글에서 사진/글 퍼옴)



▲ 대한민국 최초의 F-4D 팬텀 전투기 모습(1969년 8월 29일). 우리가 첫 도입한 팬텀의 기종은 D형이다. 이후 E형도 추가도입해 오늘날 까지 운용한다. ©공군

1969년 8월 29일 대구기지 도입식 장면

국군의 장비는 모두 세금으로 구매한다. 팬텀은 세금 말고, 국민이 직접 모은 돈으로 사 온 특별한 전투기가 있다. 1975년 ‘필승 편대’로 명명된 5대의 F-4D다. 국민의 성금으로 도입한 항공기는 필승 편대가 두 번째다. 첫 번째는 1950년, 6.25전쟁이 일어나기 전, 캐나다에서 사 온 T-6 ‘건국기’다. 서울 대방동 성무대 시절, 3병동 점호장 앞에 1대가 전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기억난다. 메추리 시절, 우리는 점호장 주변의 잡초 제거가 주임무였으며, 건국기 날개는 우리의 휴식처였다. 팬텀은 60년대 말에서 70년대까지 영공수호의 절박한 상황에서 T-6 건국기처럼 국민의 손길에서 국민의 마음이 낳은 전투기였다. 1968년 무장공비 청와대 기습,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북, 삼척울진 무장공비 침투, 1969년 주일 미해군 정찰기 EC-121M 피격, 1974년 휴전선 남침 땅굴 발견, 1976년 판문점 도끼만행사건, 그리고, 1978년 최은희신상옥 납치 사건 등 거기에 1975년 베트남 공산화까지. 당시 북한의 대남 도발이 얼마나 극심했고 안보는 얼마나 불안했는가. 당시 팬텀의 우렁찬 폭음 소리는 먼 옛날 신라 시대, 피리 소리로 적병을 물러가게 했다는 만파식적(萬波息笛)과 같다.

내가 팬텀과 인연을 맺은 시기는 갓 소령을 달고 청주기지에서 정훈실장으로 근무할 때다. 청주기지는 정문에서 단본부까지 직진 도로가 인상적이다. 도로 양옆으로 키 큰 메타



팬텀의 차단작전 임무수행 비행 모습



팬텀의 별명, 스푸크 도깨비를 캐릭터로 그려낸 다양한 마크들(공군본부 자료집에서 퍼옴.)

세쿼이아 가로수와 오리 호수가 지금도 눈에 선하다. 단장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셨고, 작전과장님과 대대장님들은 좀 간간했다(?). 어깨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자부심이였다. 이유는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미사일 AGM-142를 운용하는 최강 전투비행단이었으니까. 그래서 외부 손님도 빈번했고, 방송 출연도 있었고, 문화행사도 많았다. 비행 스케줄이 빠듯해서, 이런 업무가 정훈실장으로서는 꽤 부담스러운데, 안전관실장님이 음양으로 지원해 주셨다. 작전과의 눈총 화살을 커버해 주신 것이다. 문화예능을 좋아하시는 그 안전관실장님을 우리는 방송국장님으로 모셨다.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식사라도 한번 대접해 드리고 싶다.

그런데 삶에 나이트가 쌓이면 굴곡이 있듯이, 팬텀을 장기 운영하면서 우여곡절이 생겼다. 위풍당당한 무적의 팬텀도 나이 들면서, 어쩔 수 없이 노화가 진행됐다. 팬텀은 공대지 공대공 다목적 전투기로, 대북 우위의 전력을 유지해야 하는 우리 안보 여건상, 그만큼 출격 빈도가 높았다. 비행시간에 비례해서 라식도 하고, 임플란트도 하고, 관절도 바꿔야 했다. 이럴 때 조종, 군수 분야를 비롯하여 정책 부서 등 숨은 노고가 보통은 아녘을 것 같다. 팬텀 비행단장에게 물어봤다. 그는 “오랫동안 팬텀을 운영하다 보니 T.O에 나와 있는 비상절차가 자주 일어났다. 그러다 보니 비상 상황조차 평상시 사례로 여겨졌고, T.O에도 없는 사례가 발생해야 ‘이건 좀 비상 상황이야’라고 생각했다.”고 얘기했다. 웬지 가슴이 찡하다.

우리가 몸이 이상하다 싶으면, 병원에 자주 가서 검진하고 치료받는다. 건강을 유지하는 첫걸음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다. 항공기는 예방 점검이다. 기체 점검 항목이 늘어나고 정비 시간도 계속 늘어난다. 팬텀의 정비 시간이 늘어나니까 정비사의 업무량도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정비뿐이겠는가. 미국 생산 라인도 끝나서 수리 부속이 없을 때는 군수



2007년 3월, 17전비 팬텀기 3천 대 정비 기념 기사 (연합뉴스 퍼옴)



17전비 정비사 워크카드 해설집과 정비사 모습 (월간공군 2007년 9월호 퍼옴)

분야 담당관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갔을 것이다. 미국은 기본이고, 영국, 이스라엘, 이란, 호주, 일본 등 각국의 무관과 함께 필요한 부품을 찾는데, 온 신경을 써야 한다. 속칭 ‘엄마 찾아 3만 리’가 아니라, 부품 찾아 3만 리가 아니었을까.

팬텀은 퇴역하기 전, 자신이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비행해 왔던 조국의 하늘을 순례했다. 수원기지를 이륙하여, 평택 험프리스 캠프, 평택당진항, 천안 성환 비상활주로와 독립기념관 상공을 지나 동해로 향했다. 구소련의 TU-16, TU-95, 핵잠수함을 식별 차단했던 동해의 해안선을 따라 남쪽으로 포항, 울산, 거제를 지나 대구기지에 도착했다. 대구기지는 수원 팬텀의 친정이자, 고향이다. 여기에서 ‘집밥’을 먹고 휴식한 다음, 남해를 돌아 지난 세월을 회고하듯 비행했다.

남해에서는 여수, 고흥, 소흑산도를 지났다. 1971년 소흑산도에 출현한 북 간첩선을 격침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조국 순례를 마쳤다. 그리고 남해에서는 신예 KF-21 전투기가 동



방위성금헌납기로 재현한 팬텀기가 국토 고별 순례 비행하는 모습



팬텀 국토순례비행 때 남해에서 KF-21 신예기가 동행했다.

행했다.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바통을 이어받듯이 이렇게 노병은 떠나고 새로운 주역이 등장한다.

하지만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이제 공군에서 현역으로 하늘을 나는 팬텀을 볼 수 없게 됐다. 라스트 찬스에서 맥시멈 파워를 넣고 활주로를 달릴 때 가슴이 터질 듯한 폭음을 들을 수는 없다. 아쉬움에 그동안 전국 방방곡곡에 나가 있던 지상의 팬텀을 만나봤다.



충남 계룡시 입구에 우뚝 솟아있는 팬텀기, 블랙이글 도장을 입힌 게 특이하다.



서울 대방동 보라매공원에 있는 팬텀기

첫 번째는, 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시 입구에 하늘로 솟구치는 팬텀을 만났다. 3군 본부를 지키는 금강역사(金剛力士)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공군사관학교의 옛터인 서울 대방동 보라매공원의 팬텀도 만났다. 적에게 전율을 느끼게 했던 팬텀의 넓고 우직한 날개는 시민에게 안위와 휴식을 준다.

전통과 역사는 계승된다. 새로운 주역이, 떠나는 영웅에게 존경과 감사의 경례를 전할 때, 팬텀과의 이별을 아쉬워하셨던 노선배님도 이제는 안심하실 것이다. 도깨비처럼 등장하여 평화를 지키고 미래를 약속했던 우리의 팬텀. 언젠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사라지겠지만, 영공수호의 전설로 남아 무궁토록 영원할 것이다. 팬텀, 포에버~ ✈





# 민화와로 보는 공사 75년

MOON 지성우 2024



문정주(32기)



# 3군사관학교 체육대회 그리고 2023년 야구 시작

● 1954. 10. 20  
제1회 대회(전해)

- 80.90  
년대  
우승권항
- 32회(85년)  
종합우승
- 35회(88년)  
종합우승
- 40회(93년)  
종합우승

※ 87년  
부터  
상호방문  
순회.

애들아!  
이것 놓아. 다칠라.

백살 육사!  
경침해사!  
필승공사!!

※ 2003년부터 포제지 (군내 사조적 근절)

● 2023. 11. 4 야구  
(공사 우승, 태능 육사 야구장)





# 공사교훈



이승만  
**武勇**  
知德勇

1954.3.1  
3.1절 맞아  
이승만 대통령  
친필 (무용기 기원)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1968. 12.20  
성도회관  
공사

1966. 3.25  
자.덕.용. 4.11 박정  
희 대통령 친필  
11.16 교훈으로 향정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1970. 2.10 정부 한글 전용과 제2차 교훈 바꾸기



# 성무대 명명과 성무탑



星武台

☆ 1966. 4. 11 (성무대)  
제 4기 임관 10주년  
기념 박정희 대통령  
명명

☆ 1966. 12. 20 (성무탑)  
제 15~18기 졸업사업으로  
건립 (지반적 모름)

☆ 1986. 3. 30 (성무탑)  
청주(청원) 캠퍼스에  
1.2 배 크기로 추가 건립





# 3군사관학교 최초 여자사관생도 입학 및 졸업(임관)... 현재

★1997. 2. 22 제49기 여자사관생도 19명 입학  
 ★2002. 9. 26 최초 전투기 조종사 3명, 수송기 조종사 2명 배출  
 ★2022년 3명 대령 지급자 선발  
 조만간... 비행단장  
 ★2011. 3. 20 제49기 여자사관생도!! 18명 졸업  
 동학동지!! 임관!!

# 외국 사관생도 교육

- 1994년 태국생도 1명 입교 시작.  
 - (대상국) 태국, 일본, 필리핀, 튀르키예, 몽골, 베트남, 알제리, 파라과이, 이라크, 아제르바이잔, 미국(단기)

(인원) 2024년 정규 670명, 단기 200명, 재학생 210명  
 태국 73기 파호  
 필리핀 76기 안드레





# 생도 훈련기

한번에 정대하라!!

T-41

1972.3.27~  
2006.11.8



T-103

2004.7.5~  
2018.4.17



KT-100

2016.5.11~

현재 운용중

# 우주로!!

☆ 2020.2.4  
공사천문대

천체투영관 개관

☆ 2015.3.24

공사천문대 개관

☆ 20.11.17 인공위성 운영실습실 완공



# 공사 기념물





# 공사 상징 (마하수리!!!)

## A-테쉬

에이 테쉬  
에이 테쉬 Go  
공사 공사 테쉬 테쉬  
테  
화이팅 공사 헤이 공사야!!

독~수리 독~수리 슬어 슬어 슬어  
슬어 수리 수리 마하수리 사악  
무적공사 필승공사 헤이 헤이 헤이야!!

## 독수리 구호!!!

독~수리 독~수리 슬어 슬어 슬어  
슬어 사악  
슬어 멍쳐 멍쳐  
사리 이겨  
이겨  
아기



# 포에버 공군사관학교!!



# 공사이행 유래

(공사 5이년사) 공사가 진해캠퍼스로 이전한 후 당시 부교장이었던 김득봉 중령이 공사실행 (호士十행) 초안을 만들고 무관 교수 이흥기씨가 보인

공사실행을 준수함을 최대의 명예로 삼는다!!



(구설) 1951년 5월 공사가 지리산도 모듬도에서 진해캠퍼스로 이전한 후 당시 학교장직을 맡고 계시던 최용덕 장군께서 공사 교육 이념과 사관 생도 훈육 지침을 제정할 필요성을 느끼시고 교가를 작사하시던 이어서 사관생도의 생활규범으로 공사실행을 제정

번외기훈  
지성 미모 하라  
지성 미모 하라







# 응의단정하라!!



# 청결견백하라!!



# 성심부끄로 하자!!



# 책임완수로 하자!!





# 신의일관 하라!!



# 공평무사 하라!!



# 힘착과감 하라!!



# 신상필벌 하라!!







# 술선수범 하라!!



# 은유검비 하라!!



C-390 밀레니엄

# 탁월한 성능, 최신에 다목적 수송기

## 대한민국과 함께하는 C-390 밀레니엄 다목적 수송기

한국은 2024년에 C-390 밀레니엄을 차세대 수송기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수의 한국 업체가 C-390 밀레니엄 수송기 생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C-390 밀레니엄 수송기는 빠르게(470노트) 비행할 수 있으며 멀리 갈 수 있고, 많은 화물(26톤)을 운반할 수 있으며, 터보팬 엔진(2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최적화된 변환 키트를 사용하여 의료 후송, 산불 진압, 공중 감습, 화물 운송, 수색 및 구조 등 다양한 임무를 준비를 신속하게 할 수 있으며, 자체 방어 시스템과 방탄 장갑을 장착하여 고위협 상황하에서도 운영 능력을 극대화합니다.

민간 및 군의 감항인증을 획득한 C-390 밀레니엄 수송기는 브라질, 헝가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한국 등이 선택하였습니다. 한국의 영공을 비행하는 C-390 밀레니엄을 기대하며, 한국과 함께하는 최고의 수송기가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C390UnbeatableCombination  
[embraerds.com](http://embraerds.com)



← EMBRAER

CHALLENGE.  
CREATE.  
OUTPERFORM.



# MACAO

다채로운 매력의 도시, 마카오

대한항공 마카오 매일 운항

동양과 서양의 매력을 모두 느낄 수 있는 아시아의 작은 유럽

**KOREAN AIR** 

[www.koreanair.com](http://www.koreanair.com)

# 함께해요! 공군, 응원합니다!

1. 꿈은 만들어 가는 것! / 영화배우 채시라 \_ 82
2. 화성 우주작전,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 김민석 \_ 85
3. 위용을 떨치는 대한민국 공군... '공군인' 자부심을 갖자 / 김귀근 \_ 89
4. 동상의 의미 / 양낙규 \_ 91
5. 격오지 부대 - 의상봉 방공관제대대 방문후기 / 김종명(31기) \_ 93
6.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과의 소중한 인연 그리고 기대 / 송기훈(해사 37기) \_ 96



# 꿈은 만들어 가는 것!



영화배우 채시라

♪ 그것이 끝이라고 우린 믿지 않았지~  
너 떠난 텅빈 활주로에 쏟아지던 너의 목  
소리~ 뽀뽀

93년 MBC에서 방영된 16부작 미니시  
리즈 <파일럿>의 주제곡이다.

당시 대한민국 최초의 항공 드라마로  
전에는 드라마에서 볼 수 없었던 파일럿이  
란 이색적인 직업을 다루어 46.2%라는 시  
청률을 기록하고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이 드라마로 인해 많은 사람들  
이 파일럿과 항공기에 관심이 많아졌고,  
그로 인해 항공대 지원 입시 경쟁률이 폭  
발적으로 높아졌으며, 공군사관학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이 드라마에서 나는 에어버스 수석 실  
내 인테리어 디자이너 노혜란 역을 맡아

프랑스 툴루즈의 에어버스 본사에서 로케  
이션까지 했었다.

안 그래도 외국어를 좋아했던 나는,  
고2 때 제2외국어로 프랑스어를 배웠던  
그 장점을 살리고자 작가님께 프랑스어  
분량을 더 늘려주십사 당부했고, 그 덕에  
열네 시간이 훌쩍 넘는 프랑스로 날아가  
는 비행기 안에서 최수종 씨를 비롯한 다  
른 배우들은 편안하게 별 부담 없이 비행  
을 했지만, 난 갑자기 늘어난 프랑스어 대  
사들을 줄줄이 암기하느라 단어와 문장들  
을 쓰면서 발음기호들을 보고 입으로 중  
얼거리며 계속 암기해야 하는 스스로가  
원한 고충과 고통 속에 있어야 했다.

그러면서도 난, 내가 프랑스어를 유창  
하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하는 모습이  
방송됐을 때 시청자들의 반응을 그려보며

기대감과 설렘에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아프도록 외우고 외우고, 또 외웠다.

저녁 기내식 후 비행기 실내의 조명이 다 꺼지고 모두가 취침을 하는 시간에도, 나 홀로 한 줄기 빛의 독서 등을 켜고 프랑스어 사전을 펼쳐 단어를 찾아 뜻을 쓰고 입에 붙도록 계속 중얼거리면서 암기하는 내 모습이, 그 자체로 드라마의 한 장면이라 생각될 정도로 지금도 그때 그 모습이 카메라의 시선으로 고스란히 내 뇌리에 찍혀 있다. 이렇듯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드라마의 한 장면에도 그 장면을 담기 위한 전초전은 생각보다 지루하고 지남한 과정이고, 그 과정은 필수다.

이 글을 쓰는 지금 생각나는 분이 있다. 남편 김태욱 씨의 인생 멘토이자 친형님이었다 해도 이보다 더 가까이 모실 수 없는 고등학교 선배님이 계신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이시고 명예졸업을 하셨으며 현재까지도 공군사관학교에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분, 바로 박재준 회장님이 그분이다. 물론 나 또한 무척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시다.

2008년 5월 30일 박재준 회장님의 명예졸업식에 내빈으로 초청받아 생도들의 능글한 사열 모습을 참관하며 영광스러웠던 남편이 올해 6월 10일 공군사관학교 개교기념일에도 초청받아 그곳에서 생활하는 생도들의 방을 본 것 같은데, 정렬

된 옷들과 정돈된 물건들을 보고 크게 감동받아 사진을 찍어와 아들인 둘째에게 보여주며 꼭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강조에 강조를 거듭했다. 특히 방 한켠에 놓여 있던 일렉트릭 기타가 인상적이었다 한다. 취미도 멋진 공사 생도들이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던 남편의 입장에서선 반감지 않았을까 싶다.

나 또한 아이들에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침대 정리를 꼭 강조한다. 하루의 시작은 침대 정리에서부터라고 말이다. 바쁜 아침이지만 잠깐의 짬을 내서 하는 침대 정리는, 일단 기분이 좋고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가짐이 조금은 남다를 수 있으며, 작지만 그 습관 하나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내가 바뀌게 될 수 있는 계기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선택은 아이들의 몫이긴 하지만 말이다. ^^

사관학교를 간다는 것, 갈 수 있다는 것, 다닌다는 그 자체가 어쩌면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고 싶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배우라는 일 역시 마찬가지다. 나는 올 11월에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무용 축제인 <제45회 서울 무용제>의 홍보대사를 맡기로 했다. 사회도 보고 게다가 홍보대사로선 처음으로 무대에서 무용 공연을 하기로 했다. 배우인 내가 무용 공연을 한다니! 마치 무용수로서의 데뷔 무대 같다



는 생각이 들어 설레고 흥분된다. 단 몇 분의 짧은 시간이지만, 누가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서 무용제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사실 내 꿈은 배우가 아니라 무용수, 무용가였다. 더 정확히는 발레리나!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간절히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인터뷰할 때마다 꿈이 발레리나, 무용가였다는 얘기가 빠지지 않았는데, 95년 어느 날 광복 50주년 기념 특집 드라마로 우리나라의 전설적인 무용가 최승희 님의 일대기가 8.15 특집극으로 기획이 됐고, 내가 최승희 역을 하게 된 것이다.

꿈같았다. 극 중 짧지만 열일곱 가지의 춤을 추어 무용에 대한 갈증을 원 없이 해소했고, 못 이룬 꿈을 드라마 속에서 이루어 더할 나위 없이 기쁘고 행복했다.

지금까지 홍보대사가 무용 공연을 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글썄, 쉽지는 않겠지만 또 모르는 일 아닌가. 내가 선례가 되어 가끔씩이라도 이어나가게 될지.

무용을 사랑하는 열정과 꿈이었다는 이유로 덜컥 무대에 서겠다고 했는데, 동작 하나하나가 쉬운 것 같지만 어려워 마음대로 잘 안되기도 하고, 결국 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연습을 해야 한다는 사실만이 느껴졌다. 지루하고 지난한 반복이 요구되는 그 노력의 시간이 있어야만 좋은 결과에 가까워질 테니.

인생은 만들어 가는 것 같다. 멀게는 데 뷁하게 된 동기가, 가깝게는 무대에서 무용 공연을 하게 된 것도 그렇다. 생각만 하고 있던 것들을 밖으로 꺼내보자. 마음이 움직이면 해보는 것이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말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는 것이 어떨까? 아니 공사 생도들은 이미 그럴 것이다. '공군'하면 떠오르는 전투기와 조종사.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의미는 우리의 영광을 책임지고 사수하는 군대라는 것! 그러기 위해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잘 다스려 우리의 하늘을 믿고 맡길 수 있는 현재와 미래의 훌륭한 그리고 빛나는 공군 장교들이 되길 기원한다. ✈

## 화성 우주작전, 상상이 아니라 현실이 된다



김민석  
전 중앙일보 전문기자

### ‘하늘로 우주로!’

공군이 오랫동안 사용한 구호다. 현대전에서 하늘을 지배하는 것은 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 나아가 우주에서 우세권 확보는 전장 승리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국가 안보에도 매우 중요하다. 우주는 이미 군사작전에서 제외할 수 없는 지·해·공 다음의 네 번째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우주에 떠 있는 통신위성과 정찰위성, 위치정보위성 등은 전쟁 수행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수단이다. 당장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등 군사력 움직임을 매일 시간대별로 관찰해 분석한다. 남북한 사이에 위기가 조성되거나 북한이 도발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되면 정보당국은 북한군의 움직임에 따라 표적 정보를 하루에 몇 번씩 최신화한다.

아직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미국 스페이스X 스타링크의 저궤도

통신위성이 크게 활약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직전에 해킹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기간통신망을 와해했다. 그러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요청으로 미국 우주기업가 일론 머스크가 스타링크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서 상황이 반전했다. 스타링크의 지원으로 우크라이나에 통신과 SNS가 일부 정상화되면서 러시아의 침공 실상이 만천하에 공개됐다. 그 결과 러시아 침공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항전 의지가 커졌다. 그 바람에 3일 만에 전쟁을 끝내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항복을 받아내려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목표는 수포로 돌아갔다.

GPS(미국), 바이두(중국), 갈릴레오(유럽), 글로나스(러시아) 등 위치정보위성이 제공하는 위치정보는 우리가 일상에서 늘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이들 위치정보위성의 오차는 12m 수준이다. 물론 군사용 위치정보위성 시스템은 오차가 훨씬





작다. 그런데 앞으로 PNT 위성시스템이 구축되면 오차 범위가 5~7cm로 줄어든다고 한다. PNT는 위치(Positioning), 항법(Navigation), 시간(Time)을 통합한 위성시스템이다. PNT 위성시스템이 구축되면 미사일 등 유도무기는 표적을 거의 핀-포인트를 맞힐 것이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대부분 국가는 다양한 인공위성이 제공하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해 전장에 활용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반대 현상도 있다. 전장에서 인공위성들의 도움이 절대적이다 보니 개전 초에 상대국의 인공위성들을 신속하게 파괴 또는 무능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기도 한다.

가령 우주에 킬러위성으로 적국의 인공위성을 무능화 또는 파괴하거나, 지상에서 미사일 또는 레이저, 사이버 수단 등으로 다른 나라 위성을 제거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또한 우주에 있는 위성으로 적국의 지상에 설치된 위성 수신 및 통제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을 방해할 수도 있다. 우리 군의 우주작전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대부분 지구 주위의 우주에 있는 인공위성 정보를 활용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상상력을 더 키워야 할 것 같다. 지금 공군사관학교를 재학 중이거나 공군 초급 장교들이 중간 또는 고급 간부가 될 때쯤엔 공군의 우주작전의 범위가 크게 확장될 소지가 있다. 인류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지구에서 태양계

의 행성과 위성, 소행성 등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그 배경은 우주산업이 최근 들어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어서다.

이런 변화가 오게 만든 사람은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를 창업한 일론 머스크다. 일론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해오던 국가 주도의 우주개발 방식을 민간에서 창의적이고 경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는 NASA가 보이거나 록히드 마틴 등 미국의 항공우주업체에게 원가에 대한 이윤을 보장해 주는 월가 가산제 계약방식을 ‘국민 세금 먹는 하마’라는 식으로 비판했다. 그 대신 일론은 원가와 이윤, 개발기간을 스스로 책임지는 확정제로 했다. 그는 적은 투자비로 시한을 정해놓고 우주 발사체를 개발했다. 그러다 보니 상상을 초월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야 했고, 여러 날 동안 잠도 자지 않고 엔지니어들과 함께 숙식하며 24시간 매달리면서 개발에 몰두했다. 현대그룹 창업자인 정주영 회장처럼 도전적이었다.

그 결과 스페이스X가 개발한 우주 발사체 펠콘 헤비는 1kg 무게의 물체를 우주 공간에 올려보내는 비용을 1,500 달러 수준으로 줄였다. kg당 8만 5,000 달러 드는 과거 스페이스셔틀(1980년대) 방식이나 단가가 3만 2,000 달러인 한국의 누리호에 비하면 획기적이다. 스페이스X가 올 6월 초 4번째 시험 발사에서 성공한 스타십이 조만간 상용화되면 1kg 당 발사 비용이 100 달러 이하로 떨어진다. 누리호는

스타십에 비해 320배나 비싼 셈이다. 펠컨 헤비나 스타십에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은 한국의 누리호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유럽, 일본 등의 우주 발사체도 마찬가지로 도토리 키재기나 다를 바 없다.

스타십 4차 발사 때 스타십의 추진로켓인 수퍼헤비는 스타십을 우주로 올려보낸 뒤 성공적으로 지구에 귀환했다. 스타십도 우주에서 주어진 실험임무를 수행했다. 스타십은 지구에서 화성, 그리고 또다른 행성으로 이동할 수 있는 핵심 교통수단이 될 전망이다. 스타십을 여객기로 활용하면 지구 안에서 어느 도시든 1시간 안에 갈 수 있다고 한다. 뉴욕-파리가 30분, 뉴욕-도쿄 37분 등이다. 스타십의 성공은 화성 개발에도 탄력이 붙어 우주산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스페이스X와 미국 NASA는 1회 비행에 100~150t을 운송하는 스타십을 활용해 우주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Moon to Mars 계획'이다. 달을 전진기지로 삼아 화성에 인간이 살 수 있는 거주지를 만드는 계획이다. 일론은 2050년까지 화성에 100만 명을 보내겠다고 한다. 미국 정부도 화성 개발을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을 세웠다. 우리나라는 2021년에 10번째로 약정에 서명했고, 현재 40개국 가입했다.

그런데 일론의 계획이 2060년으로 미뤄지고 화성에 50만 명을 보낸다고 양보하더라도 화성 거주지의 인프라를 구축

하려면 거대한 공사가 필요하다. 늦어도 2030년대부터는 공사가 시작돼야 한다. 화성에 건설될 거주지를 AI엠피로 상상도를 그려보면 '적색 토양 위에 철제 구조물과 유리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두 개의 작은 달을 배경으로 늘어서 있는 모습'으로 나온다. 로버나 드론이 활동하고 있고, 기지 내부에는 생활 모듈, 연구시설, 에너지 생산시설, 로켓 발사장, 식물 재배시설 등이 조성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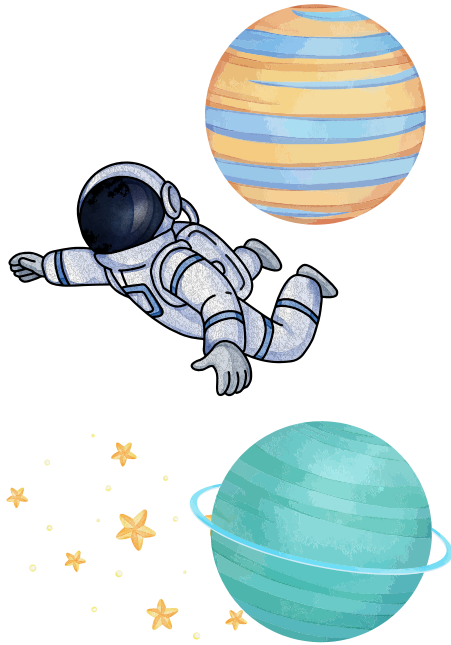
군사적인 관심은 여기서부터다. 화성 또는 달에 거주지와 기지를 건설하는 도중이나 건설한 뒤에는 혹시 모를 외부의 침입 또는 공격으로부터 기지를 방호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기지 보안이라 할 수도 있지만,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화성 거주지 수준으로 확대된 지역에선 관련된 국가들이 연합한 방위시스템이 생길 수도 있다. 이른바 우주연합방위시스템이다. 이런 우주연합방위시스템은 화성 거주지 뿐만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 우주에서 화성으로 접근하는 공중 물체를 감시하고 경우에 따라선 우주에서 검문검색을 하는 등의 임무다.

이외에도 우주 공간 또는 달과 화성에서 스마트팜으로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약품과 정밀제품 제조 등 생산 활동, 소행성에서 희귀자원 채굴, 태양광 에너지 확보 등 많은 경제활동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경제활동에 대한 보안 또는 안보적 방호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처럼 공군의 우주작전 영역은 현재는 지구 주위의 인공위성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수준이지만, 향후 10년쯤 뒤부터ダイナ믹하게 바뀔 것이다. 공상과학 영화 속의 상상이 우리에게 현실로 다가올 날이 머지않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올 5월 30일 우주항공청 개청 기념식에서

“우주 대항해 시대 항로를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재학 중인 공사 생도들은 우주 대항해 시대에 살아갈 세대다. 공군은 풍부한 상상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더 큰 포부를 갖고 의욕적인 우주작전을 구상해야 하지 않을까. ✈





김귀근  
연합뉴스 군사전문기자

## 위용을 떨치는 대한민국 공군... ‘공군인’ 자부심을 갖자

얼마 전 수원기지에서 열린 F-4E(팬텀) 퇴역식 리허설 행사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전역하는 군인들의 전역식은 일상 접하고 있지만, 국토방위에 헌신했다가 수명주기가 다 되어 도태되는 군 장비 퇴역식은 25년 넘게 국방부를 출입하는 기자에게겐 생소했다.

인물 중심이었던 ‘보훈 개념’을 퇴역하는 군 장비로까지 확대해 적용한 공군의 선제적 발상이 놀라웠다. 우리 공군이 그만큼 성장하고 앞서가고 있다는 증표로 여겨진다. 앞으로 타군에서도 유사한 행사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팬텀 퇴역식 리허설 행사의 대미는 역시 현재 운용 중인 공군 전투기들의 우정 비행 내지는 축하 비행이었다. ‘선배 전투기’ 퇴역을 ‘후배 전투기’들이 아쉬운 마음으로 작별을 고하는 듯 했다. ‘하늘의 도깨비’로 불리며 수많은 작전 현장에 투입되고 조국 영공을 사수했던 팬텀이 아니었던가.

핑음을 내며 행사장 상공을 가르는 ‘후배 전투기’들의 위용은 퇴역하는 ‘선배 전투기’ 못지않게 어떤 작전에서도 ‘필승’하겠다는 다짐으로 보여 필자도 눈시울이 붉어졌다.

공군의 선제적 발상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가 대표적인 사례다. 특수비행팀 창설 계획 당시 반대가 만만치 않았다. 요약하자면 ‘현존 위협이 큰 상황에서 먼 에어쇼냐’는 것이다. 이런 말은 그야말로 ‘뻔뻔이 소갈머리’같은 사람들의 입방아였다.

지금 블랙이글스는 전 세계를 누비며 대한민국과 공군의 위상을 빛내고 있다. 수출 협상국 또는 수출 유망 국가 상공에는 어김없이 블랙이글스가 뜬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함축하는 ‘K-방산’을 블랙이글스가 견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공군 선각자들의 혜안에 그저 박수를 보낸다.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등 현대전 양





상을 보면 공군력의 위력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 공중에서의 정밀타격이 전세를 좌우한다. 우리 공군은 적진을 은밀히 돌파하는 F-35A 스텔스 전투기도 확보했고 대전 상공에서 평양의 주요 목표물을 때릴 수 있는 타우러스 정밀유도무기도 갖추고 있다.

독자 개발한 FA-50 경전투기와 T-50 고등훈련기도 보유하고 있다. 이제는 국산 초음속 고성능 전투기 KF-21(보라매)도 양산해 머지않아 실전 배치된다. KF-21에 탑재되는 핵심 장비인 AESA 레이다, 엔진 모두 국내에서 제작했다. 이제 양산 1호기가 제작에 들어갔고, 2026년 말 공군에 인도된다. 오는 2032년까지 120대가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훈련기와 경전투기, 고성능 전투기를 함께 개발 생산해 운용하는 국가가 얼마나 될까. 대한민국 공군인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이제 KF-21이 수출 대열에 합류한다면 대한민국과 공군의 국제적 위상은 더욱 떨 것이다. 그런 날이 머지않았다고 확신한다.

특히 동북아 지역에서 강대국의 제공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KF-21 양산은 주목된다. 중국은 자국 최초의 스텔스 전투기 J-20(중국명 쟈-20)을 실전 배치했다. 동북아 제공권 헤게모니를 위해 스텔스 전투기 개발에 전력을 기울여온 결과다. 여기에다 항공모함에 탑재할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J-31B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맞서 미국도 일본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F-16 전투기를 F-35A로 교체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은 더욱 가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가운데 우리 공군은 영공을 넘어 우주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2022년 말 닷을 올린 우주작전대대는 1년 반 만에 우주작전전대로 재창설됐다. 앞으로 전력화될 우주기상 예·경보체계와 초소형 위성체계 등을 운용하는 곳이라고 한다.

이들 전력이 확보되면 북한의 도발 원점에 대한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고 킬체인 및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등의 작전수행도 지원하게 된다.

여기에다 미국 우주사령부 예하 ‘민·군 합동작전 셀(Cell)’에도 참가해 적 위성 등 우주 물체를 실시간 감시하고 특이사항을 분석해 15개 참여국과 상호 공유한다고 한다. 그야말로 공군이 세계 여러 나라들과 어깨를 견주며 우주로 도약을 위해 큰 걸음을 땀 조치로 여겨진다.

공군 사관생도들도 졸업하면 늠름하고 유능한 현역 선배들의 지도 아래 공군력을 키우는 데 열정을 쏟을 것이다. 가입교할 때, 제복을 처음 입었을 때 다짐한 초심을 늘 기억했으면 한다.

국민들은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하루 하루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기대에 부응했으면 한다. 제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오늘도 박수와 응원을 보낸다. ➡



양낙규  
아시아경제 기자

인간의 업적과 가치를 담은 예술 작품이 있다. 동상이다. 고대 동상은 역사적인 사건, 신화적인 이야기를 담았다. 문화와 종교, 철학적인 가치도 전달한다. 전쟁의 영광과 영웅을 알리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동상이 대표적이다. 국내 대형 이순신 장군 동상이 처음 세워진 건 1952년이다. 서울 광화문의 충무공 동상보다 16년이나 앞선다.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북원로터리에 위치해 있다. 당시 국내에서 가장 앞선 주물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해군 조함창(현 정비창)이 만들었다. 높이 4m 82cm, 너비 1m 40cm로, 제작 당시만 해도 국내 최대 규모였다. 동상은 현재 창원시 근대건조물 제1호로 지정됐다. 이 충무공 동상은 이후 우리나라 대형 충무공 동상 제작의 본보기가 됐다.

정부가 나서 동상을 만들기도 했다. 1968년 '애국선열 조상건립위원회'를 구성해 위인 15기의 동상을 세웠다. 만들어진 동상은 강감찬, 김대건, 김유신, 사명대사, 세종대왕, 신사임당, 원효대사, 유

관순, 윤봉길, 이순신, 이율곡, 이퇴계, 을지문덕, 정몽주, 정약용이다. 해외에도 우리나라 위인들의 동상이 있다. 한인들이 다수 재학하고 있는 LA 시티칼리지(LACC)다. 지난해 '한글날'(10월 9일)을 앞두고 세워졌다. 미국 내 공립대학으로 최초다. 한국어 열기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징적인 동상이 됐다.

과학자들의 동상도 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대동에 위치한 카이스트교엔 흉상 7개가 있다. 대덕특구 소속 9개 기관이 뽑은 과학자들이다. 유전육종학자 우장춘 박사, 동의보감 저자 허준, 우리나라 최초 화약 개발자 최무선, 조선시대 과학자 장영실, 천문기상학을 개척한 이원철 박사, KAIST 초대 및 6대 원장을 역임했던 이상수 박사, 국내 최초 인공위성인 '우리별 1호' 개발의 주역인 최순달 박사다. 끝 자리는 비어 있다. 앞으로 나올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의 자리다. 후배 과학자를 위하는 배려심이다.

위인들의 동상은 세워진 뜻과 달리 논



란이 되기도 한다. 칠곡 다부동의 백선엽 동상 건립,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동상 교외 이전, 광주 양림동의 정율성 동상 훼손 등이다. 서울시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 대구시의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놓고도 시끄럽다. 보수·진보 진영은 동상을 놓고 날카로운 찬반주장을 내세운다. ‘이념 대결’이다.

공군도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용덕 장군의 동상이다. 공군을 창설한 대표적인 인물은 7인이다. 최용덕(1898~1969년·제2대 공군참모총장), 김정렬(1917~1992년, 초대·제3대 공군참모총장), 박범집(1917~1950년·공군 소장 추서), 이근석(1917~1950년·공군 준장 추서), 장덕창(1903~1972년·제4대 공군참모총장), 이영무(전 육군항공사령관), 김영환(1921~1954년·공군 준장 추서) 등이다. 이들은 모두 소속과 출신을 달랐지만 공군을 창설해야 한다는 목표만은 같았다. 공군 창군 70주년을 기념해 설치한 창군 발상지 표지석을 봐도 이들의 뜻을 엿볼 수 있다. 이 표지지는 서울 성북구 동선동에 위치해 있다.

공군 창군 70주년을 기념해 공군사관학교와 공군교육사령부에 세웠다. 당시 공군은 ‘공군 창군의 아버지’라 치켜세웠다. 틀린말은 아니다. 하지만 공군 창설 7인중에 1인의 동상만을 세우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정부의 성향에 따라 중국·만주 독립군 출신들을 부각시키며 일본군 출신의 흔적을 지우려던 시도라는 의문도 제기된다.

6·25전쟁 때 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한 ‘살아있는 전설’ 김두만 전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우리를 이끈 것은 김정렬 전 참모총장이다. 김 장군은 우리나라가 독립돼 정부가 수립되면 국군이 창설되고 공군도 생길 거라면서 공군을 만들자고 했다”고 회상했다.

그렇다면 남은 6인의 동상도 세우면 어떨까. 공과가 있는 인물이라 하더라도 동상 건립 자체를 무작정 반대해선 안 된다. 동상은 한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국가공동체 유지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을 본받자는 의미를 담은 상징물이다. 세대를 넘어 살아온 시간을 공유하고 문화적 상징으로서 기념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다. ➡



창군 70주년을 맞아 원인철총장이 공군사관학교 최용덕 장군 동상 제막식에서 축하연설하는 모습



김종명(31기)

## 격오지 부대 - 의상봉 방공관제대대 방문후기

### 의상봉으로 출발!

2024년 7월 26일. 무더위가 낱알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남부지방, 중부지방 가릴 거 없이 전국에 걸쳐 장마와 폭염이 한창인 이 때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격오지부대 격려행사의 일환으로 김용덕, 이준희 부회장과 함께 의상봉 레이더 기지로 발걸음을 향했다.

의상봉 레이더기지는 군복무 중에 근무한 적도 없었던 것은 물론 전역 후에도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격오지였다. 우리는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출발하여 약 3시간 정도 걸려서 전북 부안 시외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다행히도 가는길은 좋은 날씨가 계속 되어 버스가 김제평야를 지날 때는 눈앞에 펼쳐지는 광활한 평야 지대에 가슴이 탁 터이고 마음까지도 넉넉해지고 풍요로워지는 듯했다. 감사하게도 부대에서 차량을 지원해 주어서 우리는 편안하게 의상봉 레이더 기지로 향했다. 부대에 도착하자마자 좋았던 날씨가 금세 어두워져 한줄기 폭우가 시원하게 쏟아졌다.

의상봉(義湘峯)은 신라시대 의상대사가 이곳에 의상암(義湘庵)이라는 절을 세웠다고 하여 유래한 지명으로, 동쪽 기슭에 의상암 터가 있다.

이 의상봉은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북부)와 변산면 중계리(남부)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변산반도의 최고봉[508.6m]이다.

### 제307대대 - 책임과 신뢰 One Team!

부대는 생각보다 규모가 큰 듯 했다. 관제실이 철수된 레이더 기지는 소규모 병력만 유지하고 있다는 선입견 때문이어서인지 307대대의 큰 규모에 다소 놀랐다. 부대는 1960. 6월에 군산에서 창설되어 1966년 9월 현 위치로 이전하게 되었다고 한다.





부대 간부들은 부안군 하서면 백련리(비득치 마을)에 위치해 있는 관사와 독신자 숙소에서 생활하고 있고 관사 인근은 농촌마을로 생활 편의시설이 없고 생필품 구매, 의료, 문화 생활은 약 17km 거리에 있는 부안읍내를 이용하고 있었다.

307대대는 “책임과 신뢰의 최정예 One Team 307대대 육성”이라는 지휘방침 아래 상하 서로 신뢰하며 대대장을 중심으로 영공방위의 최일선에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부대 입구에서 바라본 의상봉 레이더 기지

307대대는 공군 방공 관제부대 중 유일하게 고정형 레이더와 이동형 레이더를 동시에 운영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레이더 무중단 작전 운영을 2년 150일간, 차량 무사고 운행은 3년 72일을 기록하였고 2022년 공군 작전사령관 최우수방공관제부대로 부대 표창을 받은 바가 있었다.

부대는 비록 도심과 떨어져 서해 해안가, 변산반도 부근 외진 곳에 자리 잡고 있지만 장병들은 푸르른 산과 드넓은 바다를 몸과 마음에 담아 군 생활의 활력으로 삼으며 늘 푸른 307대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활기차고 매력적인 부대였다.

### 공사 총동창회와의 만남

군 시절 방공관제분야에 잠시 몸 담았던 공사 총동창회의 이준희 부회장, 김용덕 부회장도 의상봉 레이더 기지는 처음 방문했다고 하였다.

우리는 대대장 박 중령의 친절한 안내와 자세한 대대 현황 보고 그리고 고정형 레이더 장비 견학을 통하여 우리 공군이 많이 발전하고 있고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 수행을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은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마음 든든함을 느끼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공군 선·후배들의 땀과 눈물로 만들어진 것이라 생각하니 정말 감사하다는 말외에는 다른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우리는 대대장 집무실에서 공사 총동창회에서 지원해 준 격려금을 전달하고 미래 공군의 발전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등의 환담을 나눈 뒤 작별 인사를 하고 부대를 출발하여 부안 시외버스터미널로 향했다.

부대를 나오면서 정말 나 자신이 공군의 가족으로서 생활했던 지난날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고 또 격오지 방문이라는 행사를 통해 조금이나마 공군 후배들을 만나 서로 정을 나누고 격려해 주는 시간이 주어져 좋은 만남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이번 행사를 계획하여 지원해준 공사 총동창회 임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귀경길에 올랐다. ✈



공사총동창회 임원들과 307대대 간부들





#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공군과의 소중한 인연 그리고 기대



송기훈(해사 37기)  
예) 해군 대령(전 해사 교수부장)

해군사관학교 이학처장 시절, 3학년 생도들을 인솔하여 영국 해군대학(BRNC: British Royal Naval College) 방문해야 할 일이 있었다. 이때 진해에서 인천공항으로 바로 가기에는 시간이 빠듯하여 생도들과 함께 서울 대방동에 있는 공군 호텔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필자는 이날 공군 호텔 외관 현수막에 적힌 공군의 슬로건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강한 국방력과 강한 공군을 바로 연상케 하는 글귀, 누가 만들었는지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공군과의 인연은 사실 여기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고등학생 시절 이공학에 관심이 많았던 필자는 기술군이며 과학군인 공군과 해군의 사관학교에 관심이 갔고, 푸른 창공을 나는 전투기 조종사의 모습에 더 매료되어 지금의 서울 보라매공원 자리에 있던 공군사관학교 인근을 몇 번 찾아간 적이 있다. 그러나 필자는 결국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맨, 거기에

손목에 금줄이 붙어 있는 검은 신사복을 입고 대양을 누비는 꿈에 이끌려 해사를 선택했다.

해군을 택한 이후 공군과의 인연이 처음으로 찾아온 것은 해사 생도 시절이었다. 그 당시는 육·해·공군의 합동군 개념을 생도시절부터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학년별 삼군사관학교 순환방문 제도가 있었다. 필자가 생도 3학년 시절의 어느날 공사 3학년 생도들이 해사를 방문하였다. 이때 필자의 가장 친한 해사 동기생이 본인의 친한



생도 3학년 시절 필자, 유병길 생도와 친구

고등학교 친구인 공사 동기생을 소개한 바 있는데 그 생도가 바로 훗날 공군 블랙이글스 대대장과 합동군사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유병길(공사 31기) 장군이다. 유 장군과의 관계는 생도시절 뿐 아니라 군 생활과 전역 후인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공군과 또 한 번의 인연은 해군 중위 시절 해사 생도교육을 담당하는 교수가 되기 위해 서울대학교 학부과정 위탁교육을 갔을 때 찾아 왔다. 이때 공사 교수가 되기 위해 서울대에 온 1년 후배 공군 장교가 있었는데, 그 장교가 바로 지금까지도 공사 교정에서 생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동수(공사 32기) 교수다. 김 교수와는 서울대 학부 시절 3년과 대학원 시절 2년을 함께 생활하였고 박사과정 5년도 서로 가까운 미 뉴욕 주립대(SUNY) Stony Brook과 Albany에서 지냈으며, 학위 취득 후는 공사와 해사 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의견을 나누었다.



항공기체계단 시절 이스라엘 출장 중인 유병길 장군과 필자

공군과 뜻깊은 인연은 해사 교수부장을 끝으로 군을 떠난 후 새롭게 찾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필자는 국과연에 입소한 후 2017년부터 현재까지 해군 부서가 아닌 공군 관련 부서인 항공기레이다체계단에서 한국형 전투기(KF-21)에 탑재되는 AESA(능동형 전자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를 개발하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AESA 레이더의 공대해 모드 분야 개발에 참여하였고, 현재는 저고도 자동비행을 목적으로 하는 AESA 레이더의 지형추적(TF : Terrain Following) 모드 개발사업을 관리하며 공군 선후배 및 동기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다. 한때는 2년간 체계단 자문위원으로 온 유병길 장군과 이스라엘 출장도 함께 가며 즐겁게 근무하기도 하였다.

그래서인지 필자는 공군과의 인연이 깊은 만큼이나 공군에 대한 관심이 크고 또한 그만큼 공군에 대한 기대도 크다. 해사 임관 후 해군 소위 시절부터 한국 해군의 발전사를 몸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초음속 전투기 KF-21



우리나라가 자체 개발한 KF-21 AESA 레이더





소 겪은 바 있는 필자는 체계단에 근무하면서 한국 공군은 과연 어떻게 발전해 왔고 또한 미래 발전된 모습은 어떻게 궁극하여 여러 문헌을 찾아본 적이 있다. 한국 해군의 경우는 1945년 11월 11일 손원일 제독이 창설한 해방병단으로 시작하여 1981년 후반부터는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나라 조선업을 바탕으로 자체 건조한 초계함(PCC), 호위함(FFK), 구축함(DDH), 잠수함(SS) 등의 함정과 세계에서 6개국만 보유한 이지스함을 4척이나 보유할 만큼 오늘날의 강한 해군으로 발전하였다.

반면, 한국 공군은 1949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254호 '공군본부 직제'에 따라 육군 항공국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인 군으로 탄생하였으며, 창군 이후 1955년 F-86 도입을 시작으로 1964년 F-4 팬텀 도입, 1994년 F-16 도입과 함께 2차 조립 생산과 3차 면허 생산을 통해 2000년에 도입을 완료하였고, 뒤이어 F-15K를 도입하여 공군력을 강화하였다. 이렇듯 주로 전투기 도입 사업을 진행하던 공군은 그간의 장비 개량 사업을 통해 전투기 독자 생산 발판을 마련한 후, 2001년 우리나라 최초로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과 이를 바탕으로 FA-50을 제작하였다. 또한, 그동안 발전을 거듭해 온 한국항공산업(KAI 등)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마침내 4.5세대 초음속 전투기인 KF-21을 세계에서 8번째로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현재 KF-21은 2026년 최종양산을 목적으로 비행시험을 진행 중이며, AESA 레이더 또한 체계개발 완료 후 시험비행기(FTB : Flying Test Bed)와 KF-21을 이용하여 비행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군 발전사를 보면, 한국 공군의 전투기 자체 생산이 해군의 함정 자체 건조보다 약 20년 정도 늦은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아마도 무기체계 특성상 전투기가 함정보다 안전성(감항인증 등)이 최우선 요구되고 이에 따른 보다 섬세하고 복잡한 첨단 과학기술 발전에 많은 시간이 요구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정 수준에 이른 듯한 한국 해군에 비해 한국 공군의 발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 이유는 한국 공군은 KF-21 개발 성공으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향후 무인기 사업, F-16K 성능개량사업은 물론, F-35, F-22와 같은 5세대와 나아가 6세대 전투기 개발도 가능하며 이러한 전투기 개발사업의 성공은 곧 해외수출로 귀결되어 정부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하고 이에 따른 순환이 지속됨으로써 눈부신 발전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래 우주산업의 발전과 관련하여 2024년 4월에 개칭된 우주항공청 또한 공군의 발전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전투기는 물론 우주 시대를 대비하는 무기체계 발전까지 바야흐로 한국 공군의 대도약의 시대가 열렸다는 생각이 든다.

글을 마치며, 공군과의 소중한 인연을 간직한 해군 출신이자 공군 사업을 하는 국과연 연구원으로서 필자는 한국 공군이 대한민국과 나아가 우리의 우주를 지키는 가장 높은 힘으로 거듭 발전하길 마음속 깊이 기원한다. ✈



## The Innovating Pioneer for a Sustainable Tomorrow

We create sustainable technologies to protect  
human-beings and our planet.





우리는 지금도 미래를 짓고 있습니다

Great Possibility



# 명예로운 성무원, 함께하는 미래!

1. 2023년 자랑스러운 공사인 수상자 \_ 102
2. 2024년 명예졸업증서 수여자 \_ 103
3.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 조준원(38기) \_ 104
4. 명예회원 소개 \_ 106
5. 어명이요 / 이범욱(명예회원) \_ 107



## 2023년 자랑스러운 공사인 수상자



제30차 총동창회는 2023년 '자랑스러운 공사인'으로 고이종학(3기), 이대열(26기), 원인철(32기) 동문을 선정하고, 12월 21일 정기총회에서 상패를 수여하였다.



**故 이종학(3기)**  
**(전 서라벌군사연구소장)**

- 국내 최초 군사학 체계를 학문으로 정립, '군사학의 태두'로 평가
- 문교부 승인 첫 군사학 정교수
- 공사 및 군사학발전기금(43억 원상당) 기부 공로 등



**이대열(26기)**  
**(전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체계개발단장)**

- KT-1, KA-1, 국산항공무장(KGGB) 개발, 전력화 기여
- 공군 KF-21 개발 공헌 등



**원인철(32기)**  
**(제42대 합동참모의장, 37대 공군참모총장)**

- 항공우주력 종합발전계획 '에어포스 퀀텀5.0' 수립
- 성공적인 국방개혁 2.0 추진 등



## 2024년 명예졸업증서 수여자

명예졸업장은 회칙 제4조(회원의 구분)에 따라 사관학교를 졸업하지 못했지만 모교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거나, 본교의 명예를 드높이는데 기여한 사람에 대해 수여한다. 각 기수 동기생의 과반수 이상이 추천하고, 총동창회 이사회에서 심의하여 모교에 추천하면, 모교에서 명예졸업 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심의·의결하여 최종 결정한다.

	26기 <b>주일중</b> (대리 참석)
	26기 <b>양재철</b>
	38기 <b>김승휘</b>
	38기 <b>조준원</b>
	42기 <b>최민규</b>
	42기 <b>배준기</b>



##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



조준원(38기)  
명예졸업자

기어이 그날이 오고야 말았다. 그날, 하늘은 무척이나 높았고 짙은 녹음과 함께 세상을 두 빛깔로 나눠 가졌다. 무서운 결정을 하고 수없이 상상하고 다짐했지만 정작 그날의 닥침은 예측하지 못한 폭풍 같은 것이었다. 꺾꺾 누른 새로운 다짐과 기대감은 홀연히 사라지고 불안한 생각이 들어차 있었다.

지금은 기억도 나지 않은 누군가가 오늘이 그날이라며, 입고 나갈 복장과 두고 나가야 할 소지품 등등을 전해주었다. 퇴교를 결심하고 몇몇 동기들에게 나의 마음을 전한 후로는 이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고 있던 차였다. 언제쯤 통보하려나? 오늘일까, 내일일까, 하루하루가 좌불안석이었고 모든 것이 불편하기만 했지만 막상 홀로 짐을 꾸릴 때는 그 누구라도 어깨를 두드리면 울컥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다.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떠나는 마음이었다.

내게 허락된 것은 전투복에 단화, 그리고 커다란 군용백 하나였던 걸로 기억한다. 파란 하늘과 따가운 햇살 아래 초라한 행색으로 교문을 나설 때는 행여 누가 부를까 종종 걸음을 재촉했다.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날은 인생의 두 번째 전환점이 되었다. 첫 터닝포인트는 메추리가 된 것이다. 나의 메추리 생활은 그다지 길지 않았다. 하지만 내 인생에서 이보다 더 강렬하고 진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시간은 없다.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한 인간이 살면서 접한 땀과 눈물, 희열과 좌절, 고민과 결단, 인내와 포기, 성취와 명예를 함축하여 담았으니 지극히 압축적이다. 여운은 길었고, 울림은 깊었다. 인생의 첫 터닝 포인트라 할 만 하지 않은가.

하지만 그 땐 몰랐다. 그 짧은 인연을 이리 오래 기억하게 될 줄을.

별 기대도 없었다. 어두운 기억 속에서 녹아든 경험이 이후 삶의 자양분이 될 거라는.

메추리 생활을 접으며, 교문을 나설 때의 슬픈 감상에 적셔진 다짐은 다행히 시간이 지나며 단단해졌다. 대다수의 대학생의 일상을 나 역시 다르지 않게 걸어갔다. 다만 그 길에 깊은 발자국을 남기고자 했다. 당장의 작은 이익보다는 명예에 좀 더 눈길을 두고자 했으며, 손쉬운 편법보다는 불편한 원칙에 조금이나마 더 가까이 가고자 했다.

동기생들의 임관 후 얼마까지도 교류는 계속 이어졌으나 어느 시점에선가 연락이 끊어지고 오랜 시간이 흘렀다. 그사이 나는 언론보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인격권을 보호하는 세계 유일의 언론분쟁 법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에 몸을 담았다. 간혹 공군 소식을 접하면서 때로는 반가움에 미소 지었고 공군기 추락 비보에는 안타까움을 주체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생활에 치여서일까? 선뜻 먼저 연락할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10년 전 국방대 안보과정에서 끊어진 연을 다시 잇는 행운을 가질 수 있었다. 동기들은 건강한 신체와 강한 정신으로 무장한 자랑스런 공군 고위 장교로서 내 앞에 멋지게 서있었다. 몇겹의 시간의 단층은 무시되었다. 무엇보다 짧았던 인연을 귀하게 여기고 재회의 반가움과 설레임을 애써 감추려 하지 않았다. 다시 맺은 인연의 끈은 더없이 소중했기에 우정은 더욱 두터워지고 깊어가고 있다. 그리고 내게 명예졸업이라는 큰 선물을 안겨주었다.

나는 얼마 전 근 30년 동안 해왔던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 가지 헌법적 가치를 지켜내는 일을 내려놓았다. 작은 행운이 따라주어 기관의 수장인 사무총장직까지 무탈하게 수행하고 퇴임했으니 감사할 뿐이다. 그간의 고민의 흔적을 담아 책을 출간하며 가까운 지인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물론 그 자리에 메추리 동기와 선배도 함께 하며 나의 지난 여정을 격려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메추리 시절을 홀로 곱씹지 않고 메추리의 애환과 추억을 공유하는 동문들이 오랜 친구로 내 곁에 있는 것이다. 더 없이 소중하고 감사하다. ➡



## 명예회원 소개



### 2024년 명예회원 임명

총동창회는 회칙 제4조(회원의 구분)에 따라 공군 및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사 발전후원회 2명에 대해 2024년 5월 21일~24일 간 총동창회 회장단과 이사기수(23기~51기) 회장단 등 이사들의 심의·의결을 통해 명예회원으로 임명하였다. 명예회원 증서 수여는 2024년 6월 10일 개교기념일을 맞이하여 거행한 동문서가 및 도서 기증식 행사 때 모교에서 실시하였다.



#### 이범욱(77세) 공사발전후원회 명예회장

- 학사장교 57기
- 외국 수탁생도 후견 4회
- 2018년 800만 원 하늘사랑 장학재단 기부
- 2023년 1,000만 원 하늘사랑 장학재단 기부 등



#### 박종관(68세) 공사발전후원회 사무총장

- 학사장교 75기
- 2003년 공사발전후원회 조직 발의 및 추진
- 공사발전후원회 사무총장 및 교육진행재단 이사로서 활동
- 외국 수탁생도 후견 4회 등



이범욱(명예회원)  
공사 발전후원회 명예회장

2024년 6월 10일은 공군사관학교 개교 75주년이 되는 날이다. 아울러 공사가 청주에 정착하며 발전후원회가 발족한 지 25년이 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한해이기도 하다.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로부터 개교기념일에 본인과 박종관 사장이 참석을 해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 당일 우리 두 사람은 공군 학사장교 출신이면서 발전후원회 창설 멤버로 그동안의 활약과 공로를 인정받아 정석환 총동창회장으로부터 명예회원 증서를 받았다. 이어 도서관으로 이동하여 동문 작가 서가 및 저술도서 기증과 본인의 저서 ‘레거시’와 ‘현존재의 사유’도 서고에 남겨놓았다.

6월 29일은 총동창회 임원들과 우리 발전후원회 간의 친목 단합대회가 있던 하루였다. 저녁 식사에 뒤풀이를 하며 인사말로 건배사가 오간다. 개교기념일의 기억을 되살리며 떠오른 말이 ‘어명’이다.

어명이요!

임금의 어명(御命)인 양 모두들 눈이 둥그레진다.

어:어쩌다

명:한숨 쉬고... 명예회원.

모두들 “어명이요”하며 웃음과 놀람이 어울린 축배가 울려 퍼졌다.

지나간 시간의 지평 속에 머리에는 찬 서리가 내리며 현 존재의 내리막길을 가고 있다. 양반의 고장에 교육도시라는 청주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이곳에서 보냈다. 인생의 황금기에 노마드(Nomad)가 되어 전국에 글로벌 각국을 돌며 긍정적인 삶을 위해 매진해온 지난날이었다. 한국전쟁 중 피난처로 대피했던 지역이 지금의 공사 비행장이 있는 신송리로,



새벽이 되면 북한의 괴뢰군과 국방군 사이에 총격전이 벌어졌던 곳이다. 1964년은 연초부터 1.21 무장공비 청와대 침투에 미 정보함 푸에블로호 납치 등 전쟁발발 직전까지 갔던 시기다. 공군 학사 정보장교에 몸을 담으며 군 최전방인 백령도까지 군인의 길을 걸었다. 전역하며 1973년 국적 항공사 대한항공에서 21년간 항공인의 길을 걸어왔다.

어린 시절 나의 고향은 청주의 무심천을 사이에 두고 한여름 소나기가 쏟아지면 좌우로 쌍무지개가 펼쳐지며 무지개의 낭만을 그리던 농촌이었다. 이제는 '루비콘강'이 되어 우측에는 공군사관학교가 좌측에는 공군 전투비행단이 양 날개를 펼치는 공군의 도시가 되었다. 인근에는 행복도시인 세종시가 부상하며 인구도 백만에 가까운 중부권의 핵심 도시가 되고 있다. 17전투비행단에도 민항기가 이착륙을 하면서 중부권의 거점인 국제공항이 되어 이방인들로 붐비고 있다. 맑고 조용했던 청풍명월의 청주가 이제는 어수선한 가운데 일상의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다. 알베르 카뮈의 소설 '이방인'의 도시가 되어가고 있으니 그리던 고향은 아닌 것 같다.

대한항공 해외 주재근무 시절에 많은 국제적인 이벤트 행사를 유치하며 옆에서 지켜보았다. 그중에도 범 세계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로타리와 라이언스의 클럽활동을 눈여겨보았다. 청주에 귀향하며 로타리안이 되어 1999년 IMF 외환위기 시 국제 로타리 흥덕로타리클럽 회장을 역임했고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대만의 자매 클럽과 국제적인 교류활동도 전개했다. 봉사의 의인(義人)이 되어 청주가 공군의 도시에 공군 출신으로 남다른 관심과 열정으로 공군사관학교 발전후원회를 창립하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25년간 발전후원회에서 정례적인 봉사활동을 해오며 젊음을 불태워 조국의 영공에서 순직한 조종사들의 영령이 가슴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아버지 박명렬 소령과 아들 박인철 소령의 부자 조종사가 그렇고 2022년 1월 11일엔 수원기지에서 F-5E로 이륙하여 인근 야산에 추락해 순직한 심정민 소령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2023년 1월 18일 공군본부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을 예방하여 '하늘사랑 장학재단'에 개인 신분으로 소정의 장학금을 아낌없이 전달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에 가정의 달이다 보니 모두들 들떠서 여기저기 밖으로 나부대지만 나에게게는 안보가 우선이다. 지난 5월 23일은 공군학사장교회 주관 예비역들의 사천 제3 훈련비행단과 KAI를 탐방하는 날이었다. 항공기가 서울공항에서 출발하므로 청주에서 당일치기 일정은 힘들다고 사절도 했지만 끈질긴 참가 권유가 왔다. 공군 예비역으로 군용기

C-130기 탑승과 우리가 자체 개발한 4.5세대 전투기 KF-21기의 제작과정을 꼭 보아야겠다는 신념이 앞섰다. 새벽 5시 30분 청주 집을 출발 오송에서 수서까지 SRT, 서울공항까지 승용차, 사천 왕복 C-130기 탑승이다. 항공기가 고도를 유지하여 순항을 하니 고공으로 점프하여 스카이다이빙이라도 할 것 같은 기분이다.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며 저녁 20시 30분 청주 집에 도착하니 왕복 15시간의 강행군이었다. 생의 내리막길인 현 존재에 저녁 식사를 마치며 고단한 잠에 떨어지니 노병이 되어 책임감 있는 보람을 만끽했던 지난날이었다.

연말 총동창회 모임이 기다려진다. 다음 건배사는?

어명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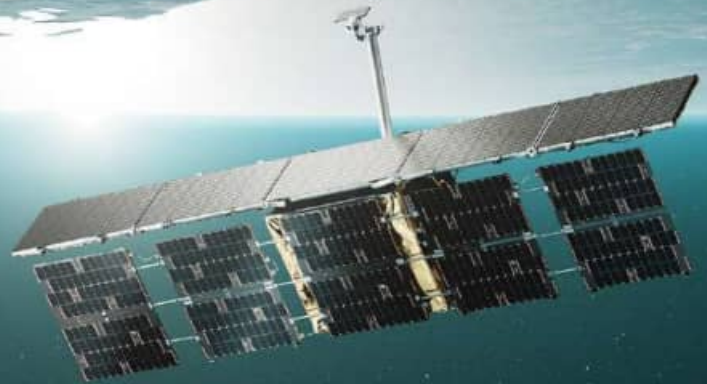
어:어찌다가 아닌 '어차피'다.

명:'명예회원'이다.

공군과 공군사관학교의 새로운 도약과 발전을 위한 '확대 재생산'의 기회가 될 것 같다. ➡



# ICEYE



ICEYE는 세계 최대규모\*의 첨단 고성능 뉴스페이스 레이더영상 (SAR) 위성과 기술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우주산업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 2024.4 월 현재까지 34기 위성 발사

# 자랑스러운 사관생도 - 우리의 미래

1. 공군사관학교 생도중대 소개 / 이수완(31기) \_ 112
2. 新 三士體典, 공사 우승하다!  
- 육·해·공 야구 교류전('23년) / 이상호(31기) \_ 116
3. 멀리, 더 멀리 / 정재훈(73기) \_ 120
4. 비상(飛上)의 길을 따라 날기 / 이예은(73기) \_ 123
5. 변화와 관성 / 이동훈(73기) \_ 127
6. 특별한 경험, 튀르키예 공군사관학교 / 배강민(74기) \_ 130


## 공군사관학교 생도중대 소개

성무인의 마음의 고향인 생도중대의 마크, 중대명칭, 자랑 등을 모아 소개합니다.




이수완(31기)

### [1중대]

구분	내용
	<p>1중대는 '기본과 원칙, 신뢰와 소통'을 모토로 하고 있으며 하늘의 무적용사 '천강'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p>
중대 명칭 변천	거북 1중대 → 선비 1중대 → 불사조 1중대 → 천강 1중대
중대 자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년 연속 무용기 기인동체 우승</li> <li>• 퍼레이드 입장 시 선두의 기세를 보여주는 '천강구호' 제창</li> <li>• 반기 1회 중대 자체 축제인 '천강제' 운영</li> <li>• 천강밴드, 러닝클럽, 감성카페, 천강빌더(바디빌딩) 등</li> <li>• 선·후배생도 간의 친목을 다지는 중대 동아리 운영</li> </ul>

### [2중대]

구분	내용
	<p>'한마음 한뜻으로 최고의 열정'을 추구하며 화합을 중시하는 '한마음'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p>
중대 명칭 변천	의용 2중대 → 활화산 2중대 → 한빛 2중대 → 신바람 2중대 → 한마음 2중대
중대 자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7년 연속 무용기 배구 우승 및 테니스 대회 우승 등 운동선수에 버금가는 능력자 다수 보유</li> <li>• 중대 패션쇼, 화채/빙수 점호, 편대대항 미니게임점호 등 단합행사를 통해 한마음 2중대에 걸맞은 단합력 보유</li> <li>• 중대장이 함께하는 한마음밴드, 보드게임 동아리, 테니스·헬스·러닝클럽 등을 통해 가족처럼 지내는 2중대</li> <li>• 복서권(복지시설)으로 최고의 자리에 위치한 중대</li> </ul>

### [3중대]


구분	내 용
	<p>'사랑과 배려가 바탕이 된 따뜻한 중대'를 추구하는 3중대는 '하늘높이 솟아오른다'는 '상승'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p>
<p>중대 명칭 변천</p>	<p>회오리 3중대 → 셋별 3중대 → 한울 3중대 → 상승 3중대</p>
<p>중대 자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대 동아리 '상승러닝클럽'의 효과로 '24년 무용기 대회 육상 종목 압도적 우승</li> <li>• 지속적인 다수의 전교 1등 배출 및 학업 50등 아래는 의무자습을 실시하는 학업 우수중대</li> <li>• 1학년 생도 선정, "가장 이사오고 싶은 중대 1위"</li> <li>• 낭만, 젊음, 사랑이 가득하고 정이 많은 파라다이스</li> </ul>

### [4중대]

구분	내 용
	<p>4중대는 '하늘을 열고 땅을 찢는다는 개천벽지의 기상으로 새 시대를 열어나갈 젊은 가슴, 푸른 패기'라는 모토 아래, '개벽'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p>
<p>중대 명칭 변천</p>	<p>백두산 4중대 → 백두 4중대 → 여명 4중대 → 햇살 4중대 → 개벽 4중대</p>
<p>중대 자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년 연속 무용기 대회 응원상 수상 및 성무제 예술상 수상에 빛나는 끼와 흥이 넘치는 중대</li> <li>• '24년 전반기 퍼레이드 평가 최우수 중대</li> <li>• 저녁점호 시 중대원 생일축하 및 선·후배가 함께 찜질방, 보드게임 카페 방문, 학년 간 회식 등 소중한 외출·외박을 함께 할 정도로 돈독한 선·후배 문화</li> <li>• 학년별 One Say와 중대 게시판을 이용한 학년 간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대</li> </ul>




## [5중대]

구분	내용
	<p>하늘을 벽차오르는 날개 달린 말의 모습을 바탕으로 자신이 목표한 바를 향해 힘차게 날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용마' 5중대입니다.</p>
중대 명칭 변천	한나래 5중대 → 태백 5중대 → 용마 5중대
중대 자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대본부 주관 의무자습을 통해 학업 중시 문화를 조성하는 중대</li> <li>• 뛰어난 체력을 상징하는 용마와 같은 'YMRC(용마러닝클럽)', 스포츠 관람, 웨이트 트레이닝 등 중대 소모임 활동을 통해 중대원의 단합력을 고취하는 중대</li> <li>• 전 중대 중 가장 신나는 중대가인 '용마가' 제창을 통해 단합력을 최상으로 이끌어 행사에 임하는 파이팅이 있는 중대</li> <li>• 중대로고를 활용한 굿즈(기념품) 제작과 중대 소속감을 고취시키는 중대 게시판을 활용한 '용마이벤트' 기획을 통해 전 중대원이 함께하는 화목한 중대 분위기 조성</li> </ul>


## [6중대]

구분	내용
	<p>'하나를 위한 모두, 모두를 위한 하나'를 모토로 삼는 6중대는 목표를 향해 거침없이 나아가고 열정으로 진력하는 '질풍'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p>
중대 명칭 변천	제우스 6중대 → 엘리트 6중대 → 질풍 6중대
중대 자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1/24년 무용기 대회 우승, 무용기 대회 시 3위권을 고수하는 단합력 최강 중대</li> <li>• 질풍 리셉션, 우수생도 경품추첨, 마니또행사, 주간 이모저모(학년별 TMI:Too Much Information) 등 단합행사로 선·후배 간 화합이 가장 잘 이루어진 중대</li> <li>• 중대 월별목표 설정을 통해 '같이'의 가치를 실천하는 중대</li> </ul>

## [7중대]

구분	내 용
	<p>7중대는 '나보다 우리의 가치를 존중하는 화합'을 모토로 강하고 빠른 전투기를 의미하는 '마하'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p>
<p>중대 명칭 변천</p>	<p>펠콘 7중대 → 기라성 7중대 → 마하 7중대</p>
<p>중대 자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축구 부동의 랭킹 1위 및 제1회 충청북도 대학동아리 스포츠대회 축구 3위의 축구 명문중대</li> <li>• 군기보단 사랑으로 후배들을 포용하는 정이 넘치는 중대</li> <li>•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등 정기 체육활동을 통한 중대원 간 사이가 가장 가까운 중대</li> <li>• 성무제와 같은 행사에서 가장 먼저 무대로 뛰어가 제일 크게 환호하고 놀 줄 아는 젊음의 패기를 가진 중대</li> </ul>

## [8중대]

구분	내 용
	<p>8중대는 '진실과 배려, 혼자 빨리가기 보다 함께 멀리 가는 중대'를 모토로 기분좋은 바람을 의미하는 '광풍'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p>
<p>중대 명칭 변천</p>	<p>혜성 8중대 → 광풍 8중대</p>
<p>중대 자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용과 무용! 쌍용을 이뤄낸 '24년 쌍용중대</li> <li>• 팩 점호(피부관리 점호), 라냉점호(라면, 냉동 야식), 퀴즈점호 등 즐거운 바람을 의미하는 광풍처럼 지루할 틈이 없는 재미와 즐거움이 있는 중대</li> <li>• 외모적으로 잘생기고 예쁜 생도들이 가장 많으며, 인성적으로도 가장 예의가 바른 '멋있는' 생도들이 지내고 있음.</li> <li>• 악기 연주에 능통한 인재가 많으며, 각종 중대 동아리를 통한 문화·예술을 향유할 줄 아는 우아한 중대</li> </ul>



# 新 三士體典, 공사 우승하다! - 육·해·공 야구 교류전('23년)



이상호(31기)

전통적으로 삼사체전은 생도들에게 최고의 축제의 장이었지만 축구, 럭비 중심의 경기에서 2023년 최초로 야구 종목이 도입되었다. 23년 11월 4일 태릉 육사 야구장에서 3개 군사관학교의 대표 생도들이 각 학교의 명예를 걸고 상대팀을 배려하면서 시종일관 흥겨운 분위기에서 화합과 단결, 합동성 강화의 장을 펼쳤다.

최종결과는 공사가 1승 1무(공사 7 : 육사 3, 공사 5 : 해사 5), 육사가 1승 1패(육사 6 : 해사 5), 해사가 1무 1패를 기록, 공사가 최종 우승의 기쁨을 누렸다.

		13:54									R	H	E	B
TEAM		1	2	3	4	5	6	7	8	9				
공사		4	0	2	0	1	0	0			7	8	1	8
육사		0	0	2	0	0	0	1			3	4	1	5

타순 타자: 2 김형준, 3 권영우, 4 황지호  
B S O: 이시원  
H E F C: 유민규

		16:50									R	H	E	B
TEAM		1	2	3	4	5	6	7	8	9				
해사		0	0	1	0	0	2	1	1	0	5	5	3	3
공사		1	0	0	1	0	0	0	3		5	6	2	5

타순 타자: 1 김형준, 2 이시원, 3 장영우  
B S O: 김다현  
H E F C: 김형준

공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야구를 하는 것은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활동(과거 과외 활동반, 취미 활동반, 동아리 활동 등으로 불리었던 학과 이외의 특별활동) 스포츠 17개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2017년 이전까지는 학점이 인정되는 문화, 체육활동이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학점이 없는 동아리, 인증 활동으로 시행되고 있다.

2023년 최초 야구 삼사체전에서 우승을 한 야구부 동아리 활동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야구부 반장 생도인 8중대 4학년 조현성에게 궁금한 사항을 중심으로 문답 형식으로 주고 받은 사항을 정리하였다.

### Q. 3군 사관학교에서 야구 교류전을 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A. 코로나19 이후 KBO(한국야구위원회)에서 3군 사관학교를 대상으로 동아리 물품 지원 사업을 진행해 준 덕분에 학생들이 야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한화 이글스 레전드 장종훈 감독이 동아리 강사로 출강해 전문적인 야구를 배울 수 있었다. 또한 KBO에서는 3군 사관학교 야구 교류전에 필요한 야구공은 물론 우승 및 MVP 트로피를 지원해 주었으며 육사에서는 숙소 제공, 야구장 사용 등의 지원을 해 줌으로써 3군 사관학교 야구 교류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Q. 어떻게 교류전이 진행되었는가?

A. 2023년부터 동아리 대외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다양한 야구 교류전을 개최하였는데, 야구 커뮤니티인 '게임원'에 팀을 등록하고 사회인야구 전국대회에 출전하기도 하였다. 충북대학교, 충남대학교와 함께 성무체육공원 야구장 및 근교 세종의 체육시설을 이용하여 다양한 경기 경험을 쌓았다. 또한 매년 3군 사관학교 친선경기를 실시하면서 타군 사관생도들과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으며, 2023년 5월 각 학교의 중간고사가 종료된 시점에 육사 야구장에서 육사와 공사의 야구 친선경기가 진행하였으며, 다음 활동을 고민하던 중 2023년 10월 초에 육사 교장이 주관하여 11월 중에 3군 사관학교 야구 교류전을 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Q. 야구 교류전은 언제, 어디서 진행되었는가?

A. 3군 사관학교 야구 교류전은 육사 교장의 약속대로 2023년 11월 4일에 육군사관학교 야구장에서 진행하였다. 공사와 해사의 이동시간을 고려하여 3군 사관학교 야구 동아리 생도들은 육사에서 제공한 숙소에서 경기를 준비하였고, 경기 진행은 이닝제가 아닌 시간제로 하여 3시간 경기로 진행하였으며, 주심은 나종남 대령(육사 군사사학과 교수)이 담당하였다. 제1경기는 육사 vs 해사, 제2경기는 공사 vs 육사, 제3경기는 공사 vs 해사로 진행하였다.

### Q. 생도들 야구는 누가 지도하는가?

A. 2023년도에는 KBO에서 1천만 원 상당의 물품 지원과 함께 한화 이글스 레전드 장종훈 감독이 공사 야구 동아리를 지도해 주었으나, 현재는 전문 지도자가 없어 과거 학창시절 경험을 가진 생도들 주도로 자율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 생도중에 고등학교 때까지 선수 활동을 하여 KBO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한 경력이 있는 2학년 이시원 생도를 자체 감독으로, 외야 및 타격 코치는 4학년 조현성 생도, 내야 코치는 4학년 정지윤 생도, 투수 코치는 3학년 고





경육 생도가 많고 있다.

**Q. 선수 구성은 어떻게 하는가?**

A. 학교 방침에 따라 동아리 내 학년별 최대 인원 제한으로 학년별 7~8명 정도로 총원 2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대외활동을 위한 선수 구성은 야구부 코치진이 오디션을 진행하여 입단을 원하는 1~4학년 생도를 영입하는데, 외부대회 인원은 '학년 상관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주전을 선발하고, 포지션별로 2명 이상의 명단을 공개하여 실력이 더 좋은 선수를 주전으로 선발하는 '경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Q. 훈련 및 연습경기는 어떻게 하는가?**

A.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시간(7, 8교시)을 활용하여 훈련을 진행하며, 월요일에는 내야조와 외야조로 나누어 수비 훈련인 핑고와 배팅 훈련인 티배팅, 토스배팅, 라이브배팅을 진행하고, 투수조는 선발 자원과 포수 자원이 배터리를 이루어 불펜 피칭으로 훈련한다. 화요일에는 모든 포지션이 필드에 나가 여러 상황을 가정하여 핑고를 받는 종합 훈련을 하며, 야간에는 외부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을 중심으로 2~4시간 정도 훈련을 진행한다. 그리고 연습경기는 대학교의 야구 동아리팀과 경기를 하고, 매년 3, 4회 정도 사회인 야구 대회에도 참가하여 높은 수준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야구는 투수가 중요한데 투수 선발, 훈련, 선수 현황은?**

A. 야구는 선발 투수 놓음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선발은 가장 중요한 포지션이다. 현재 공사 야구 동아리는 경험 많은 생도 중심으로 투수진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상 방지를 위한 투구폼 교정, 구속 증가 훈련, 제구력 훈련, 변화구 습득을 위주로 훈련하고 있다. 선발진은 3학년 고경욱, 박준홍 생도, 2학년 김태오, 이시원 생도로, 불펜진은 4학년 조현성, 정지윤 생도, 2학년 이승근 생도이다. 공사 투수진은 우완투수, 좌완투수, 사이드암 투수 등 다양하게 구성되어 상대팀의 타격 스타일에 따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Q. 모자, 유니폼 소개**

A. 공군사관학교 야구 동아리 유니폼은 기본 흰색 유니폼에 파란색으로 'Wings'라는 레터링이 새겨져 있다. 기본적인 디자인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금메달을 획득했던 대한민국 국가대표 유니폼이며, 이러한



색상과 Wings라는 마크는 미래에 공군 장교로서 푸른 영광을 누빌 공군사관학교 생도의 정체성과 잘 어울린다.

### Q. 23년도 교류 경기 실적은?

- A. 대외활동 : 화성시장배 전국사회인야구대회(비선출부)/ 패. 8:14  
교류경기 : 충북대학교/ 승. 13:7, 충남대학교/ 패. 13:14

### Q. 23년도 최고 투수, 타격 선수는?

- A. 최고의 투수 : 이시원 생도 / 1경기 7이닝 3실점 8K(완투승)  
최고의 타자 : 조현성 생도 / 4경기 10타수 6안타 2타점 7득점

자기 주도적 역량개발 활동으로 야구를 사랑하고 야구를 즐기는 공사 야구부원들의 능력과 노력을 감안했을 때, 2024년도에도 야구 삼사체전이 개최 된다면 분명히 공사가 2연패 하리라 확신하며, 공사 생도들의 건투와 행운을 빌어본다. ➡





## 멀리, 더 멀리



정재훈(73기)

우주공학을 전공하는 4학년 생도로서 수업시간에 들었던 흥미로운 천체 하나를 소개하며 글을 시작하고자 한다. 바로 1977년 발사되어 지구로부터 가장 먼 거리를 날아간 무인 탐사선, 보이저 1호(Voyager 1)이다. 보이저 1호는 지구로부터 약 240억 km 떨어진 성간 우주를 초속 15km의 속도로 항해하고 있다. 칙고 어두운 망망대해를 가로지르는 이 외로운 탐사선은 다른 우주 발사체와는 달리 내게 특별한 울림을 준다.

1990년, 지구로부터 약 60억 km 떨어진 지점을 지날 시점, 당시 보이저 계획을 담당하고 있던 천문학자 칼 세이건(Carl Edward Sagan)은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돌려 촬영할 것을 지시했다. 정해진 궤도를 따라 항해하는 장거리 무인 탐사선의 시선을 돌리는 것은 자칫하면 모든 임무를 수포로 만들 수도 있었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마침내 60장의 사진을 전송받게 되었다. 어렵사리 얻어낸 뿌옇고 흐릿한

사진 속엔 0.12 픽셀짜리 점 하나가 찍혀 있었다.

점으로 표현된 지구는 그저 광대한 우주 한 귀퉁이의 먼지 혹은 그 이하에 불과할 뿐이지만, 그럼에도 지구가 이토록 특별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현재까지 인류가 관측한 수많은 천체 중 생명이 존재하는 곳은 지구가 유일하다.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터전인 이곳 지구에서, 사람들은 한순간 피고 질 참



'창백한 푸른 점'(Pale Blue Dot)

나를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경쟁한다. 우리는 이 사진 한 장을 통해 어떠한 자만과 욕심, 고통과 분노라도 이 우주의 광활함 앞에서는 그저 무의미할 뿐이라는 겸손을 느낀다.

인류의 보잘것없음과는 반대로, 지구가 얼마나 특별하고 아름다운 공간인지도 동시에 깨닫게 된다. 지금까지 관측한 공허한 암흑 속에서 이토록 조화로운 모여 살 수 있는 공간은 오직 이 좁은 지구뿐이다. 유일하게 생명을 간직할 수 있는 이곳에서, 인류는 서로 아끼고 서로 배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게 된다.

수십억 km를 떨어지고서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이러한 깨달음을 통해 나는 우리 삶에 일정 거리를 두고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떨어져서... 더 멀리, 더욱 더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인생이라는 짧은 단막극을 너무 가까이 바라보는 것은 단지 무대 위 소품이 무엇인지 정도를 확인하는 데에 그칠 것이다. 살짝 떨어져야 눈의 초점이 맞듯, 공간이 마련되어야 힘을 쓸 수 있듯, 우리 삶에는 거리가 필요하다. 하루하루를 바삐 살아가는 많은 이들은 당장 눈앞에 몰아치는 여러 가지 일에 시야가 좁아져 삶을 너무 가깝게 바라보고 있을지 모른다. 특히, 매

일같이 바쁜 일과를 수행하고 있는 생도들의 경우에도 근시안적으로 하루를 맞이하고 있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예컨대 아마 생도라면, 선배에게 크게 꾸짖음을 듣고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과 망연자실을 경험한 적이 있을 것이다.(물론 내 주관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 생도생활이 마치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느껴질 때, 하루하루를 버티며 생활하는 치열한 생도생활 속에서 사소한 실수는 크게 다가오기 마련이다. 그러나 삶을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보면, 이러한 과정은 모두 정예장교가 되기 위한 밑거름일 뿐, 매몰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사관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는 이들은 생각하는 방식, 가치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는 미래도 나와 가깝고, 심지어 물리적으로도 벽 하나를 두고 가까이 살기에 내 삶을 멀리 떨어져 보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우리는 삶을 멀리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내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사관학교 밖에 내 나이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지내며,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넓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 삶으로부터 더욱 먼 거리를 떨어져야 한다. 더 멀리, 더욱더 멀리 떨어져 조그마한 것에 매몰되어 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스핑크스 이야기를 끝으로 글을 마무리하려고 한다. 신화 속 괴물인 �핑크스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은 수수께끼를 던졌다. “아침엔 네 발, 점심엔 두 발, 저녁엔 세 발로 걷는 것은?” 익히 알다시피 정답은 사람이다. 정답을 알지 못했던 대부분은 �핑크스에게 잡아먹혔으나, 삶을 통찰하는 지혜가 있었던 오이디푸스는 정답을 맞춰 �핑크스를 처단하게 된다. �핑크스에게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우리 삶을 더 멀리, 크게 바라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을 충분한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잠깐 반짝이고 사라질 생명들이 이렇게나 다채로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것이 우주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입

장에서 삶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자고 제안하고 싶다. 우리가 삶을 너무 가까이 바라볼 때, 굳이 보지 않아도 될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다. 지금 이 순간에 너무 매몰되어 깊은 심연에 빠지거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봤다. 선배가 혼내면 마지 자신의 세상이 무너진 듯 좌절하는 일학년과, 후배생도의 경미한 과오에 진심을 담아 혼을 내는 선배는 어쩌면 같은 맥락에서 바라 볼 수 있다. 조금은 거리를 두고 바라보면 다른 인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무대 위 소품을 보느라 삶이라는 아주 짧은 단막극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는 것은 너무 아쉽다. 가까운 거리에서는 눈의 초점이 맞지 않듯, 적당한 공간이 확보되지 않으면 힘을 쓰지 못하듯, 적당한 거리가 필요할 것이다. ➡

## 비상(飛上)의 길을 따라 날기



이예은(73기)

안녕하십니까. 공군사관학교 명예위원장생도 4중대 73기 이예은입니다. 공군사관학교 개교 75주년을 맞아 생도 생활에 임하는 저의 가치관(각오)과 함께 지난 생도 생활이 저를 얼마나 성장시켰는지와, 앞으로 나아갈 포부를 담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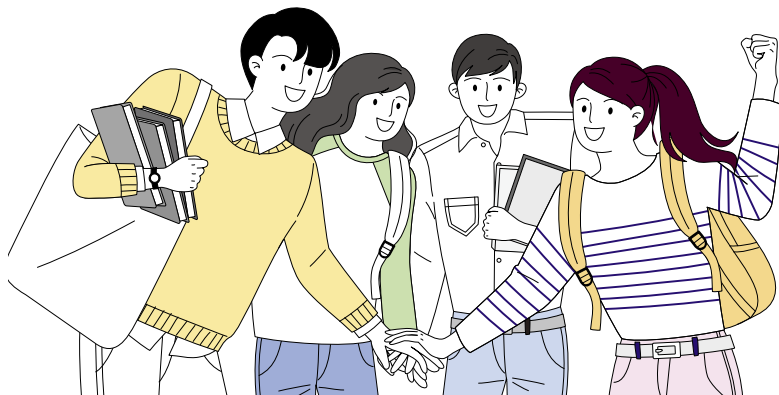
2020년 대입준비가 한창이던 고교 3학년 여름, 점심시간을 마치고 교실로 돌아가는 길에 교무실 옆에 붙어있는 공군사관학교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포스터를 보는 순간 푸른 정복에 매료되었고, '나도 저 제복을 꼭 입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생도 대에 발을 들이게 되었습니다. 가입교 시절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도 현시를 들으면 당시의 차가웠던 공기와 뜨겁게 내뿜던 숨이 느껴집니다. 기초군사훈련을 받을 때 매일 꾸던 꿈이 있습니다. 집 거실에서 가족들의 화기애애한 대화 소리를 들으며 낮잠을 자는 꿈이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눈을 뜨면 저를 맞이하는 건 어둡고 차가운 별관의 천장이었습니다. 그 저 정복을 입고 싶다는 어린 마음으로 기초군사훈련에 입과했던 저는, 그때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훈련을 멋지게 수료하고 당당한 생도가 되어야겠다고. 그리고 든든한 장교가 되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지키겠다고. 한계를 시험하는 훈련들을 넘어 생도가 되었을 때 즐거운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생도 생활은 '극복의 연속'이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제가 넘어야 할 고비도 높아졌습니다. 매번 새로운 형태의 어려움이 닥쳤고 그 안에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와도 묵묵히 나아가고 결국 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토록 겁 많던 제가 이곳에서는 낙하산을 달고 항공기에서 뛰어내렸고, 단거리 달리기도 힘들어하던 제가 지금은 동기가 힘들어하면 기꺼이 동기의 군장도 함께 짊어지고 달리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청춘(靑春)은 '새싹이 파랗게 돌아나는 봄철'을 뜻합니다. 벚꽃이 만개하면 웃음도 만개하는 성무대는 '청춘' 그 자체입니다. 20대 초반의 패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모인 생도대는 항상 시끌벅적합니다. 생도대에서 우리는 어른이 되어가는 법을 배웁니다. 씨앗 껍질을 뚫고 싹을 틔우기 위해 때로는 아프고, 새로운 환경에 낯설어하기도 하지만 결국엔 싹을 틔우고 푸른 이파리로 봄철의 산들바람을 맞이합니다.

생도는 매일 '해내야 하는 일'을 새롭게 마주합니다. 도저히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어떻게든 훌륭히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합니다. 그러던 중 옆을 돌아보면 함께 하고 있는 동기들이 있습니다. 강한 군기, 강한 체력, 강한 정신력을 요구하는 공군사관학교의 생도 생활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재밌고, 웃음이 나오고, 꽤 자주 행복한 순간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나의 힘든 고민과 어려움을 공유하는 사람이 항상 곁에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다같이 모여 아침점호를 하고, 학과출장을 하다 보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엔 지금이 그리워지는 순간이 오겠구나.'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이 순간들이 얼마나 값진지 오래오래 기억하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1학년때, 동기생이 계단에서 넘어져 이마가 찢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모든 선배님께서 한달음에 달려오셔서 신속하게 구급차를 부르시고, 해당 생도의 환부를 지혈하며 응급처치하셨습니다.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이었음에도 선배님들은 단 한 분도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후배 생도의 상태를 살피고 응급처치를 하는 선배님들로부터, 공사심훈의 '술선수범, 책임완수'를 어떻게 실현하는 것인지 배웠습니다. 작년에는 공군 장교 임관을 앞둔 72기 선배님께서 긴급 상황에 처한 운전자를 도로에서 발견하고, 신속히 대처해 생명을 구한 사연이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선배님은 비상등을 켜고 이상하게 주행하는 차량을 발견하고 수차례 경적을 울렸으나, 상대 차량은 아무 반응이 없자 위급상황이라 판단하셨습니다. 해당 차량이 휘청거리다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고 멈춰 서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한 다음, 사고 차량의 운전자가 의식을 잃을 것을 대비해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계속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당시 선배님께서 침착하게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지 않으셨다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선배님께서서는 "사고 피해 운전



자를 끝까지 살피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온 것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면서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길 바란다”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스스로의 공적을 높이기보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며 겸손한 자세로 임하셨습니다. 이처럼 타인이 위급한 상황에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솔선수범하여 그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공군사관학교의 교훈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교훈이 생도 생활 간 내재되었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충효관에 ‘카페 스프링’이 생겼습니다. 훈육 요원들께서 생도들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셨습니다.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훈육요원은 우리의 허물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하지만 생도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도 훈육 요원들이셨습니다. 카페 스프링의 완공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보며 처음으로 전대장님도, 대대장님도, 중대장님도 훈육관님도 ‘우리의 선배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도 생활은 4년뿐이지만, 그 순간이 우리에게 준 값진 경험들은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선배님들과 후배들을 보이지 않게 연결하고, 관계 속에서 살아 숨신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공군사관생도였기에 배울 수 있었던 가치들이 낡지 않고 항상 그 자리에서 반짝인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삶의 경험입니다. 지금 이 곳이, 제가 서있는 성무대가 얼마나 근사한 곳인지 잊지 않겠습니다. 선배님들께서 하셨듯, 저도 이 성무대가 후배들에게 지속 가능한 가치를 물려주는 소중한 청춘의 요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T-50 개발 교훈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전영훈 골든이글 공학연구소장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특강을 통해 골든이글팀이 국산 초음속 항공기를 만들기 위해 10년간 매일같이 땀흘려온 과정을 들었습니다.

F-4 팬텀기를 조종하다 기관포 조작 과정에서의 불편사항을 발견한 전영훈 소장님은 ‘우리가 개발한 항공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개선할 수 없다’는 정비사의 말을 듣고 부터 ‘우리 손으로 만드는 항공기’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이때는 국산 항공기 개발에 대한 구상조차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전영훈 소장님이 국산 항공기 개발 연구를 건의하면 대부분 불필요한 일에 힘쓰지 말자는 의견이 되돌아왔습니다. 전영훈 소장께서는 직접 한 명 한 명 찾아가 발로 뛰며 설득하셨고, 당시 참모차장님께도 이 연구가 자주국방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직접 말씀드리며 결국 승인을 얻어내셨습니다. 록히드마틴사와도 직접 협상해 절충 교역을 맺으셨습니다. 전영훈 소장님은 항공기술 불모지에서 팀을 꾸려 미국까지 가서 직접 기술을 배우셨습니다. 10년같이 매일같이 땀흘려온 골든이글팀은 결국 국산 초음속 항공기 T-50이라는 명품항공기를 만들어 국산항공기 훈련체계 완성의 초석을 제





공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늘을 우리의 항공기로 지키는 미래에 한걸음 다가갔습니다.

이는 모두가 가망 없다 할 때조차 길을 찾아내고, 없으면 길을 내며 돌파하셨던 수많은 선배님의 모습입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제가 배운 것 역시 ‘결국 해내는 법’이었습니다. 작년 11월, 공사생도가 독자 설계·제작한 전자광학 위성 ‘KAFASAT’이 미국 공군기지에서 발사됐습니다. 전자광학 카메라를 탑재하고 관심 지역의 전장을 감시하는 임무를 위해 개발됐습니다. 최소 1년 이상 위성을 운용하면서 이미지 해상도는 20m 이하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과거 초소형 위성 ‘K2SAT’이 발사 지연으로 전력이 손실되고 교신에 실패하며 좌절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공군사관학교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재도전하였으며, 끝내 KAFASAT을 쏘아 올리며 그 노력과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한국은 70년 전만 해도 침략당하고, 파괴되어 둘로 갈라진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선진 대한민국에 도달하기까지 치열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개교 75주년은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선배님들께서 닦아주신 초석을 든든한 기반으로 삼아 KAFASAT이 멋지게 날아오른 것처럼, 후배들이 도약의 길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전장은 영공을 넘어 우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저희 사관생도들은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유능한 인재로 성장해서 우주에서조차 위협받지 않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데 일조하겠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배님들의 노고가 있었는지를 항상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들께서 닦아놓으신 비상(飛上)의 길을 이어 나갈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정예 공군 장교로 자라나겠습니다.

‘지금’을 만들어주시고, 이 소중한 ‘성무대’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동훈(73기)

성무대에 벚꽃이 만개했던 4월, 인공위성 자세제어 수업의 일환으로 카이스트의 인공위성연구소를 방문했었습니다. 연구소를 소개해주신 연구원은 연구소에서 작년에 쏘아 올린 ‘차세대 소형 위성 2호’의 자세제어 기술을 소개하시면서 인공위성의 관성과 상쇄 방법에 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인공위성이 궤도를 돌 때면, 인공위성은 그것에 작용하는 여러 교란에 저항하며 그 스스로 관성을 쌓아간다고 합니다. 관성들을 제때 제거하지 않는다면, 작은 관성들이 모여 큰 힘이 생겨나고, 결국 인공위성은 원하는 방향을 지향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설명을 들으며, 우리도 인공위성처럼 변화에 저항하려는 저마다의 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처럼, 우리는 자신에게 변화가 일어날 때 그 변화에 저항하며, 자신의

관성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관성은 결국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지향할 수 없게 만들기 마련입니다. 정작 자신이 변화를 원할 때, 그동안 쌓아왔던 관성이 너무 커서 혼자만의 힘으로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 생도대의 변화

생도대에서는 우리 학교의 개교 75주년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해 다양한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선배 생도들이 후배 생도들을 모질게 하기 위한 수단이었던 ‘용무’를 전면 폐지하여 생도 상호 간 교육 문화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용무’ 문화는 저학년, 특히 1학년 생도들에게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었습니다. 선배들에게 지적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용무’라는 이름의 일과 후 교육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저학년 생도들에게는 큰 어려움이었



습니다. 교장님을 중심으로 ‘용무’ 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전대본부와 생도생활발전위원회가 ‘용무’ 문화 제거를 시작으로 발전적인 생도 상호 간 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외부 용역업체가 주 1회 생도대 공공시설 청소를 진행하며, 1학년 생도에게 가중되었던 공공시설 청소 부담을 경감시키고 있습니다. 기존 1학년 생도들은 주 3회, 일과 후 30분 내지 1시간 동안 공공시설을 청소했습니다. 잦은 공공시설 청소는 1학년 생도들의 일과 후 휴식시간이나 자유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아가고 있었습니다. 1학년 생도들에게 조금이나마 휴식시간을 부여하기 위해 이번 학기부터 공공시설 청소 용역을 주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외부 업체에서 생도대 공공시설을 청소해주고 있으며, 1학년 생도들은 일과 후에 조금이나마 더 쉬고, 자기계발에 힘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도 체력평가 기준이 소폭 강화되었습니다. 기존 4학년 생도의 체력평가 기준은 장병 특급 기준(팔굽혀펴기 72회, 윗몸일으키기 82회, 3km 달리기 12분 30초)와 동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학기를 시작으로 생도들의 체력 수준 향상을 위해 체력평가 기준이 장병 특급보다 소폭 향상되었습니다. 팔굽혀펴기의 경우 기존과 변화가 없지만, 윗몸일으키기 개수가 82회에서 86회로, 3km 달

리기 기준이 12분 30초에서 12분 20초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기준 변경이 발표되었을 때 생도들 사이에서 변경된 체력평가 기준이 부담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도들은 변경된 기준에 맞춰 본인들의 체력을 키웠고, 대부분 생도들의 체력이 변경된 기준을 넘어서는 상향된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 우리들의 관성

공군사관학교가 개교한지 75주년이 되는 동안 생도대에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지만, 짧게는 1년, 길게는 3년 동안 기존의 것에 익숙해져 있던 저희 생도들은 이러한 변화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같은 삶을 살아오고, 작은 변화들에 저항하며 생도들 내부에 쌓여온 관성이 큰 변화에 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도들이 새로운 방향을 지향해야 할 때, 생도들의 관성이 생도들의 변화를 막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앞에 놓인 변화가 단지 이미 형성되어진 관성 때문에 관철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가 마주한 이 변화가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과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변화가 저희의 관성에 의해 관철되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이유는, 저희가 이끌어내야 할 사회가 끊임 없이 급변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조직은 도태되고, 변화에 순응하는 조직은 발전하기 마련입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생도들이 장차 공군의, 나아가 국가의 리더로서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자세를 익혀야 만이, 우리 조직과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생도대에서의 작은 변화에서부터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노력하며, 장차 있을 큰 변화 앞에서도 유연하게 움직이는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저희는 저희 내부의 관성을 줄이는 연습을 이어가야 합니다.

인공위성은 자신의 관성과 반대 방향의 힘을 작용시켜 관성을 상쇄시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도 저희의 관성과 반대되는 변화에 적응하며, 저희의 관성을 줄여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변화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변화에 저항하기보다는 변화에 적극 동참해서 나의 관성을 상쇄시켜줄 힘을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인공위성이 너무 많은 반대 방향의 힘을 작용시킨다면, 오히려 인공위성은 반대 방향의 관성을 가지게 되고,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인공위성은 자신의 관성과 반대 방향의 힘이 균형을 이룰 때 목표한 바를 지향할 수 있으며, 안정적인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변화와 관성이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하되,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 잊지 않고 둘 사이의 조화를 이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와 새로운 시대의 변화가 균형을 이룰 때, 우리는 안정적으로 목표한 바를 지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잊지 않기 위해,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라는 우리 학교의 교훈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봅시다. ➔







## 특별한 경험, 튀르키예 공군사관학교



배강민(74기)

튀르키예 공군사관학교는 옛수도 이스탄불에 위치해 있으며 각 학년에 약 200명씩, 총 약 1000명이 재학하고 있는 튀르키예의 군사 교육 기관입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0학년부터 4학년까지 총 5년제 대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0학년 때의 수업은 오직 외국어 수업만 진행됩니다. 외국어 수업이란, 수탁 생도들의 경우 튀르키예어 교육을 교내에서 받게 되고 튀르키예 생도들은 사관학교가 아닌 kuleli라는 군사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받게 됩니다. 제가 수탁교육 받으러 가기 전까지만 해도 수탁생도, 현지인 생도 상관없이 모두 사관학교 내에서 외국어 교육을 받고, 그 이후 시간 동안 군사훈련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관학교에 들어간 후부터는 교육 과정이 바뀌며 0학년 때의 군사훈련 시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학과는 항공우주공학과, 전기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산업공학과의 4가지로 오직 공학 계열의 과만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공통과목을 배우고 2학년 때부터 전공과목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학기는 10월에 시작하며 시험에서 정해진 수준의 점수를 얻지 못한다면 방학 중 재시험 및 재수강을 하게 되고 여기서 조차 성적이 미달이 되면 1년 유급하여 후배들과 동기가 되어 학교생활을 다시 하게 됩니다.

2학기가 끝난 이후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는 약 4주간의 하계군사훈련이 진행됩니다. 하계군사훈련은 학교에서 배를 타고 Yalova라는 도시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학년마다 다른 프로그램으로 군사훈련이 이루어지는데, 0학년은 매일 특별훈련과 체력 훈련으로 기초체력을 키우고 제식과 같은 기본적인 군사적 역량을 키웁니다. 1학년은 유격훈련과 근접 전투기술 그리고 행군 등을 통해 지상에서의 생활훈련을 진행합니다. 2학년은 공수훈련, 3학년은 글라이더 비행 훈련을 받습니다.

하루 일과의 경우 6시에 기상하여 7시 조식을 하고 조식 이후 각 학년 별로 정해

진 위치에서 점호를 받고 교수부로 이동하여 8시에 1교시가 시작됩니다. 이후 12시 5분에 수업이 끝나고 식당으로 이동하기 위해 모여 각 학년마다 9열로 부대를 형성하여 큰 걸음으로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식사 이후에는 13시 20분부터 오후 수업이 시작됩니다. 오후 수업의 경우 요일마다 다른데, 수요일에는 군사훈련이 진행됩니다. 군사훈련은 높은 강도의 제식, 부대 지휘, 포복 훈련 등을 실시합니다. 이후 보통 17시에 일과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곳의 식사 방식은 한국과는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개별로 식당으로 이동하여 식사를 진행 후 다 먹은 인원은 원하는 때 나갈 수 있지만 튀르키예 공군사관학교에서는 전 생도가 장교님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식사를 진행합니다. 조식은 7시, 중식은 12시 30분, 석식은 19시에 진행되므로 이에 맞춰 생도들은 저학년부터 미리 자신의 식탁에서 기다리다가 그 시간이 되면 알라신에게 기도를 드린 이후 식사를 진행합니다. 저와 같이 무슬림이 아닌 생도들은 기도를 할 때 차렷 자세로 대기합니다. 식사를 마친 이후에도 장교님들이 식사를 마치면 전 생도가 기상하여 감사 인사를 드린 후에야 식당을 나갈 수 있는데 후배 학년의 경우 선배 학년이 나간 후에 나가게 갈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각 학년의 약 25명을 8개의 중대에 나누어 넣어 중대별로 생도들

을 관리하는 데 반해 튀르키예의 경우 사관학교에 있는 4개 학년을 학년별로 나누어 생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건물이 생활관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각 건물에 두 개의 학년이 머물고 있고 또, 선배 학년이 사용하는 층과 후배 학년이 사용하는 층이 분리되어 있어 선배와 후배 생도 간의 접촉이 한국보다는 잦지 않습니다.

생도 자치 운영 측면에서, 튀르키예 역시 한국과 마찬가지로 4학년 생도들 중 몇 명을 선발하여 훈육요원분들과 함께 학교를 운영하는 데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0학년에서 3학년까지 각 학년을 담당하는 Lider라고 부르는 4학년 생도들이 그 학년에서 생기는 문제나 건의사항을 듣고 그 학년의 담당 장교들에게 그것들을 보고하며 생도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Lider보다 더 상위 계급의 Kadet이라고 부르는 4학년 생도들도 있는데, 이들은 학년의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학교 전체를 여러 부분으로 나눈 후 특정 부분을 담당하며 그 곳에 문제가 생길 경우 그것을 해결하는 데 집중합니다.

튀르키예 공군사관학교의 또다른 특징은 바로 당직 제도입니다. 한국은 3, 4학년이 동관과 서관 그리고 본관에서만 당직을 서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튀르키예의 경우 전 학년이 각자 자신이 속한 층과 당직 총사령실에서 각 학년마다 한 명씩 당직을 서게 되고 이 외에도 무기고 당직과 1학년의 경우 식당 당직을 서는 등 한



국에 비해 훨씬 많은 당직이 있습니다. 당직은 교대로 근무하게 되며 24시간 당직을 유지합니다.

튀르키예 공군사관학교에서 2년간 지내며 느낀 장점은 제2외국어를 배울 수 있었다는 겁니다. 1년간의 언어교육 과정을 통해 튀르키예어를 배우고, 수탁교육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 그 언어를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써야만 하는 환경에 놓인다는 점에서 매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배운 영어보다 튀르키예어가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가르치는 장교님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튀르키예어를 배웠으나 어느 순간부터 언어가 들리게 되고 문법이 틀리고 발음이 어눌해도 그 나라 언어를 흉내내다 보니 금방 말문이 트이게 됐습니다. 튀르키예에서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 3개의 언어를 할 수 있게 되니 한국어와 영어만 알던 때와는 생각 하는 방식과 세계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

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튀르키예에서 생활하는 그 자체가 인생에서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이색적 경험임과 동시에 나의 세계를 넓혀주었다는 준다는 점입니다. 수업을 튀르키예어로 듣는 것, 튀르키예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과 소통하고 교감한다는 것, 그들과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땅 위에서 포복훈련을 받으며 함께 웃고 우는 것이 한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색적인 경험이고 이 경험이 인종이 다르고 역사가 다른 타국의 사람도 결국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매우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나 다른 인종과 민족이 섞인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의 문화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슬람 국가인 튀르키예에서 여러 인종의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섞여 지내며 그들의 문화를 경험하다 보니 기존의 생각의 틀이 많이 바뀌게 됐던 것 같습니다. ➔



# 공군인! 알쓸상식!

1. 공군 태동기 역사의 “1호”,  
“최초”, “초대”, “최고” 인물들! / 김용덕(31기) \_ 134
2. 블랙이글스 특수비행 소개 / 김준수(64기) \_ 139
3. 대한민국의 주요 비행장과 K-SITE CODE / 김승규(39기) \_ 146
4. 숫자로 읽는 공사(0, 4)의 의미 / 이준희(31기) \_ 150





# 공군 태동기 역사의 “1호”, “최초”, “초대”, “최고” 인물들!



김용덕(31기)

## □ 대한민국 임시정부 비행장교 1호 박희성, 이용근

**박희성(1896. 5. 2. ~ 1937. 1. 15.)**

황해도 해주 출신인 박희성은 연희전문에 다니다가 둘째 형 박희도 (3.1운동 민족 33인 가운데 기독교 대표)의 권유로 미국으로 건너가 조종사가 된 애국청년이다. 캘리포니아 월로스에 임시정부의 한인 비행학교가 개교하자마자 23명의 한인 청년들과 함께 입교한 그는 항공 면허시험을 치르다가 비행기 추락으로 큰 부상을 입었으나, 불굴의 의지로 이를 극복하고, 1921년 국제항공연맹(FIA)으로부터 조종사 자격증(Aviator Pilot)을 획득,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의 비행장교 참위로 임명되었다. 2010년 광복절에 건군포장을 받고 독립유공자가 되었으며, 이해 11월15일 LA 에버그린 묘지에서 대전국립묘지로 봉환되었다.



박희성 조종사 자격증 사진



**이용근(1890. 2. 4.~1950. 8. 30.)**

평남 출신인 이용근은 평양에서 3년간 교사 생활을 하다가 독립전쟁을 위해 도미 후 항일 비밀 결사단체인 ‘청년혈성단’의 발기인으로 참가했으며, 미국 민간 Redwood 비행학교에서 조종술을 배우고, 임시정부 비행학교로 옮겼다. 박희성과 함께 대한민국 임시정부 최초 비행장교(참위)로 임명되었으며(1921년 7월) 광복 후 미군이 주도한 군정청을 도와 한국공군의 창설에 이바지했다.

이용근 조종사 자격증 사진

### □ 한국인 최초 여성비행사 권기옥(1901. 1. 11.~1988. 4. 19.)

권기옥은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로서, 1925년 중화민국 윈난 육군강무학교(항공군사학부)를 나온 한국 최초의 여자 비행사 출신이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출판인이기도 하다.

1901년 평양 근교에서 태어나 송의여고 학생시절 독립을 위한 비밀 결사대인 송죽회의 회원이었으며 1919년에는 3.1 운동과 평남 도척 폭파사건에 가담하였고, '평양 청년회 여자 전도대'를 조직하다가



발각되어 1920년 9월에 상해로 탈출하였다. 이에 그는 중국 남부 운남성 곤명에 있는 운남 육군 항공학교에 1기생으로 입학하여 1925년에 졸업하였다. 1927년에 장개석 국민혁명군의 군대에 소령으로 입대하여 10년간 복무하고 임시정부 직할 '한국 애국부인회'를 재조직하여 여성들에게 독립사상을 고취하다가 광복이 된 뒤 1948년 8월에 귀국하였다. 그녀의 총 비행시간은 약 7,000시간에 이른다. 해방 후 대한민국 공군 창설에 기여하였으며 공군 발전을 위해 평생 헌신한 항공 선각자이자 애국지사이다.

### □ 조국의 하늘을 최초로 비행한 안창남(1901. 3. 19.~1930. 4. 2.)

1901년 경성에서 태어난 안창남은 1917년 9월 15일 서울에서 펼쳐진 미국인 비행사 아트 스미스의 곡예비행을 목격한 뒤 비행사의 꿈을 키우다, 휘문보고를 중퇴하고 1919년 3월 일본으로 건너갔다. 1920년 8월 도쿄의 오구리 비행학교에 입학했다. 안창남은 일본 비행사 면허 시험을 거쳐 1921년 5월 3등 비행사 면허를, 1922년 6월 2등 비행사 면허를 취득했다. 1922년 12월 10일 낮 12시 22분 여의도 비행장에서 매서운 겨울 추위를 뚫고 1인승 단발 복엽기



(금강호) 한 대가 떠오르자 이를 지켜보던 5만여 명의 군중은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이로서 안창남은 민족 희망의 횃불 같은 존재로 국민들의 가슴에 각인되었다. 이후 중국으로 망명하여 독립 공명단을 조직하여 조선의 독립을 위해 일본과의 전쟁을 준비였으나, 1930년 4월 불의의 추락사고로 불꽃같은 생을 마감했다.



## □ 조국의 하늘을 지킨 공군 초대 참모총장, 군번 1번

### 김정렬 장군(1917. 9. 29.~1992. 9. 7.)

김정렬 장군은 공군 창설 간부 7인(최용덕, 김정렬, 장덕창, 이영무, 박범집, 이근석, 김영환)의 핵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초대 및 3대 공군 참모총장을 역임하였다.

공군이 창설되기 이전인 1949년 4월 자신이 직접 집필한 『항공의 경종』 책자를 통해 한국전쟁을 정확히 예측하고, 그 전략적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북한의 항공력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공군 독립 필요성을 촉구하여 공군 창설에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공군 창설 8개월 후에 맞은 6.25전쟁에서 전투기 하나 없는 이름뿐인 공군을 지휘하였고, 개전 초 F-51D 무스탕 전투기를 미군으로부터 지원받아 탁월한 리더십으로 풍전등화의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 □ 당대 최고 비행기록, 최초 민간항공사의 직업 비행사

### 장덕창 장군(1903. 5. 9.~1972. 7. 11.)



1903년 5월 9일 평안북도 의주 태생의 장덕창은 일곱 살 나던 해 가족과 함께 서울로 이주하여 양정고등보통학교에서 수학하였고, 1921년 일본으로 건너가 지바현에 있는 이토 비행훈련소에 입소하였다. 1921년 이 연구소를 졸업한 그는 1922년 5월 일본 항공국에서 실시한 비행사 면허시험에 합격하여 일본의 민간 비행사가 되었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조국에 돌아온 그는 1949년 10월 1일 공군이 독립하기까지 육군 항공기지 부대장을 거쳤으며 공군 창설에 앞장섰다. 공군의 독립과 함께 공군 독립기지사령관의 중책을 담

당한 장덕창은 1950년 8월 공군 창설 7인 중 유일한 민간항공인 출신으로 공군 최초 전투비행단인 제1전투비행단 초대 단장에 취임하여 조종사 및 전투요원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며, 후배들의 존경을 받았다.

## □ 대한민국 최초 100회 출격

**김두만 장군(1927. 2. 16. ~ )**

김두만 전 참모총장은 6.25 때 공군 최초로 100회 출격한 살아있는 공군의 '전설'이다. 1943년 9월 일본 육군항공대 소년비행학교를 졸업한 김두만 장군은 해방 후 1949년 학사 5기로 임관하고, 6.25전쟁이 일어나자 미군이 넘겨 준 F-51D(무스탕)을 몰고 대활약을 하였다. 1951년 강릉기지로 이동한 김두만 대위는 북한의 원산에서부터 중부전선에 이르는 적 보급로와 보급품 등 주요 전력들을 찾아내 매일 1~2회씩 출격하면서 전과를 올렸다. 1951년 12월 1일, 공군 소령으로 진급한 그는 편대장으로 계속 출격임무를 수행했다. 1952년 1월 11일, 김두만 소령은 담담한 심정으로 출격에 나섰고 그는 금강산 일대에 위장해 있던 적의 보급기지를 파괴하는 비행임무를 완수하고 강릉기지로 무사히 귀환했다. 그러자 강릉 전진부대장 김신 대령과 동료 전투조종사들, 최원문 정비사를 비롯한 여러 정비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지르며 그의 애기 주변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은 '대한민국 공군 최초의 100회 출격'이라고 쓴 플래카드를 펼쳐 들고 조종석을 빠져나온 김두만 소령에게 악수 세례를 퍼붓고 무등을 태워 주었다.



김두만 소령의 100회 출격을 축하하는 모습





## □ 대한민국 공군 최초 태극무공훈장

### 이근석 장군(1917. 1. 17.~1950. 7. 4.)

평안남도 평원군 구원리에서 출생한 이근석 장군은 1933년 3월 평양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일본 쿠카야마((熊谷) 비행학교를 졸업하였다. 1945년 8월 광복 후 김정렬·최용덕·장덕창·이영무·박범집·김영환과 함께 공군 창설 7인 간부의 일원으로 항공부대의 창설에 기여한 이근석 장군은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자, 비행단장으로서 L-4, L-5, T-6 경항공기를 직접 지휘하여 개성, 문산 방면으로 남하하는 적 지상군에게 손으로 폭탄을 투하하는 등 필사적인 공중공격을 감행함으로써 적의 남하 속도를 지연시켜 아군이 방어태세를 갖추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1950년 7월 2일, 일본 이다즈게 기지에서 미공군으로부터 F-51D 전투기를 인수해온 10인의 공군 조종사 중 한 명인 이근석 대령은 그 이튿날인 7월 3일 공군 역사상 최초로 출격한 F-51D를 몰고 동해안의 묵호와 삼척지구에 남하하는 북한군에게 로켓탄과 기관총 공격을 퍼부어 다수의 북한군을 사살하고 적 연료보급소 1개를 불태웠으며, 영등포와 노량진 지역에 집결한 북한군에 대해서도 로켓공격을 감행해서 T-34 탱크 2대와 차량 3대를 격파하고 탄약집적소 1개를 폭파시켰다. 그해 7월 4일 경기도 시흥쪽으로 남하하는 인민군 기갑부대를 격파하라는 명령을 받고 출격하여 기갑부대를 향해 급강하하여 공격하던 중 적탄에 피격되어 추락해 산화하였다. 그가 창공에 묻힌 날, 김정렬 공군참모총장은 “전장에서 순국함은 무인으로서 당연한 일이지만 불초한 상관의 어리석은 명령으로 말미암아 제대로 실력 발휘를 못하고 세상을 떠나니 어찌 한이 없겠는가?”라고 탄식하며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이근석 대령이 산화한 지 약 1년 2개월이 지난 1951년 9월 19일, 정부는 그에게 공군 최초로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하고, 공군 준장으로 추서했다. 미국 정부도 그에게 특수비행훈장을 수여하였다.



일본에서 F-51 인수 비행교육 받고 있는 이근석 대령 (맨 오른쪽)

## 블랙이글스 특수비행 소개



김준수(64기)

### 1. 블랙이글스 지상 세레머니

블랙이글스는 다양한 특수비행을 통해 공군의 조직적인 팀워크와 고도의 비행기량을 뽐내는 대한민국 특수비행팀이다. 조종사들은 고난이도의 비행훈련을 통해 훌륭한 비행기량으로 T-50B 국산 항공기의 뛰어난 성능을 시현하여 대한민국 공군의 강함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있다. 이를 보는 국민들은 에어쇼 관람을 통하여 환희와 즐거움을 느끼며 애국심과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있다.

특수비행 프로그램은 보통 공중에서 이루어지지만, 블랙이글스의 볼거리는 비단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화려한 기동뿐만이 아니다. 지상에서도 세레머니를 통해 관객들의 이목을 이끈다.

지상 세레머니는 검은 유니폼을 입은 조종사들의 경례로 시작하여 T-50B 항공기의 시동을 거는 과정과 비행 후 경례로 마치는 순간까지를 일컫는다. 더불어 항공기 전, 중, 후 상태 점검을 시행하는 정비사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다. 블랙이글스 조종사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에어쇼 기동만큼이나 인기가 높다. 실제로 SNS상의 영상을 보고 블랙이글스를 알게 된 팬들도 많다.

지상 세레머니의 목적은 퍼포먼스의 일환으로서 국민에게 특수비행에 대한 신뢰감과 항공기 우수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점검하는 과정과 절차대로 진행되는 항공기 시동을 눈앞에서 직접 보면서 안전이 확보된 에어쇼에 대한 믿음을 준다. 비가 오거나 날이 뜨겁더라도 전 과정에서 항공기의 고장 없이 군무(群舞)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통해 T-50B 항공기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보여준다. 더불어 시동을 끈 후, 조종사가 조종석에서 나오기 전 캐노피에 태극기가 걸려 나오는 모습은 누구라도 이 팀이 대한민국 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국민에게 애국심과 자부심을 심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상 세레머니에 참여할 수 있는 경우는 항공기 특성상 활주로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해당 활주로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성남(서울)공항에서 이루어지는 ADEX, 사천 에어쇼 및 스페이스 챌린지 등의 행사에서 시행한다. 싱가포르 에어쇼에서는 실시하지 못했는데 이유는 행사장과 항공기 주기 장소가 멀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활주로가 있어야 가능하고 여러 가지 여건이 모두 맞아야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행사 중에서도 정말 희귀한 장면이다.



## 2. 블랙이글스 공중기동 소개

지상 세레머니가 끝나면 군기있는 편대 이륙으로 블랙이글스의 공중 기동이 시작된다. JOIN UP과 기상 파악, 항공기 점검으로 에어쇼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이 과정이 끝나면, 후면에서부터 무대 전체를 집어삼킬듯한 웅장한 Big arrow 대형으로 에어쇼의 시작을 알린다. 8기가 대형으로 이루어 한 마리의 독수리가 날개를 펼치듯 등장하다가, 수직 기동을 실시하며 Penta대형, Canard대형을 만들고 이어 별모양을 상징하는 Star대형, Diamond대형, Albatross대형, Eagle대형 등 다양한 8기의 대형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반부 기동을 실시한다. 전반부 기동은 8기가 대형을 긴밀하게 이루는 기동으로 블랙이글스만의 단단한 팀워크를 보여준다. 이후, RAINFALL과 BLOOMING BREAK 기동을 기점으로 분리되어 후반부 기동을 보여준다. 아찔하고 짜릿한 교차 기동을 포함하여 태극 무늬를 그리는 태극 기동, 아름다운 난초모양의 ORCHID 기동과 HEART AND CUPID 기동 등 역동적이고 아찔한 기동들 모두 후반부 기동의 대표적인 기동들이다. 기동의 사진은 후면의 사진을 참조하면 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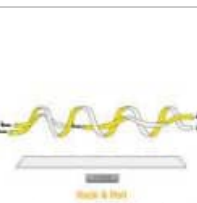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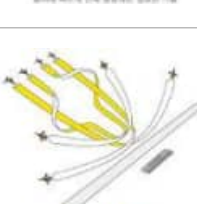


다만, 이 모든 SHOW는 행사 여건과 기상の影響을 받는다. 행사 SHOW 형태는 행사장 지역의 거리와 제반 사항에 따라, 전체 기동(FULL DISPLAY), 제한 기동(LIMITED DISPLAY), 플라이바이(FLY-BY)로 지원을 하며, 전체 기동은 24개의 기동, 총 25분간 이

루어지는 T-50B 항공기의 최대 성능을 발휘한 에어쇼 프로그램이다. 연료 및 기타 제한사항으로 전체 기동이 지원되지 않을 경우, 제한 기동(limited display)을 실시하고, 그마저도 어려우면 선회와 직진 PASS, 피날레 기동만 이루어지는 플라이바이를 실시하고있다. 블랙이글스 특수비행은 25분의 기동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24개의 에어쇼의 기동은 다음과 같다.

	<p><b>Change Loop</b> 비행기(비행선)가 수평 비행 후 수직으로 상승하여 일정한 고도를 지나서 수평 비행 상태를 유지하며 180도 회전한 후 수평 비행 상태를 유지하며 180도 회전하여 원래 비행 방향으로 복귀하는 기동</p>		<p><b>Change Turn</b> 비행기(비행선)가 수평 비행 후 수직으로 상승하여 일정한 고도를 지나서 수평 비행 상태를 유지하며 180도 회전한 후 수평 비행 상태를 유지하며 180도 회전하여 원래 비행 방향으로 복귀하는 기동</p>
<p>1. Change Loop</p>	<p><b>Wedge Roll</b> 수평 비행 후 수직 상승 후 수평 비행 상태를 유지하며 180도 회전한 후 수평 비행 상태를 유지하며 180도 회전하여 원래 비행 방향으로 복귀하는 기동</p>		<p><b>Roll, Bon ton roulle</b> 비행기(비행선)가 수평 비행 후 수직으로 상승하여 일정한 고도를 지나서 수평 비행 상태를 유지하며 180도 회전한 후 수평 비행 상태를 유지하며 180도 회전하여 원래 비행 방향으로 복귀하는 기동</p>
	<p><b>Rain Fall</b> 비행기(비행선)가 수평 비행 후 수직으로 상승하여 일정한 고도를 지나서 수평 비행 상태를 유지하며 180도 회전한 후 수평 비행 상태를 유지하며 180도 회전하여 원래 비행 방향으로 복귀하는 기동</p>		<p><b>Scissor Pass</b> 비행기(비행선)가 수평 비행 후 수직으로 상승하여 일정한 고도를 지나서 수평 비행 상태를 유지하며 180도 회전한 후 수평 비행 상태를 유지하며 180도 회전하여 원래 비행 방향으로 복귀하는 기동</p>
	<p><b>Vortex Manuever</b> 비행기(비행선)가 수평 비행 후 수직으로 상승하여 일정한 고도를 지나서 수평 비행 상태를 유지하며 180도 회전한 후 수평 비행 상태를 유지하며 180도 회전하여 원래 비행 방향으로 복귀하는 기동</p>		<p><b>Double Cross Turn</b> 비행기(비행선)가 수평 비행 후 수직으로 상승하여 일정한 고도를 지나서 수평 비행 상태를 유지하며 180도 회전한 후 수평 비행 상태를 유지하며 180도 회전하여 원래 비행 방향으로 복귀하는 기동</p>
	<p><b>Goose</b> 비행기(비행선)가 수평 비행 후 수직으로 상승하여 일정한 고도를 지나서 수평 비행 상태를 유지하며 180도 회전한 후 수평 비행 상태를 유지하며 180도 회전하여 원래 비행 방향으로 복귀하는 기동</p>		<p><b>Heart &amp; Cupit</b> 비행기(비행선)가 수평 비행 후 수직으로 상승하여 일정한 고도를 지나서 수평 비행 상태를 유지하며 180도 회전한 후 수평 비행 상태를 유지하며 180도 회전하여 원래 비행 방향으로 복귀하는 기동</p>





 <p>11. Orchid</p>	 <p><b>Orchid</b> 3대의 편대가 일제히 진입하여 3대 일제 편대가 추후 3대 편대로 나뉘어 날고 펼치는 기동</p>	 <p>12. Ship High α &amp; Loop</p>	 <p><b>Ship High α &amp; Loop</b> 3대 편대가 일제히 진입 후 3대 편대로 나뉘어 90도 회전하여 1대 편대가 추후 3대 편대로 나뉘어 날고 펼치는 기동</p>
 <p>13. Rollback &amp; AB Loop</p>	 <p><b>Rollback &amp; AB Loop</b> 3대 편대를 일제 진입하여 90도 회전 후 3대 편대로 나뉘어 날고 펼치는 기동</p>	 <p>14. Taeguk</p>	 <p><b>Taeguk</b> 3대 편대를 일제 진입하여 90도 회전 후 3대 편대로 나뉘어 날고 펼치는 기동</p>
 <p>15. Clover Leaf</p>	 <p><b>Clover Leaf</b> 3대 편대를 일제 진입하여 90도 회전 후 3대 편대로 나뉘어 날고 펼치는 기동</p>	 <p>16. Rock &amp; Roll</p>	 <p><b>Rock &amp; Roll</b> 3대 편대를 일제 진입하여 90도 회전 후 3대 편대로 나뉘어 날고 펼치는 기동</p>
 <p>17. Inverted BUP</p>	 <p><b>Inverted BUP</b> 3대 편대를 일제 진입하여 90도 회전 후 3대 편대로 나뉘어 날고 펼치는 기동</p>	 <p>18. Echelon Review</p>	 <p><b>Echelon Review</b> 3대 편대를 일제 진입하여 90도 회전 후 3대 편대로 나뉘어 날고 펼치는 기동</p>
 <p>19. Double Helix</p>	 <p><b>Double Helix</b> 3대 편대를 일제 진입하여 90도 회전 후 3대 편대로 나뉘어 날고 펼치는 기동</p>	 <p>20. Eagle Snatch</p>	 <p><b>Eagle Snatch</b> 3대 편대를 일제 진입하여 90도 회전 후 3대 편대로 나뉘어 날고 펼치는 기동</p>
 <p>21. Dizzying Break</p>	 <p><b>Dizzying Break</b> 3대 편대를 일제 진입하여 90도 회전 후 3대 편대로 나뉘어 날고 펼치는 기동</p>	 <p>22. Twist Roll</p>	 <p><b>Twist Roll</b> 3대 편대를 일제 진입하여 90도 회전 후 3대 편대로 나뉘어 날고 펼치는 기동</p>





또한, 기상에 따라 HI-SHOW, LOW-SHOW, FLAT-SHOW의 3가지 SHOW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비행 임무 시 기상 파악은 LEADER의 최종 결심에 따라 SHOW의 형태를 결정하며, 세부기준은 HIGH-SHOW CEILING 8000 FT. 5, SM LOW-SHOW CEILING 3500 FT, 시정 5 SM, FLAT-SHOW CEILING 2500 FT 시정 7 SM 이상으로 진행한다.

### 3. 최근 해외 행사 참석결과 및 성과

'24년 2월 블랙이글스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에어쇼인 싱가포르 에어쇼와 한·필 70주년을 기념한 필리핀 에어쇼에 참가하였다. 이번 에어쇼 참가는 인원과 장비로 T-50B 9대, C-130 3대, 장병 110여 명을 동반하였고, 기간으로는 FERRY 비행과 사전훈련을 포함하여 총 25일간 이루어진 대여행이었다. 사전 훈련과 본행사를 포함하여 총 7회의 DISPLAY를 안전하고 완벽하게 선보였고, 싱가포르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아시아 방산 시장에 눈도장을 찍었다.

최근 블랙이글스의 임무는 코로나 19 이후 국내뿐 아니라 해외 행사의 비중도 많이 늘었다. '22년 영국 리아트, 판버러 에어쇼를 포함하여, 폴란드, 이집트에서 에어쇼 임무를 수행했고, '23년 호주 아발론 에어쇼와 말레이시아 리마 에어쇼에 참가하였다. '24년에는 싱가포르 에어쇼와 필리핀 에어쇼에 참가하면서 3년간 총 7개국에서 에어쇼를 실시했다. 블랙이글스의 해외에어쇼 참가는 단순히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행사의 의미는 아닐 것이다. 다음 3가지를 통해 블랙이글스 해외 에어쇼 참가 성과를 짧게 되새겨 보고자 한다.

'22년에 블랙이글스는 영국 판버러와 리아트 에어쇼에 참가했다. 공중급유 기능이 없는 T-50B 특성상, 9대의 T-50B를 분해하여 영국에서 조립하고, 복귀 시에는 분해조립 없이 여러 나라를 기착하여 오는 계획이었다. 분해조립 간 정비 실수 가능성과 15개국 페리 비행을 한다는 계획만으로도 상당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하는 일정이었다. 조종사/정비사의 완벽한 컨디션 관리가 요구되었고, 다양한 기후(고온, 저온, 사막, 해상 등)에서의 첫 실제 작전 운용이었기 때문에 조종과 정비, 비상 상황에 대한 만반의 대비가 필요했다. 그러나 오점 없는 완벽한 분해조립 정비 능력과 기술로 영국에서 무사히 임무를 수행

무궁인! 알쓸상식!



하였고, 이집트, 오만 등 사막 기후와 동남아시아 등 몬순 기후 속에서도 결합 없이 복귀하였다. 조종사와 정비사 그리고 지원 요원들이 안전한 임무를 위해 힘을 합쳐 이뤄낸 결과였다. 현지 영국 공군과 타국 에어쇼팀들도 이를 인정하여, 영국 에어쇼 시상식에서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동시에 거머쥐는 쾌거를 이뤄냈다. 영국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당당히 대한민국을 알린 순간이었다. 이후에도 '23년 호주 아발론 에어쇼에서도 마찬가지로 최우수상 수상의 영예를 안는 등 세계에서 인정받는 팀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며, 블랙이글스는 한국군의 강함과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였다.

'23년 참가한 말레이시아 리마 에어쇼에서도 블랙이글스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리마 에어쇼는 1991년 개최되어 2년마다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대 국제 에어쇼 중의 하나로 블랙이글스는 '15년, '17년에 참가한 이래 3번째 참가였다. 이번 리마 에어쇼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점은 바로 말레이시아의 FA-50 수출이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이전부터 FA-50에 눈독을 들이고 있었고, 블랙이글스는 KAI사(과)의 같은 50계열 전투기 홍보와 항공기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리마 에어쇼에 다시 참가하게 되었다. 말레이시아 내에서는 이전부터 K-POP으로 한류 열풍이 뜨거워진 덕분에 한국 블랙이글스 팀이 참가한다는 소식이 사람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원주에서 이륙하여 9구간 3박 4일의 기착을 통해 말레이시아 랑카위에 도착했고, 다수의 인파로 인해 현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에어쇼에 입장하기도 하였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FA-50 수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상황 속에 부담감이 있었지만, 블랙이글스 팀은 안전하고, 완벽하게 사전훈련을 실시하여 리마 에어쇼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리마 에어쇼 개막식 날 말레이시아 공군과의 성공적인 FA-50 18대 수출 계약이 성사되었고, 말레이시아 국왕이 초청된 자리에서 DISPLAY를 시현하였다. 한 치의 정비 및 조종 실수 없이 말레이시아 국왕을 포함하여, 국민과 교민들에게 에어쇼 기간 매일 태극마크 기동 등 24개의 공중 기동을 하루 두 차례 비행을 보여주며, 대한민국 항공 기술과 T-50B의 우수성을 확인시켰다. 더불어 말레이시아 공군과의 우정 비행과 말레이시아 국왕의 지상 전시된 T-50B 탑승 등 외교적으로도 의미 있는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 2월에 참가한 싱가포르 에어쇼는 2년마다 열리는 세계 3대 에어쇼 중의 하나로 2008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물류 허브 국가로 갖는 지리적 이점을 충분히 발휘하여 1,000개가 넘는 세계 각국의 항공산업 회사들이 참가하는 우주항공과 국방 산업의 주요 시장으로 자리매김한 에어쇼이다.

그러나 싱가포르 에어쇼는 에어쇼를 하기에 쉽지 않은 조건으로 유명했다. 국가 특성상 에어쇼 디스플레이를 시현하기에 넓지 않은 환경과 시시때때로 변하는 기상, 다수의 민항기 트래픽으로 인해 짧게 주어진 디스플레이 시간 등 악조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팀원 모두가 싱가포르 에어쇼에 맞는 최고의 기동으로 준비하였고, 여러 번의 회의와 비행 훈련을 필요로 했다. 사실 이번 참가는 블랙이글스에 있어서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코로나 19 상황 등과 같은 이유로 두 번의 에어쇼 취소 후 6년 만에 참가하는 행사였기에 적잖은 부담이 있었다. 그러나 블랙이글스는 특유의 '팀워크'로 실정에 맞게 여러 악조건과 부담감에도 차근차근 간절한 심정으로 준비했고, 그동안 갈고닦은 팀의 실력을 화려하게 선보였다. 결과는 에어쇼에 참가한 DISPLAY 팀 중에 단연코 블랙이글스 팀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 행사 일정이 계획되어 있었음에도 행사의 마지막 피날레 비행을 맡아달라는 주최 측 요구에 기존에 계획된 순서를 바꿀 정도였다.

블랙이글스의 해외 에어쇼 참가는 타 국가의 디스플레이 팀과 함께 자웅을 겨뤄, 에어쇼를 빛나게 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며, 방산 수출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어떠한 조건에서도 반드시 임무 완수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블랙이글스 팀 자체의 성장 발판이 되고, 정비 팀과 지원 팀, 조종 팀 모두가 합작하여 이뤄 내 팀워크를 증진하는 기회가 된다. 앞으로 블랙이글스 팀이 어느 나라를 얼마나 가게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주어진 환경 속 팀워크를 발휘하여, 맡은 바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것이다. ▶



2024년 2월 싱가포르 에어쇼에서 보여준 블랙이글스 비행 장면(국방부 제공)



# 대한민국의 주요 비행장과 K-SITE CODE



김승규(39기)

대한민국에는 몇개의 비행장이 있을까? 그리고 왜 비행장을 K-2, K-16이라고 부를까? K-SITE CODE(이하 '코드')는 미 공군에서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 이북 5도)의 군사공항, 비행장을 부를 때 사용했던 코드이며 지금도 쓰이고 있다. 통상 전선에 위치한 항공기가 이용할 목적으로 건설된 비행장 표시이었다. K-CODE가 부여된 대한민국의 비행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소개한다.

- K-1 김해국제공항(PUS/RKPK) :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강서구 대저2동에 있는 군-민 공용의 국제공항이다.
- K-2 대구국제공항(TAE/RKTN) : 대구 북동쪽에 위치한 한적한 비행장이었다. 1936년 일본 조선군 육군항공대가 사용하기 위해 건설한 곳이다.
- K-3 포항공항 : 6.25 전쟁중에는 포항지구 전투에서 학도병들이 목숨을 걸고 사수했던 비행장이기도 하다. 미공군 및 미해병대 제40전투비행 대대가 주둔했었고, 미해군 함재기들의 비상착륙기지로도 사용되었다.
- K-4 사천공항(HIN/RKPS) : 대한민국 공군 조종사들의 요람 제3훈련 비행단이 주둔하고 있다. 일본이 육군 비행장으로 건설한 곳이다.
- K-5 대전비행장(QTW/RKTF) : 대전시 중구 탄방동 공군교육사령부내에 있었던 훈련 및 연락용 비행장으로 초등비행훈련을 담당하는 공군 제212 교육훈련비행대대가 주



1969. 8. 29. 대구기지에 팬텀기를 몰고온 강신구 중령과 함께한 배우 신성일

둔했었다.

- K-6 평택비행장(RKSG) : 캠프 험프리스(Camp Humphreys) 또는 험프리스 미국 육군기지(USAG Humphreys)로 불리우는 미본토 이외의 세계 최대급 미군 주둔지이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에 위치한다.
- K-7 광주 비행장(Gwangju Airdrome) : 1948년 11월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 개설된 비행장. 1949년 2월 DC-3 기종이 취항하면서 민항기 운항이 시작되었다. 1964년 1월에 현재의 광주공항으로 이전하면서 폐쇄되었다.
- K-8 군산공항(KUV/RKJK) : 전라북도 군산시에 위치한 비행장으로 오산 비행장과 더불어 미공군이 운영권을 가지고 있다.
- K-9 동부산 공군기지(East Busan Base RKPP) : 수영비행장. 원래 부산공항이 있던 곳. 일본이 1940년에 지금의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벡스코 부지에 개설한 육군 비행장이었다.
- K-10 진해 해군비행장(CHF/RKPE)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덕산동에 있는 비행장이다. 덕산비행장으로 불리기도 했다.
- K-11 울산 비행장(Ulsan Airdrome) : 한반도 최초의 국제비행장. 지금 운용중인 울산공항과는 다른 비행장이다. 1980년대까지 비상용 활주로로 사용되다가 이후 모든 부지가 민간에 불하되어 흔적조차 남지 않았다.
- K-13 수원 공군기지(SWU/RKSW)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장지동 일대. 1938년 건설되었으며, 6.25 전쟁 때에는 미군 제8전투비행단과 제51전투비행단의 F-86F이 주둔했었다가 1955년 한국에 이양되었으나 1968년도 미군이 베트남 전진기지로 활용했다가 1972년 11월에 다시 한국군에 이양되었다.
- K-14 김포국제공항(GMP/RKSS) :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동에 위치해 있고 1939년 당시 여의도비행장을 대신할 동양에서 제일 큰 비행장이다.
- K-15 목포비행장(MPK/RKJM) :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비행장이다.



서산기지 시무식 장면(연도 미상)





- K-16 서울 공군기지(SEL/RKSS) : 원래는 1916년 3월 우리나라 처음 건설된 여의도 비행장 코드였다. 1922년 첫 번째 조선 조종사인 안창남이 이착륙과 선회비행을 한 곳이다. 1971년 성남기지가 건설되면서 폐쇄되어 공원으로 전환되었다. 현재는 성남 서울공항이 K-16 코드를 사용하고 있다.



1951년 6.25 전쟁 당시 여의도비행장에서 한국 공군의 F-51D 비행 장면

- K-18 강릉 비행장(KAG/RKNN) : 1930년대 건설되었으며, 대한민국공군 최초의 단독출격작전과 그 유명한 승호리 철교 폭파작전, 평양대폭격 작전 등 수많은 전과를 이곳에서 이루어냈다. 또한 조종사들의 상징인 빨간마후라의 고향이기도 하다.
- K-37 서대구 공군기지(Daegu West Air Base) : 대구시 봉덕동 미군 캠프워커내의 비행장. 2010년 경 대구시로 반환되어 도로로 용도 변경되었다.
- K-39 제주공항(Jeju Int'l Airport) : 일제강점기 시기이던 1942년에 일본 육군이 건립한 비행장으로 당시 이름은 '정뜨르비행장'이었다.
- K-40 제주 모슬포 알뜨르 비행장(RKPM) : 1933년 일본 해군이 임시 활주로를 조성하면서 비행장으로 만들어졌다.
- K-41 전주비행장(CHN/RKJU/G-703)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2가. 1968년에 준공하여 1970년 4월 민항기 운항이 시작되었다.
- K-43 경주비행장(Gyeongju Airdrome) : 현 경주시 황성공원 남서쪽 부지로 한국전쟁 당시 건설된 비행장이었다. 현재는 경주축구공원의 축구경기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리이다.
- K-46 원주공항 (WJU/RKNW) : 원래는 육군이 사용하던 황성비행장이었다. 1975년 제8전술통제비행단으로 창설되었다.
- K-47 춘천 비행장(QUN/RKNC) : 미육군 항공여단이 주둔하던 곳이다. 미군 명칭은 CAMP PAGE. 2013년 6월 8일 춘천 평화생태공원으로 개장했다.
- K-50 속초 비행장(SHO/RKND) : 양양군 강현면 소재. 한국전쟁중 육군 야전비행장으로 건설. 육군 야전비행장으로만 사용중이다.
- K-51 인제 비행장(Inje Airdrome) : 강원도 인제군 관대리에 위치한 육군 야전 비행장. 한국전쟁 시기에는 육군 3군단 사령부와 공군 관측기가 사용.
- K-52 양구 비행장(Yanggu Airdrome) :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에 위치한 육군비행장.

- K-53 사곶비행장(RKSE) : 인천광역시 옹진군 백령도 동남쪽 해안에 평균 200m 폭으로 2km가량 펼쳐진 천연활주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음.
- K-55 오산공군기지(OSN/RKSO) :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일대에 위치한 대한민국 공군과 주한 미군의 합동 기지로, 미국 공군에서 관리하고 있다.
- K-57 광주공항(KWJ/RKJJ) : 1948년 11월 최초 비행장 건설시에는 광주시 동구 학동에 위치했고, 1949년 2월 민항기 운항이 시작되었다. 1964년 1월 현재 위치로 이전하였다.
- K-58 예천공항(YEC/RKTY) : 제16전투비행단이 주둔중이다. 1975년 한국공군이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설한 최초의 공군기지이다.
- K-59 청주공항(CJJ/RKTU) :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입상리에 있는 군민합동 국제공항이다.
- K-60 성무비행장(RKTE) : 1985년 서울에 있던 공군사관학교가 청주로 이전하면서 대전 교육사령부에 소속된 훈련비행대대를 공군사관학교 소속으로 변경하면 새롭게 건설한 생도 훈련용 비행장이다.
- K-75 중원비행장(JWO/RKTI) : 충청북도 충주시 금가면에 위치한 비행장. 공식 명칭은 중원 전투비행장이다. 1991년 5월 15일에 창설되었다.
- K-76 서산공항(HMY/RKTP) : 충남 서산시 해미면에 위치한 비행장으로 1997년 건설되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주둔해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넓은 공군기지이다.

이외에도 민간 소규모 비행장이 있지만 본 보고서에는 K-사이트 코드가 부여되어 있었던 비행장을 중심으로 소개하였고,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국내 K- 사이트 비행장에 대해 상식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서산 공항에서 이륙 중인 KF-16 전투기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필자의 블로그(<https://af185.tistory.com/11751747>)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숫자로 읽는 공사(0, 4)의 의미



이준희(31기)

공군사관학교의 축약어인 공사(空士)를 생각하면 숫자 0과 4가 저절로 떠오르게 된다. 숫자 0과 4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0은 기원전 300년 무렵 바빌로니아 수학자들이 계산 편의를 위해 0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876년 인도에서 비문예 0을 사용하는 숫자가 인류 최초로 등장하였다. 0은 음수도 아니고 양수도 아니고 수직선 중심에 있는 수를 표현한다. 빈 상태를 나타내어 언제든지 채울 수 있는 0에 기호 역할이 생기면서 수 체계가 확립되었다고 한다. 숫자 0이 양과 음의 구분법과 맞닿으면서 0, 1 두 가지 기호만을 사용하는 2진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이제 우리 주변은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세계로 둘러싸여 있다. 아침에 일어나면 10명 중 9명은 핸드폰에 손을 뻗고, SNS를 하려고 하는 것이 그 증거라 하겠다.

다음은 숫자 4에 관해서는 사람마다 호불호(好不好)가 있다. 숫자 4는 잘못된 편견에 의해 불길한 숫자로 여겨왔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민족은 4라는 숫자를 좋아하였으며, 성스러운 숫자로 여기는 경우도 적잖았다.



우리 민족은 숫자 4는 주로 인간의 일과 생활에 관련된 곳에 많이 사용하였다.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을 일컬어 4대 성인, 계절을 표시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생년월일을 말하는 사주(四柱), 관혼상제의 사례(四禮) 등 숫자 4를 중요한 의미로 사용해 왔다. 그뿐만 아니라 고대 그리스 피타고라스 학파에서는 처음 4개의 수인 1, 2, 3, 4를 더하면 완전한 수인 10이 된다고 해서 4를 신의 계시인 신성한 수로 생각하였으며, 그들에게 4는 세상이 점, 선, 면, 입체의 4가지로 구성돼 있다거나 물, 불, 흙, 공기의 4원소로 이루어지는 등 4를 가장 조화롭고 사물의 근본이나 중심으로 보았다.

이러한 공사(0, 4)에 담긴 의미를 종합해보면 공군사관학교의 축약어인 공사(0, 4)에서 0은 무엇이든지 채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고 동양학의 음과 양을 구분하는 중심이면서 디지털시대를 주도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4는 편견을 깨면 계절의 변화와 삶의 이치를 설명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사물의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마디로 공사(0, 4)에 담긴 의미는 앞으로 공사가 세상을 발전시키는 중요하고 핵심적인 소임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라는 의미도 담겨있다 하겠다. ✈



땅과 바다 그리고 하늘의 평화

# 누가 지켜갈까?

**PONGSAN**

우리 육해공군이 사용하는  
다양한 탄약을 자체 개발·생산하는 풍산  
대한민국의 평화와 국가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일관생산시스템을 갖춘 종합탄약 생산기업  
풍산이 평화의 가치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PONGSAN**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청로 23 풍산빌딩  
TEL : 023406-5114 FAX : 023406-5400

# Seoul ADEX 2025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

2025. 10. 29.(수) ~ 11. 2.(일)

서울공항





# 항공 우주관련 소개

1. 공군의 항공우주력 건설 / 김소영(55기) \_ 154
2. KAI, 우주기술 고도화로 우주로 향하는  
공군과 함께 퀀텀 점프 / 장준건(40기) \_ 157
3. 우주를 향해 열린 문,  
민관군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우주시대 / 오승호 \_ 160
4. 우주 산업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 / 김종필 \_ 163
5.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의 결실, KAFASAT  
- 교육용 위성 개발의 첫걸음을 떼다 - / 강전영(72기) \_ 166
6. 항공우주력 시대의 문제와 시사점 / 김학준(34기) \_ 169
7. 인공지능(AI) 시대에 공군 장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 / 윤석준(32기) \_ 173

## 공군의 항공우주력 건설



김소영(55기)

### 1. 조직

공군은 우주분야의 선도를 위해 우주업무 수행 및 전문성 발휘가 가능한 전문조직 편성 필요에 따라 1998년 8월, 공군 전투발전단 무기체계실 우주분야 전담부서를 신설하였다. 이후 2014년 1월, 우주발전처를 연구분석평가단에 신설하였으며, 발전처 내에 ‘우주정책과, 우주전력발전과, 우주정보상황실’로 편성하였다. 2018년 1월에는 공군 우주기상팀을 신설하였고, 2019년 9월에는 공군 작전사령부 예하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하였다. 2019년 12월에는 우주발전처에서 우주 정책업무와 전력발전 업무를 포괄할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우주처’로 변경하였다.

2020년 8월에는 공군 작전사령부 예하 우주작전대를 창설하였다. 2021년 10월, 국방우주력 발전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공군 우주력 건설을 위해 공군참모총장 직속의 ‘우주센터’를 신설하였다. 2022년 12월에는 공군 작전사령부 우주작전대대 창설에 따라 공군본부 우주센터 우주정보상황실이 우주작전대대로 예속변경되었다. 2023년 1월, 우주센터 조직개편에 따라 ‘우주정책협력과’를 ‘우주정책과’, ‘우주협력과’로 분리하였다. 2024년 1월에는 공군 기상단 우주기상대가 창설하였고, 올해 2024년 6월에는 공군작전사령부 우주작전전대를 창설하였다.

### 2. 임무 및 기능

공군 우주센터는 우주정책·기획 발전 총괄, 관련 업무 조정·통제, 우주전문인력 양성 및 관리, 우주전력체계 전력화 추진 및 지원 총괄, 국내·외/민·군 협력, 국가 차원의 우주 위협 대응방안 수립, 한미 연합연습 및 우주 협력을 통한 우주작전능력 신장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우주센터 주요 업무로는 민군 공동 공군우주력 발전위원회 전체회의 개최로 국가 및 국방우주력 강화를 위한 민군협력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매년 '열린우주포럼'을 개최하여 국내·외 우주전문가를 초청하여 공군 우주력 발전에 대한 홍보 및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우주전문직위 선정, 우주전문인력 선발 및 우주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공군 우주전문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합연습 간 한미 우주통합팀 및 우주정보상황실을 운영하며 전시 우주작전 수행능력 증대를 위해 한미 협업을 통한 우주작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제 우주상황 조치 연합연습(Global Sentinel)'에 참가하여 공군 우주작전 수행능력 제고 및 다국적 우주상황조치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미 우주군, 영국 공군, 호주 공군과 우주정책협의체 관련 약정을 체결하여 우주안보협력 파트너임을 공식화하였으며, 항공우주연구원, 천문연구원 등 국내 우주전문기관과 상호협력 및 정보 공동활용을 위한 합의를 체결하였다. 국가 위성 및 발사체 발사, 우주물체 추락 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유관기관 및 미 우주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전방위 위협에 대한 감시정찰, 전천후 우주감시를 통해 우주영역인식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올해 창설한 우주작전전대는 공군의 우주작전 임무 전반을 계획·조정·통제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전·평시 우주물체 감시 및 목록화, 우주 위협 전파, 군 정찰위성체계 관제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전자광학위성 감시체계(EOSS)를 운영하여 한반도 상공을 통과하는 위성 등의 우주물체를 탐지·식별하는 임무와 우주물체 간의 충돌 위험성 및 우주잔해물 추락 예보 등 우주영역인식 임무를 수행한다. 우주기상대는 태양광학망원경, 태양전파망원



경, VHF전리층 레이더 등으로 구성된 우주기상 예·경보체계로 우주환경(태양활동 등)에 의한 군 통신 주파수 변화, 레이더 교란 및 GPS 오차 등에 대한 자료를 적시에 제공해 우리 군의 전영역 작전수행과 우주전력의 안정적 운용을 지원한다.



### 3. 인력 및 교육

공군은 2004년부터 우주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연수 과정을 운영하였다. 2007년 1월, 항공우주군 육성을 위한 우주전문직위 및 전문인력 지정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였고, 2009년 1월에 우주전문인력을 최초 선발하였다. 2014년 12월에는 우주전문인력 소요기준 정립, 교육 및 인력관리 개선, 활용 및 인사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우주전문인력 인사관리제도를 개선하였다. 2021년 6월에는 우주전문인력 양성 확대를 위한 선발·관리제도 개선, 우주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전문직위 기준을 보완하여 필수 직위와 일반직위로 구분하여 우주전문인력 관리를 추진하였다. 2022년 10월에는 우주·신기술 전문인력 양성 기본계획에 의거 우주전문직위를 재지정하였다.



2024년 8월 현재, 공군 내 우주전문인력은 90여 명이다. 2022년부터는 기존 4박 5일의 교육과정을 우주전문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구분함과 동시에, 2주간의 우주전문교육으로 확대 개선하고, 공군 외 타군 및 유관기관의 실무자를 포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의 합동 우주교육과정 운영 요청에 따라 2023년 10월에는 교육대상을 육군/해군/해병대로 공식적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2022년 2월부터 2024년 8월 현재까지 기본과정 5회, 심화과정 2회 교육을 통해 총 180여 명이 수료하였다. ➡



장준건(40기)  
KAI 위성체계설계팀  
수석연구원

## KAI, 우주기술 고도화로 우주로 향하는 공군과 함께 퀀텀 점프

공군과 함께 성장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이제 세계적 항공우주산업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공군의 도움과 지원이 없었다면 현재 KAI의 성공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KAI는 우주산업 분야에서도 높은 기술력과 인공위성, 로켓, 우주탐사 장비 등 다양한 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주 기술의 선두 주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KAI의 기술적 역량과 주요 추진사업 및 연구개발 프로젝트, 대한민국 공군력 증강에 기여하는 미래 비전에 대해 소개합니다.

### KAI의 우주 관련 주요 추진사업 소개

한국은 우주개발 분야에서 선진국 대비 약 30년 이상 뒤처졌습니다. 드디어 올해 우주항공청이 개청했고, 이를 계기로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사업 본격화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KAI는 최근 고부가가치인 항공우주산업 발전과 관련해 많은 사업 및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AI는 대한민국 대표 우주 체계종합 기업으로 축적된 공공위성 개발의 성공적 완수를 기반으로 민수 및 국방 우주사업 활용과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민간 우주개발 시대의 주도적인 역량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KAI는 ‘고해상도 지구 관측 위성’과 ‘정지궤도 통신 해양기상 위성의 개발’ 등 다양한 우주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이 주관하는 차세대 중형위성’, ‘軍 정찰 위성 개발’, ‘한국형 발사체 조립’ 등 우주 사업 영역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 우주 분야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에 앞장서

KAI는 우주 분야에서 기술 혁신과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 분야 중 일부로 공력 해석 및 형상 최적화 기술개발, 지구 재돌입 열 차폐 시스템 내열재 개발, 재진입 비행체 항법유도제어 최적화 설계 프레임 개발 등이 있습니다.

또한 KAI는 위성 탑재 AI 온보드 프로세서 개발을 통해 뉴스페이스 시대에 걸맞은 차세대 위성체계의 컴퓨팅 구조 및 알고리즘 기술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우주 인프라, 국내외 협력방안, AI 연구개발 센터 등을 통해 우주사업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우주과학 연구기관과 산업체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중형위성, 다목적 실용위성, 초소형 SAR 위성 등을 개발하고 있으며 태양 관측에 활용될 L4탐사선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사용 발사체, 비행체 기반의 우주 모빌리티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선진 우주기업들과의 공동 개발, 공급망 관리(SCM) 참여 등을 통해 글로벌 우주 모빌리티 시장 진출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 KAI의 우주 분야 비전 및 전망

KAI는 강구영 사장 취임 이후 글로벌 항공우주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글로벌 KAI 2050 비전』을 제시하였습니다. 이 비전은 한국을 넘어 세계의 항공우주산업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선, 매출목표는 2030년까지 KF-21, FA-50, 회전익, 위성 등으로 매출 15조 원을 달성하고 2050년까지는 우주탐사선 개발 등을 통해 매출 40조 원을 목표로 합니다.

글로벌 리더십에서 KAI는 더 이상 내수 시장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무대에서 당당히 어깨를 견주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 우주로 향하는 대한민국 공군력 증강에 기여하는 KAI

제4차 산업혁명은 KAI에게 제2성장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AI(인공지능), BD(빅데이터), 자율/무인 등 첨단기술에 의한 안보분야 파괴적 혁신의 핵심은 6세대 전장체계 구축입니다.

유인 플랫폼 중심의 이전 전장체계로는 천문학적 전비와 주변의 위협 강화에 따라 지속 가능하고 압도적인 능력의 우위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을 대신하여 AI가 주도하는 6세대 전장체계는 유·무인기, 초연결체계 등 유무인복합체계로 구성되어 지속가능하고 압도적인 전쟁능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KAI는 대한민국의 미래전장체계 구축을 위해 공군과 함께 혁신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KF-21 기반의 유인전투기와 무인전투기, 소형무인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초소형위성과 정지궤도 위성개발을 통해 복합체계의 운영능력을 높일 것입니다. 6G 위성통신 클라우드 시스템 기반의 차세대공중전투체계(NACS)의 성공여부는 공군과의 전략적 협력이 관건입니다. KAI는 공군과의 든든한 협업으로 우주로 향하는 대한민국 공군력 증강에 최고의 파트너로서 킴킴 점프할 것입니다.

## 항공우주 분야 Total Solution Provider KAI

KAI는 제4차 산업혁명이 선도하는 항공우주분야의 빅뱅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6세대전투기(차세대공중전투체계), △수송기, △차세대 기동헬기, △민/군 겸용 미래비행체(AAV), △위성개발/서비스 및 우주탐사 솔루션, △미래S/W 강화 등 대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KAI는 발사체, 인공위성 제조는 물론 위성 운용과 데이터 서비스 등으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구축해 우주 분야 Total Solution 기업으로 성장하고 항공우주분야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



# 우주를 향해 열린 문, 민관군이 함께하는 대한민국 우주시대



오승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발사체연구센터장

## 우주력의 시대

미-중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러 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신냉전이 본격 화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국방예산을 늘리며 재무장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Quad, AUKUS 등 배타적인 다자 안보협력이 본격화되면서 글로벌 방 위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대외환경 속에 우주의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에 서 우주의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자주국

방을 위한 우주력 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 수가 됐습니다. 다가오는 미래는 우주개 발에 뒤처지면 국가의 안위 자체가 흔들 리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도 자주국 방을 위한 우주력 건설 가속화에 더욱 속 도를 내어야 합니다.

## 한화가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걸어 갈 길

한화그룹은 일찌감치 90년대부터 사업 보국의 창립 정신 아래 발사체와 감시정 찰, 통신위성 등 우주사업 전반에 걸쳐 적 극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고체발사체, 군위성 통신체계, 425사업, 그리고 최근 엔 한국형발사체와 초소형 SAR 위성 개 발에 핵심 파트너로 참여해 대한민국 우 주력 건설에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가오는 뉴스페이스 트 렌드에 발맞춰 부체계 업체에서 체계 업



체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솔루션 사업자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발사체 엔진 개발업체를 넘어 누리호 체계종합 기업으로서 발사서비스 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올해에는 차세대발사체 공동개발 파트너로 선정, 누리호로 이룬 발사 자립의 꿈을 넘어 글로벌 우주수송 강국의 꿈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룹 계열사인 한화시스템과 씨트렉아이도 탑재체 우주에서 위성 체계, 나아가 다양한 위성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으로 발전을 모색 중입니다.

### 패러다임의 변화, 우주국방 민간 파트너십

과거의 우주안보분야는 국방 중심의 개발이 진행되어 왔지만 이제는 국방-공공-산업 간 협력을 기반으로 범국가적 접근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도 국방부 산하 SDA가 민간의 차세대 우주기술 적용을 가속화하며 민간 역량 활용을 극대화하는 추세입니다. 우주전력 투사도 군 우주기지에서 민간이 생산한 우주 발사체에 군용 위성을 탑재해 발사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민간이 안보 목적에 기반한 군 수요까지 창출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화그룹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리더이자 대표 방산업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국방을 포함한 정부의 우주개발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입니다. 발사



체, 위성체, 지상체 등 그룹 내 모든 역량을 결집해 자생력 있는 산업 생태계 구축을 리드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들과의 연구협력을 통해 한화의 기술이 감시, 정찰, 통신, 항법, 발사 솔루션 등 한국의 국방 우주 역량 전 방면에 걸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 K방산의 신화, 우주에서 재현할 것

대한민국의 방산사업은 수많은 기적을 일궈왔습니다. 일본으로부터 해방 후 변변한 무기조차 없어 미국의 원조에 기대왔던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무기체계 개발과 혁신 끝에 방산수출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지속적인 국방과학기술로의 투자와 방산혁신 클러스터 구성을 통해 지역발전과 고용 창출에 기여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방산업체인 한화가 K방산의 신화를 우주에서 재현하는 선두자 역할을 하겠습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주)는 발사체 사업역량 고도화를 위해 국내 최초의 민간 발사체 특화 연구센터인 'Space Hub 발사체 연구센터'를 대전에 설립하였고, 누리호를 포함한 후속 발



사체까지 제작할 국내 최대 규모의 단 조립장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착공했습니다. 또한 제주도에는 위성개발과 조립, 제어까지 전 공정을 아우르는 제주한화우주센터 건립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화는 우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로 대한민국 우주 생태계 활성화에 이바지하겠습니다.

### 추격을 넘어 선도의 시대로

500년 전에는 해양을 재패하는 나라가 강대국이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는 우주를 선점하는 나라가 시대를 주도하게 될 것

입니다. 우주는 산업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의 경제영토임과 동시에 국가의 번영과 생존을 결정하는 안보 요소가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우리나라는 누리호의 성공으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의 입지를 확보했습니다. 바로 지금이 다가올 우주시대를 대한민국이 선도하기 위해 민관군이 역량을 모아 다각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할 때입니다. 추격을 넘어 선도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도전, 그 여정에 한화가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







김종필  
LIG넥스원 위성체계연구소장

## 우주 산업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

LIG 넥스원은 우주 산업 선점을 위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우주 강국 도약을 위해 정부와 '원팀'으로 K-우주시대를 열어갈 위성 솔루션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과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이에 공군과 함께 나아갈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LIG 넥스원은 초소형 위성체, 실용위성, 정지궤도 위성 등 위성체 개발과 이를 위한 위성SAR 경량화 안테나, 제어모멘텀 자이로(CMG) 등 다수의 핵심기술 개발, 초소형위성체계 군 지상체 개발, 그리고 활용 기술로서 딥러닝을 이용한 표적식별 기술, 위성SAR ATR 테스트베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에 공군의 우공우주작전전대 창설을 계기로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소식지인 『성무』지에 본사의 항공우주와 관련된 주요 핵심기술 사업을 간단히 소개한다.

### 1. 영상레이더 위성영상의 영상 활용

최근 전세계적인 트렌드라고 할 수 있는 뉴스페이스 기조에 맞추어 위성사업도 정부 주도에서 민간주도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민간 주도 위성사업의 키워드로는 빠른 개발 기간 및 자금회수, 위성 탑재체의 소형화, 위성 군집운용, 위성자료의 빅 데이터화, AI 기반 위성 영상활용 기술 등이 주목받고 있다.

이중 국내외에서 가장 높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많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핵심분



2024. 5. 9. 신익현 대표가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주산업의 미래와 한국의 역할' 주제로 기조 강연하는 모습



야로 '위성영상' 기술을 손꼽을 수 있다. "2년마다 반도체 집적회로 성능이 2배로 증가한다"라는 무어의 법칙처럼, 하드웨어의 비약적인 발전이 뉴스페이스 흐름과 만나 위성영상 솔루션의 활용 범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확장 중이다. 위성 영상 활용 산업은 국방, 에너지, 자원, 건설, 금융, 환경, 해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10년간 연평균 약 7%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SAR&EO영상 융합기술



VIDEO SAR를 활용한 빅데이터 획득

특히 영상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는 날씨와 관계없이 주야간 관측이 가능하기에, 적시적소 긴급한 상황판단이 필요한 환경에서 중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병원의 X-ray 영상처럼, 판독을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어려움도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AI 기술을 활용하여 사용자 친화적인 SAR 위성 영상 활용기술들이 개발 중이다.

SAR 위성영상의 해상도 성능을 향상시키는 '초해상화 기술', 관심표적의 3차원 정보를 추출하는 'Cross Track Interferometry (XTI) 기술', 이동표적의 속도 정보를 추출하는 'Along Track Interferometry (ATI) 기술', 자동적으로 관심표적의 종류를 인지하는 'Automated Target Recognition (ATR) 기술'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한 핵심기술은 SAR 원천기술(하드웨어, 소프트웨어)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SAR 활용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 2. SAR 원천기술(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군사적 목적의 무인정찰기 영상레이더 SAR를 비롯해 국내 최초 SAR 위성인 다목적실용위성5호(KOMPSAT5)와 최초의 국내주도개발 SAR 위성 다목적실용위성6호(KOMPSAT6)의 개발이 진행되며, SAR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계기

가 되었다. 이러한 개발경험은 이후 군정찰위성,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LIG넥스원은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하는 무인정찰기 SAR 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초반부터 약 20년간 국내 대부분의 SAR 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원천기술을 축적해 왔다. 이후 항우연/전문연과 함께 다목적실용위성6호(K6) 사업에 참여하며 SAR 위성사업을 시작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정지궤도통신위성3호(Geo-Kompsat3, GK3),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Korea Positioning System, KPS) 사업 등을 통해 항법분야의 탑재체, 지상체까지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 3. SAR 영상활용기술

LIG넥스원은 약 20년간의 SAR 개발경험을 기반으로 적시적소 필요한 정보를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한 영상활용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2022년에 첨단영상활용센터를 개소하여 자체적으로 첨단영상활용시스템을 개발, 다양한 국책사업, 특화센터에 참여하여 현재는 물론 미래에 활용 될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25년에 완공될 대전 소재 LIG넥스원 위성체계종합동으로 확장 이전을 계획중에 있다.

LIG넥스원에서 개발중인 SAR영상 초해상화 기술, 자동표적식별기술, 3차원정보기술, 변화탐지 기술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영상활용기술들은 국가 감시정찰 및 재난재해, 작황식별,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 4. 그 외 우주분야 주요 진행 및 예정 사업

LIG넥스원은 위에 언급한 대표적인 사업 외에 위성분야에서는 긴급대응 큐브 편대위성 개발사업에 EO/IR 전자계, 차기 정찰위성에 적용될 급전배열안테나 국산화 사업, 다수 위성 간 통신을 위한 LASER ISL장치, 위성간 통신 라우터 등을 개발 중이며, 다목적 8호, 저궤도통신위성 등의 사업 수행을 예정하고 있으며, 지상체분야에서는 초소형위성체계 군지상체, KPS지상체, 원자시계 등을 개발 중이며, 초소형 민 지상체 사업 수행을 예정하고 있고, 활용기술 분야에서는 초소형위성 활용시스템 등의 사업 수행을 예정하고 있다. ➔



#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의 결실, KAFASAT

- 교육용 위성 개발의 첫걸음을 떼다 -



강전영(72기)

‘하늘로, 우주로’라는 구호에서부터 현재 국방개혁 4.0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공군은 항공우주 전력을 어떻게 갖추고 발전시킬 것인지에 대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6월, 우주 작전대대가 전대급 조직으로 확대 창설되었으며, 두 기의 군 전용 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하여 우주 자산 또한 확보해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국가가 자국의 우주 역량이 곧 국민의 현재와 미래의 풍요와 번영을 좌우할 것이라 예측하여 우주에 힘을 쏟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육군, 해군, 공군과 동등한 위치의 우주군(space force)을 두어 운영하고 있으며 미군의 군사작전 능력을 외 우주까지 넓히고 있다.

필자는 공군사관학교 3학년 재학 중에 좋은 기회를 얻어 미국 콜로라도의 미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다. 미 공사에는 다양한 과목을 생도들에게 가르치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시설이 Space Force Academic Lab이었다. 사

실 대학 학부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위성개발은 큐브위성과 같은 초소형위성이 한계이고, 그마저도 발사와 교신에 성공하기에는 정말 어렵다. 하지만 미 공사는 사관학교 내부의 시설에서 초소형위성은 물론이고 ‘FalconSAT’이라는 이름을 가진 실제 임무 수행이 가능한 사양의 소형위성, 중형위성을 개발하고 있었고, 그 전 과정을 생도들이 주관하고 있었다. 생도에서부터 시작되는 우주 관련 전문교육 현상이 미군 우주전력의 원동력임을 알 수 있었다.

대한민국도 군의 우주 역량을 넓히기 위해서는 장교 양성 과정에서의 우주 전문교육이 필수적이다. 현재 이러한 교육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에서도 우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2017년부터 항공우주 특성화 교육을 시작했다. 그 중심에 있는 프로젝트가 작년에 필자가 참가하여 발사와 교신까지 성공한 초소형 위성 KAFASAT 프로젝트이다.

생도들은 학년이 높아짐에 따라 체계적으로 계획된 과정에 맞춰 프로젝트를 진

행한다. 생도 2학년 과정으로는 캔위성 (CanSAT)의 제작·설계 실습과 비행시험을 하고, 3학년 과정으로는 사관학교의 인공위성 운용실습실을 이용하여 지상국에서 위성을 관제하는 임무형 실습 훈련을 진행한다. 그리고 4학년이 되어서 비로소 KAFASAT의 제작 및 시험 등 본 프로젝트에 참가하게 된다. KAFASAT은 작년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지만, 이 프로젝트는 항공우주공학과와 모든 교수님들의 지도 아래 2020년 4학년이었던 69기 선배들부터 우리들 모두가 하나되어 완성한 프로젝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2020년 69기 생도들이 첫 설계를 했고, 70기에서 시험평가용 모델을 제작하였으며 이 모델에 대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71기에 실제 우주 비행용 모델을 만들었다. 그렇게 만든 모델을 작년 우리 72기들이 실제 위성 분야 기업 솔탑과 협력하여 보완하였고, 우주 환경에서 작동이 가능한지 진동·열진공 등 기능·환경시험을 마쳤으며 발사까지 성공하였다.



미국 시애틀 Firefly 최종점검

사실 초소형위성 개발 프로젝트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K2SAT이라는 이름의 초소형위성을 카이스트와 함께 개발하여 팰콘9 발사체에 실어 우주로 보냈지만, 위성이 보내는 신호를 지상국에서 잡지 못해 실패로 돌아갔었다. 그때의 실패가 없었다면 이번 KAFASAT 또한 같은 결과로, 우주를 떠돌아다니는 우주 쓰레기가 되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선배들이 남겨둔 여러 자료와 경험이 큰 도움이 되었고, 솔탑이라는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더욱 완성도 있는 결과를 낼 수 있었다.



falcon 9 탑재

KAFASAT 위성은 직육면체 모양의 가로, 세로 10cm, 길이 30cm의 3U 큐브 형태이다. 무게는 6kg의 초소형위성으로, 전자광학 카메라를 탑재하여 감시 임무를 수행하도록 개발되었다. 운용 고도는 550km의 저궤도이며 이미지 해상도는 30m 이하를 목표로 하였다. 실제 운용으로 사용하기에는 해상도가 많이 부족하지만, KAFASAT은 전장 임무가 주된 목적이 아니라, 교육용 위성으로써 위성 개발 과정 자체, 그리고 위성이 궤도에 오른 이후 공군사관학교 지상국에서의 실제 교신을 통한 관제 실습에 중점을 두었다. 위성의 예상 수명은 1년으로, 배터리 수명이 다





할 때까지 공사 항공우주특성화교육을 위한 실습용 교보재로 널리 활용될 것이다.

우주 분야는 아무리 예산이 많고, 최첨단 장비가 있어도, 결국 중요한 것은 관련 경험을 보유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문제를 해결해본 '전문인력'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최종 교신에 성공하기까지 정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나는 것은 최종 교신에서의 문제였다. 지난 2018년 프로젝트가 교신 단계에서 실패하였듯이, 교신을 못하는 위성의 발사는 반쪽짜리, 아니 어찌면 시간과 자산을 우주에 버리고 온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위성 개발, 발사도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발사 이후 교신 가능 여부였다. 위성이 궤도를 돌며 우리 지상국과 교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짧게는 몇 초, 길게는 몇 분씩 하루에 3~4회씩 교신이 가능하여 학교 지상국에서 밤낮으로 교신을 시도했다. 발사 이후 한 달 정도 위성의 신호는 수신되었으나 신호 정보가 지상국 소프트웨어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지상국 신호 수신 감도가 약하고 이를 복조(demodulation)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음을 분석했고, 한국, 그리고 타국의 여러 지상국의 복조 방식 등을 참고한 결과 위성이 아니라 지상국 안테나 수신 과정에서의 문제가 있음을 파악하였고, 시설을 정비 후 KAFASAT 신호 복조에 성공하였다. 복조된 신호가 지상국 모니터에 잡히는 순간의 그 복받치는

감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다. 설계에서부터 발사, 그리고 모든 시행착오를 겪는 그 과정 전체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 되었고, 이는 추후 우주 자산을 운용하거나 작전을 진행할 때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생도 생활 말년, 사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며 보내도 이상할 게 없는 4학년 황금기를 항공우주공학과 생도로서 이런 엄청난 프로젝트에 참여하길 정말 좋았다는 생각이 든다. 1년간의 기간 동안 가장 많은 것을 보고 배운 때는 미국 시애틀에 출장을 가서 우리가 실제로 만든 위성을 사출장치에 탑재할 때였다. 매일 청정실(Clean Booth)이나 시험실에서 보던 위성을 실제로 가져가 실무현장에서 발사 직전 단계까지 직접 참여하는 전 과정이 너무 소중했다. 우주산업의 실무현장 분위기, 실제 장비와 업무분담, 업무과정을 진행하고 배우며 이러한 전 과정을 타국에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진행할 수 있다면 우리 우주 역량이 발전하는 데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우주라는 새로운 전장은 우리 공군이 이끌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도 그럴 것이다. 이번 초소형위성 발사 성공을 발판으로 하여 더욱 더 많은 우주 자산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우리만의 차별화된 우주전력을 보유하고, 우주 영역에서 우리 군의 작전 수행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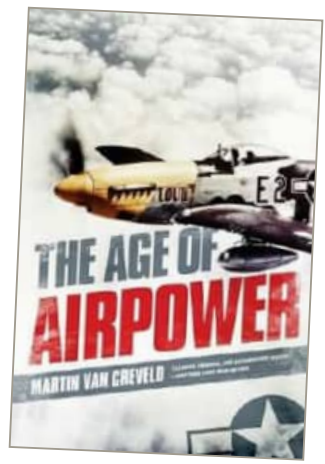
## 항공우주력 시대의 문제와 시사점



김학준(34기)

필자는 공군발전협회의 항공우주력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항공우주력의 역사와 미래에 관한 연구활동의 일환으로, 세계적인 석학인 마틴 반 크레벨트(Martin van Creveld)의 『항공우주력의 시대(The Age of Air Power)』를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그는 여러 방면에 걸친 군사사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이 책은 에어파워의 역사를 바탕으로 에어파워의 역할과 의의를 재평가하고, 에어파워가 당면한 과제와 미래에 관해 논한 것이다.

반 크레벨트는 항공과 우주는 연속적인 공간상에 있기 때문에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고, 항공을 통해서만이 우주에 도달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에어파워를 항공과 우주를 포괄한 군사력으로 개념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어파워를 “군사 목적을 위해 항공우주공간에서 활동하는 모든 전력으로, 유인 항공기, 미사일, 드론, 인성위성 및 우주작전능력을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원서 제목은 『The Age of Airpower』이지만, 번역서의 제목을 『항공우주력의 시대』로 하여 출간하였다.



반 크레벨트는 1903년 미국의 라이트 형제가 세계 최초로 유인 비행에 성공한 이후, 20세기의 전쟁은 다른 어떠한 요인보다도 에어파워에 의해 결정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에어파워는 제1차 세계대전에 본격적으로 참전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서 크게 발전하였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수많은 전쟁을 거치면서 에어파워는 전략적이고 결정적인 전력으로 급격히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발전과정이야말로 오늘날의 에어파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의 배경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미래전에서 유인 항공기가 완수하고 있던 많은 기능들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항공기는 무기를 운반하는 플랫폼으로 인식하면, 탄도미사일이나 순항 미사일의



발전은 전선에서 멀리 떨어진 적의 배후 지까지 폭탄을 운반하고 정밀하게 공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항공기의 경쟁 상대가 되었다. 무엇보다 최근 우크라이나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실전배치가 진행되고 있는 무인기는 공격을 비롯한 다양한 임무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인공위성, 무인기, 탄도미사일도 에어파워의 종류이지만, 미래는 유인 항공기의 역할이 변화 경향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 공군은 유인항공기 체계의 전력화에만 노력을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미 공군과 같이 또 다른 항공우주력인 우주, 무인기, 탄도미사일도 고르게 발전시켜서 임무영역에 맞게 유무인 복합체계가 조화를 이루는 항공우주력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항공우주무기체계의 고가화와 비용에 대한 견해이다. '최고가 최선의 적'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최고



공군은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으로 전략공격과 항공차단임무가 우선되어야 한다.

를 지향하는 항공기의 비용상승 경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항공기 개발비용은 최초산정비용에 파이( $\pi$ )를 곱해야 한다는 존 보이드의 견해를 함께 전하고 있다. 미 공군의 F-22 랩터 전투기는 하늘을 지배하는 전투기(Air Dominance Fighter)로 불리는 전무후무한 전투기로 F-22 앞에는 상대할 수 있는 적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싼 가격 때문에 미 공군의 예산을 압박해 당초 배치 기수가 대폭 감소하고 충분한 기수가 조달되지 못하였다. 미 공군의 B-2 폭격기도 가격의 급등이 극에 달한 항공기의 한 예로서 제시되고 있다. 항공력의 선구자 빌리 미첼이 과거에 거대 전함은 미래에 무용지물이 된다고 지적한 것을 근거로 B-2 한 대의 비용으로 실전에서 보다 유용한 무인기를 1,000대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 B-2와 같은 초고가의 무기는 과거의 깡리선이나 거대 전함과 같은 운명을 견뎌 될지도 모른다는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 공군은 항공우주력 건설에 있어서 '운영 유지비의 적정성'을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제기한 문제는, 항공작전에 대한 평가이다. 지금까지 공대지 임무로서 에어파워의 유용한 작전은 두해부터 주창해온 '전략폭격', 적의 공격력을 사전에 차단하는 '항공차단', 에어파워 초기에 참호비행으로 불리던 '근접항공지원'이 있다. 반 크레벨트는 적군과 아군의 지

상 및 방공무기체계가 밀집해있는 공간 내에서 피아식별문제, 공역관리, 공격 정밀도, 작전 효율성, 범용성 관점에서, 에어파워의 효과를 줄이는 것이라며 근접항공지원작전에는 부정적이다. 에어파워 자원에 여유가 있다면 고려하겠지만, 후순위에 위치함을 강조한다. 에어파워는 육군을 직접지원하는 ‘하늘을 나는 포병(flying artillery)’이 아니라며, 두해부터 공군이 신념처럼 지켜온 ‘전략폭격’과 존 보이드와 존 와든이 주장한 ‘전략적 마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반 크레벨트가 군사사를 통해, 특히 비용 대 효과 측면에서 에어파워의 가장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선의 배후에 있는 병참선, 교통망, 보급소를 파괴해 적의 부대의 진격과 보급을 저지하고 전반적인 전쟁 승리에 기여하는 ‘항공차단’이다. 항공차단은 한국전쟁부터 최근의 이라크전쟁에 이르기까지 전역에서 적이 전장에 도달하기 이전에 적을 파괴하여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사례를 통해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항공우주력의 지상공격 임무에 있어서 근접항공지원보다 ‘항공차단’의 유용성을 강조하는 반 크레벨트의 견해는 주목할 만하다.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우리의 대북 군사전략이 핵 개발 저지가 아니라, 핵 사용 저지로 전환되어야 하며, 항공우주력은 북한의 유일한 핵 투발수단인 탄도미사일 사용 저지에 집중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공군의 임무중

점은 근접항공지원이나 대화력전이 아니라, ‘한국형 3축체계’의 핵심전력으로, 한국형 탄도미사일 방어를 주도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사전탐지 및 공격, 응징보복을 수행하는 ‘전략폭격’과 ‘항공차단’ 임무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네 번째 문제는 ‘저강도분쟁’이라는 현실의 위협에 대한 에어파워의 대응에 관한 문제이다. 냉전이 종식되면서 강대국 간의 대규모 전쟁은 종식됐지만, 전쟁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반 크레벨트에 의하면, 지금까지의 정부, 국민, 군대에 의한 ‘삼위일체의 전쟁’에서 유용했던 에어파워는 정부, 국민, 군대 이외의 액터에 의한 ‘비삼위일체의 전쟁’ 즉, 저강도 분쟁에서 유용성은 계속 저하되어 오고 있다고 지적한다. 비삼위일체적 전쟁은 게릴라, 테러리스트, 무법자 집단 등에 의해 전선과 후방, 전투원과 비전투원의 구분이 없는 장기간에 걸친 전쟁을 말한다. 이 책의 백미는 제5부 ‘주민 속의 전쟁’으로,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한 세기 동안 진행된 게릴라에 대한 에어파워의 항공경찰(Air Policing) 활동을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알제리에서 프랑스가, 베트남에서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소련과 미국이 패배했는데, 이러한 강대국들이 그 전장에서 절대적 제공권을 획득하고 있었는데, 승리할 수 없었던 이유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추출하고 있다. 역사적으로 에어파워는 ‘비삼위일체적 전쟁(non-trinitarian war)’이라는



전쟁양상에서 유용성이 떨어지는데,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현실적으로 비삼위일체적 전쟁에 처할 상황과는 거리가 있지만, 우리 공군은 평시 인지전에 대한 대비와 안정화 작전단계에서의 임무 보완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다섯 번째 문제는, 에어파워의 트렌드와 함께 에어파워에 내재되어 왔던 조직문화의 변화에 관한 것이다. 공군에 내재된 독특한 조직문화는 하늘을 나는 특이한 체험을 공유하는 조종사라는 전문기술인 집단이 갖고 있던 ‘하늘의 기사도(chivalry of the air)’로서의 전통이며,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프론티어 정신’이 중심이라는 것이다. 에어파워의 프론티어 정신(frontier spirit)을 도전적이며(advanturous), 헌신적이며(dedicated), 진취적이며(enterprising), 다재다능한(multi-talented) 특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공군의 핵심가치인 ‘도전정신’과 연결된다. ‘스토익하고 고독한 도전자’, ‘리더십과 감투정신’과 같은 인간미가 넘치고, ‘근대성’과 ‘진보’라는 미래의 꿈을 다양하게 구현하는 도전적인 집단이라는 공군의 조직문화가 시들해지는 경향이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C4I체계의 발달을 빙자한 세세한 지휘통제(micro C2)는 공군인들에게 ‘자유’와 ‘지배’하는 감각을 상실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항공우주력을 스스로 기능적 수준으로 저하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항공우주력

은 본디 변화와 혁신의 주체이므로, 미래 위협과 전쟁 양상에 대비한 국방개혁을 주도해야 나가야 할 것이다.

반 크레벨트가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에어파워를 포함한 무기 시스템은 현실의 위협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적절한 가격으로 조달하고, 적절한 예산으로 유지해 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에어파워의 과거를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미래를 논할 수 있다고 하면서, 항공우주력은 선각자인 두해나 미첼의 주장처럼 본래 전략적 수단이므로, 전략적 임무에 집중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미래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역사가 반 크레벨트의 입지는 일관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넓게 부연하고 있는 통설을 의심하고 있는 버릇이 있는 반 크레벨트의 자유주의적이며 급진적인 비판 정신이 곳곳에서 보여져 귀중한 시사점이 많다. 이와 같이, 반 크레벨트는 과거 분석을 통해 오늘날 에어파워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상황을 둘러싼 논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서, 어느 쪽의 지적도 새로운 논의를 부를 것으로 보인다. 대북 억지력의 주체이며 신 성장동력으로서의 항공우주력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항공우주력에 대하여 무조건적인 칭송과는 다른 관점에서 현실적인 시사점을 제공한 반 크레벨트의 쓴소리 또한 보약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



## 인공지능(AI) 시대에 공군 장교들이 갖추어야 할 역량



윤석준(32기)

미래 사회에서 인공지능(AI)은 다양한 직업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군사 분야에서 특히, 공군에서의 AI의 활용은 두드러질 것이다. 장교들은 AI와 협력하여 전략적 결정을 내리고, 작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분석하는 등 AI를 친숙하게 다루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I는 이미 많은 군사 작전에서 적용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으며, 미래에는 더욱 발전하여 의사결정 업무를 지원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며, 실시간으로 전술적 판단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예를 들어, 드론을 이용한 정찰 작전에서 AI는 대량의 영상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요한 정보를 추출하고, 장교들이 전장의 상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많은 사회학자는 AI의 발전이 전문 직종 업계의 업무에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AI가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할 것을 우려하지만, 다른 전문가들은 AI가 새로운 직업을 창출하고, 기존의 업무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군사 분야뿐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보면 AI를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는 데에는 이론이 없다. 예를 들어,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의료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는 데 AI가 사용될 수 있다. 또한, AI는 재난 대응과 같은 긴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게 하여, 국가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한국경제 김동현 기자 “6세대 전투기 개발을 제안한 사우디 KF-21을 택한 이유” 삽화(2024. 2. 10.)



반면에 AI가 일으키는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 AI의 윤리적 측면을 다루는 것은 기술 발전과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찾는 중요한 과제이다. 미 국방부는 인공지능에 대한 윤리적 원칙을 DoD JAIC 홈페이지에서 아래 표와 같이 천명한 바 있다. 이 원칙은 전투 및 비전투 기능에 모두 적용되며, 미군이 AI 분야에서 법적, 윤리적, 정책적 약속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의 정부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나열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것을 실현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미 국방부는 AI 개발에 있어 5대 윤리 원칙을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미 국방부의 인공지능에 대한 5대 윤리 원칙

원칙	내 용
책임성 (Responsible)	DoD 요원은 인공지능 기능의 개발, 배포 및 사용에 대한 책임을 유지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판단 및 관리를 수행
공정성 (Equitable)	의도하지 않은 인공지능 기능의 편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중한 조치를 취함
추적성 (Traceable)	투명하고 감사 가능한 방법론, 데이터 소스, 설계 절차 및 문서화를 포함하여 담당자가 인공지능 기술, 개발 프로세스, 운영 방법에 대한 적절한 이해를 갖도록 인공지능 기능을 개발하고 배포함
신뢰성 (Reliable)	인공지능 기능은 명확하게 정의되고 이러한 기능의 안전, 보안, 효과는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서 정의된 용도 내에서 시험하고 그 신뢰성을 보장함
통제성 (Governable)	인공지능 기능이 의도한 기능을 구현하도록 설계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탐지하고 회피할 수 있는 능력과 의도하지 않은 행위를 보이는 시스템을 분리 또는 비활성화할 수 있는 능력 보유함

위 여러 윤리 원칙 중 군사 무기체계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은 신뢰성이다. 신뢰성은 모든 시스템에 중요한 속성이며, 인간과 기계 사이에서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는 것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특히 그렇다. 특히, 기계 학습과 같은 AI 구성요소는 고유한 특성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허점이 생길 수 있으며, 전체 맥락에서 시스템 특성을 보장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AI 윤리 원칙에 명시된 것처럼, “신뢰할 수 있는 AI”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AI 시스템 자체뿐만 아니라 전체 수명 주기 동안 모든 행위자와 상호 프로세스의 신뢰도를 아우르는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유엔의 특정 재래식 무기 협약(CCW : Convention on certain Conventional Weapons)에 따라 치명적인 자율 무기 시스템(LAW : Lethal Autonomous Weapons systems)의 금지에 대해 지속적이고 국제적인 논쟁거리가 되어 왔다. 무엇이 무기체계를 치명적으로 만들고 무엇이 그것을 자율

적인 무기체계로 만들고 정확히 경계선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쟁점이 지속된다. 특히 무기 시스템의 치명성은 무기사용의 법적 평가에도 영향을 준다. 현재, LAW는 인간을 상대로 사용되도록 설계되었는지에 대해 구분하여 개발하고 있지만 아직, 특정하여 규제까지 진척되지는 못하고 있다. 국제 인도주의 법(IHL)은 분쟁에서 무기를 사용할 때 불변성과 예방 측면 외에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정의한다. 「민간인과 전쟁당사자의 구분」, 「수단의 비례성」의 평가, 무기 사용의 「군사적 필요성」의 적절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준이 인간이 무기를 사용할 때 “효과적인 통제”를 하였는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개념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면 미래의 공군 장교들이 AI와 친숙해지고 AI가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덕목은 무엇일까? 현재 AI 체계가 완성되고 드러나지 않았어도 그 시기는 다가온다. 그리고 더욱 우려스러운 일은 이러한 준비가 되기 전에 AI 체계가 먼저 장교들의 업무를 잠식하고 있는 경우이다. 다음 내용은 필자가 교육부 주관, 브레인-코리아 21, 4단계 사업의 일환으로 세종대에서 연구하였던 국방 분야 지능형 드론의 현황 및 전망 중 AI 시대에 사전에 준비해야 할 일에 대해 언급한 내용을 발전시킨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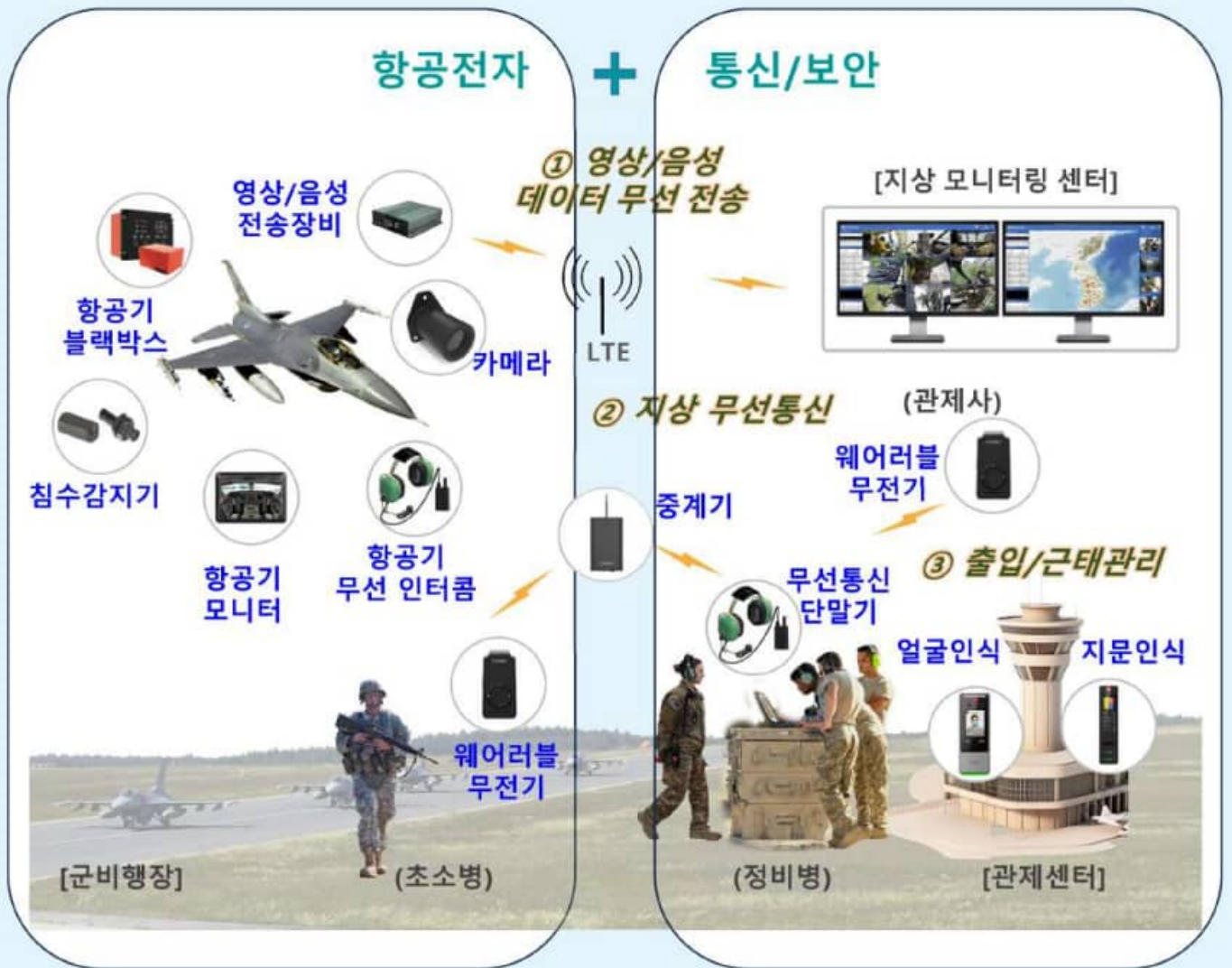
첫째, 지속적인 학습과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므로, 장교들은 최신 기술 동향을 끊임없이 학습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둘째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잠재적인 문제를 예측하며,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기술적 이해력을 갖추어야 한다. 셋째, AI 시스템을 개발한 개발자들에게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AI 작동의 기본 원리와 작동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넷째, AI가 가지고 있지 않는 윤리적 판단력을 위해 장교들은 AI의 결정이 군사적, 법적, 윤리적 기준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AI를 팀의 일원으로서 받아들이고 인간과 AI가 효과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휴먼-머신 팀워크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AI와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AI가 제공하는 정보를 팀원들과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요구될 것이다. 이러한 역량 아래 AI 기술을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책임감 있게 사용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위 덕목들은 미래 공군 장교들이 AI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효과적이고 윤리적으로 안전한 작전수행에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러한 덕목들을 갖춘 장교들은 국가 안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AI는 미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AI를 활용하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국가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공군 장교가 되기 위한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 ➡

# STARNEX (주)스타넥스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212, 201 / Tel. +82-2-837-9700 / Fax. +82-2-2082-8585

- 항공전자장비, 보안장비, 통신장비 전문 기업
- 전투기, 헬기와 지상 군부대 및 관제센터를 연결하는 종합솔루션 제공





# MNC Solution

## Creating Motion& Control

*Creating Value through Technology*

주식회사 MNC Solution은 유압시스템과 전기-유압 시스템 등을  
적기에 개발, 생산하여 육/해/공군에 공급함으로써

**대한민국 안보와 방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에이치시티는 지난 20여 년간 남들이 가지 않은 길에서 성공의 가능성을 보았고, 도전과 열정으로 오로지 시험인증, 교정기술 서비스라는 한 우물만을 고집해 왔습니다.

그 결과 창립 이후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국내 시험인증과 교정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을 통한 인류의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자 합니다. 보이지 않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술력을 향상시키며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 시험서비스

TEST SERVICE

제품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도록  
국가별 규제와 기술기준을 바탕으로  
제품의 적합성을 평가하는 기술서비스

## 측정기교정

CALIBRATION SERVICE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측정기의  
정밀정확도 및 소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교정용 표준기와  
비교, 진단하는 기술서비스

## 글로벌 인증

GLOBAL SERVICE

에이치시티의 글로벌 인증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200여 개 국가의  
인증서비스를 지원

## 해외지사

LOCATION

HCT America LLC (TCB 인증업무)  
1726 Ringwood Avenue, San Jose, CA95131

HCT America Inc (시험업무)  
47610 Kato Road, Fremont, CA 94538, US

HCT Indonesia Inc (시험업무)  
Daerah Khusus Ibukota Jakarta

*On your side*

(주)에이치시티 17383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서이천로 578번길 74  
TEL : 031-645-6300 | E-mail : khpark@hct.co.kr | Homepage : www.hct.co.kr

# 우리들의 특별한 이야기

1. 임관 기념 \_ 180
2. 성무대의 추억 \_ 199
3. 공군의 추억 \_ 219
4. 인생, 여행, 봉사 \_ 234

# 하늘과 함께한 50년, 함께한 동기들



이영하(22기)

지난 2024년 6월 1일, 우리는 공군사관학교에서 22기 쌍매회의 임관 50주년을 기념하며 성대한 행사를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기생 가족, 친지, 지인을 포함한 3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후배 기수들의 40주년, 30주년, 20주년, 10주년 행사도 함께 진행되어 총 1,600여 명이 모였습니다. 모든 행사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동기생들과 그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난 50년의 추억과 우정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 50주년 기념행사: 동기애의 재확인

50주년을 맞아 동기생 운영위원회와 회장단은 의견을 수렴하여 크게 5가지 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2023년 12월 6일에 실시한 50주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연말 정기 총회였습니다. 두 번째는 공군사관학교 50주년 초청 행사 이전인 4월 30일부터 5월 1일에 모교를 방문하여 과거를 회상하며, 체력단련장 운동 모임을 통해 50주년 행사를 홍보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사관학교 발전 기금을 모금하는 일이었고, 동기생 대부분이 힘을 모아 83명이 참여하여 2억 8천 977만 원을 후배들과 사관학교 발전을 위해 후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과제는 사관학교 초청 행사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었

으며, 동기생의 가족, 친척, 지인 317명이 참석하여 축하하는 가운데 기념식수, 영원한 빛 추모비 헌화 및 참배, 열병, 분열,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 등 순조로운 행사 진행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생도 식당에서의 오찬과 생도 생활관 견학이 50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저는 생도 식당 식전 인사말에서 “여러분은 이 시대 최고의 군사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하나의 브랜드인 명품 시대



이영하(왼쪽) 22기 동기회장이 공승배 공군사관학교장에 학교 발전기금을 전달



에 여러분도 공군의 명품 장교가 될 것이라 믿으며, 여러분 스스로도 명품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격려 인사를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과제는 원주, 인제, 속초, 춘천으로 계획한 50주년 기념 여행의 성공적 수행이었습니다. 일급 오션 뷰 호텔인 마레몬스 호텔에 여장을 푼 57명의 동기생과 가족들은 기억에 오래 남을 연회를 실시하였고, 모두가 만족스러웠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다섯 가지 과제가 모두 성공적이고 완전하게 진행된 배경에는 쌍매회 동기생들의 지속적이고 헌신적인 참여 의식과 동기생 애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군사관학교 성무대 앞에서 이날 50주년 행사에 참석한 22기생, 가족, 친척, 친지 등 317명 전원이 함께 기념 촬영

### 원주, 인제, 속초, 춘천 여행: 동기와의 새로운 추억

6월 4일부터 5일까지 진행된 50주년 기념 여행은 원주, 인제, 속초, 춘천을 돌아오는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행은 동기들과 함께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지나온 시간들을 회상하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우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어 “불만이 없는 것이 불만”이라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만족스러운 여행이었습니다.



50주년 기념여행 첫날 저녁에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기념연회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단체 사진 촬영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저는 그 감동과 여운을 시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이 시는 우리의 50주년 기념 여행을 기리며 쓴 것입니다.

### 시: '50주년 기념 여행을 다녀와서'

시간은 흘렀어도  
우리의 우정은 여전히 그 자리에.  
원주, 인제, 속초, 춘천을 거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가 되었네.  
추억은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기억이 더해져.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웃음꽃 피어나는 시간들.  
50년의 세월을 넘어  
다시 만난 우리는 여전히 변함없는 친구.  
이 여행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끝없는 우정과 새로운 희망.  
하늘 아래, 함께 한 우리는  
앞으로도 함께 걸어갈 것이라네.







##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5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동기생 회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려 우선, 모든 동기생들과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행사 준비에 도움을 주신 공군사관학교 공승배 교장님, 50주년 기념우표를 만들어 선물한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정석환 회장님, 제15특수임무비행단 이현희 비행단장님, 공군호텔 이구목 사장님과 정보용 본부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 덕분에 이번 행사가 더욱 뜻깊고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 시: '하늘과 함께한 50년'

하늘 높이 날아오르던 그날,  
 우리의 젊음은 푸른 날개를 달았네.  
 바람 속에 피어난 우정은  
 50년의 세월을 넘어 지금도 빛나고 있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우리는 언제나 한결같은 동기였네.  
 하늘을 바라보며 맹세했던 그날의 약속,  
 지금도 마음속 깊이 새겨져 있네.  
 하늘과 함께한 50년,  
 우리는 다시 한번 날아오르네.  
 동기와 함께 한 시간 들,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남아 있으리.

## 하늘 아래, 하나 된 우리

우리의 50주년 기념행사와 여행은 단지 과거를 회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앞으로의 50년을 더욱 밝게 비추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늘 아래, 하나 된 마음으로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이를 기념하며 또 한 편의 시를 나누고자 합니다.

## 시: '하늘 아래, 하나 된 우리'

하늘 아래, 하나 된 우리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우정.  
함께 날아오르던 그날의 기억,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선명히 남아.  
하늘을 향한 우리의 영원한 꿈,  
그 날갯짓은 멈추지 않으리라.  
동기와 함께 한 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를 이어주고 있네.  
50년의 세월을 넘어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  
하늘 아래, 함께 한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달콤한 친구.

##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

이번 50주년 행사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미래를 향한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하며, 함께 나아갈 것입니다. 공군사관학교에서 시작된 우리의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언제나 동기라는 이름으로 함께할 것입니다.

이 소감문을 통해 50주년 행사의 감동과 의미를 전하고자 합니다. 동기생회장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들을 영원히 기억하며, 앞으로도 우리의 우정이 더욱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함께한 50년, 동기들과 함께한 시간들, 앞으로도 함께할 우리의 미래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



임병호(시인)

## 하늘에 산다

(22기 임관 50주년 행사를 보고)

충청도 청주 가는 길  
푸른 하늘이 더 맑고  
마음도 밝았다

‘2024 총동창회  
임관기념행사’가 열린  
공군사관학교 성무연병장

군악대, 의장대 공연,  
보무당당한 생도들의 이상이  
우레같은 박수를 받았다

“하늘은  
우리의 일터요  
싸움터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

대한민국 공군사관학교  
우렁찬 교가의 함성이 드높게 울려 퍼졌다

오오, 굉음을 가르며  
창공을 비상하는  
블랙이글스 축하비행이여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

아, 눈빛 빛나는  
자랑스러운 남아들의  
푸른 맹세

새벽별처럼 영롱하게  
먼동 밝히는 여생도들의  
눈부신 기백이여

오늘도 내일도  
조국의 하늘 지키는 공군  
전투기 편대가 돌아오고 있다 ✈

“

### 시작 노트

‘3성 장군’으로 공군참모차장을 역임한 이영하 시인의 초청으로 지난 6월 1일 공군사관학교를 방문했다. 마침 공군사관학교 ‘2024 총동창회 임관 기념행사’가 성무연병장에서 열리고 있었다. 동행한 정순영, 주광일, 민병일, 정태호, 김이경, 조덕혜, 정명희, 이상정 시인 등 일행 10여 명은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는 공군사관학교와 생도들의 위용에 경의를 표했다. 무운장구를 빌었다.

”



이형걸(32기)

## 공군사관학교 임관 40주년 기념 소회

### 벽공, 기약하고 기원하자.

1980년, 그해 겨울 2월은 무척이나 추웠다. 서울 대방동 성무대 언덕을 넘어갈 때 선배들은 박수치면서 응원했다. “한 달만 참아라!”라고. 3월 입학식 날 여전히 추웠다. 엄마는 겨울 햇살에 까맣게 그을린 나를 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안아주었다. 면회실에서 나는 김밥, 갈비, 잡채를 그저 먹기만 했다. 한 달 동안 처음 겪은 일이 너무 많아 설명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한 달만 참아서 안되고, 그 후로 오랫동안 참아야 한다는 것을. 생도 생활하는 병동 옥상에서, 공부하는 학과장에서, 훈련받는 새마을연병장에서. 우린 199명이 함께 입교했고, 4년 후 169명이 함께 졸업했다. 장교가 되었다. 술, 담배, 여성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자유’가 무척이나 반가웠다. 그러나 깨달았다. ‘자유’란 그런 가벼운 것이 아니었고, 자유를 찾을수록 굴레에 더 갖혀 있게 된다는 것을. 성과를 내기 위한 참모의 책상에서, 부하를 거느리는 지휘관의 모자에

서, 나이를 먹을수록 선배답게 행동해야 하는 인격에서.

2024년, 6월 올해는 여름이 일찍 찾아왔다. 마음의 본향, 서울 대방동이 아닌 충남 청주 쌍수리 성무대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이제는 후배들이 박수치면서 환대했다. 임관 40주년이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스쳐 지나갈 수가 있도록 만드는 것은 자연의 섭리일까 신의 뜻일까 궁금하다. 대연병장 전광판에 바친 생도 시절의 빛바랜 사진을 본다. 멀리 사관생도 예모의 깃털이 바람에 하늘거린다. 40년 전 저 생도 대열 속에 있었던 나를 회상한다. 군악대의 축하공연, 교장의 인사말. 칼 각을 유지한 블랙이글스가 머리 위로 곡예하듯이 날아간다. 생도대 생활관을 둘러봤다. 그 시절보다 세련되고 고급스런 책상, 침대, 캐비닛, 중대 휴게실. 내 젊은 날, 별처럼 찬란한 청춘을 고스란히 부여 넣었던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공군.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인가. 뜨거운 것이 목젓 아래서 꿈틀거린다. 짧은 순



간, 울컥 올라온다.

여전히 소년 같은 눈빛과 마음을 간직한 동기들을 보니 감회가 새롭다. 비행과 업무 중 순직하여 호국의 별이 된 동기들을 기억했다. 지금, 공사 32기 벽공 163명 모두는 공군을 떠나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다. 어깨 위의 반짝이는 계급장은 하나의 추억으로 남았을 뿐이다. 명예롭게 살아온 각자의 40년을 아름답게 간직해 왔다고 생각한다.

돌이켜 보고, 앞으로를 그려본다. 지난 40년 여정을 함께한 아내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함께 할 사람은 분명 아내일 것이고, 또 손에 꼽는다면 사관학교 동기 아닐까. 남편의 군 생활을 곁에서 묵묵히 내조해 온 아내,

가족의 사랑과 헌신은 앞으로의 40년을 품어줄 울타리다. 그리고 벽공, 우리는 꿈과 땀과 열정을 공유한 공동체이며, 청춘을 군에 바친 전우이자, 정의로운 일에 뜻을 함께할 수 있는 단단한 친구이다. 앞으로 우정을 함께 나눌 영원한 동반자이다.

벽공이여, 기약하고 기원하자. 약속하고 그 약속을 지키자. 공군사관학교가 맺어준 우정과 사랑을 소중히 여기며, 10년 후 50주년 행사를 이 모습 그대로 만나기를 약속하자. 그래서, 다시 40년 후를 기약하자. 그리고 기원한다. 벽공 모두의 건강을. 무쇠처럼 강한 그대를.

패기, 신념, 정열, 극복! 32기 화이팅!  
그때까지 무사히, 건강히! ➔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열린 임관 40주년 기념 단체사진



조관행(42기)

## 푸르매 42기의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 30주년을 기념하며

공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 30주년을 기념하며, 공군사관학교 성무대를 기억한다. 매우 많은 눈이 내린 1990년 2월 1일 공사 42기 예비 생도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공군사관학교 정문에 모였다. 하늘만 바라보아도 설레는 우리들이 공군사관학교에 입학한다는 자부심, 처음으로 집을 떠나 낯선 곳에 온다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다. 인생에서 경험했던 가장 어려운 순간 가운데 하나였던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4년간의 사관생도 생활을 하게 되었다. 생도 시절을 통해 ‘인내’와 ‘성실’이라는 두 가지 값진 교훈을 얻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게 된 여러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인생의 자양분이 되었다. 공군사관학교의 교훈은 “배우고 익혀서 몸과 마음을 조국과 하늘에 바친다”로, 우리는 이 교훈을 항상 내면화했다. 우리는 하늘을 사랑했고 우리 모두는 조국 대한민국의 창공에 젊음과 열정을 바쳤다. 아마도 우리 푸르매 42기의 심장과 창천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몇 해 전 1988년을 배경으로 방영된 드라마에서, 주인공 가운데 한 명이 공군사관학교 42기로 졸업하는 내용이 있었다. 전국적으로 매우 많은 인기를 누린 드라마였기 때문에 전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다. 그가 공군 정복을 입고 부모님을 뵙기 위해 집에 왔을 때, 가족들이 그 소위를 보고 기뻐 날뛰는 장면이 있었다. 이처럼 우리들의 부모님들도 우리를 자랑스러워하셨다. 여러 명의 동기들이 그 주인공의 실제 모델이 본인이라고 농담처럼 웃으며 이야기하곤 했다. 누가 주인공 김정환일까?

1994년 졸업 후 위관장교를 거쳐 2000년대 중반 이후 영관장교가 되면서 우리 42기들은 많이 성장했다. 국방정책·군사전략·공군작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군사전문가로 근무하며 군의 발전에 기여했다. 지나간 군 생활을 회고해 보면 보람의 순간도 많았다. 우리의 머리와 손을 통해 여러 군사정책과 군사전략 등이 기안됐고 그러한 노력들이 군사력 운용과

건설의 구체적 산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었다. 여러 명의 동기들이 조국의 하늘에서 산화했고, 여러 명의 동기들이 업무 중 순직했다. 그들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고 싶다. 현재 현역으로 남아 있는 동기들도 있고, 전역 후 다양한 분야에서 다른 인생을 살아가기도 한다. 우리에게 공통적인 것은 우리의 젊음과 열정 모든 것을 조국과 하늘에 바쳤다는 것이다. 우리의 후배들도 우리가 걸어간 것처럼 대한민국의 하늘과 조국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우리들 '영혼의 기지' 공군사관학교를 통해 조국의 간성으로 성장한 우리의 헌신이 대한민국의 안보와 발전에 기여했다고 자부하며, 이러한 자부심은 우리의 자랑이 되었다. 그 자랑처럼 우리 푸르매 42기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해 그리고 국가가 우리를 필요로 할 때 가장 먼저 국가의 부름에 응할 것이다. 조국의 번영과 발전을 위하여! 헌신할 것이다. ✈





## 천다솜 52기에 대한 중간 기록: 다정함과 꾸준함

52기 동기회

공사 52기라는 청년 장교를 관찰하기 시작한 지 20년이 지났다. 공군사관학교를 다닐 때는 52기 동기생들을 사진기를 통해서 '단순 기록'했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20년이 지난 지금 과거 사진들을 돌아보니 역사적 관점에서의 '관찰'이라고 불러도 무방한 나름의 작업이었다. 물론 나보다 더 자세하게 그날의 기억을 정리하고 기록해 놓은 훌륭한 동기생이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년간 이어진 나의 관찰작업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20주년'이라는 특별한 시간의 책갈피는 중간 갈무리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주었다. 이 작업의 필요성은 류재홍 동기회 회장의 지혜로운 강압에 의해서 제기되었다. 그 지혜로운 강압 덕분에 주말에도 일하는 바쁜 사무실을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었다는 점에 감사하다.

사관학교를 졸업할 때는 모두가 푸른 꿈을 꾸다. 52기 사관생도들도 그랬다. 하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던 우리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었고, 무

엇이든지 되고 싶었다. 간혀 있던 사관학교를 벗어난 우리는 자유롭게 날 수 있는 진정한 조인(鳥人)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날 수 있다는 의미는 단순하게 조종사가 된다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날 수 있다는 것은 진짜로 하고 싶은 것을 열정적인 노력을 통해 실현하는 원대한 꿈을 의미했다. 사관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지난 지금 천다솜의 마음에는 어떤 꿈이 자리하고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고 싶다.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꿈이 있거나 새로운 꿈이 자리하고 있을 52기의 마음속 날개의 모양을 관찰하고 싶다. 그러나 내가 관찰해 온 52기 천다솜들은 꿈이라는 단어를 직접 이야기하는 것을 송구하다고 생각하는 배려형 인간이다. 따라서 최근에 몇몇 동기생들과 나누었던 짧은 대화와 내가 관찰해 온 작은 사실들을 기준으로 확인한 편협한 결과만을 전달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해 주길 바란다.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하면서 군번이라는 것을 받았다. 아마도 그것이 시작점이었던 것 같다. 청년 장교의 모든 것은



성적순이었다. 비행 훈련도 마찬가지로 특기별 훈련도 마찬가지로였다. 군인으로 성장하는 모든 순간의 교육에는 등수가 매겨지고 진급에도 순서가 있었다. 앞서 나가는 동기생들의 노력에 박수를 쳐 주기도 했지만, 뒤쳐진 누군가의 인생에는 위로가 필요했다. 위로도 존재했지만 천대와 무시도 공존하는 세상이었다. 그나마 희망적이었던 것은 동기생이라고 표현하기는 부족한 ‘친구’들의 다독거림이 작지만 오래 지속되는 응원이라는 사실이었다. 이러한 현실적인 등수매김이 사라지게 된 시점이 아마도 20주년을 전후한 시점이 아닐까 한다. 누구는 지휘관이 되었고, 누구는 계룡과 용산의 실무자가 되었다. 또한, 다른 누구는 인천공항에서 또 다른 누구는 조치원에서 혹은 미국에서 자신만의 역사적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다. 40대 중반이 되어서야 비로소 오래전 이어령 선생님이 말씀하신

“넘버원(number one)의 경쟁에서 벗어난 온리원(only one)의 경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임관 20주년을 맞이한 순간에 우리 모두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온리원의 경쟁을 하고 있다. 비교의 대상이 있을수가 없다. 오직 자신이 써 내려가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있을 뿐이다. 나는 분명하게 그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52기 천다솜들은 참 대단하다는 사실도 함께 관찰할 수 있었다. 우선 52기들은 모두가 다 각자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쉽게 관찰할 수 있었다. 물론 아닌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52기 천다솜은 꽤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반드시 이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52기가 꽤 괜찮은 사람들







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다정함과 꾸준함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가능하다. 본성이 그러한 인간들이 모인 것인지 사관학교의 생활로 그러한 특성이 학습되었는지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적어도 52기들은 다정했고 꾸준했다. 물론, 지금 관찰하고 있는 52기에 대한 이야기는 그들이 역사적인 성취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작은 하루가 위대하다는 과정의 의미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적어도 내가 지난 20년간 관찰한 52기 천다솜들은 ‘다정’했다. 그들의 다정함은 잘 배운 사람의 다정함과 같았다. 잘 배웠다는 것은 학력의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가정이든 학교에서든 반듯하게 배워서 본질적으로 드러나는 타인을 향하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다. 천다솜 52기는 자신들이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들릴지를 한 번은 더 생각하고 말한다. 상대방의 눈을 바로볼 줄 안다. 그리고 타인의 말에 경청한다. 이러한 태도는 공감 능력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좋은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세상에는 더 많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내가 아는 52기들이 바로 그 다정함이라는 공감 능력을 갖춘 미래형 인재이다. 왜 이러한 다정한 인간들이 필요하냐고 묻는다면 주위를 잠

깐만 관찰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타인에게 쉽게 상처를 입히거나 심지어는 타인에게 상처를 입힌지도 모르는 다수의 사람들과 시공간을 공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정함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그러나 52기들과의 몇 마디만으로도 다정함은 선명하게 확인된다.

천다솜 52기의 또 다른 특징은 ‘꾸준함’이었다. 공군사관학교 52기라고 불리는 사람의 왼쪽 팔뚝에 붙어 있는 부착형 태극기는 남루했다. 오래되어 보이는 태극기는 활주로 바람에 닳고 햇빛에 바래어서 가장자리의 실밥마저 헤어졌다. 어떤 이의 태극기는 꽤나 사라지고 태극기만 남은 경우도 있었다. 낡아버린 부착형 태극기는 살아가는 일의 수고로움과 수고의 경건함을 보여주었다. 남루함은 52기 사관생도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경건함이 드러나는 방식이었다. 다른 새로운 태극기로 바꿀 만도 했을 텐데 그의 고집은 완고했다. 완고한 고집은 왼쪽 팔뚝에 붙어 있는 태극기를 맹렬하게 필러에게 만들었다. 아름다운 태극기다. 그 어떤 예복에 부착된 새하얗고 반질거리는 태극기보다 흙먼지가 앉은 자리가 고스란히 드러나고 햇빛에 누렇게 바래버린 태극기는 순결함 그 자체이다. 목에 핏대를 드러내며 애국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매일 같이 땀에 젖는 정신과 육체의 노동에서 52기

사관생도의 애국은 저절로 왼쪽 팔뚝에서 펄럭이고 있다. 다른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청결하게 관리된 색이 바랜 작업복과 팔토시는 꾸준하게 자신의 일에 몰입하는 52기생들 삶을 증명한다. 그 오래됨은 그냥 꾸준하게 정진하고 있을 뿐이라는 천다솜 52기의 삶을 대변한다.

하나의 질문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한다. “훌륭한 사람은 어떻게 정의되는가?” 훌륭한 사람은 현재의 시점에서 평가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는 시간이 지난 후에 기억되고 기록될 수 있는 사람만이 역사가들에 의해서 평가되어 훌륭한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다. 예를 들면, 역사가들은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같은 위인들을

훌륭한 사람이라 평가한다. 하지만 그러한 위인들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자신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온 우리들이 있다. 우리의 결정적인 순간들 역시 역사로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삶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역사가들이 평가할 것이다. 적어도 우리의 작은 삶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삶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었다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라 평가될 것이다. 타인의 이야기에 경청하고, 꾸준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써간다면, 52기 천다솜은 기억되고 기록될 것이다. 지난 20년을 반추하는 오늘처럼 미래의 20년 뒤에도 말이다. ➡



이후인(62기)

## 공군사관학교 62기 임관 10주년 회고록

유난히 추웠던 2010년 겨울, 우리 62기는 58기~61기에 이르는 선배님들의 축하 도열 아래 힘차게 공군사관학교에 첫발을 내디디며, 공군의 일원이 되겠다는 하나의 꿈을 향해 출발했다. 이처럼 입교에 대한 기억이 어제 일어난 일처럼 생생한데, 어느덧 공군사관학교 62기가 임관 10년 차를 맞이하여 공군사관학교 홈커밍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모교는 10년이라는 세월 사이에 많은 발전이 있었다. 특히 우리가 생도 시절 볼 수 없었던 공사 천문대는 생도들과 대한민국 공군이 우주 영역을 한층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다는 점에서 뜻깊게 다가왔다. 이처럼 많은 발전과 성장이 지속 중인 사관학교이지만, 여전히 고향을 방문한 것과 같이 쌍수리의 향기와 생도들의 기백은 우리에게 따듯한 포근함을 가져다주었다. 나는 우리에게 많은 추억을 안겨준 사관학교의 20대 청춘을 이번 임관 10주년 회고록을 통해 되돌아보며 바쁜 일상에 추억에 젖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 1. 2010년 62기의 1학년, 공군사관학교 생도 생활의 시작

우리들의 62기 기본군사훈련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는 듯 하였다. 영화 실미도에 출연한 교관과 견주어도 부족함 없는 59기 생활·훈련지도 생도는 5주라는 훈련과정 동안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과 역경을 62기에게 안겨주었다. 훈련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에피소드와 반전 스토리는 1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 동기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

기본군사 훈련을 마치고 정식 1학년이 된 우리의 첫 번째 행사이자 임무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58기 선배님들의 졸업 및 임관식이었다. 행사 당일, 폭설로 인해 무릎까지 눈이 쌓여있음에도 무사히 퍼레이드를 끝마친 우리들의 첫 번째 성공적인 임무였다.





58기 졸업식 및 임관식을 끝마치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우리들의 1학년 생활은 “천 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라는 김난도 선생님의 책 제목처럼, 흔들림 그 자체였다. 자유로운 캠퍼스에서 청춘을 만끽하던 바깥 친구들과 달리 우리들의 청춘의 시작은 ‘복종’이라는 생활 모토 아래 끊임없는 인내심을 요구하는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다. 눈을 뜨자마자 명예광장으로 달려나가 구령 및 군가 연습을 진행하였고, 아침 구보 후 정신없이 시작하는 생활관 청소, 학과 출장, 일과 후 자습, 저녁 점호는 매일같이 반복되어도 쉽게 적응하기 힘들었다.



어느덧 이런 1학년 생활이 몸에 익숙해지고 짙은 초록색의 잔디가 연병장을 덮는 5월. 기다리고 기다리던 첫 외출의 기쁨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이어지는 첫 하계훈련과 하계/동계 휴가는 길게 느껴졌던 1학년 생도 생활 중 정말 순식간에 지나가는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다.

## II. 2011년 첫 후배들과의 만남, 그리고 유격훈련

우리들의 첫 후배인 63기의 입학은 우리에게 많은 시간적 여유를 안겨주었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뒤따르게 하였다. 군 생활의 첫 후배들인 만큼 우리들은 그들에게 많은 시행착오를 보여주기도 하였지만, 그러면서도 함께 성장하는 동료로서 상호 간에 신뢰를 쌓고 추억을 만들어갔다. 그리고 또한 생도 2학년이 되었다는 것은 곧,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하계 유격훈련이 다가왔다는 것이다. 무더운 7월의 여름, 60기 선배님들의 직접적인 훈련지도 아래 성무봉을 뛰어 돌아 도착해야만 했던 유격장은 정말 전성터 그 자체였다. 끊임없이 유격대를 외치며 산악 장애물을 뛰어넘어 다녔고, 그렇게 2주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군인으로서 더욱 성장하게 되었다.







### Ⅲ. 2012년 3학년 시절의 꽃 ‘공수훈련’ 그리고 65기 기본군사훈련 지도생도

3학년 때에도 많은 추억을 가져다 준 사관학교 생활이었지만 그 중에도 으뜸은 바로 ‘공수훈련’이었다. 유격보다는 깔끔하지만, 결코 쉽지 않다던 선배님들의 경험담을 들으며 기대 반, 걱정 반으로 하게 훈련을 기다렸다. 헬기·수송기에서 뛰어내려 낙하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위해 우리는 3주간 열심히 낙하하는 방법을 반복·숙달하였고, 큰 사고 없이 무사히 공수훈련을 끝마칠 수 있었다.



공수훈련을 무사히 끝마친 그해 여름이 지나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65기 후배들을 지도하기 위한 지도 생도를 선발하기 시작하였다. 선발된 지도 생도들은 새로 맞이하게 될 후배들을 위해 밤낮없이 훈련과정을 준비하였고, 시설 점검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를 지도해 주었던 59기 선배님들의 노력과 더불어, 모든 사관학교 선배님들의 노고를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기에 매우 뜻깊은 시간이었다.

### Ⅳ. 2013년 기다리고 기다리던 4학년 그리고 이어지는 석별의 시간

어느새 4개의 활주로가 무거운 책임감을 상징하듯 어깨의 견장에 그려져 있었다. 생도대 훈육 요원과 함께 생도대를 이끌어나가는 4학년은 생도 자치 생활의 주축으로서 리더십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기회이자 혜택이었다. 대부분의 동기들이 전대본부, 대대본부 참모를 비롯하여 중대장, 편대장 등의 역할을 도맡아 리더로서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4년간 진행했던 학사 일정 또한 마무리 단계를 맞이하게 되었다.

장교 정복 측신을 시작할 때에는, 우리에게 절대 오지 않을 미래 같았던 사관학교 졸업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되었다. 우리들은 온실 속을 벗어나는 화초와 같이 걱정 반, 설렘 반의 마음으로 졸업을 준비했다. 손살같이 지나간 4학년의 생활은 결국 끝나치게 되었고, 늘 꿈에 그리던 졸업 및 합동 임관식을 맞이하게 되었다.



## V. 지금의 우리들

잊지 못할 한 편의 영화와 같았던 우리들의 임관 후 10년은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이다. 우리 동기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공군의 중추로 성장하거나, 민간의 영역으로 진출하여 재능을 발휘하며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 능력과 재능이 풍부했던 62기들이 지금과 같이 미래에도 각자의 꿈을 가지고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며 회고록을 마친다. ✈





이준희(31기)

## 향기(香氣)나는 사람 동기생 박재준

잠시 스쳐 가는 것도 억만 겁의 연(緣)이 쌓인 결과라고 하듯이 공군사관학교 31기생들과 박재준 삼양화학 회장과의 첫 만남은 세월을 거슬러 1979년 2월 성무대 언덕에서 보라매가 되기 위한 가입교 메추리 시절로 돌아가게 된다. 공군사관학교 생도 시절 첫 만남에 의해 45년 세월이 흐른 지금도 동기생들과 박재준 회장과 만남이 이어지고 있는 것은 서로에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믿음과 함께 귀중한 만남이어야 한다는 간절(懇切)함의 결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돌이켜 사관생도가 되기 위한 가입교 시절을 뒤돌아보면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 바친다’라는 공사 교가에 담긴 의미처럼 뜨거운 열정 하나로 살을 에는 매서운 추위 속에서 기본 군사훈련을 마쳤다. 굳센 보라매를 양성하겠다는 훈육관들의 열정 넘치는 가르침을 패기와 굳센 의지로 보답했을 만큼 무서움이 없는 시절이었다. “조국 영공수호는 우리에게 맡겨라”라고 말할 정도로 국가에 대한 충성

심과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충만했던 시절에 박재준 회장과 공사 31기생들은 함께 훈련받았던 전우이자 동고동락(同苦同樂)의 사이였다.

박재준 동기생은 사업을 승계해야 하기에 2학년 후학기에 들어가면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생도 생활을 마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그는 누구 못지않게 진정한 31기 동기생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2008년 5월에는 공군사관학교와 31기 동기생의 뜻에 따라 청주 공군사관학교에서 박재준 회장 명예졸업식 행사를 가짐으로써 박 회장은 영원한 공사인이 되었다.

공사 출신 선후배들 사이에선 박재준 회장의 존재는 사관학교 동문 차원을 넘어 꼭 필요한 사람으로 회자(膾炙)되고 있다.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그는 공군사관학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남다를 뿐만 아니라 공사 발전을 위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선행을 해오고 있기에 더욱 그러한

것 같다. 즉 회자됨이 선순환을 이루어 향기 나는 사람으로 승화되어 가고 있다. 그 이유는 공사인으로서 그의 삶 행적을 보면 흔쾌히 거액을 기부하여 만든 하늘사랑 장학 재단 및 공사발전 장학기금 후원에서 잘 알 수 있다. 박 회장의 남다른 점은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물론 받은 은혜에 대해서 공군과 공군사관학교에 보답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워 보인다.



아마도 그에게는 공군사관학교와 동문들에게 남다른 애정을 갖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필자가 유추해 본다면 그에게서 공군사관학교는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역경과 힘들조차도 극복하고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자신감을 고취한 극기(克己)의 장소였을 것이다. 또한 성무대 언덕에서의 색다른 경험과 쉽지 않은 환

경을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적응력을 키워 나가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생존력을 배웠을 것이다. 이러한 적응력과 배움이 그가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노사 간에 갈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협상과 조정을 추진하는데 적지 않게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또한 내가 아는 박재준 회장은 「푸시킨의 삶」이라는 시가 주는 의미를 일찍이 사관학교 생도 시절에 온몸으로 체득하여 설사 삶이 자신을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현재 삶 속에 숨겨져 있는 감사라는 단어의 깊은 의미를 찾아낼 줄 아는 사람이다.

31기 동기생들은 그를 기업인(삼양화학 회장)으로 부르기도는 인간 박재준, 성무 언덕에서 함께 훈련받았던 공군사관학교 박재준으로 기억하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인간미(人間味) 넘치는 향내가 그에게서 품어 나오기 때문이다.

그와 공군사관학교 생도 시절을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와 함께 했던 시간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

돌이켜볼 때 인생에 있어서 견디기 힘든 가장 어려웠던 시기를 전우(戰友)로서 함께 보냈을 뿐만 아니라 그 시절의 추억



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최근까지도 동기생들과 만남과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그 시절이 소중한음을, 좋은 추억들의 편린(片鱗)이었음을 일깨워 주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전 31기 동기생 모임에서 누군가에 의해 사관학교 생도 시절부터 인간 박재준과 함께 지내면서 보고 듣고 느낀 삶의 행적에 대한 덕담을 하자 그 한 마디가 마치 순서를 정해놓은 듯이, 릴레이식으로 이어졌다.

흔히들 일컬어 꽃의 향기는 십리를 가고 술의 향기는 백 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천 리를 간다고 말하듯이 그동안 박재준 회장이 살아온 삶의 행적에 대한 동기생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한마디로 그는 “따뜻한 인간미와 정감 있고 사려가 깊으면서도 배려심 많은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정도 되면 그는 참 잘 살아온 인생이라 생각을 하게 되며, 그래서 그의 삶

이 향기 나는 인생으로 자연스럽게 회자되는 것으로 보인다. 공군 출신으로 사회 저명인사로 가왕 나훈아, 축구선수 차범근, 아나운서 손범수에 이어 기업가 박재준의 이름이 고민할 틈도 없이 이미 들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나와 그와의 인연은 공군사관학교를 뛰어넘어 영남 고등학교 시절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50여 년에 가까운 친구이다.

그는 자신이 나온 모교에 대한 애정도 공군사관학교와 마찬가지로 일관(一貫)되게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관됨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면서 그의 사람됨을 알 수 있고 인간적인 신뢰감은 더욱 깊어만 간다. 그는 인연의 깊이만큼 배려의 깊이도 남다르다. 향기 나는 사람 박재준 회장과 공군사관학교 31기 동기생과의 인연은 앞으로도 더욱 소중하게 가꾸어 나가게 될 것이며, 함께 보낸 추억들이 뇌리에 오랫동안 남아 있을 것이다. ▶



# 보라매 마음의 고향, 대방동



장호근(17기)

## 들어가는 글

공군본부(이하, 공본)가 대방동에 터를 잡은 것은 1956년 6월이었다. 1949년 10월 1일, 창설하여 회현동의 임시청사에서 출범한 공군은 창설 직후 6·25전쟁을 맞아 대구 등지로 이전하는 등, 우여곡절 끝에 대방동(현재, 대림아파트 지역)에 정착했다. 그리고 1989년 6월, 33년 만에 다시 현재의 계룡대로 이전했다.

또한, 1949년 1월 김포기지에서 개교한 공군사관학교(이하, 공사)는 전쟁 중에 제주도 모슬포 기지와 진해 기지에서 생도 교육을 하다가 1959년 12월, 이곳 대방동의 현재 보라매 공원 지역으로 이전했다. 그 후 26년 동안 이곳에서 정예 공군 장교를 양성하다가 1985년 12월 현재의 청주캠퍼스로 이전해 자리를 잡았다.



대방동 옛공군본부 청사 (Google)

대방동은 조선 시대에는 ‘높은 절(寺刹)’과 ‘번영이’라는 두 마을로 이루어진 곳이었는데, 후에 이를 합하여 ‘번대방리(番大方里)’라고 하였다가 광복 이후 ‘대방동’으로 고친 데서 이름이 유래한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공군 창설 이후 공본이 대방동에 정착하게 된 경위를 간략히 살펴보고, 1989년 공본이 계룡대로, 그리고 1985년 공사가 청주로 이전한 이후 그동안 이 지역의 변한 모습을 둘러보면서 필자의 감회를 담담하게 글로 나타내 보려고 한다.

## 공군의 창설에서 대방동 정착까지

해방 후 미 군정은 치안 유지를 목적으로 국방경비대와 해상경비대를 두고 있어서, 육





군과 해군은 그들의 토대가 마련되어 가고 있었다. 그러나 공군의 경우는 전혀 준비가 될 수 없었다. 항공 기술이라는 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야 시작된 것이라 이런 기술이 우리나라에 있을 리가 없었다.

1945년 해방을 계기로 중국, 일본, 만주, 미국 등지에서 흩어져 있던 항공인들이 대거 귀국해서 국내항공 분야를 새롭게 일궈보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이들은 비록 소속과 출신 성분이 달랐지만, 대한민국 공군 창설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견지했다. 이들 중에서 공군 창설의 기반을 조성해갈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공군 창설 7인’(이들은 최용덕, 김정렬, 박범집, 이근석, 장덕창, 이영무, 김영환)의 노력 덕분이었다. 이들은 서울의 성북구 돈암동 김정렬 장군 자택에 자주 모여 공군 창설을 논의했었다고 김두만 장군(6·25전쟁 100회 출격, 제11대 공군참모총장)은 회고한다.

그 결과 1948년 9월 미군으로부터 L-4 연락기 10대를 인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연락기로 여순반란 사건에 참가해 활약한 공을 인정받아, 더 나은 성능의 L-5 연락기 10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다. 이 항공전력이 공군 창설의 밑받침이 되었다. 이러한 각고의 노력 끝에 1949년 10월 1일 마침내 공군이 독립하였다. 무(無)에서 유(有)를 창조한 것이었다. 비록 1천 6백 명의 병력과 20대의 연락기, 그리고 연간 유지비가 1만 불 정도로 규모가 초라했지만,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공군이라는 단어가 탄생한 것이었다.

공군 창설 후, 본부의 최초 청사는 서울 중구 회현동(구, 벨기에 영사관)에 있었다. 그러나 공군은 6·25전쟁 중, 전선에 따라 이동해야만 했고, 전쟁 후에도 여의도 등에서 임시 건물을 7년 동안 사용했었다. 그 후 김정렬 장군이 1954년 제3대 공군참모총장으로 취임하면서 정부로부터 대방동 부지(6만 평)를 얻어내고, 미국의 도움(160만 불 상당의 건축 자재)을 받아 건물 신축을 시작할 수 있었다. 신축 청사는 1956년 6월 완공되어 본부가 대방동으로 이전했다. 이곳이 옛날 일제강점기 시절 온천 지대였다는 것을 아는 공군 예비역은 아마도 드물 것이다.

이 지역은 원래 물맛이 좋기로 유명해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이 우물을 파 식수로 쓰고 목욕탕은 폐결핵 환자들의 요양소로 쓰이기도 했다고 한다. 그리고 인근 성남중·고교 운동장의 용마 우물은 용이 우물에서 나왔다는 전설에 따라 붙여진 이름으로 공군본부 뒷산의 이름도 용이 하늘로 올라갔다고 해서 용마산(龍馬山)이다. 현재, 이 나지막한 용마산에는 등산로가 있어 주민들이 자주 찾는 공원 내 명소 중의 하나가 되었다.



## 대방동의 변한 모습

1956년 공본 청사 설립 당시만 해도 논과 밭뿐이었던 대방동 주변은 이제는 서울에서 가장 교통체증이 심한 곳으로 꼽힐 만큼 중심지역으로 바뀌었다. 최근에는 남북을 관통하는 경전철도 개통되었다. 특히 보라매공원 후문 지역은 고층 주상복합단지와의 큰 병원이 있는 인구 밀집 지역이 되었다. 그리고 최근에 전철역이 생겨 더욱 복잡해졌다.



공군본부 주둔 기념탑 (대방공원 내)

## 대방공원

지금의 (동작구) 대방동, 옛날 공본 지역도 1989년도에 공본이 계룡대로 이전한 이후, 대부분이 아파트와 근린공원으로 변했다. 그러나 주변에 공군 장병 아파트(하늘 마루, 우주 마루, 복지시설)는 웅장한 고층건물로 남아있다. 그리고 옛날 공본 터였다는 것을 알려 주는 기념탑이 대방공원 숲속 한가운데 있다.

그리고 여의도로 통하는 여의대방로 바로 건너 신길동(영등포구)에는 '공군 창설 7인' 중 한 분으로 제2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최용덕 장군의 집터를 표시하는 기념비도(우주마루 공군 아파트 경내에) 있다. 또한, 공군 호텔(옛, 공군참모총장 공관터, 영등포구 신길동)이 길 건너에 있어 이 지역이 한때 공본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옛 공본 지역의 변화된 모습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있다. 옛날 기상대 건물과 헬기장이 있던 약간 높은 언덕은 '대방공원'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잔디 운동장으로 변했다.(필자는 80년대 초 2회에 걸쳐 공본에서 약 4년간 근무해 옛날의 이 지역을 기억하고 있다) 이곳에는 300m의 조깅트랙과 각종 운동 기구들이 잘 설치되어 있다.

## 대방 청소년문화의집

그리고 특이하게 변한 곳이 또 있다. 바로 공본 상황실이 있던 지하 공간의 변한 모습이다. 과거 공본 상황실 지하병커는 청소년의 꿈을 키우는 동작구 노량진의 '대방 청소년 문화의집'으로 완전히 변신했다. 공군본부가 충남 계룡대로 이전하면서 그동안 와인 저장고로 사용되다 2009년부터 공원의 자재 창고로 사용되기도 했었다. 이렇게 방치됐던 지



하병커를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청소년 공간으로 바꾼 것이다. 서울시와 동작구가 2017년 12월 공사를 시작해 5년만인 2022년 12월에 완공했다고 한다. 대방동 일대 청소년과 주민을 위한 놀이·교육·체험·커뮤니티 거점 공간 역할을 맡게 되었다. 아이들은 “겨울에 밖에서 놀면 춥잖아요. 지하병커에 놀 수 있는 곳이 생겨 너무 좋아요.”라고 하면서 반기고 있다.

‘대방 청소년문화의집’ 입구에 들어서면 마치 다른 세계인 듯한 공간이 펼쳐진다. 면적 451평 규모로 지하병커 원형은 그대로 살린 채 2, 3층을 다락 형태로 올렸다. 군데군데 살짝 드러난 낡은 콘크리트 벽에는 옛 모습이 일부 남아있다. 과거에는 낡고 어두운 병커였을지 모르나 현재는 그야말로 ‘최첨단’을 달리는 문화시설이다. 가상 현실 체험을 할 수 있는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어트랙션’의 경우 몇 시간을 대기해야 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가상 골대와 경기장 라인이 갖춰진 ‘MR(Mixed Reality, 혼합현실) 스포츠’ 코너에선 각종 구기 종목을 즐길 수 있다. 방치됐던 군용 병커가 지역 청소년들의 ‘비밀 기지’로 하루에도 수백 명이 찾는 명소가 된 것이다.



보라매공원역과 성무탑

### 보라매 공원의 경전철 역

과거 공사가 있었던 보라매공원에 대해서는 구태여 설명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이곳의 최근 큰 변화는 경전철 노선, 신림선이 개통되어 보라매 공원이 주요 정거장이 된 점이다. 2022년 2월에 준공된 신림선은 여의도(‘샛강’역)에서 출발하여 관악구의 ‘관악산(서울대)역’을 잇는 서울의 종축(縱軸) 전철망이다. 이 경전철이 나에게 준 첫인상은 “아담하고 깨끗하며 매우 편리하다”였다.

그러나 나의 관심을 끈 특별한 이유는 신림선이 보라매 공원을 지하로 관통하기 때문이다. 옛날 공사 입구에 있는 ‘보라매공원’역에서 나오면 바로 성무탑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남동쪽으로 다음

정거장이 '보라매병원'역이다 이곳은 과거 공사의 의무대 자리였다. 또한, 옛날 생도대(생활관) 건물들이 그대로 남아있어 나는 이곳을 산책할 때마다 과거 생도생활 시절을 회상하곤 한다.(필자는 17기로 1965년에 입교하여 1969년에 졸업했다) 지금도 언덕 위에 남아 있는 독특한 모습의 교회 건물, 지상 사격장이 있었던 호수와 그 주변, 그리고 연병장이었던 지금의 잔디 운동장과 조깅트랙은 50여 년 전의 추억을 다시 불러일으키곤 한다. 특히 에어파크에 전시되어 있는 F-4 팬텀 전투기(Tail No, 948)는 현역 시절 대구기지에서 내가 타던 비행기다.

## 맺는 글

나와 같이 나이든 보라매들에게는 이 지역은 항상 마음의 고향이다. 현재 공군 호텔 부근의 한 아파트에 사는 나는 이곳 주변을 지날 때마다 이런저런 기념물과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옛날을 회상해보곤 한다. 또한, 이곳 대방동은 우리 공군 최초 비행단이 있었던 여의도, 그리고 내가 졸업한 사관학교 자리였던 보라매 공원과도 인접해 있어 마음의 고향이라는 의미를 더욱 깊게 해 준다.

이제 세월이 흘러 내가 관심을 두고 둘러본 주변의 모든 것들이 과거 유산이 되었다. 현재 남아있는 항공안전단 지역(과거 항공의료원 자리)도 재개발된다고 하니 또 많은 것이 변할 것 같다. 그러나 대방동은 원로 공군 예비역들에게는 마음의 고향이다. 공군의 뿌리가 내리고 성장한 곳이었음이 틀림없다.

올해는 공군 창설 75주년이다. 동시에 공사도 개교 75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제 계통대에 정착한 우리 공군은 F-35 스텔스기를 보유한 막강한 21세기 공군이 되었다. 성층권을 넘어 하늘로 우주로 성장하는 최강의 정예 공군이 되기를 기원한다. ✈







홍성표(28기)

## 성무대 메추리 시절을 회고함

### 에피소드 1.

공군사관학교에 합격했다는 전화 통보를 받고는 기쁨에 겨워 어쩔 줄을 몰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신체검사에서 50.8kg으로 체중 미달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미처 합격하리란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공군사관학교의 문을 입시 두달 전에야 두드린 것은 육군사관학교 12기 출신인 현역 대령 삼촌의 권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고3 때에 육사를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자 삼촌은 난데없이 “공사 가지 그러냐”하고 반문하셨다. 두어달 지난 후 다시 뵈었을 때에도 “육사 가려고요”하니까, 또 “공사 가지 그러냐”하셔서 가만히 생각해보았다. 육사 나오신 분이 공사를 추천하시는 것은 틀림없이 거기에 내가 알지 못하는 특별한 무엇이 있을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하여 입시 2개월 전에 공군사관학교로 급히 전환하여 응시했던 것이다.

학교에 다행히 처음부터 공사를 지원하는 동급생이 있어서 그에게 대충 이야기를 듣고는 같이 공부하였고, 함께 응시하여 둘 다 합격했다. 이름하여 오상화 동기생. 합격 통지를 받고 이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기 위해 삼촌을 찾아뵙고 공사를 권하신 이유에 대하여 여쭙보았다. “음, 국방대학원 동기에 공군 김동호 장군이라고 있었는데, 영국에서도 근무한 참신사였다. 우리 육군엔 그런 신사 없다. 공군은 정말이지 신사군이다.”라고 말씀하셨다.

### 에피소드 2.

1976년 2월의 찬바람을 뚫고 청바지 차림으로 성무대 언덕을 넘어 가입교 했는데, 박 세계 훈련받고 3월 2일자로 입교했다. 그제서야 천하의 공군사관생도가 된 것이다. 밖에서 존중받던 유망 청년 홍성표는 이제 공군사관생도가 되어 성무대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어느 새인지도 모르게 하나의 기계부속품같은 신세로 전락했다. 절도있는 생도생활은 시도 때도 없이 선배들에게 감시당하고 기합받는 가운데 부대끼다 보면, 자존심이고 뭐



고 오간 데 없이 다 증발해버리고 냉혹한 현실 만이 눈앞에 도사리고 있다. 오로지 기합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집중하다보니 인권이고 뭐고 다 필요없게 되고 만 것이다. 사관생도 생활은 후배들을 기합주면서도 ‘귀관!’이라고 부른다. 또 깍듯이 경어를 사용한다. 그렇지만 ‘귀관’으로 칭한다고 해서 귀하게 존경받는 그런 귀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땀 뻘뻘 흘리며 기합받다 보면, 귀관은 무슨 귀관! 차라리 ‘이 새끼야’하고 나오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건 뭐 규정에 따라 귀관이라 불러놓고, 그 다음부터 시키는 것은 주먹쥐고 엎드려 뺨쳐, 쪼그려 뛰기, 팔굽혀 펴기, 오리걸음, 원산폭격, 선착순 달리기, 반성문 제출, 일과 후 지정장소 대기, 주말 면회외출외박 금지 등등 온갖 괴롭힘을 다 시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어만큼은 처음부터 끝까지 경어를 쓴다. 이런 무지막지한 기합으로 뱅뱅이 돌리려 할 땐 닥치고 육두문자부터 날리고 괴롭히는 것이 세상지사이지만, 사관생도라는 훼손시켜서는 안되는 품격이 있기 때문에 언어만큼은 깍듯이 경어로 한다.

이런저런 기합에 매몰되다 보면, 이걸 뭐 태어난 게 죄다. 뭐하러 태어나서 이 고생인가 싶은 심정. 선배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면에서 우월하며 인간적으로도 훨씬 더 고귀하다. 그렇게 인식하게 되고 만다. 1학년 메추리 시절에는 2학년 편대임원이 가장 무서운 존재이다. 수시로 집합시켜 단체로 교육하고 기합주고 움짱달짝 못하게 하는 무소불위의 권세를 휘두르기 때문이다. 생사여탈권은 아니더라도 움짱달짝마라권은 확실히 가지고 후배들을 몰아부치는데 죽으라면 죽는 시늉까지 해가며 그가 스스로 그만! 할 때까지는 일체 군소리없이 죽었다 복창하고 따라야 한다.

### 에피소드 3.

전국 각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된 사관생도들인 만큼 사고방식, 생활방식이 천차만별이다. 그렇지만 사관학교에 들어온 이상 생도규정에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 600여 명의 사관생도들이 한 사람처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것은 모두 이 생도규정에 입각한 반복적인 단련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걸어갈 시에는 시선은 항상 상방 15도를 주시하며 가슴을 활짝 펴고 품위있게 걸어야 하고, 눈알을 굴리면 절대 안되고 대신 고개를 돌려서 보아야 하며, 코너를 돌아가야 할 때에는 직각으로 보행하고, 실내 복도에서 선배와 마주치면 뒷꿈치에서 불꽃이 튀도록 직각보행 제식으로 길을 비켜서야 하며, 이런 식의 제식 훈련에 익숙해지다 보면, 인권이고 나팔이고 고민할 겨를이 없다. 그저 빨리 이 험난한 시기가 얼른 지나가기만을 학수고대하게 된다.

선후배간의 위계질서도 엄격하여 상황이 아무리 부당하고 억울해도 하극상은 감히 엄



두도 낼 수 없다. 왜냐하면 갓 입학한 1학년 메추리들을 집합시켜 놓고 2학년 편대임원이 서슬 퍼렇게 강조하는 것이 ‘군대에서 하극상은 군법회의감이고 그 결과는 예외 없이 총살이다!’를 눈알 부라리며 강조한다, 이런 제길! 그냥 맞아죽고 말라는 말이 오히려 낫다. 이 도저도 수틀리면 다 때려치우고 성무대를 떠나면 되는 것 아닌가. 아니! 그건 여기 들어오기 전의 얘기이고, 일단 들어온 이상 그렇게 제멋대로는 안되지! 암! 여기는 규율이 엄격하기로 이름난 천하의 공군사관학교이니까! ㅎㅎ…

그제서야 하늘같이 높으신 선배님들이란 인식이 들어온다. 그렇게 무섭게 보이는 선배는 이제 겨우 갓 2학년된 선배에 불과하고 그 위에는 3, 4학년이 더 있지 아니한가. 게다가, 사관학교에는 사관생도들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위에 소위, 중위가 있고, 더 높은 대위 훈육관들이 있다. 이 양반들은 성무대의 위계질서상 하늘보다 훨씬 더 높은 분들이 아닌가! 그 위에 또 영관장교들이 있고, 실제로 하늘보다 훨씬 더 높으신 장군 분들까지 있어 정작 첩첩산중이란 백두대간 태백산맥이 아니고 바로 여기 공군사관학교를 말하는 것이렷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면 공사생도생활 더 하고 싶은 매력이 일시에 싹 가시고 만다. 자퇴생들이 우수수 쏟아지고 마는 시점이 들이닥친다. 자퇴 이유는 각종 사통팔달 이유들이다. ‘내가 이럴려구 여기 들어온 게 아니다’부터, ‘여기 안오고 전매소에 그냥 있었으면, 이 고생 안해도 되었는데…’ 등등 구구각색이다. 훈육관 편대장들은 이같은 잡동사니 이유들을 일체 무시하고 ‘전생도 주목! 주목 바로!’하며 구령으로 끌고 간다. 이런 기간이 지속되면 퇴학당하고 싶어서 땡깡 부리는 메추리까지 나온다. 배가 아파서 못 견뎌다느니, 허리가 아파서 바로 서질 못한다느니, 아니면, 시험 답안지를 백지를 낸다. 성적 미달은 자동 퇴교이니까, ㅎㅎ…

그럴 때 편대장, 훈육관들이 외쳐야 할 소리는 하나다, 옆에 빠따 세워놓고, ‘야! 이 천하 잡탱이 새끼들아! 여기 왜 왔어? 양? 한명씩 앞으로 나와!’다. 북받쳐 오르는 배를 발산하자면 그렇다는 얘기다. 그렇지만, 여기는 천하의 공군사관학교, 어금니 지긋이 깨물고 점잖게 한다는 말이, ‘여러분, 고향집에 계신 부모님은 생각 안하나? 무턱대고 나간다고만 하면 그제 해법이 되는가? 자나깨나 자식 잘되기 만을 빌며 오늘도 굳세게 잘하고 있겠지! 하고 계신 부모님 바람은 아무렇게나 내동댕이쳐도 되는 거야? 양?’ 뭐 이런 식이다. 이윽고 절충안으로 제시되는 말씀은 ‘그래도 자퇴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생도들은 1주일 후에 개별 면담 신청해, 얼마든지 받아줄 테니까! 그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야!’다. 그렇게 두어 차례 하고 나면 이윽고 여름방학이다.

멋진 공사생도 제복을 입고 의젓하게 고향으로 간다는 것은 너나없이 신나는 일이다. 동네 어른들과 친구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고개 아픈 줄 모르고 쳐다보기 때문이다. 정읍으로 돌아간 이00 생도, 고개가 반듯하지 못하다고 죽도록 기합받던 친구. 하도 불쌍하여 동기들이 그 생도 기합 좀 그만 주었으면 좋겠다고 사방으로 외쳤던 전우. 동네 입구 우물가를 지나는데 빨래하던 아줌마들이 일시에 일손 놓고 ‘경식이 왔나?’하며 반갑게 맞이한다. 성무대에선 죽어도 말할 수 없는 말이지만 여긴 타생도들이 없는 고향이니까 자연스럽게 절로 나온다는 말이 ‘왔지라우!’ 에라이, 누가 보면 그 즉시 빠따 감이다!

동네 어른들 찾아 뵙고 격려 말씀 듣다보면 3주간의 여름휴가는 순식간에 지나가고 곧 학교로의 복귀 날짜가 저승사자처럼 다가온다. 마음을 짓누르는 귀교 부담. 아름답기 그지 없는 공군사관학교 캠퍼스가 감옥이란 느낌에까지 이른다. 백방으로 고민해보지만, 별수 없이 이제는 귀교가 답이다. 자퇴고 나팔이고 동네사람들의 이구동성 격려에 힘입어 만사 제쳐놓고 성무대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다.

#### 에피소드 4.

자퇴서를 낸 동기녀석 중에 아주아주 악질분자 하나. 이름하여 노00 생도. 하루는 동기 임원들이 훈육관 호출을 받고 가보니 난데없이 차 한잔 권하며 노00 생도가 계속해서 자퇴를 요청하고 있는데, 동기 임원들이 전우애를 발휘하여 설득해보라는 주문. 실상 나도 이거 매력 없는데, 남을 설득하려니, 무슨 열정이 있나. 좌우당간 임원 셋이서 찾아가니 노00 생도 대뜸 하는 말이, “너희들 하려는 말 안들어도 다 안다. 쓸데없는 수작들 부리지 말고 그냥 가! 내가 3수해서 여기 들어왔는데 산전수전 다 겪어봐서 세상 물정 너희들보다 더 훤히. 그러니 쓸 데 없는 소리들 하지 말고 각자의 길로 알아서들 가자고.”하는 게 아닌가. 이런런런... 할 말을 잃고 멍하는 순간 회장이 “야! 너 새끼, 무슨 말을 그렇게 하나! 동기생이라고 좋은 말은 못 할망정 해부치는 말이 생면부지만도 못하구나.” 이렇게 시작한 대화의 끝에 결국은 “그래 당분간은 버텨보자.”가 됐다. 결국에 그 생도는 졸업하여 중령까지 근무 잘하고 전역했다. 박수! ㅎㅎㅎ...

#### 에피소드 5.

취침 점호 후에 메추리 한 생도가 급하게 복도를 건너 화장실로 뛰어갔는데, 복도 반대 쪽 끝에서부터 구두 발짝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리더니 이윽고 이쪽 화장실 앞에까지 와서 들리는 나지막한 소리, “방금 화장실 들어온 생도! 조용히 일보고 끝나면 복도에서 엎드려 뺨쳐로 대기해! 알았나?” “예!” 당직사관생도였다. 소등 후에는 일체 출입을 금지하는 것이



생도대 내무반 규정인데, 이 생도는 미처 소등 전에 불일을 다 마치지 못했던 것. 재수 음 붙었다 여기고 잠시 후 복도로 나와 엎드려 뺨치려는데, 어둠 속에 한 사람이 이미 엎드려 뺨쳐 있는 것 아닌가. 엎드려서 옆으로 붙으며, “야, 뭐 하다가 걸렸냐?”하니까, “안마, 난 2학년이야!” “허겁!” 가는 곳마다 웬 지뢰밭? 고00 생도와 흥00 생도의 웃지 못할 이야기.

## 에피소드 6.

2학기가 시작되니 1학기 성적 우수자에 대한 시상식이 있었는데, 기대도 못했던 무용상을 처음으로 받게 되었다. 기계체조, 무도, 수영 등 체육성적과 군사훈련 및 내무성적이 우수하여 받게 된 상이었다. 상장과 기장을 받으니 동기생들이 몰려들며 구경 좀 하자고 했다, 으쓱! 내가 생각해도 턱걸이 30여 개씩 해냈던 실력으로 철봉, 평행봉, 링, 뽀뽀, 트럼블링 등 기계체조를 날씬하고 재미있게 했더니 이렇게 상까지 주고 신이 났다.

수영은 첫 시간에 만리포 바닷가에서 단련된 평영으로 풀장을 가로지르니, 교관님이 옆으로 빠지라고 해서 다이빙대 옆의 그늘에 앉아 쉬었는데, 동기생 전원을 다 통과시키면서 나랑 두 명을 더 따로 분류하더니, 하시는 말씀이 “귀관들은 수영시간에 안 나와도 좋다. 풀장에서 자유롭게 놀도록!”하는 것이 아닌가. 이후 4년간 수영은 제일 식은 죽 먹기 과목이었다. 예기치 않은 무용산 수상과 부상으로 얻은 외출외박권을 이용하며 보냈던 1학년 2학기는 비교적 수월하게 지나갔다. 1부 끝.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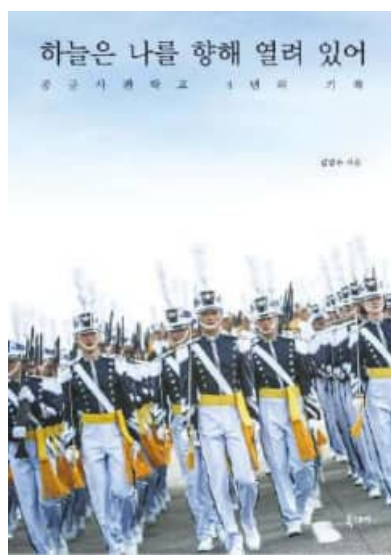
## 애교심(愛校心) 덕분에 출간 작가가 되다



김범수(69기)

백화점이나 쇼핑복합시설에 가는 일정이 있으면 항상 서점을 들른다. 인문, 철학 등 좋아하는 분야의 평대에 진열된 책들을 어루만진다. 서점을 헤집고 다니다 보면 눈앞에 ‘도서검색대’를 마주한다. 그곳에 멈춰 서서 나는 ‘도서명’에 나의 저서 ‘하늘은 나를 향해 열려 있어\_공군사관학교 4년의 기록(북스토리)’을 검색하곤 한다.

생도시절에 썼던 수양록과 기록들이 한 권의 책이 되어 세상에 나온 지도 어느덧 2년 하고도 반이 지났다. 출간 이후, 이 책 덕분에 주변인들에게 과분한 관심을 받았다. 월간 ‘공군’ 몇 호에 나의 인터뷰가 실리기도 했으며 공사총동창회에서 주관하는 동문저자 행사에 초청받기도 했다. 또한,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공군사관학교 학부모 모임’에서 강연을 부탁받기도 했다. 출간을 꿈꾸는 현역/예비역 공군인 분들에게도 적지 않은 전화를 받았다. 그런 많은 관심이 당시에 임관한 지 1년밖에 안 된 한낱 학생조종사 중위가 저



자여서 그런 건지, 혹은 ‘공군사관학교 생활’만을 소재로 하는 책이 처음 나와서였는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그저 평범한 생도였던 내가, 단지 ‘작가’라는 이유만으로 누릴 수 있던 그런 관심은 꽤 참신했다.

누군가 나의 출간 사실을 알게 되면,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것이 책을 어찌다가 쓰게 됐냐는 것이다. 그럴 때면 나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김영민 교수의 어느 칼럼 내용을 인용해 답하곤 한다.





“‘타산지석(他山之石)’이란 고사성어는 원래 시경의 소아(小雅)편에 나오는 ‘다른 산의 못난 돌도 옥을 가는 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표현에서 유래한 말인데, 못난 돌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다는 뜻입니다. 책이라는 매개로 저의 생도 생활을 엿보고, 사랑하는 나의 후배들이 적어도 나는 이렇게 멍청한 시간을 보내지는 말아야지 하고 경각심을 갖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습니다. 못난 것은 못난 대로 누군가의 타산지석이 될 수 있으므로, 저는 용기를 갖고 글을 쓰며 이런 글들을 모아 출간을 했습니다”.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겠거니만, 그때는 생각이 더욱 많은 편이었다. 이를 좋게 표현하면 사고가 깊다고 말할 수 있겠고, 나쁘게 표현하면 고민이 많다고 말할 수 있겠다. 생도 시절의 나는 후자에 더 가까웠다. 나를, 일반 대학에 다니며 나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는 민간인 친구들과, 생도 생활에 잘 적응한 뒤 끊임없이 스스로 발전해 나가는 뛰어난 동기들과 비교하며 나 자신을 궁지로 몰았다. 내가 1학년이든 4학년이든 상관없이, 저학년일 때는 저학년다운, 고학년일 때는 고학년다운 고민을 하며, 생도 생활 4년 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그럴 때마다 이러한 역경들을 어찌 됐든 헤쳐나갔기에 공군사관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 영공수호에 이바지하는 지금의 ‘나’가

존재할 수 있게 됐다.

4학년 동계휴가까지 다녀온 뒤, 졸업을 며칠 남기지 않은 시기에 문득 들었던 생각이 있었다. ‘내가 했던 고민을, 똑같이 겪고 있을 후배들이 있지 않을까? 그 힘들었던 순간들을 해결한 나의 해결책이 올바르게 후배들도 그 방식을 모방하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그런 고민을 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으며, 그 후배에게 공감의 위로는 건네줄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한 명 이상의 선배가 똑같은 고민을 했으므로.’

책을 쓰겠노라 결심을 한 뒤에, 출판사와 출간계약을 하고, A4 100페이지 분량의 원고를 작성하는 것은 나의 강렬한 의지 앞에선 어렵지 않았다. 출간계약을 위해, 먼저 내가 어떤 책을 쓰고 싶으며 기존 도서들과는 어떤 차별성이 있고 출판 시장에서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소량의 원고와 함께 여러 출판사에 메일로 투고를 했다. 긍정적인 답변을 준 출판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중 마음에 드는 출판사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임관 후까지 매일 불철주야 원고 작성에 힘쓰며 녀 달만에 원고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후 탈고, 편집 및 디자인, 군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 22년 5월, 나의 원고가 한 권의 책으로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

사실 출판사와 계약을 해서 출판을 하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출판시장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1년 동안 단 한 권이라도 책을 읽은 성인 독서율은 2013년 72.2%에서 2023년 기준 43.0%로 줄었고, 같은 해 성인 연간 종합 독서량도 3.9권밖에 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서점에 진열되는 책들은 매해 십만 권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나의 원고가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출판사가 나에게 투자할 리가 없다. 나는 품격 있고 화려한 문구로 독자를 감동시킬 수 있는 타고난 작가도 아니고, 책을 냈다 하면 속속히 베스트셀러 코너에 진열되는 유명한 작가도 아니다. 그럼에도 내가 계약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소재가 오직 '공군사관학교'인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독자는 분명히 저자가 '김범수'여서가 아니라 소재가 '공군사관학교'이기에 나의 책을 구입해 읽을 것이다.



여담으로 애교(愛校), 애공군(愛空軍)의 고귀한 마음으로 책을 구입해 준 독자로부터의 인세를 사적으로 사용한다면, 공군인으로서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이었다.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었다. 아직 팔리지도 않은 책의 인세를 선지급받아 150만원, 순직 조종사 유족 장학재단인 '하늘 사랑 장학재단'에 기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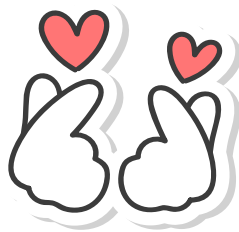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이 책을 쓸 수 있었던 이유를 꼽자면, 학교에 대한 남다른 관심과 '애교심'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생도 시절에는 학교가 시대 변화에 맞춰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을 항상 품었다. 이런 욕심으로 '생도생활발전위원회', '근무생도' 등의 자치근무생도를 맡으며 크고 작은 목소리를 냈다. 졸업 후에도 여전히 공사신문을 구독하고, 1년마다 발간되는 공군사관생도 졸업잡지인 '하늘'지를 읽으며 생도대의 근황을 들여다본다. 또한, 포털사이트와 유튜브에 '공군사관학교'를 검색해 보며 우리 학교가 매체에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지, 사람들이 우리 학교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핀다. 생도 때부터 가졌던 이러한 관심이 나를 작가로 만들어주었다.

당신이 인생 굴곡그래프를 그린다면, '생도 생활 4년'은 당신의 인생에서 높은 곳에 위치하는가, 아니면 낮은 곳에 위치



하는가. 물론, 애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초석을 닦아준 그 시절이 높은 곳에 굳게 자리 잡고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 나쁜 아닌 모든 동문 선후배분들의 바람일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생도 시절을 돌이켜 생각해 보라. 후배들에게 “아직 (자퇴하기) 늦지 않았다.”라고 말하며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자신을 밀었거나, 혹은 누군가에게 저 말을 들으며 붙잡혀 미끄러진 채로 그 시절이 안 좋게 기억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도 시절이 부정적으로 기억된다면, 애교심은 멀어진다. 확실한 해결책

은 없지만, 어찌면 방법은 간단하다. 기억을 미화하자. 좋았던 추억만 떠올리자. 우연히 교지(校地)를 지나갈 때, 무심히 지나치는 것이 아닌, 사전 승인 없이 출입해 옛 우리의 무대를 둘러볼 수 없음에 아쉬워하자. 학교를 사랑한다고 하여 그대에게 어떠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작가가 되기 위해 학교를 사랑하라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자랑스러운 ‘성무인’으로 떳떳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 일인가. ➔



## 맑고 푸른 하늘을 찾아서



김 훈(34기)

공군사관학교 개교 75주년을 동문으로서 진심으로 축하하며 변함없는 발전을 기원한다. 기고자는 공군사관학교 34기생이다. 서울 공군사관학교에서 4년의 대부분 시간을 보내고 청주에서 졸업식을 통해 생도생활의 마지막을 장식하였다. 공군사관학교 과거와 미래 역사에 있어 많은 '성무인'(星武人)들의 요람이 된 청주의 공간을 그들과 공유하였다는 것에 대해 뜻깊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의 많은 사관학교 소중한 기억은 서울 공군사관학교에 남아 있으며, 보라매공원으로 변한 그곳을 지금도 걸으면 가끔씩 걱정에 휩싸이기도 한다. 서울 보라매 연병장 구석구석마다 나와 동기생들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다. 또한 학교 담 밖으로 달리는 2호선 지하철과 그 위로 김포비행장으로 접근하는 민항기에 대비되어 보라매 연병장 위에 몰아치던 광풍 속의 젊은 시절 환영(幻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서울 공군사관학교 자리는 과거 '번덩이'(樊塘里) 연못과 물구덩이가 자리 잡고 있었으며, 이로 인해 지역명칭은 '번대방동'이 되었다가 '대방동'(大方洞)으로 정착되었다. 당시



서울 대방동 보라매공원 음악분수  
(과거 공군사관학교 옥만호, 동계에는 스케이트 빙상훈련 실시)



공군본부도 사관학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대방동에 위치하고 있었다. 나에게서는 공사 2기생인 종조부(從祖父)가 계셨고 선친과는 2살밖에 나이 차이가 나지 않았다. 외출이나 휴가를 나가 종조부를 뵈면 항상 입버릇처럼 “대방동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셨다. 젊은 생도의 입장에서 종조부의 ‘우물 안 개구리’ 비유가 너무 진부하고 불편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많은 시간이 흐른 뒤 공군을 둘러싼 한국의 현실에서 과거 종조부의 염려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아마도 항공발전기에 우리의 선배들이 많은 업적을 이루어 내었지만 조금은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인해 공군이 크게 발전할 수 없음을 그는 안타까워했을 것이다. 장자는 “우물 속에 있는 개구리에게는 바다에 대해 설명할 수 없다.(井蛙不可以語海) 그 개구리는 우물이라는 공간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狗於虛也)”라고 일갈하였다. 장자의 가르침은 조직의 정의(正義)와 발전을 누군가 설명하려해도 기득권에 취한 세력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읽힌다.

1985년 겨울 방학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서울의 기억을 뒤로 하고 청주로 내려왔다. 첫 날밤 피곤함 속에서도 청주 사관학교의 공간적 개방감과 넓은 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들의 선명함은 나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였다. 이른바 ‘청풍명월’(淸風明月)의 고장에 온 것을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한편 후일 알게 된 사실이지만 청주 공군사관학교가 위치한 상당구도 과거 대방동처럼 ‘청풍명월’을 온전히 품을 수 있는 맑은 물이 흐르는 땅이었다. 청주지역은 오래전부터 맑은 물의 호수와 연못 그리고 강이 위치하여 ‘청당’(淸塘), ‘청연’(淸淵), ‘청안’(淸安)이라는 지명들을 가지게 되었다. ‘상당’이 된 것은 ‘청당’의 위쪽 지역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다.

청주 사관학교에 발을 내딛은 지 40년이 지난 지금 ‘청풍명월’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볼게 된다.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기고자는 ‘청풍명월’이 훼손되지 않은 본연의 우주를 의미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군사관학교는 우주를 품을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이동했으며 개막되는 우주시대 중추로서 역할수행의 운명적 책임이 예견된 것이었다. 하지만 기고자는 예비역의 노파심에서 대방동 개구리의 교훈을 다시 상기하고 미래를 위한 생각을 젊은 세대와 공유하고자 한다. 앞에서 기술한 장자의 가르침 외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좌정관천’(坐井觀天)이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된다. 우물 안에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으로 광활한 하늘을 우물의 크기만큼의 하늘로 바라본다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도 대방동 개구리 모습에서 탈피하지 못하였다면 다시 청주의 개구리가 되어서 ‘좌정관천’하는 불편한 가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좌정관천’은 아프게 말해서 학습된 무기력





방정(충북 기념물), 청주시 상당구 방서동 588-23

이다. 나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만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만큼, 선배들이 해오던 방식에 만족하면서 모든 이해와 노력을 국한시키는 것이다. 더 나아가 자신들이 본 하늘을 자신들만의 영역으로 확신하는 착각도 할 수 있다. 실제 우물 밖을 나와 보면 더 광활한 하늘을 다른 사람들이 이미 차지 해버렸는데도 말이다. 우주는 누구의 영역도 아니지만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도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

에 항공우주의 주역으로서 자타가 공인하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깊고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편 외부의 환경적 요인에 의해 우리가 깊은 우물에 어쩔 수 없이 들어 있다고 해서 의기소침하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우물에 대한 관리와 활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힘을 모은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청주 공군사관학교 근처에는 청주 한씨의 시조 한란이 팠다는 ‘방정’(方井)이 있다. 큰 가뭄에도 마르지 않으며 태조 왕건의 10만 군사가 사용하였음에도 모자람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역량이 내재되어 있다면 어떠한 요구나 어려움도 극복해나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기고자는 작년 발간한 『우물로 본 조선역사』를 통해서 우물을 시공간을 초월하는 ‘스타게이트’라는 한국 전통적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즉, 공군이 우물이라는 제한적 환경에 놓여 있어도 미래 우주발전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동맹국과 타군의 협력을 선도할 수 있는 허브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또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방정’의 함의(含意)처럼 모든 우주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역량을 우선적으로 갖추어야 한다. 그다음 ‘스타게이트’를 통해 우물을 뛰쳐나와 실제 우주를 품을 수 있는 개구리의 용기가 필요한 것이다. 공군사관학교 선후배님들에게 우리를 ‘우물 안 개구리’로 규정하고 비하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개교 75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모교사랑과 하늘과 우주를 향한 진심어린 열정 및 노력을 촉구해 본다. ➡



박지원(49기)

## 미리쓰는 이임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사관학교 49기이자 현재 제8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장으로 일하고 있는 박지원 대령입니다. 저는 2001년 임관하여 2년여 간의 훈련을 마친 후, 8전비 103 전투비행대대에서 F-5E/F로 비행 생활을 시작했고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부 정보작전처 컴퓨터네트워크장교, FA-50으로 기종전환, 203 전투비행대대 선임편대장 및 비행대장, 국방부 차관실 정책관리담당, 203 전투비행대대장,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 작전본부 선임작전통제담당(SODO), 숙명여대 공군학군단장을 거쳐 2023년 12월 18일 동북부 영공방위를 책임지는 제8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장(이하 항작전대장)으로 취임하였습니다.

올해는 어느 해에도 경험해보지 못한 긴 더위를 겪으며 여전히 더운 9월, 성무지 기고 요청을 받고 어떤 내용을 쓸까 고민하다가 얼마 남지 않은 이임식을 상상하며 후배들에게 전하는 이임사를 미리 써보기로 했습니다. 전대장으로써 보낸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취임한 첫 1~2개월은 바짝 긴장한 채로 하루가 너무나 느리게 가는 것만 같았지만 몇 개월 남지 않은 지금은 벌써 아쉽기도 하고 다 마치지 못한 일들이 생각나 조바심마저 나려고 합니다.



리더의 위치를 처음 겪어본 대대장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전대장이 되어 4개 비행대대, 기상대, 운항관제대, 항공작전과까지 지휘 범위가 확장되고, 비행단 운영에 깊이 참여할 수 있는 경험을 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대해 배우게 되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 이 인사

먼저, 바쁘신 중에도 오늘 식전을 주관해 주신 존경하는 단장님과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신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제8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장의 중책을 충실히 완수할 수 있도록 헌신해 준 항공작전대 지휘관 참모들과 장병, 군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항공작전대장으로써 저는 ‘조종사들이 역량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고, 그들의 능력을 믿고 기다려주자’는 생각으로 취임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솔직히 조바심이 날 때도 있었지만 역시 우리 후배들은 강하고 영공방위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준비된 조종사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연구하고 노력한 만큼, 자신의 능력을 믿고 자신감 충만한 조종사가 되어주길 바랍니다.

조종사는 다방면에서 전문가이며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부여한 임무를 반드시 완수하는 하나의 전력입니다. 스스로를 평범한 사람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기대 이상의 높은 수준의 인격과 능력을 요구한다고 불만을 가질 수도 있지만, 이는 대한민국 0.00001프로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요구사항입니다. 비행단 모든 역량은 조종사의 쏠티 창출을 위해 움직입니다. 국가대표처럼 몸을 관리하고 프로선수처럼 성과를 창출해야 합니다.

또한 항상 감사하는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첫 비행 시작 3시간 전부터 항공기를 준비해주는 정비전대, 활주로와 유도로(Taxi way) 위 FOD 제거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하는 운항중대, 이착륙을 도와주는 관제중대, 비상에 대비해서 더우나 추우나 엠블런스에 대기하는 의무대대, 바람 방향이 바뀔 때마다 손수 케이블을 옮기는 소방중대 외에도 많은 분들이 조종사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감사 인사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항작전대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부서원들과 화합하고 믿고 의지하십시오. 완벽한 대비태세 유지에 필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껴주고 화합하며, 서로 기대고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은 우리의 존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기본이 될 것입니다. 지휘관부터 병사에 이르기까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과 행동으로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항작전대 장병 및 군무원 여러분!

항작전대는 24시간 불이 켜있는 곳입니다. 비상대기부터 항공작전과, 운항관제대, 기상대까지 여러분의 노력은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원동력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여 동안 전대원 한사람, 한사람이 각자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덕분에 오늘 저는 항공작전전대장의 보직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대원 모두의 헌신과 열정과 사랑을 잊지 않고 마음 속 깊이 간직하며 떠나겠습니다.

끝으로,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이끌어주시고 믿고 배려해주신 단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적극적이고 헌신적으로 협조해주신 지휘관 참모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2024년 12월 어느 날,  
제8전투비행단 항공작전전대장을 마치며,  
공군대령 박지원

## 별똥별 등지



김익래(16기)

새벽 동틀 무렵 두 대의 전투기가 활주  
로에 올라섰다. 두 줄기 붉은 불꽃을 뿜어  
내며 로켓처럼 하늘로 치솟았다. 육중한  
굉음이 하늘 공기를 뒤흔들며 어둠을 거  
뒤 것이다.

매일 새벽 해 뜰 시각에 출동하는 이 초  
계비행 이륙 소리는 비행장 사람들의 하  
루를 열어준다. 무게가 실린 이 음파의 울  
림은 멀지 않은 곳 조종사 마을로 스며들  
어 조종사 가족들에게 살아 숨 쉬는 존재  
의 메시지를 전해준다. 그것은 어긋남이  
없는 빛나감이 없는 온전한 하루 시작의  
안도감을 주는 메시지였다. 그들에게 비  
행기 소리는 기악(機樂)이 울려내는 한 편  
의 생동과 생존의 소나타였다.

도심을 조금 벗어난 변두리, 나지막한  
언덕진 산을 뒤로하고 아파트 10여 동이  
아담한 마을을 이루고 있다. 마을 외곽 둘  
레에는 높은 펜스가 쳐져 있고 입구에는  
초병이 경비를 서고 있어 외부인의 마을  
출입이 엄중히 통제되고 있다. 마을 바로  
오른 쪽에는 나인 홀(Nine hole) 골프장

이 인접해 있고 왼쪽으로 돌아가면 꽤 오  
래된 운전학원이 자리 잡고 있을 뿐 주변  
어디에도 상가나 편의 시설을 찾아볼 수  
없는 마치 까치등지 같이 고독스럽고 신  
비스러워 보이는 마을이다. 입구에서 10  
분 정도 걸어 나오면 시가지로 통하는 간  
선도로가 있고 그 곳에 가끔 이 등지마을  
로 드나들 수 있는 버스정류장이 있다.

이 곳에 등지를 튼 공군 조종사 가족들  
은 별들이 창공에 천년 등지를 틀 듯, 그  
들만의 분리된 하늘공간을 품고, 하나의  
푸른 색깔을 공유하며, 독립된 시공간을  
빛어내고 있다. 옆 동네 사는 김 중위의  
딸내미도 위층에 사는 박 중령의 노모도  
모두에게 딸이요, 모두에게 노모였다. 일  
찍이 하늘이라는 푸름에 녹아 새로운 등  
질의 생명체로 분화된 탓일까. 아니면 독  
립된 위성체에 갇힌 공동 운명체여서 일  
까, 그 마을 사람들은 크고 작음도, 높고  
낮음도, 둥글고 모남도 없는 그저 은하수  
의 별들처럼 함께 어우러져 반짝이고 있  
을 뿐이다.





김 소령이 이 마을에 등지를 튼 지는 7~8년이 되었다. 그는 이 곳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하늘출입 면허증, 빨간 머플러를 두른 후 첫 부임지여서일까. 이 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골프도 배우고, 운전면허도 따고, 사회 입문의 첫 발을 내디딘 곳이어서일까. 어찌면 도전과 희망이 꿈틀대던 젊음의 한 가운데 토막을 마음껏 불 살렸던 꿈의 무대가 바로 이 곳이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김 소령은 베란다로 나가 남쪽으로 향한 창문을 활짝 열었다. 비행장 전경이 한 눈에 펼쳐졌다. 곧게 뻗은 두개의 활주로가 하늘과 땅을 하나의 생명체로 이어주는 대동맥처럼 붉게 밝아오는 동녘하늘을 향해 꿈틀거리고 있었다.

하늘 길로서는 최전방 부대라서 일까 활주로는 팽팽한 긴장감과 활기를 뿜어냈다. 비행장 상공에 머물고 있는 공기와 바람은 밀도도 냄새도 색깔도 달랐다. 하루 종일 뜨고 내리는 전투기들의 잔상이 도화지 없는 푸르름 속에 담겨져 있고 그들이 올려내는 녹색 소음은 반주 없는 기악 機樂의 울림이 되어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부엌에서도 화장실에서도 생존의 음파로 일상에 녹아 있었다.

머리 위 상공에서 비행기 소리가 들렸다. 방금 전 이륙한 초계비행이 돌아오는 모양이다. 하늘을 쳐다 봤다. 두 대의 항

공기가 떠오르는 햇살을 받아 은빛을 튕기며 선명하게 그 모습을 드러냈다. 아파트 상공은 임무를 마친 항공기들의 착륙을 위한 귀환루트였다. 그곳은 하루 종일 두 대 씩 혹은 네 대 씩 짝을 지어 등장하는 항공기들의 무대였다. 누구에게는 남편이, 누구에게는 아빠가, 누구에게는 아들이 마치 새 소식을 갖고 온전하게 되돌아온 전서구傳書鳩처럼 마을을 향해 날개짓을 한다. 심술궂은 구름이 그 무대를 가리는 날이면 기악 機樂의 울림이 등지마을로 스며들어 안방으로 부엌으로 소식을 전해준다.

뭉게구름이 뭉게뭉게 피어있는 어느 날 오후, 갑자기 마을상공에 비행기 모습이 보이질 않았다. 비행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하늘이 호흡을 멈추었다. 등지마을이 술렁이었다. 아이도 어른들도 일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이글거리던 활주로가 덩그러니 맥없이 누워있다. 나름의 축으로 불길(不吉)을 예감한 김 소령은 즉시 작전실로 향했다.

작전현황 전광판에 사격임무로 이륙한 박 대위의 착륙시간이 공란으로 남아있었다. 이륙한 지 2시간이 지났는데도... 채워지지 않는 저 공란! 네모진 조그만 저 빈칸이 짝 막힌 동굴 속처럼 캄캄한 어둠이 되어 가슴 속을 짓눌렀다. 순간 박 대위의 부인과 딸애의 모습이 머리를 스쳤다. 숨이 딱 막혀왔다.

둥지마을 가족들의 가슴속 깊은 곳에  
떨어진 저 돌아오지 않는 별똥별은 슬픔  
을 먹고 아픔을 이겨내며 언젠가는 더 밝  
은 빛을 얻어 또 하나의 새로운 별로 승화  
되겠지. 하늘 더 높은 곳에 자리 잡아 다  
른 별들과 함께 영원히 반짝일 테지.

새벽 동틀 무렵 두 대의 전투기가 다  
시 활주로에 올라섰다. 활주로는 다시 꿈

틀거렸다. 에프터 버너(After burner)를  
터뜨리며 새벽하늘로 치솟자 굉음의 포  
효가 다시 둥지마을을 덮쳤다. 새벽이 다  
시 활기차게 열렸다. 둥지마을 그들에겐  
하늘이 있다. 정의와 진리를 빛어내는 창  
공이 있다. 늘 함께 숨 쉬는 별들이 있다.  
성림(星林)의 가족들은 오늘도 또 내일도  
정의를 먹으며 침묵 속에 빛을 발할 뿐이  
다. ✈





최현욱(56기)

## 비행대대에서 배운 육아의 지혜

어린 시절, 나는 가족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맞벌이였던 부모님께서 일터로 가시면, 바로 옆에 있던 할머니집에서 이모, 삼촌들과 함께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래서일까, 아이가 생겼을 때 나는 누구보다 훌륭한 아빠가 될 자신이 있었다. 하지만 현실에서 마주한 육아는 내 기대와는 달랐다.

아이를 낳은 후에도 나는 기본적으로 일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회사원이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그랬고, 막내 때부터 바라본 비행대대 선배들의 모습 또한 그러했기 때문이다.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여전했지만, 육아의 많은 부분을 아내에게 맡겼다.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군인으로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합리화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상에 큰 변화가 찾아왔다. 몸에 문제가 생겨 꽤 오랫동안 비행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다. 교관이 되자마자 비행대대를 떠나야 하는 것도 큰 충격이었지만, 나를 더 힘들게 했던 건 책임감

이었다.

‘건강이 회복되지 않으면 아내와 아이들은 어떻게 하지?’

미래에 대한 걱정은 이상하게도 자신감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떨어진 자신감은 나를 더 예민하게 만들었다. 당연히 해야 할 육아에도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아졌다. 건강을 회복하려면 충분히 쉬어야 하는데, 육아 때문에 제대로 쉬지도 못한다며 불평했다. 나로부터 시작된 부정적인 에너지가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있었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스스로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과 상담을 하고, 마음 공부도 했다. 그 과정에서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

상담을 통해 발견한 내 부정적인 감정은 내가 바라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과 현실 속 내 모습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좋은 아빠, 좋은 남편처럼 되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현실 속에서는 건강도 못 챙기는 남자로 살고 있으니 스스로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계속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다.

선생님께서서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임을 먼저 말씀해 주셨다. 다만 과거의 나는 그러했지만 앞으로의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지 물었다. 나는 변하고 싶었다.

문제의 해결은 내가 이상적인 아빠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당시 인기 있던 육아 TV 프로그램 때문인지 나는 야근도 하지 않고, 주말마다 아이들과 여행을 다니며, 학부모 활동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이상적인 아빠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었다. 하지만 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물리적 시간이 부족한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육아를 하려고 노력했다.



신기하게도 이 과정에서 대대에서 배운 생활습관과 커리큘럼이 많은 도움이 되었다. 비행을 할 때 'T.O'와 '교범'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하지만 당시 나의 육아 지식 수준은 매우 낮았다. 아이와 보낼 수 있는 적은 시간을 효과적으로 보내려면 먼저 육아에 대해 잘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많은 육아서를 읽고 유명한 다큐멘터리도 빠짐없이 챙겨 보았다. 이를 통해 부모의 역할과 아이의 발달 과정, 무엇보다 엄마들이 느끼는 감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이제 육아서를 통해 배운 이론을 활용해야 했다. 머릿속으로 이해한 것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또 다른 문제였다. 나의 경우, 평상시에 아이들의 마음에 공감하며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 때 도움이 된 것은 '머리비행'이었다. 아이들이 무언가를 잘했을 때, 또는 잘못하거나 때를 부렸을 때와 같은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연습을 많이 했다. 덕분에 아이의 감정을 읽는 것이 조금씩 익숙해졌고, 나중에는 언성을 높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훈육하는 법도 익힐 수 있었다.

아이들과 가까워지는 데에는 '솔로비행'이 한 몫을 했다. 비행훈련을 받을 때나 요기 조종사일 때를 생각해 보자. 교관과 함께 비행을 할 때도 많은 것을 배우지



만, 단좌 비행을 할 때 또한 새로운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서 비행기량이 크게 늘어난다. 육아도 마찬가지로이다.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육아에 할애하는 아내의 감정을 이해한 후, 짧은 시간이나마 혼자 아이들을 돌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다. 적어도 엄마가 옆에 없는 동안에는 내가 아이들의 1순위였고, 아내의 도움 없이 여러 경험을 쌓으면서 육아실력도 크게 늘었다.

그 밖에 나의 나쁜 습관도 고칠 수 있었다.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내가 발견한 문제점은 가족과 대화하면서 핸드폰을 보고 있거나, 아이들의 말을 흘려 들을 때가 많다는 것이었다. 대대장님과 이야기할 때는 핸드폰에 손도 대지 않고, 지시 사항도 철저하게 지키면서 더 가까운 가족의 이야기에는 제대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끄러웠다. 아이들이 나의 상관은 아니지만 아이들의 말을 상관의 말처럼 귀담아 들으려고 노력했다. 대화할 때 핸드폰을 보지 않고, 특히 기록을 통해 아이들과의 사소한 약속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다.

이처럼 비행대대의 경험은 내가 효과적인 육아 방법을 익히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군 생활이 항상 육아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부작용도 있다. 특

히 시간 약속이나 정해진 계획을 따르지 않았을 때 그렇다. 지금 나가야 학교에 여유 있게 도착할텐데, 밍기적밍기적 거리다 헬레벌떡 뛰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 집에 오면 숙제부터 하고 놀기로 약속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지 않을 때,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나도 어렸을 때 우리 아이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잘하지 않았다. 직업병 때문에 한바탕 잔소리를 늘어놓고 나서는 반성할 때가 많다.

조종사들 사이에선 ‘조종간이 말랑말랑해 질 때 정신 바짝차려야 한다’는 말이 있다. 내가 비행을 잘 하는 것 같고, 비행이 쉽게 느껴져 방심하는 순간, 사고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육아도 비슷한 것 같다. 막연하던 육아가 익숙해지고 내가 잘 하고 있다고 느낄 때, 또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만 무작정 아이를 끌고 갈 때, 또 다른 문제가 커질 수 있다.

결국, 육아도 비행처럼 겸손한 자세에서 계속되는 학습과 반성의 과정이다. 수십, 수백 번을 같은 기지에 착륙해도 똑같은 착륙이 없듯이, 아이들과의 하루 또한 매일이 새롭다.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고 싶다. 나는 슈퍼맨 아버지는 아니지만 함께 성장하는 아빠이고 싶다. ✈





송기준(25기)

## 새발간 마후라 출격

대지를 화려함과 열정으로  
수놓은 붉은 장미보다 더한  
힘과 에너지, 사랑, 따스함  
그리고 섹슈얼리티가 넘쳐나는  
붉디붉은 마후라를 목에 두른다.

손발이 연결된 긴 조종복에  
6발 리벌버를 왼 가슴에 차고  
만유인력을 거슬리는 G- shut를  
몸통 아래에 질끈 맨다.

호말(胡馬) 타듯 애기에 턱 올라 앉아  
숨은 적 투시하는 천리경을 올린다.  
수만의 준마가 포효하니  
순식간 창공에 오르니  
발 아래 온통 운궁이로다.

벽공(碧空), 운궁(雲宮)에  
붉은 마후라 휘날리며  
까마귀 떼 지켜보는 천리경  
정의의 지풍(指風)  
가볍게 튕기고 흔드니  
천상에서 불벼락 내려친다.

하얀 뭉게구름 검 핏빛으로 물들고  
불의의 몽상은 순식간 사라진다. ✈



## 새벽 하늘

핑음으로 공기를 흔들며  
 어둠의 대지를 박찬다.  
 단숨에 하늘에 오르니  
 동쪽 먼 한 곳에  
 붉은 기운이 감돈다.

주렁주렁 칠보처럼 들어박힌  
 별들을 머리에 이고  
 한없는 우주의 기를  
 가슴 뿌듯 받아들인다.  
 세속의 온갖 잡념과 망상도  
 공간 속으로 날려버린다

하늘이 열린다.  
 짙은 주황색 태양신이  
 얼핏 자태를 보인다.  
 그러다 이내 위대한  
 천상의 신상(神像)으로  
 대지를 박찬 항공기처럼  
 성큼 하늘에 오른다.

구름 아래 아득한 보금자리  
 태양신의 기운이  
 인간 세상에 힘을 더해준다. ➔



김병오(23기)

## 파도의 최후

아주 오래전  
먼바다 한가운데서 시작된  
기나긴 행군 끝내고  
마지막 진격 나팔 소리와 함께  
고지를 향해 돌격해 가는 전사처럼  
큰 함성과 몸짓으로 달려와  
처얼씩 싸아~  
그렇게 장렬히 산화했구나.

그 멀고 긴 여정 내내 맞닥뜨렸던  
온갖 영욕의 순간들과  
차마 미처 말하지 못한 사연들을 묻어둔 채  
온 세상 다 품은 넓은 가슴으로 달려와  
처얼씩 싸아~  
그렇게 하얀 포말로 스러져 갔구나.

오직 최후의 한순간만을 위하여  
험난한 세파 헤치며  
뛰는 가슴 부들켜안고  
하늘을 찌를 듯 높은 기개로 달려와  
처얼씩 싸아~  
그렇게 비장하게 최후를 마쳤구나. ➡



## 상사화

여름내 땅 밑에서  
 숨죽이며 살다가  
 가을이 오면 어김없이  
 잎도 없는 꽃대를 올리지.

토끼 수염 같은 꽃을  
 불꽃 같은 열정으로 피웠다가  
 재풀에 스러져 가는 꽃.

누굴 기다리다가  
 목이 저토록 빠진 걸까  
 누굴 사랑했길래  
 저토록 몸쓸 상사병에 걸린 걸까  
 가을은 왔건만  
 오지 않는 임 기다리다가  
 상사병으로 생을 마치는 꽃. ➡





이영종(24기)

## 나의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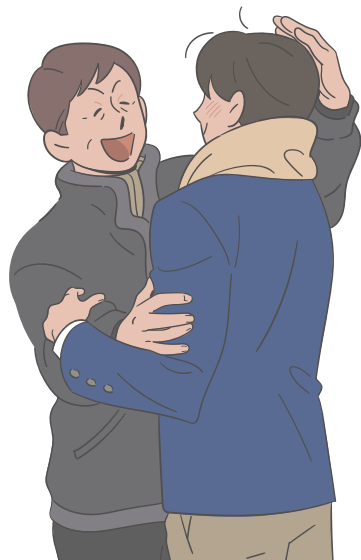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웬지 절규하며 부르짖고 싶은 그 단어,  
너무 오래 잊고 살았나 봅니다.  
아득히 먼 기억 속에  
켜켜이 먼지에 묻혀 버린 그 잔영  
기를 쓰고 붙잡으려 해도  
금방 허공 속으로 흩어져버리는 순간들.  
당신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이제 내 스스로 그 시간을 지나  
자식과 손주들을 돌아다보며  
나의 아버지를 떠올려 봅니다.  
당신은 어디 계셨습니까.  
처절한 삶의 파도에 맞서다 보니  
벌써 이렇게 시간이 흘렀네요.  
때론 기뻐하고, 때론 슬퍼하고  
한때는 주저앉고, 한때는 일어서고  
언제는 땅을 기고, 언제는 하늘을 날고  
치열한 협상의 밑고 당김 속에  
한순간 실망으로 낙담하고, 또 다른 순간 희망으로 솟구치는  
그러는 동안 당신은 누구셨습니까.



한이나 원망 없이  
 그저 감사만 가슴에 남아 맴돌고 있는데  
 삶의 자국마다 나누지 못한 아쉬움들  
 그래서 가슴이 저려오는 걸까요  
 당신은 왜 그렇게 홀연히 떠나셨나요.  
 삶에 대한 아무 준비 없이 홀로 남겨져  
 그렇게 어린아이로 시작된 한 삶이  
 반세기가 훌쩍 넘었네요.  
 순간순간 삶의 굴곡들 속에 외로웠으나  
 늦게라도 그 흔적들을 나눌 수 있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가슴이 메어지나 봅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 빈자리를 채워 주시고 인도해 주셨기에  
 또 다른 감사를 가득 안고  
 땀뿜린 마음을 채워 나갑니다.  
 당신은 저에게 누구십니까  
 아버지~~~~~ ✈





정지수(11기)

## 태권도와 한국의 얼

### 머리말

태권도는 국기(國伎)이자 민족의 정신이다. 우리 민족은 환단(桓檀) 이래 배달조선, 단군조선, 북부여 및 고구려, 신라, 백제의 3국 시대를 거쳐 고려 - 조선조 - 대한민국에 이르기까지 민족 저변에 흐르고 있는 정신적 맥락이 있다. 이것이 태권 - 태권도 정신이다. 이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유수의 경제, 문화, 체육 및 군사 강국을 형성해 가고 있다.

다만 정치 분야만은 민족 철학 결여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길을 못 찾고 방황하고 있다. 한국적 “얼”이 결여된 탓이다. 여기에 태권도 정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민족의 뿌리를 인식하지 못하고 역사적 정체성 확립을 못 한다면 어떻게 자신을 찾고 바로 설 수 있는가?

태권도 정신은 우리 민족의 뿌리 정신이요 “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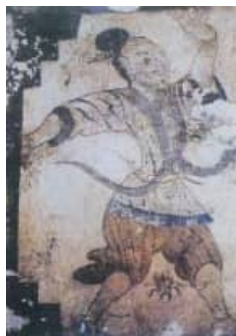
아울러 태권도의 연원과 그 의의를 역사 문화적으로 고찰하여 보기로 한다.

### 1. 태권도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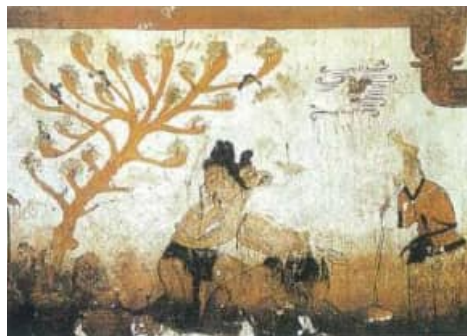
인류는 각 민족의 형성 과정에 따라 그 자체의 보위와 생존 유지 수단으로 무술을 개발하여 투쟁의 도구로 살아왔고 종교적인 제천의식과 더불어 체계적인 무도 또는 무예로 개발됐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3국 시대에 태권 - 수박희가 체계화되어 널리 성행하고 있었다. 고구려 때에는 조의선인(早衣仙人) 또는 선배(先輩)로 불리는 무사집단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수련되었으며 일단 유사시에는 전쟁에 앞장섰고 전쟁에 임하여서는 물러서지 않았다. 아울러 일상생활에서는 충(忠)·효(孝)·신(信) 3훈(訓)을 지계로 하여 집체적으로 수행하니 사회적이고 대중적인 운동으로 시행되었다. 따라서 국력은 육성하고 번창하여 갔다. 고구려시대에 태권의 대중화되어 수련하는 모습은 황실 고분 벽화에 잘 나타나 있다. 무용총 현실 천장 벽화에 태권 “겨루기도”, 각저총의 “씨름도”, 삼실총의 “장수도” 등이 그것이다.



무용총 겨루기 장면



삼실총 장사도



각저총 씨름도

이들 벽화가 그려진 시기는 고증학적으로 AD5세기경에 그려진 것으로, 이 시기는 고구려 최전성기인 제19대 광개토태왕 (AD374~412), 20대 장수왕(AD412~491) 재임 시기와도 맞물린다. 이는 사실(史實)적으로도 입증이 되는 부분이다. 고구려의 선배(先輩)집단은 신라에도 영향을 주어 신라 진흥왕 5년(AD544)의 화랑제도 설립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화랑도가 한창 번성하던 진평왕 11년(AD689)에 원광법사의 화랑 5계가 선포되었고 그중에서도 충(忠)·신(信)이 특히 강조되었다. 화랑도들은 병술로서 태권을 연마하였고 이를 통하여 공동체로의 정신적 결집을 다져갔다.

고려조에서는 진중(陣中)에서 5녕수박희(태권)가 장려되어 수박희 경연대회에서 우승하는 자에게는 1계급 특진을 시키고 우대하여 무술을 통한 정신전력 강화에 특단의 대책을 강구했다. 또한 종교를 통한 제천의식으로 연등회나 팔관회 행사를 연례적인 민속행사로 거국적으로 시행하면서 태권대회를 개최하여 상무정신(尙武精神)을 고취하였다.

조선조에 들어와서 초기에는 민속놀이와 더불어 태권이 왕성했으나 승유억불(崇儒抑佛) 정책으로, 제천의식(祭天儀式)으로 행하던 연등회나 팔관회도 쇠퇴하고 아울러 태권을 통한 상무정신도 사라지면서 국운이 쇠락하여 종내는 일제에 나라를 수탈당하는 참극을 맞게 된다. 22대 정조대왕 시기에는 이를 통감하고 “무예도보통지”를 발간하는 등 실사구시(實事求是)로 국운을 바로 세우려 하였으나 공리공론과 허례허식의 유학자들에 의하여 야만적인 일제에 의하여 나라를 수탈당하는 어이없는 치욕을 당하고 말았다. 사전에 임진왜란, 정묘호란, 병자호란의 강력한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눈과 귀를 막고 연구도 안하고 ..., 불타는 초가삼간에서 대응도 못하고 반성도 못하고 있다가 나라를 잃었던 것이다.

현대의 태권도는 해방 후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빠른 속도로 민족정기를 함축시켜 그 내부 에너지를 세계적인 결속 에너지로 확산시켜 Global화 시키고 있다. 1965. 8. 5 대한

태권도협회 창립, 1967. 11. 30 태권도 품새 공표, 1971. 3. 20 박정희 대통령의 국기 태권도 지정공표, 1972. 11. 30 국기원 건립, 1976. 5. 10 태권도관을 9개 관으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1978. 10. 5일에는 대한 태권도 협의 중심으로 단일화 통합하였다. 그리하여 국내적으로는 각 시, 군, 구 등 행정단위 조직으로 단순화되었고 대외적으로는 국기원과 해외조직 관리를 세계화시켰다. 이제 태권도는 세계 198개국에 전파되면서 아시안 게임 내지는 올림픽 종목으로 세계적인 체육 종목으로 부상하였으며 이는 태권도 정신 -한국인의 얼-의 세계화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국내 태권도 통합과 해외 보급에 필자도 적극 참여하여 기여하였음을 첨언한다.

## 2. 태권도의 의의

태권도 대한민국의 고유무도이자 “얼”이다. 곧 민족 전통무도이자 정신이라고 볼 수 있다. 전통과 역사-그리고 이를 지킬 수 있는 기상이 없는 민족은 멸망한다. 이 정신은 곧 민족 철학을 형성하며 민족 보위의 울타리가 되고 이러한 자기 달성 위에 세계화로 발전될 수 있는 인류 평화의 기틀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이다.

태권도 수련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심신의 단련을 통하여 예·의·지·신·용(禮義智信勇)의 덕목을 갖춘 개인 인격체를 완성하고,

둘째, 집체 훈련을 통하여 사회적 공동체의 품격을 조성해 나간다.

셋째, 기(氣)의 수련을 통하여 조직의 능력을 극대화시킨다.

넷째, 국가와 사회의 가치 기준을 확립하고 건설적인 에너지를 배양한다.

다섯째, 창의성과 진취성 개발도 궁극적으로는 조직의 생존성, 협동성, 개척정신 함양을 도모한다.

## 3. 태권도의 중국 권법과의 비교분석

태권도와 중국 권법을 총체적으로 비교 분석하면, 태권도는 대중적이고 집체성, 개방형 무도이고 발기술 위주의 역동적인 동작이 특징이다. 심기단련을 외공에서 내공으로 지향한다. 반면 중국 무술은 수밀자전의 산간 무술에서 비롯된다. 동작은 수기 위주이며 동물의 동작을 본 판 상형무도이다. 기(氣) 단련은 내용에서 외공으로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민족이 다르고 그 기상이 다르듯이 태권도와 중국권법은 확연히 차이가 나며 태권도는 대체로 기마민족의 씩씩함이 엿보이고 중국권법은 유연성이 돋보인다.

#### 4. 나와 태권도 - 공군

필자가 태권도와 인연을 맺은 것은 고등학교 졸업 후 부진했던 심신의 컨디션을 회복하고자 태권도에 입문하고 나서부터이다. 태권도 수련 후 7개월이 지나자 심신의 컨디션이 완전히 회복되어 공군사관학교와 서울대학교를 동시에 합격하는 망외의 소득을 얻게 되었다. 태권도 수련 덕분이었다. 생도 생활을 거쳐 임관 후 중위 시절엔 시설장교로 근무하면서 본격적으로 태권도 활동을 하였다. 이때 대구비행장에서 만난 박용탁 관장님과의 인연은 본인의 태권도 인생에 큰 전기가 되었다.

1971년 8월에는 자유중국 파견 태권도 교관단 공군 대표로 육·해군 교관 각 1명과 함께 3명이 자유중국군 태권도 훈련을 맡게 되었다. 자유중국의 전통적 국술(國術)의 아성에 도전하여 태권도의 기합 소리도 우렁차게 열심히 노력한 결과 드디어 1973. 5. 10일부로 자유중국 체육회 산하에 '태권도협회'가 창설되는 쾌거를 이루었다. 태권도의 우수성이 입증된 것이다.

한류 문화의 교두보 확보로 보람 있는 일이었다. 1973년 10월 귀국 후 태권도 활동에 박차를 가하면서 태권도의 각 도장을 국기원 이하 태권도협회 소속으로 통합하는 과정에도 열심히 동참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1985. 1월 전역시까지 공군태권도 회장을 맡으면서 각 기지 태권도 활성화로 정신전력 강화에 크게 힘썼다.



공군교육사령부 주최 태권도 대회 경기 장면

#### 맺는말

태권도는 우리 민족의 얼이요, 정신이다. 태권도는 심신 단련과 무도의 차원을 넘어서 국기로서 국력 신장의 원동력이 되고 국민적 내부 에너지로 결집시켜 세계화로 확산시키는 생활 철학으로 승화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은 고대로 천부경(天符經)의 인증천지일(人中天地一) 사상이나 단군왕검의 홍익인간(弘益人間) 사상은 다 인본주의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태권 사상은 우리 민족 저변에 흐르고 있는 인본주의 사상과 영합하여 자유민주주의 문화 창달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 인연(因緣) 60년, 그 은빛별무리들



배기준(12기)

2024년 6월 4일 공군호텔 공사12기사관 졸업임관 60주년  
축하 오찬장에서 기생약사(期生略史)로 낭독하다

어둑새벽 동이 틀 무렵  
그러니까 여명(黎明) 생도 4년

교훈(校訓)과 공사10훈(空士十訓)을  
복명복창(復命復唱)하고  
부동자세로 교가(校歌)를 엄숙히 부르며



동고동락(同苦同樂)  
내무반에서 학과장에서  
연병장에서 전대점호장에서 식당에서  
때로는 관악산 무장구보에서 거친 숨결 고르며  
선배로부터 배우고 후배를 가르친

은빛별무리(銀星會)라 이름한 공사12기사관

조국과 하늘에 맹세하고  
성무대(星武臺)를 졸업임관하여  
임지(任地)로 떠난 1964년 3월 6일



소위(少尉)에서 상급직위(上級職位)에  
오르는 동안 복종과 지휘의 중심에서  
늘 사관출신 엘리트(elite)답게  
의무(義務) 명예(名譽) 용기(勇氣)를 선택했다

은퇴하여 군복 벗은 말년(末年)에도  
 풍전망국(風前亡國)에 맞서  
 백의종군 벽돌한장되어 애국 선봉에 섰다

그야말로 세월속 거친 바람과 바람사이에서  
 진정한 베테랑(veteran) 역전(歷戰)의 은빛별들이여

시공(時空)은 순간이 이어져 영원으로 간다  
 전우(戰友)로 만났다 헤어지고 그리워 기다리던  
 회전목마(回轉木馬) 어언 60바퀴

지금 팔십 중반 언덕에서  
 걸어온 발자취를 음미(吟味)하고 관조(觀照)하니

생(生)의 한 가운데 언제나  
 모교모군모국(母校母軍母國)  
 공사공군대한민국(空士空軍大韓民國)이 있었다

그렇다 평생 필업(必業) 군인(軍人)으로 살아  
 그 인연(因然)에 감사하여 감음(感泣)하노라

그림에도 못다한 아쉬운 정(情)은  
 기어이 거수경례 올리며  
 그 시절 구령(口令)으로 같음한다

동작그만 부대차렷

공사 12기사관 일석점호 인원보고

총원 육십일명(61名)  
 사고 이십일명(21名)



현재원 사십명(40名)

사고내용

- 고인(故人) 21명 한 분 한 분 천천히 호명하다 -

바라건데

춘하추동(春夏秋冬) 열 번 돌아

졸업임관 70주년을 향해 계속 근무하겠습니다



[은빛별들이 원탁좌중(圓卓座中)에서 보낸 댓글]

SilverStars Fighting !

어찌 잊을 수 있는가

이 아름다운 추억들을, 행복한 이야기들을.....

이 나이에 가장 소중한 것은

세월에 못 이겨 등은 굽었을지라도 마음만은 상방 15도를 보자.

앞으로 박수받을 일은 없겠지만 항상 웃고 또 웃는 나날이기를.....

건강전선(健康戰線) 이상(異常)  
없다가 제일 큰 낭보(朗報)라는 것  
을..... ➡





박창용(19기)

## 인생에 대한 소고(小考)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를 하는 경우 자책하고 후회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삶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예상치 못한 불청객이 찾아와 계획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운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핑계 대지만 운이란 것도 결국 자신이 그렇게 만드는 것을 보면 인간은 늘 옳고 곧은 길을 가면서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세상에는 곧은 길이 있고 굽은 길도 있다. 곧은 길은 인간이 마땅히 가야 할 올바른 길이며, 곧은 사람은 비뚤어지거나 흠잡을 데가 없이 인생을 늘 반듯하게 살아간다. 다행히 많은 사람들은 고지식할 정도로 곧은길을 걸어간다. 그들은 정직하게 양심을 지키면서 세상을 살맛 나게 이끌어가는 주인공들이다. 곧은 사람이 되어서 곧은 길로만 가는 바른 사람이 된다면 인생에서 후회할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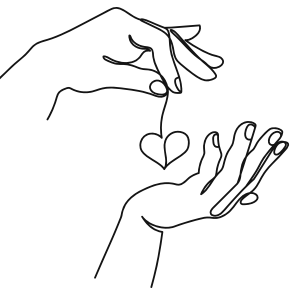
어릴 적부터 부모님이 하신 소중한 말

씀이 있다.

“무슨 일이든 생각하고 살펴서 해야 탈이 없다. 쓸데없는 말은 있어도 쓸모없는 사람은 없다 했으니 말은 신중하게 해라. 비아냥거리는 부정적인 말투는 쓰지 말고, 남의 인격을 깎아내리며 잘난 척하는 행동과 홍보기를 잘하고 험담을 유포하는 것은 경박한 일이야. 모진 말을 하여서 남의 가슴에 상처를 주어 실망에 빠뜨리는 일은 일체 삼가라. 사람을 더럽고 추하게 만드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니, 말은 절대로 함부로 하지 말고 거짓 없는 바른 말과 고운 말로 칭찬하는 게 좋아. 자신의 단점은 냉정히 꾸짖어 고치되 모든 허물과 모순을 덮어주는 흉과 같은 넉넉한 마음을 간직하여라. 말은 먼저 들을 줄을 알아야 현명한 사람이 된단다.”

부모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습관화된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 인격과 덕망을 갖춰 본받을만한 교양인이란 평을 듣게 된다. 품격 있는 언어는 자신의 가치를 돋보이게 하는데, 교양인이라면 예쁘고 아름다

운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긍정적인 말의 힘은 놀라워서 자주 사용하는 악의적이고 비열한 말을 바꾸면 반듯한 인격이 형성된다. 인격이 쌓여서 덕망을 갖추게 되면 덩달아 자신의 운명도 발전적으로 밝게 바뀌게 되어서, 하는 말이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으며 존경의 대상이 된다.



일찍이 공자께서 이르길 ‘덕불고 필유린’(德不孤 必有隣)이라 ‘인간이 덕을 쌓으면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외롭지 않다.’라고 하셨다.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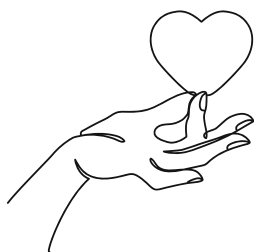
은 덕을 갖춰 염치와 부끄러움을 알고, 예의와 자존심을 지키며 인간으로 사는 법을 실천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덕을 쌓으면 현명한 사람을 알아보는 지혜가 생기고,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지니게 되어서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신이 예의가 모자라고 염치가 없는 줄을 모른채 살아간다. 수치심을 모른다면 동물보다 나은 것이 없으니 어찌 그런 자를 떳떳한 인간이라 할 수 있으랴.

착하고 진실한 사람들은 인간의 도리를 지키며, 좋은 말을 하여서 어려운 이에게 힘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발전을 이끌어간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힘이 되는 사람, 친절하고 상냥하여 밝은 인상을 주는 사람은 다시 만나고 싶어진

다. 평소 사용하는 언어가 진실 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과의 사귄은 중요한 자산이 되며, 선한 마음으로 선의를 실천하는 사람은 기억 속에 남아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다. 한 알의 씨앗이 싹을 틔워 큰 나무로 자라게 되면 새들의 안식처가 되고 못 생명들의 쉼터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일상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지치고 힘든 사람에게 힘이 되고 용기를 주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나쁜 습관을 버려서 부디 향기로운 인간의 냄새를 낼 수 있도록 고결한 삶을 살아야 하겠다.

주위에 굶는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나누어 먹어야 하고 먹을 게 있으면 함께 나누어 먹는 것, 그게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정신이다. 불교에서는 삼무보시를 강조하는데 ‘남에게 도움을 줄 때는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으며, 주고받은 것도 없다.’는 마음으로 행해야 참되고 올바른 보시라 했다. 그야말로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도 모르게 생색내지 말고 은밀히 실천하라는 뜻으로, 받는 사람의 자존심을 배려하려는 깊은 뜻이 담겨있다. 나뉘고 베풀의 삶은 남을 이롭게 하지만 자신에게도 이롭다. 도움은 상대가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나 또한 보람을 느껴야 한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감사를 표하고 갚을 줄 알아야 하며, 그게 사람의 도리로서 감사함을 모르는 것은 염치없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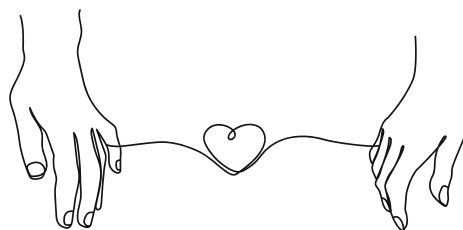


행동이 된다. 나눔은 행복의 시작이며 가장 귀한 나눔은 사랑이다.

인간은 나이가 들수록 그리고 몸이 아프고 병이 들게 되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다. 나도 언젠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데 도울 줄은 모르고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염치없는 행동이다. 평소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에게 따뜻한 눈길을 주고, 내일을 기다리게 하는 설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는 것은 작은 선행의 실천이다. 힘든 사람을 남몰래 돕는 것은 천사 같은 행동이어서 그런 사람들이 어두운 사회를 밝고 따뜻하게 변화시킨다.

‘신께서는 인간의 선행을 일일이 기억하고 계시며 세상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신다.’고 했다. 누군가 지켜보는 사람이 없어도 자신이 맡은 일을 묵묵히 완수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어서 칭찬받아야 한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이라도 생판 모르는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아량을 지니고, 내게 필요한 것을 포기하고 양보하면서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진정한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늘어간다면 우리 사회는 한없이 아름답게 변할 것이다. 남에게 베푸는 친절과 배려와 선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변치 않는 덕망으로 쌓여간다. 복이란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짓는 것임을 안다면 나쁜 일은 하지 못할 것이며, 평소에 덕을 쌓으며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이기주의가 만연된 사회에서 나눔의 용기와 인간의 품위를 지닌 사람은 많지 않지만, 늘 곧은 길을 가는 곧은 사람은 인격을 갖춘 보기도쁜 신사라는 평을 듣게 된다. 한 번뿐인 인생인데 자신에게 떳떳하고 남에게 이로움을 주면서, 인생을 착하고 올곧게 살아간다면 마음의 평화를 얻고 언젠가 세상을 떠날 때 선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



## 나의 인생 3막 5부작에 대한 회고



주신호(24기)

세월은 유수와 같아서 벌써 임관 50주년을 준비하는 짧지 않은 세월이 흘렀다. 카카오 특 그룹채팅방에서 동기생들의 활동 근황을 담은 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엇그제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성무대를 들어설 때의 야심 찬 기백이 그동안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많고 많은 일상을 처리하면서 반세기를 살아온 시점에 이르러 '삶을 살아보니'라는 운을 떼면서 나름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어엿한 신중년이 되어 있고 은연중에 풍기는 노련미에서 아름답게 익어가는 성숙한 인격체를 발견하게 된다.

군인으로서 1모작의 삶을 살아왔다기보다는 인생 2모작이 시작되는 전라남도 지방공무원으로 봉직할 기간이 많았던 나로서는 나날이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는 박진감 넘치는 그야말로 다이내믹한 세월이었지 않나 싶다. 흥미진진한 세월은 그냥 주어진 것이라기보다는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것이다. 세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성무대에서 배우고 느꼈던 바대로 올바르게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보려는 의지와 실천력이 없었다면 일엽편주처럼 세월 속에 둥둥 떠내려가는 한낱 이파리와 다름없었을 것이다. 중견간부로 시작한 공직 생활은 나의 자세·태도에 따라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거대한 조직의 일원으로서 살아갈 따름이다.

지금 생각해 보면 행인지 불행인지 1976년 임관 후 당시 끼의 잘못된 발산으로 겪게 된 교통사고는 내 인생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계기가 되어 오히려 신체적 결함이 전화위복이 되었는지도 모른다. 신체적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상엔 운동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다. 일 예로 등산화가 닳아서 교체할 정도로 등산광이 되었고, 이런 생활의 태도와 자세는 行思即行 즉, 말하거나 생각하고 있는 것은 곧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으로 연동·습관이 되었고 이런 자세는 삶의 근간이 되었다.

무안·함평군 부군수 시절에는 동료 공직자들이 군민들에게 보다 친절하고 원만한 민원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지식과 지혜를 담은 편지 형태의 글을 작성하여 군청 전산망을 이용, 전 공직자들에게 370여 회에 걸쳐 A4용지 3~4매 분량의 글을 전송했다. 흔히 싹짓돈으로 해석되는 판공비를 1/2 할애하여 무안군이 고향인 나로서는 무안군에 대한 많은 애착을 느끼면서 어려운 처지에 계시는 군민을 다소라도 돕고자 결식 우려 노인을 발굴하여 쌀을 구입·제공하도록 하였던 것은 그동안 공직에 대한 국민의 옹지 않은 시선을 조금이나마 바로 잡는 사례가 되기도 하였다.

매일 매일 운동으로 시작되는 일정도 가끔씩 따분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다. 마침 해외 출장에서 돌아오면서 독일 외무장관 요시카 피셔가 저술한 “나는 달린다.”라는 마라톤 관련 책을 읽고 귀국과 동시에 달리기 시작하였다. 2003년 7월 13일부터 달리기를 시작하여 2024년 현재까지 지금은 횡수가 조금 줄어들었지만 달리기를 지속하고 있다. 나를 아는 지인들이 나와 마주할 때면 “지금도 달리세요?”가 인사말이 되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마라톤 동호회를 조직하고 전국의 마라톤 대회에 참여·완주하는 모습은 지역 언론의 주요 관심사가 되곤 하였다. 울트라 12회, 풀코스 51회, 하프 88회 등 총 151회 크고 작은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완주하였다. 2004년 일본 이브스키 유채꽃 마라톤 대회에는 우리나라 350여 명의 참가 선수단 대표자 자격으로, 몽골의 푸른 초원에서 펼쳐지는 마라톤대회에 우리 국민 80여 명의 참가 선수단 대표자 자격으로 풀코스를 완주한 기록은 나만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되어 있다. 마라톤이 진행된 다음 날은 몽골 대통령 취임식 날이었는데, 선수 대표자 자격으로 온 저더러 취임식장에 참석해달라는 간청을 받았지만 정장 준비가 안 되었던 관계로 체련복 차림으로 국가적 큰 행사에 참석한다면 나 자신 개인은 물론이려니와 우리 대한민국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마음에서 참석을 거절했던 것은 마음속 한켠에 뿌듯한 자존감으로 남아 있다.



함평군에 근무할 당시에는 모래가 없어서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는 건설업체의 요청을 듣고 매우 어려웠지만 지역 환경청으로부터 모래 채취 허가를 득하여, 반출계획 대비 한

삼이라도 더 반출하여서는 안 되고 덜 반출되어도 안 된다는 기준을 제시하여 건설업을 지원했던 일. 당시만 해도 모래 채취는 검경의 수사 대상의 단골 사무이자 기피하는 일로 여겨졌다. 그러나 사적 채움 없는 공정한 행정 처리는 지역 애로사항을 해결함에 있어서 충분조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수범 사례가 되었고 이내 타 자치단체에서도 모래 채취가 이루어져 모래 부족 현상은 다소 해소되었다.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 및 투자유치본부장의 역할을 수행하는 동안 신설된 골프장이 하필 고속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여 민원이 발생하였다. 현지 출장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몇 가지 해결 방안을 토론회로 도출한 후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면 골프장 시설을 운용할 수 있게 허가하도록 하고 이 문제로 인하여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 사무실을 다시 찾아오는 오는 일이 없도록 원천 봉쇄하여 이권에 관련된 어떤 업무 처리에 있어서도 자유스러울 수 있었고, 정직과 소신 행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던 일은 자부심과 긍지라는 흐뭇한 나만의 만족으로 다가왔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공직을 시작할 때만 해도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이었던 것 같다. 당시 퇴직을 앞둔 선배 공직자의 자세와 태도를 대하면서 내가 단정치 못한 모습을 보일 때가 된다면 과감히 공직을 마무리하겠다는 결심을 하였다. 나는 주민등록부에 실제 태어난 나이보다 1년이 늦게 등재되어 있다. 흔히 1년을 더 공직자 신분을 누릴 수 있었고 누구에게도 법률상의 등재된 내용이기 때문에 흠이 될 수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달랐다. 유복막향진 “有福莫享盡하라 복진신빈궁 福盡身貧窮이니라. 유세막사진 有勢莫使盡하라 세진원상봉 勢盡冤相逢이니라.”라는 명심보감의 내용을 실천에 옮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고위공무원에 속하는 부이사관의 직위이지만 “복이 있다고 다 누리지 말라 복을 다 누리면 몸이 궁핍하게 되고, 권력이 있다고 다 사용하지 말라 권세가 다하면 모두가 원수가 된다”는 말씀을 실천에 옮긴 것이다. 공부상 1년을 더 봉직할 수 있지만 실제 태어난 해를 기준으로 60세가 되었을 때 퇴직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정직하다는 판단으로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년 일찍 명예퇴직 함으로써 꿈의 직급인 이사관으로 퇴직할 수 있었다. 지금 생각해 봐도 너무 잘한 결심이었고 강직의 심볼이 되었다. 이런 삶의 방식은 퇴직자로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다.

2013년 1월 1일 퇴직한 다음 날부터 사단법인 흥익원에서 봉사하며 인생 제 3막이 펼쳐졌다. 노인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고 어르신들에 대한 공경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이 법인의 주목적이었고, 더불어 다문화가정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기도 하고, 장애인



평생교육원을 관리·운영하여 우리 사회로부터 그늘지고 은둔 생활을 자초하면서 사회와 격리된 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장애인들을 발굴하고 사회 속으로 이끌어내어 동참하게 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훈훈한 지역을 만드는 데 일조하는 등의 목적을 위해 생활하면서 인생 3막이 시작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업무를 봉사자 입장에서 지원하다 보니 불특정 다수인에게 제공되는 음식에 관한 일들이기 때문에 한식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고, 생각해 본 적도 없었던 한식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하면서 주마가편이라는 말처럼 일식·중식·양식·복어조리기능사 등 내친김에 각종 조리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었다. 더하여 후학들을 위해 직접 요리학원에서 요리를 가르치는 교·강사로 변신하면서 인생 4부작은 시작되었다. 교육현장에서 만나는 주고객이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이, 평생교육이라는 각종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증이 필요하였기 이들 자격증 또한 취득하였다. 고위 공직자 출신이 예상과는 다르게 요리에 관한 일을 하게 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언론의 포커스를 받게 되었고 공영방송 등을 통하여 전국에 생방송됨으로써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결과이지만 지역에서는 요리 전문가로 통하게 되었다.



활동 및 업무 도우미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들을 돕는 무안장애인평생교육원을 운영하는 당사자로서 지금은 교육원생들과 호흡을 맞추고자 눈높이를 조정하고 교감을 느낄 수 있는 처신이 되도록 노력하는가 하면, 장구 배우기, 하모니카와 옛가위 장단 배우기, 오카리나 등 악기를 통하여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예(禮)와 악(樂)을 겸비한 삶이 되도록 흥내를 내다보니 인생 5부작에 돌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각종 프로그램의 진행을 돕고 교육원생들이 즐겁게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그러면서 학습을 통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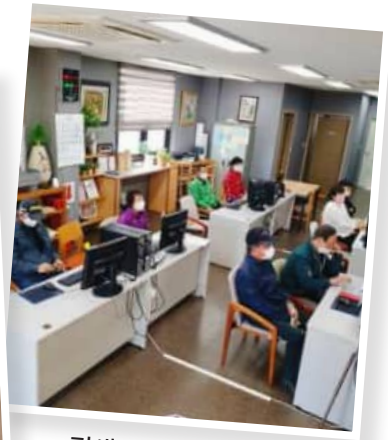
개개인의 모습이 개선되고 사회성이 증진되어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야 하는 봉사자 역할이기 때문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아무리 건강 장수 시대에 작은 일이지는 하지만 시작과 끝이 있는 법이어서 이와 같은 요건을 두루 갖춘 분을 찾아 후임자로 양성해야 하는데 이 또한 쉽지 않기에 앞으로도 봉사라는 표현으로 일과 함께 생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일을 하는 과정에서 느낀 것이지만 세상만사에는 그러해야 할 이유가 있고,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은 그에 합당한 이치와 원리가 있게 마련인데, 이러한 기준에 따라 생활하려는 자세가 나의 소명이라고 여기면서 생활하고 있다. 그런 나를 보고 혹자는 말한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지금도 간직한 채 생활하는 것 같다.”라고. 공군사관학교 24기 웅비회원으로 성무대에서 배울 수 있었던 것에 대하여 감사한다. ✈



제빵·제과 실습 장면



꿈나무들과 체험활동 장면



평생교육원 학습 장면



김기연(21기)

## 나는 왜 미국사진협회 인증작가가 되었나

전역 후 15년간 계속했던 강의와 코칭을 그만두면서 인생 3막은 무엇으로 할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그때 떠오른 것이 바로 사진이었다. 1970년 생도 2학년 말, 미국의 육·해·공군사관학교를 견학하는 4명에 선발되어 당시로서는 그리 흔치 않던 사진기를 장만하게 되어 시작한 나의 사진 생활. 그 후 세월의 흐름에 따라 기종을 변경하며 꾸준하게 계속되었다. 그러나 혼자서 몇 권의 책으로 익힌 것이 전부였기에 뒤늦게나마 제대로 한 번 배워보고 싶은 생각에 자연스럽게 사진을 택하게 되었다.

마침 군사문제연구원(군문연)의 예비역을 위한 여러 프로그램 중 훌륭한 선생님이 사진반을 담당하고 계신다니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2018년 하반기부터 사진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필자의 한 동기가 오랫동안 터줏대감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다 안면이 있는 타군 선배님들도 계셔

서 별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었다.

사진에 진심인 전문가를 통해 접하는 사진의 세계는 과연 신세계였다. 50년 가까이 카메라를 만지며 나름 기본 지식을 구비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었던가를 깨닫는 데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다. 내가 그동안 익힌 것은 고작 사진기의 기계적인 특성뿐. 무궁무진한 사진의 진짜 본질에는 아예 접근조차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세상이 있는지를 모르니 그냥 산이나 공원에서 방문 증명사진을 찍는 게 전부였던 것. 어쩌다 사진

「갤러리 1080」 전시장에서 스페인 순례 사진 전시



전시회를 가더라도 돈과 시간이 많은 덕분(?)에 괜찮은 기념사진을 찍은 것으로 치부했던 철부지였다.

군문연에서 한 학기를 마친 이듬해 봄,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세 번째 다녀오게 되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2,000리 800km. 이제껏 사용하던 똑딱이로는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카메라부터 바꾸었다. 한 달 넘게 걸으며 6,000장이 넘는 사진을 찍고 또 찍었다. 그중 몇 장을 군중신부로 만났던, 기관을 책임지고 계신 신부님께 보이며 다녀온 인사를 하자 대뜸 전시회를 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럴 수준이 아니라고 사양했지만, 전시장을 주선해 주신 덕분에 칠순 기념 겸해서 명동성당의 「갤러리 1080」에서 개인전을 가지게 되었다. 신부님과 주교님 등 여러분이 오셔서 의미를 더해주셨다. 그 전에 모교와 공군본부에서 먼저 전시했고, 비행단장으로 근무했던 10비와 사진 공부를 하고 있는 군문연 및 몇몇 성당에서도 전시했다.

몇 년씩 군문연 사진반에서 사진을 공부한 예비역들은 대부분 한국사진협회의 작가라는 타이틀을 취득하고 있었다. 모두가 당연히 거쳐야 할 과정처럼 여기는 분위기였다. 선생님의 집중 지도를 받은 사진으로 공모전에 출품하여 필수 점수를 채운 다음, 상당한 액수의 입회비와 연회비 등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그렇게까지 하고픈 마음은 생기지 않았다. 작가라는 타이틀도 전혀 가치와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필수 점수를 채우기 위해 공모전을 전전하는 것도 내키지 않았다. 그냥 여유롭게 주변에서 접하는 것을 사진으로 담는 것이 훨씬 더 편안했다. 무엇보다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워서 좋았다.

몇 년 전, 갑자기 닥친 코로나19로 인해 사진반의 수업도 할 수 없게 되자 집 근처의 광고 호수로 자주 나가게 되었다. 2003년에 전역 후 이곳에 정착한 지도 오래되었고 호수도 자주 다녔던 곳이다. 그러나 일을 마친 뒤 저녁 시간에 걷기운동으로만 다녔던 터라 낮에 보니 처음 보는 새들이 여럿 눈에 띄었다. 여러 번 보니 사진으로 담고 싶어져 망원렌즈를 구입해서 본격적으로 촬영을 시작하였다. 호수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 때로는 종일토록 호수를 맴돌며 새들과 가까이하게 되었다.

새 사진은 기다림이 필수이다. 한 예로 펄떡거리는 붕어를 사냥한 왜가리 사진을 보자. 하릴없이 몇십 분 이상, 한 곳에 그냥 우두커니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왜가리는 사냥감인 물고기가 호수 표면 가까이 올라오도록 기다리는 중이다. 바로 생존을 위한 일상인 것이다. 오랜 기다림 끝에 물고기가 적절한 위치에 도달하면 전광석화처럼 뛰어들어 낚아채는데, 경험상 대개 대여섯 시간이 소요된다. 중간에 물고기가 깊게 들어가 버리면 그동안의 기다림은 모두 헛수고로 끝나게 된다. 또 그렇게 기다리는 중에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는 등 위험을 느끼게 되면 사냥을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날아가 버린다. 이 경우 촬영을 위해

계속 기다리던 촬영자는 허탈해지지만, 어찌할 방도가 없다. 그래도 간혹 멀리서부터 촬영에 몰두하고 있는 필자를 배려해서 오던 길을 되돌아가는 시민들에게는 고마움을 느끼게 된다. 촬영에 몰두하느라 고맙다는 인사도 못할 경우가 많아 미안하기도 하다. 해마다 10월이면 내 주머니를 털어 호수 쉼터에서 전시회를 여는 이유이다.



왜가리가 물고기를 잡는 순간을 담은 장면

빨논병아리 애기가 앞에서 깨어나기를 지켜보던 재작년 봄의 어느 날. 우르르 몰려왔던 수십 명의 사진사들이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난리를 부리다가 떠나간 뒤였다. 나는 언제나 다름없이 빵과 물로 끼니를 때우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옆에 남아 있는 80대로 보이는 한 노신사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뜻밖에 필자의 중학교 선배임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선배님은 세계 최대 규모, 최고 역사의 사진협회라는 미국사진협회의<sup>1</sup> 한국지부를 책임지고 계셨다.

선배님은 내 사진을 보시더니 혼자서만 보지 말고 세계에 알리라며 미국사진협회의 회원국에서 개최하는 전시회에 응모할 것을 권유하셨다.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하자 사

<sup>1</sup> 미국사진협회(Photographic Society of America, PSA)는 사진가 및 사진 관련 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조직체의 하나이다. 비영리 단체로 1934년에 설립되어 전 세계 60여 국가에 회원이 있다.(The Photographic Society of America is one of the largest non-profit organizations for photographers and photographic organizations. Established in 1934, we have members in over 60 countries. PSA 홈페이지).



진이 너무 아깝다며 당신에게 몇 장 보내줄 수 있느냐고 하셨다. 며칠 후 다시 필자의 사진을 반송하시며 응모규격에 맞게 손을 봤으니 꼭 응모해 보라고 권유하셨다. 마지못해 16 작품을 응모했더니 가작 1점, 입선 9점을 통보받았다. 그것 보라며 계속되는 권유에 결국 금상 1, 은상 1, 가작 8 포함 총 75점으로 연말에 작가 인증을 받았다(PSA #70987708, 2022.11.30.).

PSA의 인증을 받았다 한들 무엇 하나 달라질 게 없는 것이 나의 사진생활이었다. 위조를 방지한다며 인증서와 배지가 우편으로 배달되어 왔지만 어딘가에 넣어놓았을 뿐이었다. 그런데 작년 4~5월 네 번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아내와 함께 갔을 때였다. 이번에는 좀 더 천천히 걸으며 작품을 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전엔 걷기에 바빠 명소라 하더라도 지나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쉬움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엉뚱한 데서 문제가 생겨버렸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PSA의 인증 작가라는 사실이 큰 역할을 하였다.



스페인의 풍력발전기 해넘이 풍경

많은 순례자들이 머무는 숙소는 몇 시간씩 걸어온 순례자 모두의 숙면과 이튿날 일찍 출발하는 순례자들을 위해 대개 저녁 21시 취침과 그에 따른 출입시간이 아주 엄격하게 지켜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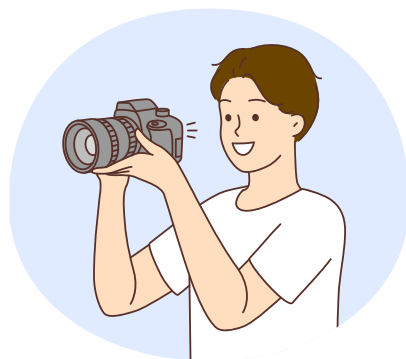


그런데 그곳의 일몰은 21시 이후라 제대로 된 사진을 담으려면 출입시간보다 늦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아예 문을 잠가버리니 들어올 수가 없게 되어버린다. 숙소 주인에게 미국사진협회 인증작가임을 밝힌 뒤 네 번씩 순례길을 걷는 것은 좋은 작품을 담기 위해서라고, 그래서 일출과 일몰 전후 약 한 시간씩의 골든타임 촬영이 필수라고 상황을 설명하자 아예 출입문의 비번을 알려줬다. 눈치를 보며 사진을 부탁하기도 했다.

또, 통상 6~8인 정도가 함께 머무는 방에서도 PSA 인증작가임을 밝히게 되면 사진을 보여 달라고 하고, 전시했던 사진을 보여주면 바로 팬이 되기 마련이다. 그렇게 사이가 좋아지면 깊이 있는 이야기도 빠르게 나눌 수 있게 되고, 사이도 훨씬 돈독해진다. 입소문도 빨라 길을 가노라면 유명 사진작가와 함께 걷고 있어 다행이라며 휴대폰을 건네며 사진을 부탁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었다.

PSA 회원으로 작가인증을 받으면 PSA 홈페이지의 지정된 곳에 자신의 사진을 게시할 수 있다.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의 회원들이 주최하는 수많은 전시회의 지난 입선작들을 언제든지 감상할 수 있다. 각 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하면 지난 전시회의 수상작은 물론, 입선작들도 분야별, 연도별로 모두 찾아볼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공부도 없을 것이다. 또, 회원 상호 간이나 내공 깊은 봉사자들로부터 자신의 사진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도 있다. 그런가 하면 PSA에서 제공하는 강좌를 들을 수도 있으니 활용하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혼자서 누구도 말을 걸지 않아 외로워 보이기에 시작한 대화로 뜻밖에 중학교 선배님을 만나게 되었고, 내키지 않았지만, 선의로 권유한 PSA 전시회 출품에 이어 작가 인증을 받은 결과 엉뚱하게도 순례에 도움이 되고 순례자로서는 보통 불가능한 사진도 촬영하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호의를 베풀면 결국 돌고 돌아 자신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된다는 말이 그대로 적용된 사례라 하겠다. ➡



# 바다에서 호연지기를 기르다



최환중(32기)

## 1. 다이빙 예찬

공군에서 전역한 이후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기 시작한 것이 벌써 9년째로 접어들었다. 스쿠버 다이빙을 즐긴다고 하면 지인들은 공통된 질문을 한다. 즉, 수심 몇 미터까지 내려가느냐, 물속에서 깊이 내려가도 몸에 문제가 없느냐(위험하지 않느냐), 다이빙을 하면서 물고기나 해삼 등을 잡느냐(먹느냐) 등등이다(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고 물고기를 잡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그럴 때마다 필자는 스쿠버 다이빙에 대하여 설명하며 왜 내가 스쿠버 다이빙을 좋아하는지 어디로 자주 가는지 등에 대해서 열변을 토한다.

우선 스쿠버 다이빙은 과학적인 이론과 데이터에 근거하여 교육을 하고 다이빙을 즐기는 것인 만큼, 소정의 이론/실기교육을 이수하고 절차만 잘 준수하면 전혀 위험하지 않은 건전한 운동이다. 또한 수중에서 즐기는 것이기에 70세 이상이 되어도 본인의 체력만 허락하면 즐길 수 있다고 본다.



다이빙 포인트로 향하는 방카보트 위의 필자  
(필리핀, 아닐라오)



영화 '니모를 찾아서'로 유명해진  
흰동가리

필자가 그동안 다이빙을 즐기면서 다이빙을 예찬하는 이유는 아래의 사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즉, 청명한 파란 하늘과 깨끗하고 투명한 바다를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이 탁 트인다. 또한 바다에서 다이빙을 즐기다 보면 자연과 나, 바다와 내가 한 몸이 된 느낌을 받으며 절대적인 평안함을 느끼는데, 바닷속 적당한 수심과 적당한 장소에서 자리 잡고 있노라면 눈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바닷속 풍경과 내 호흡 소리에 집중하면서 그동안 쌓였던 모든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사라지며 고요함과 평안함을 동시에 느낀다.

그리고 다이빙을 마친 후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의 그 상쾌함이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다이빙을 마친 후 바다를 바라보며 시원한 맥주와 함께 동료 다이버들과 담소하는 것.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훌륭한 휴식이다.



맑고 투명한 색상의 바다와 파란 하늘,  
그리고 하얀 구름(팔라우)



깨끗하고 화려한 수중 풍경  
(태국, 시밀란 제도)

한편, 지인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의 하나가 수심 몇 미터까지 내려가느냐인데, 아무리 스쿠버 다이빙 장비를 착용하더라도 바닷속 깊이 무한정 내려갈 수는 없다. 공기를 사용하는 스쿠버 다이빙의 이론상 최대 수심은 66m이고, 이론적 근거는 중고등학교 물리 시간에 배웠던 ‘돌턴의 법칙(Dalton’s law)’이다. 돌턴의 법칙을 설명하려면 복잡해지므로 생략한다. 아무튼 공기를 사용하여 스쿠버 다이빙을 할 때 수심이 66m를 넘어가면 산소중독에 걸리게 되고, 인체는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그 이상 깊이 내려가려면 특수기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론적으로 수심 66m까지 다이빙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필자는 다이빙을 할 때 절대 깊이 들어가지 않는다. 물론 다이버 자격증 등급별(다이버 자격증에도 여러가지 등급이 있다)로 허용하는 최대 수심이 있는데, 입문 레벨인 ‘Open water 다이버’ 자격증이 허용하는 최대 수심은 18m이고, 그 다음 높은 등급인 ‘Advanced Open Water 다이버’는 최대

허용 수심이 40m(권장 30m)이다. 필자는 Advanced Open Water 다이버이다.

바닷속은 깊이 내려갈수록 빛이 투과하지 못하고 어두워지기 때문에 25~30m 정도 내려가면 벌써 주위가 어두워지고 산호나 물고기 등이 많지 않으며, 깊이 내려갈수록 단위 시간당 공기 소모량이 많아져서 바닷속에 체류할 수 있는 시간이 급격히 짧아진다. 따라서 필자가 선호하는 수심은 대략 15m 내외다. 15m 또는 그보다 얕은 수심에는 각종 산호는 물론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바다속도 밝아서 산호나 물고기 등을 관찰하기도 좋으며, 환상적인 아름다운 광경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가끔 복잡한 도시를 떠나서 그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풀며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스쿠버 다이빙을 즐긴다.



깨끗하고 건강한 바다! 산호 위에 앉아 있는  
등근머리 거북(필리핀)



Sweetlips 무리(태국, 시밀란 제도)

## 2. 다이버의 버킷리스트 “리브어보드 보트 다이빙”, 최근 태국 시밀란 제도에서의 다이빙

리브어보드 보트 다이빙(Live-aboard Boat Diving, 보통 ‘리브어보드 다이빙’이라 칭함)은 다이빙 전용 보트 위에서 숙식하면서 다이빙을 반복하는 다이빙 여행으로서 ‘다이빙 크루즈 여행’ 개념이다. 보통 4~5일 정도 배 위에서 생활하며 다이빙을 하게 되는데, 배가 다이빙 포인트로 이동하며 다이빙을 하기 때문에 다이버는 다이빙 후에 배 위에서 식사나 취침 등을 하며 다음 다이빙을 기다릴 수 있는 매우 편한 다이빙 여행이다. 물론 배멀미를 하는 사람은 힘들겠지만.

금년 1월 초, 버킷리스트 중의 하나였던 리브어보드 다이빙을 가게 되었다. 게다가 다이빙 장소는 그 유명한 태국의 시밀란 제도! 무척 기대가 컸다. 태국의 ‘시밀란 제도’는 푸

켓의 서북쪽 해상에 있는 태국의 해양 국립공원으로서 매년 11월 ~ 5월에만 개방한다. 개방하는 시기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바다 상태는 매우 건강하고 깨끗했고 생태계 또한 매우 건강해 보였다.



4박 5일간 다이빙을 하며 생활했던 "Deep Andaman Queen"보트



보트의 상부 데크. 이곳에서 다이빙 후에 한잔의 커피와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휴식할 수 있다.

다이빙 기간중 평균 수온은 27도로서 2.5mm 잠수복을 입고 다이빙을 했고, 아침 첫 다이빙 때에는 수온이 25도까지 떨어져서 약간의 추위는 느꼈지만 전반적으로는 큰 문제 없이 다이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이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인 수중 시정이 첫날은 매우 양호했으나 다이빙을 진행하면서 수중 시정이 점점 나빠진 것은 무척 아쉬웠다(반면에 1주일 후에 갔던 지인은 다이빙할 때 수중 시정이 대체로 양호했다고 한다. 수중 시정은 정말 운이 따라줘야 한다).

이곳 시밀란 제도는 '물 반, 고기 반'이 아니라 '물 10, 물고기떼 90'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다양하고 엄청난 규모의 물고기들(필리핀의 물고기들보다 덩치가 큰 녀석들도 많았다)이 바닷속에서 떼 지어 다니고 있었는데, 엄청난 규모의 물고기 떼가 지나갈 때면 그 물고기 떼에 가려서 다이버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 그만큼 수중 생태계가 건강하다는 뜻이다.

시밀란 제도에서의 4박 5일간의 리브어보드 다이빙은 이제까지 경험했던 필리핀, 사이판 등지의 타 지역과는 또 다른 매우 훌륭한 다이빙이었다. 들쭉날쭉했던 수중 시야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수중 지형과 덩치가 크고 다양한 수중 생물들을 근거리에서 관찰할 수 있었던 것은 매우 환상적인 경험이었다.



스쿠버 다이빙은 자연과 사람이 교감하는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건강한 바닷속에서 다이빙을 하면 내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상쾌해지는 느낌이다. 마치 깨끗한 바다의 신선한 기운을 내 몸과 마음이 받아들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다.

그리고 다이빙을 하면서 수중촬영을 하는 것도 바다에서 갖는 즐거움 중의 하나다. 처음에는 고프로 카메라로 시작했고 지금은 수중촬영 전용 카메라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집에 돌아와서 본인이 촬영한 수중 사진을 보는 것도 또 다른 큰 즐거움이다.

### 3. 스쿠버 다이빙은 계속된다

전역한 이후 이제까지 태평양의 여러 곳에서 다이빙을 즐겼다. 하와이, 괌, 사이판, 팔라우, 오키나와, 필리핀, 태국 등지가 그곳이다. 참 많이도 다녔다. 그리고 수중촬영 실력도 많이 늘었다. 초창기에 촬영한 수중 사진과 최근의 수중 사진을 비교하면 확실히 차이가 난다(여기에 실은 사진은 본인이 모두 직접 촬영한 것이다).

그동안 다이빙을 한 지역 중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바닷속은 필리핀의 보홀과 아닐라오, 시밀란 제도이다. 그러나 언제 어디에서 다이빙을 하던지, 다이빙을 하면서 느끼는 자유로움과 다이빙을 마치고 난 후에 바다를 바라보며 한 잔의 차를 마시는 그 여유로운 느낌은 어디에서든 똑같고 훌륭하다는 것이다.

필자는 다이빙을 할 때마다 늘 이런 생각을 한다. “인생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는 시간보다 더 만족감과 자유로운 감정을 주는 시간은 찾아보기 힘들다!”

가끔 일상에 지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 자연스레 바다가 생각난다. 바다를 바라보면 그저 마음이 편안해지고, 바닷속에 들어가면 자유로워진다. 명경지수와 같은 깨끗한 바다에서 다이빙을 하면 스트레스가 해소됨은 물론 심신이 정화되는 듯한 상쾌한 느낌을 받는다. 그러기에 나는 바다에 간다.

내 체력과 정신력이 허용하는 한, 스쿠버 다이빙은 계속할 것이다. ➡



이덕대(27기)

## 쏟아라떼

40년도 더 지난 인연들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선다. 그 인연들이 소통하는 단톡방의 이름은 ‘어느 시절’이다. 어느 시절에 만났던 인연들은 이제 나이로는 충분한 끈대가 되었다.

오늘은 그 시절 인연들이 만나 점심도 먹고 차도 한 잔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날이다. 며칠째 고사리 장마가 도시 전체를 우울하게 만든다.

운동을 제대로 못하다 보니 몸은 찌뿌둥하고 마음은 축 처진다. 오늘도 비는 여전히 부슬부슬 하염없이 내린다.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한겨울 옷을 입기엔 너무 둔해 보이고 봄옷을 입기엔 아직 춥다. 추위에 떠는 것보다는 둔한 것이 낫겠다 싶어 이미 정리해 넣어 두었던 거의 방한복 수준의 옷을 걸치고 집을 나섰다.

간밤에 내린 진눈깨비 탓에 젖은 보도블록은 몹시 미끄럽다. 한 손에 우산을 든 채 조심스럽게 걷는다.

날씨 때문인지 사람들 표정도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다. 때를 놓친 봄눈은 마치 칭얼거리는 아이의 표정처럼 일그러진

얼굴이 되어 훑날린다.

회오리 바람에 꺾적을 잃고 느닷없이 얼굴에 내려앉았다. 순식간에 녹아 사라지는 느낌이 차갑다기보다 묘하다. 시간 짧음의 명징(明澄)함이나 살아 움직이는 것의 덧없음 같은 것이라고 할까.

계절에 맞지 않게 찾아온 귀찮은 손님을 맞는 찡그린 얼굴들은 세파에 지쳤거나 자연의 변화를 온전히 즐기지 못하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일 것이다.

봄눈이 푼푼이 내리는 도심의 골목길을 걸을 때는 프랑스 소설가 미셸 투르니에의 시 ‘뒷모습’이 떠오른다. 뒤쪽이 진실이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은 자신의 얼굴로 표정을 짓고 손짓을 하고 몸짓과 발걸음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모든 것이 다 정면에 나타나 있다. 그렇다면 그 이면은? 뒤쪽은? 등 뒤는? 등은 거짓말을 할 줄 모른다. 너그럽고 솔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 내게 왔다가 돌아서서 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그것이 곁가량에 불과했었음을 얼마나 열심히 깨달았던가?

돌아선 그의 등이 그의 인색함, 이중성,

비열함을 역력히 말해주고 있었으니. 녹은 눈이 신발에 달라붙고 질척거림으로 마음을 밀어내는 이 거리에서 하필이면 떠오르는 것이 뒷모습일까.

앞모습을 보면서 만났다 뒷모습을 보이고 헤어지는 것이 삶이요 인생이다. 진눈깨비 내리는 도시의 골목길에서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전체 삶이 아름다울 수 있다는 생각은 겉가량으로만 사는 현대인에겐 아둔패기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셈이다.

오는 봄이 몸살을 앓는 것이련만 대부분의 도시인들은 흠뻑려지는 진눈깨비를 마치 햇살의 저주인 양 몸을 흠뻑 떨어댄다. 짙은 구름이 물러나고 간간이 햇빛이 하늘 색깔을 바꾼다.

우산을 접는 사람들의 표정에 귀찮음과 안심이 뒤섞인다. 전신주를 감고 있는 굵은 전선 위에 까마귀 울음 음울하다. 도린 곁에 있던 먹이터가 눈으로 덮여 먹이를 구하지 못하는 탓인지 모른다.

이런 미끄러운 날에 사람들은 왜 끝없이 몰려다닐까. 진실은 날씨의 변화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몸이 자유스럽지 못할 정도로 연로한 사람들이 이런 날일수록 집 밖을 배회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음울한 까마귀 울음소리가 도시의 골목길에 어울리는 것은 당연하다. 거짓말로 꽉 막혔던 막다른 골목은 진눈깨비가 씻어내는 오염들이 흩어지면서 오히려 부산

하다.

사람들의 시선은 골목과 겹치는 대로변에서 멈추어 있다. 많은 이들이 뒷모습만 보면서 걷는 길은 봄이 오고 가을이 가던 그 길이다.

요즘 언어로 다소 불경스러우면서도 익살스러운 말이 흔하다. 자기만의 세상에 갇혀 남을 가르치고 훈계하는 사람을 비아냥대듯 지칭할 때 흔대라고 한다.

흔대는 어쩌면 다른 이들이 자기의 뒷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런 시선을 애당초 무시하는 사람일 수도 있다. 나이가 흔대의 기준이 아니라 소통의 기본인 상대방 말에 우선 귀 기울이지 않는 벽창호가 아닐까 한다.

벽창호의 어원을 따져보면 벽창호는 벽창우(碧昌牛)가 변한 말이다. 벽창우라는 말의 벽창(碧昌)은 평안북도의 벽동(碧潼)과 창성(昌城)이라는 지명에서 한 자씩 따와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벽창우는 벽동과 창성에서 나는 소라는 의미다. 이 두 지역에서 나는 소가 대단히 크고 역세서 이러한 명칭이 붙었다고 한다. 이 벽창우가 벽창호로 바뀐 데에는 아마 벽에 창문 모양을 내고 벽을 친 것이라는 의미의 벽창호(壁窓戶)와 혼동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빈틈없이 꽉 막힌 벽(壁)과 그러한 속성을 지닌 사람과의 연상이 벽창우를 벽창호로 바꾸게 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흔대

와 벽창호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신의 세계에 꼭 막혀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엇비슷하다.

나이를 기준으로 나이 많은 이를 낀대라 한다면 서울에서 낀대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곳 중 한 곳이 사당 지하철역이 아닐까.

사당역은 복잡하고 언제나 사람들이 붐빈다. 역을 중심으로 늘어선 맛집은 서울의 그 어떤 역보다 규모가 크다. 지하철을 이용한 모임 장소로 접근성이 양호하고 나이 든 이들이 즐길 음식점도 많다.

시끌벅적한 사당역 음식점 골목에는 팔도의 사투리가 정겹게 섞여 어릴 적 고향의 읍내 장터를 걷는 기분이 들 때도 있다.

어느 시인은 허리를 굽혀야 꽃이 보인다 했다. 이곳을 찾는 나이 든 이들은 꽃을 보러 다니는 것인지 모르겠다.

아니면 가정을 꾸리고 자식들을 키우며 그저 앞만 보고 살다가 이제는 잃어버린 시간, 잊어버린 친구를 찾아 이곳에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 모임 장소는 사당역 13번 출구에서 가까운 중식당이다. 식당에 대한 경험도 지식도 없이 옛날 중국집 분위기를 느낄 수 있으려니 하는 생각으로 모임 장소로 추천했다.

허수룩한 건물의 지하에 자리한 식당은 유년 시절에 느꼈던 분위기는 아니다. 손

님은 없고 식탁과 의자만 뻑뻑한 풍경은 생경함을 넘어 생똥맞기까지 하다.

갑자기 이곳에서 왜 거북이와 조개가 생각날까. 장사를 제대로 하겠다는 사람이라면 우선 외관부터 그럴듯하게 치장하는 법이다.

하지만 이곳 중국집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집을 키우는 것으로 삶을 이어가는 것들이 있다. 그들은 집을 짓지 않지만 몸이 곧 집이다. 거북이가 그렇고 조개가 그렇다.

감추고 숨어드는 곳이 집이라면 집일 수 있겠다. 이 집 주인은 거북이도 조개도 아닌 배달민족의 거간꾼이 아닌지 모르겠다.

옛날을 생각하며 시킨 음식은 그저 그랬다. 요즘 같은 세상에 좀처럼 가보기 어려울 정도의 분위기와 음식 수준이 오히려 색다른 경험이었다. 다들 식사보다는 식후 차 한 잔을 더 기대하는 눈치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 문을 나서니 아직도 진눈깨비가 질펀하다. 인근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에 들린다.

나이 든 이들로 마땅히 자리 잡을 곳이 없을 정도로 북적거린다. 이리저리 둘러보다 겨우 구석진 곳을 찾아 앉는다.

낀대라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커피 이름이 낀대라떼라니. 상술 한 번 기막히다. 고민하고 물어볼 필요도 없다. 갈 데 없는 낀대에게 낀대라떼 좋다.

의외다. 달콤하고 약간 씹쓰레하며 커피 향도 진하다. 삶의 연륜이 녹아있는 끈대의 체취랄까. 화려하지 않지만 우아하기는 하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잿빛 하늘 아래는 여전히 진눈깨비가 내린다. 가게 안은 끈대들의 들뜬 시끄러움과 체취로 넘쳐난다. 끈대도 향긋하고 멋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모임에야 처음 알았다.

끈대들의 모임에는 끈대라떼 한 잔이면 충분하다. 연륜이 끈대 기준이라면 나는 당연히 끈대다. 무식한 세상을 상식으로 이겨내기 위해 듣는 끈대 소리라면 기꺼이 끈대 편에 설 각오다.

옛 전우들을 만나 건너온 삶의 강을 이야기하는 모임에서 마시는 끈대라떼 한 잔이 떨어진 이야기들을 끌고 온다. ✈







강임구(24기)

## 世上을 求하는 風流

하늘의 시간 운행원리는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절대적이고 불변이다. 하늘은 해가 뜨면 달이 지는 음양이라는 변화의 씨앗으로 절대적 시간의 연속성을 갖는다. 이러한 음양의 변화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한 번도 過하거나 부족함이 없었다[日月不過].

하늘의 불변 속의 음양 변화가 땅에 오면 剛柔로 나타난다. 강유는 春夏秋冬의 불변[四時不忒] 속에서 對立相生相剋의 변화된 모습으로 볼 수 있다.[相生：木生火, 火生土, 土生金, 金生水, 水生木] [相剋：水剋火, 火剋金, 金剋木, 木剋土, 土剋水] 봄이 가면 여름이 오는 현상이 한 번도 어긋남이 없이 진행되어 왔지만 그 불변의 연속성에는 상생과 상극이라는 변화가 있다. 즉 나무가 불을 살리지만 불은 물에 의해서 꺼질 수 있다. 열기(火)가 만물을 태울 수도 있고 열매를 맺게도 한다.

孔子는 다툼도 시기도 없이 음양의 변화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에 따라 흘러가는 하늘의 존재 원리(天道)를 간파한 다

음, 땅에서 일어나는 생명의 생육공간 변화원리(地道)를 인간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교정하며 실천(自覺自修實踐) 하여 평화로운 세상(人道)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공자는 땅 위의 만물이 春夏秋冬 불변의 연속성에서 剛柔의 변화로 아름다운 질서가 완성되듯,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仁과 智를 근본으로 하고 禮와 義의 실천으로 질서가 완성될 수 있다고 본다[仁智爲體, 禮義爲用]. 하늘과 땅의 질서처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연속적인 仁과 禮로서 평화롭고 아름답기 위해서는 時宜性에 따라 모양을 달리하는 변화된 모양의 禮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논어』 「안연」편에 공자와 안연의 대화에서 仁과 禮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안연이 묻는다. “仁이란 게 무엇입니까?” 공자는 “자신을 기어이 禮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仁이다.” [克己復禮]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仁이 독립적 상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仁이 연속적인 인간관계의 仁으로 온전하게 존재하기 위해서는 禮가 존경과

겸손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다시 말해서 體로서의 仁이 用으로서 禮로 달성되고, 體로서의 智는 用으로서의 義로 달성된다는 것이다. 禮가 시의성에 맞는 겸손과 존경으로 이루어지면 인간관계 仁이 형성되고 그 결과 德이 쌓이게 됨을 말한다.

한편 만물의 생육공간에서 剛과 柔로 이루어진 육지(剛)와 바다(柔)를 人事적으로 仁과 禮로 본다면, 柔라는 바다에 일고 있는 파도는 존경과 겸손으로 볼 수 있다. 柔로 대변되는 바다의 파도가 정성을 다하여 예를 만들어 剛으로 대변되는 땅(해안)에 오면 모래가 쌓이고 갯벌이 생기며 만물은 생명을 얻어 육지와 바다가 평온함을 유지하는 질서를 만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인가.

주역에서 천지의 아름다움을 산화비괘 山火賁卦로 설명하고 있다. 아름다움에도 예와 질서와 정성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겉으로 드러난 아름다움은 치장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의 정성이 있어야 함을 말한다. 바다가 파도라는 겸손으로 禮를 다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정성으로 강하지도 않고 세지도 않은 적절한 바람이 있어야 한다. 그 정성으로 일어난 바람으로 파도가 해안에 오게 되면 아름다운 풍광을 만든다. 정성이 없는 강한 바람은 폭풍우 또는 해일을 동반하여 해안은 물론 육지를 온통 아수라장으로 만든다. 강유의 대립 질서가 파탄 나

게 되는 것이다.

禮를 다하도록 시의성에 따라 일어나는 바람이 마음이다. 육지와 바다의 평화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바람[時宜性]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야 하고, 파도를 일게 한 바람은 육지 방향으로 거칠지 않게 불어주어야 한다. 바다의 평화를 가져오는 파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風]이듯 인간관계에서 시의성에 따라 일어난 바람, 곧 마음은 겸손을 결정하여 예를 다한다. 마음은 예를 가능하게 하는 존경과 겸손이 우러나오는 방향으로 힘을 쏟아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즉 예를 다하기 위해서는 바람 같은 마음이 있어야 한다.

禮를 가능하게 하는 겸손과 존경을 일으키는 마음의 바람이 風流다. 풍류는 거칠고 사나운 바람의 흐름이 아니다. 자연과 벗하며 예술과 문학을 즐기며 마음을 가꿀 수 있는 바람이다. 풍류가 있음으로 해서 사람들은 너그럽고 여유가 있게 된다. 풍류 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바람은 존경과 겸손을 가능하게 하는 파도를 만든다. 이 풍류 속 마음은 존경과 겸손이라는 파도가 해안으로 밀려들어 자연스레 모래톱과 갯벌 같은 평화스러운 풍광을 만들듯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한 仁의 관계를 형성하여 덕을 만든다. 사람은 존경과 겸손이 충만해 있으면



인간관계 형성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항상 그렇지만은 않다. 다시 말해서 仁이 가능하도록 사람의 마음에 이는 바람의 양과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렇게 불변과 변화의 道를 인간사에 적용하여 평화를 얻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聖人들도 알았다. 노자(추정 BC571~471)는 ‘道可道 非常道 名可名 非常名’에서 道를 말하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는 것을 밝히고, 공자(BC551~BC479)는 ‘朝聞道 夕死可矣’라고 진정한 道가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존경과 겸손이 있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과 몸[육체]이 안정되어야 한다. 마음은 풍류로 다스려야 하고 몸은 배고픔이 없어야 한다. 쌀독에서 인심난다는 말과 같이 배가 불러야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진다. 배가 고프면 말이 거칠고 행동이 過하다. 배가 고프고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존경과 겸손이 있을 수 없다. 배고픔은 부지런함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데 마음의 안정과 평화는

무엇으로 달성할 것인가. 공자가 『詩經』으로 眞·善·美를 추구하여 군자의 인간성으로도 모자라 詩와 예술과 문학으로 달성 가능하다.

공자가 詩로서 안정되고 평화스러운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는 국가가 많은 예산을 들여 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문학을 독려하여 시민들의 풍류를 자극하여 정서적으로 禮를 다할 수 있는 안정된 사회를 만들려고 한다.

시를 짓고 노래하며 자연과 벗하며 풍류를 즐기는 사람은 분명 적절한 세기의 바람을 몰고 다니는 안정된 정신의 풍류객이다. 풍류객은 바다가 파도를 만들어 禮로서 땅과 소통하며 모래톱과 갯벌을 만들어 아름다운 풍광을 만들 듯, 축적된 진선미 감성을 통해 존경과 겸손의 미덕으로 예를 다하여 자연 그대로의 평화로운 인간 세상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다. 풍류는 어지럽고 거친 세상을 天道와 地道의 원리로 순하고 정이 넘치는 세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면서 人道의 시작이다. ➡

## 젊어서는 조국영공수호를, 은퇴 후에는...



박성보(26기)

“손발은 피곤하고, 돈도 안 되고 알아주는 이들도 별로 없는 일에 굳이... 왜...?”

가까운 친우들로부터 자주 듣는 핀잔(?)이다. 공익활동으로 봉사하는 일에 의아해 하면서 솔직하게 묻는 질문이다. 오랫동안 공중의 최일선에서 조종사로서, 여러 근무지를 옮기며 19차례 이사를 하면서 그만큼 힘든 생활을 보내고 은퇴했으면 이제는 쉬면서 취미생활이나 하고 여생을 즐기면서 보내야 한다는 애정 어린 따뜻한 조언인 것이다. 하지만 귀에 닿지 않고 나를 기다리는 취약계층의 노인들과 아이들이 눈에 밟힌다.

나는 전역 직전부터 우연한 인연으로 사회복지분야에서 다년간 활동해 오고 있으며, 정부지원으로 설립된 은퇴지식인 그룹인 시니어단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 공헌활동을 15년간에 걸쳐 사무총장, 사업본부장, 부회장을 거쳐 이제는 대표이사(회장) 직을 맡아 직접 사업을 기획하고 지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2011년부터 정책적으로 6년간 육성하고 장관 명의로 지정한 전국 49개 단체(시

니어직능클럽)의 총연합체인 사단법인 ‘한국시니어비전연합회’를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에 심각한 우리사회 문제인 ‘고령화시대’에 노인에 대한 ‘어르신으로 여생활기’ 계몽교육을 실시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여 취약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응력 배양” 교육훈련과 “직업진로 멘토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어느덧 시니어 분야의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있으며, 작년 4월에는 국회의원 회관에서 최재형 의원 등 다수의 국회의원 배석 하에 관련 세미나를 주관하고 기초발제자로서 연설을 하기도 하였다.

작년에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을 통해 노인들에 대해(보훈회관, 노인대학, 경로당) “안정되고 행복한 노년생활” 계몽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을 통해 취약청소년들인 고아(보육원생 : 베이비박스 출신 여아), 다문화청소년(고려인 출신 중도입국자), 탈북청소년, 범죄소년(보호관찰)들에 대해 인성순화 및 사회적응기술 전수프로그램 등을 서울, 경기, 인천, 대전, 대구 등지에서 시행하여 성공적

으로 완료함으로써, ‘사업(프로그램)’과 ‘회계’부문에서 모두 “우수” 판정을 받았다.

이를 통해 전문직에서 퇴직한 은퇴자들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노인과 취약청소년에게 실효적이면서 독창적인 공익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로써, 고령 보훈가족(6.25전몰군경미망인, 고엽제 전우)을 비롯한 노인들에게 위로위문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취약청소년들에게는 양육능력이 미흡한 부모를 대신하여 사회적응력을 배양시켜 사회부적응에 의한 범죄유혹을 예방하고 사회 정착을 유도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관하여 탈북민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누구나 할 수는 있으나 선뜻 나서기 어려운 길에서 36년간의 공군 복무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의 시민단체 봉사활동에 집착함에는 나름의 배경과 각오가 있다.

나의 고향은 경기도 일산이며, 그곳에는 전쟁고아 및 혼혈아들로 유명한 ‘홀트고아원’이 있었다.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이곳의 혼혈아들이 우리 반에 들어왔다. 이들과 함께 운동선수 생활을 하며 친해졌고, 가난했던 시절이라서 그들에게 미군 원조품인 쿠키 등의 과자와 플라스틱 장난감을 얻고는 매우 부러워하기도 했다. 중학교 때에 그 애들은 미국에 입양되어 헤어졌고, 한참 후에야 부모가 없이 자라나 전혀 낯모르는 사람들을 부모와 형제로 갖게 되는 아픔을 알게 되었다. 그때의 충격

때문인지 여러 부대의 지휘관참모 때에도 부대 인근 고아원 및 기초생활수급자녀들에 대한 장학금(소음대책 예산 활용) 지원에도 유별난 열성을 가졌었다. 한 때의 특별한 인연이 지금까지도 엮여져서 취약청소년에 대한 집요한 관심과 열정을 가짐은 분명 우연이겠지만, 나름의 자긍심으로 자리 잡고 여생의 목표로 삼고 있다. 은퇴자인 우리는 “아이를 낳아줄 수는 없지만, 잘 자라도록 할 수는 있다. 그들을 동량(棟梁)으로 키우는 것이 이 시대의 애국이다.” 또는 “우리는 세상을 구할 수 없지만, 한 아이는 구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아이가 세상을 구할 것이다.”라는 모토를 외치면서...

하지만, 이상한 일은 사회 공헌활동을 내세우면 취미생활을 자랑하는 것보다 계면적어진다. 봉사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는 격언 때문일까. 그래서 대놓고 자랑하는 일이 꺼려지는 것이다. 다행히도 가까운 동창출신 몇 명이 함께하고 있으나, 많은 동창들을 불러 모으는 일에 언젠가는 당당해 질 수 있을지. “가치 있는 삶”과 “보람되고 의미 있는 활동”으로 은퇴 후의 여생을 보내도록 고급 은퇴지식인들인 우리 동창들에게 사회 공헌활동의 길라잡이가 되기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여전히 손발이 피곤하고 돈도 안 되는 일에 매달린다. 과연 나는 젊어서는 온통 공군에서 명예롭게 살았듯이, 은퇴 후에도 의미 있게 살아가고 있고 여생(餘生)도 그런 것일까? ➡



## 조종사의 부동산



박지청(46기)

저는 약 20년간 공군에서 F-4E 조종사로 생활하였고, 전역 후 아시아나항공에서 약 3년간 근무하였습니다. 현재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공군 조종사로 근무한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시는데,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군 복무 기간 중에는 재테크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군에서 관사를 제공받았고, 노후에는 연금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재테크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저 꼬박꼬박 은행에 저축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그러다 2005년, 한 동료의 추천으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부자들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꾸준히 월급 대부분을 저축하며 투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공부를 통해 내 힘으로 집을 사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위탁 교육을 받기 위해 서울에 가게 되어 거주할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진 전 재산 5,000만 원으로는 추가 대출이 필요했습니다. 다행히 부동산 공부를 했기에 소액으로도 재개발 빌라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5,000만 원을 투자해 내 집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게 서울 흑석동의 빌라였고, 이 한 번의 투자로 서울 핵심지에 내 이름으로 된 새 아파트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부동산 투자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후 분양권, 재개발 투자 등 다양한 투자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투자의 스펙트럼을 넓혀갔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난생처음 부동산 투자 시크릿》이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군,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 책을 저술하고, 부동산 재테크 강의를 하고 있는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공공기관이나 학교에서 강연하다 보면 많은 청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부동산 투자는 시도조차 어렵다는 말을 많이 하더군요. 심지어 고등학교 3학년인 제 아들과 1학년인 딸도 집값이 너무 올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사다리가 없어졌다고 한탄합니다. 돈을 벌면 차라리 좋은 차를 사거나, 여행을 다니겠다고 말하곤 했죠. 하지만 누구나 방법만 제대로 안다면 적은 돈으로도 서울 아파트를 살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알리고 싶었습니다. ‘난생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많은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고 쉽게 공부하여 이른 시간 안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제 책과 강의가 좋은 길라잡이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제가 부동산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군(軍)에서 부동산 재테크 강의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역에 계신 분들이나 전역하신 선배님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약 3년 전에 만난 사관학교 선배님의 이야기가 저를 너무 슬프게 한 적 있었습니다. 그 선배님은 군에서 약 30년 이상 복무를 하시고 전역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주할 집이 없으시고, 모아둔 돈이 없으셔서, 관사 위약금을 물면서 거주하시다가, 강제퇴거를 당하신 것입니다.

저는 군인이라서 가난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군인은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항시 희생하고, 고생하는 군인도 그에 맞는 대우를 받고, 금전적으로도 풍족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인도 의사보다 더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보내고, 금전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우선 군인 스스로 가져야 한다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부동산이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가치관이 달라서 재테크에 대한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내집 마련에 대한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알다시피 내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충분히 공부하시고, 내집 마련과 재테크 두 가지가 충족될 곳을 잘 선택해서 하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능력에 맞는 투자를 해야 하고 대신 투자금에 맞추기 위해 아무 곳이나 투자하기보다는 핵심지 내에서 알짜 부동산을 고를 줄 아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묵묵히 건다 보면 어느새 그곳에 도착해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저도 언제나 여러분의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의 성공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유럽 자전거 여행



이성복(32기)

기간: 2024. 6. 6.~7.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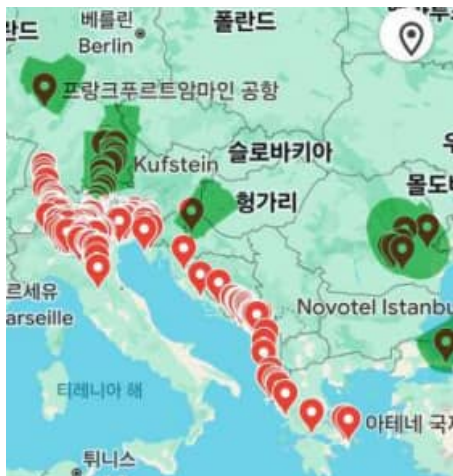
방문국가: 이태리. 스위스.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알바니아. 그리스

여행방법: 자전거

## 1. 자전거와의 인연

은퇴 후 노후 체력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던 중, 우연치 않게 천덕꾸러기 취급 당하며 굴러다니던 생활 자전거를 타고 주변을 탐방하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남한강 자전거 길에서 앞서가던 자전거를 따라가려 열심히 페달을 굴려보았으나 이상하게도 거리는 점점 벌어지기만 하였다. 나의 체력이 약해서 그런가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튼 이런 현상은 계속되었다. 이상하다 싶어 자전거 라이딩에 대해 인터넷 검색을 통해 공부해 보니 자전거의 종류에 따라 기능이 천차만별임을 알게 되었다. 그러던 차에 아들 녀석으로부터 생

일날 일명 로드 자전거(Road Bike)를 선물 받았다. 이를 계기로 본격적인 자전거 라이딩 입문이 시작되었다.



## 2. 유럽에서의 라이딩

**체력의 한계** : 알프스 Gotthard Pass(자전거 컴퓨터 상에 나타난 공식적인 오르막 거리는 45km, 고도 약 2400m)는 스위스를 남북으로 연결하는 통로이다. 패스 남쪽에 있는 자갈이 깔린 트레몰라(Tremola)를 지나는 길은 자

전거 라이딩에는 많은 고충을 가중시킨다. 짓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정상에 올랐으나, 채 10m 앞도 구분할 수 없는 구름 속에 갇혀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다. 겨우 경로를 찾아 다운을 시작하자 저체온증 현상으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 핸들 조작이 어려웠고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덜컥 겁도 났다. 이런 인적도 없는 구름 속에서 위로가 되어준 건 어처구니없이 좀 전의 나와 같이 길을 잃고 헤매는 이름 모를 또 다른 자전거 라이더였다. 큰 소리로 그가 나를 따르게 했고 잠시 후 카페를 보자 살았다는 안도감이 몰려왔다. 무려 3시간 정도 히터 옆에서 몸을 녹이고야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아무리 여름이라 해도 해발 2,000m 이상 고도의 라이딩 시에는 체온 유지를 위한 여분의 방한 의류를 반드시 챙겨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다.



이테리 북중부 지역에서는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일직선의 평야에선 정신적 인내가 필요했고, 발칸반도에 들어선 이후 끊임없이 이어지는 길은 고각의 업힐이라 손가락에 쥐가 나고 허리에 엄청난 통증을 느끼면서 체력의 한계에 직면하는 일이 잦았다. 이런 와중에 몬테네그로 시골길, 네비게이션은 보기만 해도 숨이 턱 막히고 다리에 힘이 풀리는 어마무시한 첩첩산중으로 나를 안내하는 것이 아닌가. 나머지 일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그럴싸한 유혹의 이유를 찾아서 아무리 구글 검색을 해봐도 대중교통 연결망을 찾을 수 없었고, 시골구석이라 영어 대화도 안되고 설상가상 통신상태도 엉망이라 번역기도 버벅댔다. 한국에서 누리던 현대화된 인프라의 고마움을 정작 이 먼 타국의 외진 시골길에서 그리워하며 막막해했던 아찔한 순간이었다. 그러나 막막하게만 느껴졌던 길고도 긴 업힐(아마도 족히 20km이상은 될 듯)을 꾸역꾸역 올라가며 이것도 언젠가는 끝이 있겠지 하는 자기암시를 수없이 되뇌이다 보니 어느덧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이때의 성취감과 희열이 라이딩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이런 성취감과 희열은 순간이고 다시 내려갈 생



각을 하니 덜컥 겁이 났다. 내려간 만큼 또 올라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이치가 아닌가.

**문화충격** : 이태리 국경을 넘어 슬로베니아 코페르(Koper) 지역으로 가던 중 영국에서 온 2명의 남성 라이더와 동행하게 되었다. 코페르 해안에 도착하여 잠시 휴식 겸 담소를 하였고, 나는 이때까지 이들이 당연히 친구 사이인 줄 알았다. 그러나 내 눈치가 이상했던지 상대적으로 남성스럽게 생기고 항상 선두에서 리딩하던 친구가 갑자기 손에 낀 반지를 보여주며 동성 부부이고 자기가 남편이라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 몹시 당황하였고 어떻게 이야기를 이어나가야 할지 막막하였으나, 다행히 이들이 영국 브리스톨

(Bristol) 인근(차량으로 약 30분 거리)의 역사적인 도시인 배쓰(Bath) 출신 이어서 90년대 후반 영국파견 시절 Bath를 방문하였던 이야기로 위기를 모면하였다. 동성 간의 결혼 등 우리 세대의 사고방식에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를 서슴없이 밝히는 이들의 인생관 혹은 이성관에 대한 사고에 적잖은 문화적 충격을 받은 게 사실이다.





**시골인심** : 이태리~슬로베니아 조그만 이태리 국경 마을을 지나고 있을 때였다. 해지기 전에 숙소에 도착할 요량으로 정신없이 달리고 있었을 때, 어떤 이태리 사람이 나를 불러 세웠다. 지치고 마음이 급했던 나는 그냥 지나칠까 순간 갈등도 하였지만 여행이라는 것이 너무 서두를 필요가 있겠나 싶어 그의 신호에 따랐고 이내 마을잔치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나에게 맥주와 간식거리를 준비해 주었고, 이내 주변의 친구들을 소개해 주며 이것저것 여러 질문을 하였다. 핵심은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자주 볼수 없는 동양인이 혼자 자전거 여행을 하는 것이 신기했고, 특히나 자전거 뒤에 꽂아놓은 작은 태극기를 보고 한국인임을 알았다는 것이었다. 그는 평소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우리는 연락처를 주고 받고 다음을 약속하였다.



**전쟁중인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 생각** : 몬테네그로~알바니아로 국경을 넘기 직전 잠시 휴식을 위해 주유소에 들렀다. 여기서 러시아 출신의 오토바이 라이더 부부와 담소를 나누게 되었다. 나는 평범한 러시아 사람들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할까 궁금했지만 조심스러워 민감한 주제의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친구가 거리낌 없이 한국에 대한 호감을 표시하면서 푸틴과 김정은을 욕하는 것이었다. 순간 복잡미묘한 감정에 빠지게 되었다. 이 친구가 말하길 러시아에서는 정치적인 소신을 밝히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이 입고 있는 히피 느낌의 오토바이 의상을 입는 것만으로도 감방에 간다 해도 이상할 게 없단다. 정치체제와 무관하게 평범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표현의 자유라는 게 얼마나 간절하고 절실한 것인가를 새삼 느끼게 되었다. 내가 얼마나 선진화된 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지, 또 이런 일상의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부정적 사람들에게 이런 에피소드를 전해주고 싶다(이들이 자신들의 얼굴이 식별되는 사진 찍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여 인물사진은 없다).

**국격에 대한 자부심** : 지나다 보면 어디선가 ‘감사합니다’ 혹은 ‘안녕하세요’하는 서툰 한국말이 귀에 들어와 돌아보면 파란 눈의 현지인이 자전거에 달린 조그만 태극기를 보고 한국인임을 알고 친근함을 표시하는 것이었다. 순간적인 일이라 일일이 감사의 표시나 응대를 하지 못하고 지나치곤 했으나 그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한편으로 1997년 영국 파견 생활 중 대부분의 현지 사람들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모르고, 삼성을 일본 기업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위치를 설명하려면 할 수 없이 일본과 중국을 언급해야 했던 씁쓸한 기억과 대비되었다.

알바니아 국경 검문소에서 이민국 직원이 나의 비자를 보자마자 입국도장을 찍거나 하는 일체의 어떤 행동 없이 그저 한마디 하였다. ‘당신은 그냥 갈 수 있다.(You can go)’

**한류의 세계화 실감** : 그리스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 관람을 위해 땡볕 아래에서 100m 가 넘는 긴 줄을 서 있을 때였다. 이때 대만과 중국(본토)에 온 아가씨들과 자연스럽게 담소하게 되었다. 그때 대만 출신 여성이 ‘최우석’인가 하는 가수를 아느냐고 물어보았다. 나는 당연히 BTS 혹은 블랙핑크 등 유명 한류스타의 멤버를 물어보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그녀의 설명을 듣고나니 아직은 대중에게 그리 알려지지 않은 아카펠로 가수였다(내가 관심이 없어 모르고 있었을 수 있음).

앞서 언급하였던 러시아 출신의 오토바이 라이더 부부는 ‘봉준호’ 감독의 ‘오징어 게임’을 이야기 하며, 아마도 러시아 사람들 중 이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어린 시절 즐겼던 우리의 전통적인 놀이방식이라 설명하였고 이에 그들은 신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숙소로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제는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호감이 유명인에 그치지 않고 그 폭과 대상이 상상 이상으로 넓고 깊어졌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이는 한국, 한국 사람에 대한 호의와 친밀함으로 다가와 그들과 쉽게 공감할 수 느끼며 대화하고 서로의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형제국가 튀르키예** : 발칸반도 해안 한 휴양도시에서 터키 여행객과 담소를 하게 되었는데, 자전거에 달린 태극기를 보고 첫마디가 ‘friendly country’였다. 그동안 난 솔직히 우리 언론에서만 튀르키예를 일컬어 ‘형제국가’라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왔으나, 완전한 착각이었다. 튀르키예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대해 ‘형제국가’로 인식되어 있는 듯했다.

### 3. 한국에 돌아와서

비록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변수와 치밀하지 못했던 계획으로 당초 예상했던 4,000km를 다 채우지 못하고 일정에 쫓겨 약 1,000km 정도는 페리, 버스 및 기차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점프를 하였으나, 오히려 이런 것들을 통하여 느리고 수시로 단절되는 통신망, 거의 우리네 마을버스 운영 시스템보다도 못한 도시 간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면서 평소 우리가 누리고 있는 각종 생활상의 인프라가 얼마나 선진화된 수준이며 감사해야 할 일인가를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애국심이 더욱 깊어졌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 ‘헬 조선’ 등과 같은 부정적 인식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에게 공평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긍정의 마인드를 갖도록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을 찾고 실천해 나가는 일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마음도 갖게 된다. ➡



# 87일간의 미국 국립공원 일주 자동차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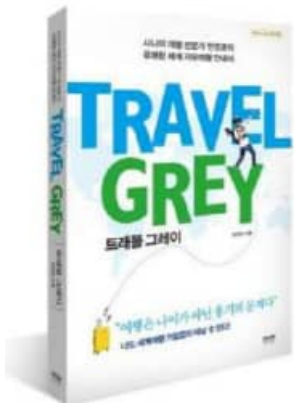


한경표(27기)

## 70세 이전, 여행 버킷리스트

33년간의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앞둔 2011년, 직업보도 기간에 40일간의 미국, 캐나다의 북미대륙을 횡단하는 자동차 여행을 아내와 함께 다녀왔다. 이 모험 여행은 그동안 궁금했던 북미대륙의 광활한 대자연에 대한 호기심을 해소하고 난생처음으로 여행 버킷리스트를 실현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7년간 국회 소관의 모 연구기관에서 국방정책/무기체계 분야 연구소장으로 활동하는 등 약 40년간 공적인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마음 놓고 자유여행을 다닐 수가 없었다.

그래서 2019년 1월, 이제부터는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어 나를 위한 여생을 살아가자”라고 선언한 후, 나머지 <인생 3막>은 오직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슴이 뛰는 ‘여행’을 즐기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였다.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여행(Travel)’에 두고, 삶의 목표와 인간관계마저 여행을 중심으로 변화해 나갔다. 심지어 생활비마저도 여행비를 제외하고 남는 돈으로 살아가는 역발상의 자세를 견지하였다.



이듬해 2020년 2월 그동안 여러 차례 다녀온 세계 자유여행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들에게 자유여행의 방법과 요령, 자유 여행에 대한 용기와 동기를 부여하는 『TRAVEL GREY』라는 책을 출간하였다.

일명 ‘시니어 여행안내서’라고 알려진 이 책의 발간을 계기로 하여 곳곳에서 강의 요청이 들어왔다. 한편, 은퇴 이후 해외여행을 떠나고 싶은 수많은 50+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한 ‘자유여행 클럽’을 만들어서 이들이 스스로 여행계획을 수립하여 자유

여행을 떠나도록 도와주는 일을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온라인 소셜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페이스북(Facebook)에 <시니어 여행대학 Senior Trave Academy>이라는 그룹을 설립하여 운영, 관리하고 있다. 회원 수가 2만 5천 명을 상회하자 이를 기반으로 여행 강연 커뮤니티, 즉 [여행 이야기꾼] 모임을 만들어서 여행 경험이 풍부한 고수들에게 강연 기회를 주고, 이들과 친교 모임을 통하여 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여행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이야기는 70세 이전에 반드시 달성하고자 계획했던 나의 여행 버킷리스트 중에 가장 최우선 목록인 <미국 국립공원 일주 자동차 여행(Road Trip)> 이야기를 해보기로 한다.

## 미국 국립공원은 어떤 곳인가?

청년 장교 시절에 다녀온 미국 군사 유학을 계기로 하여 미국의 대자연을 처음 알게 되었다. 그 이후로도 여러 차례의 공무 출장과 여행을 통해서 미국 국립공원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게 되었다. 미국은 후손들에게 미국의 미래를 위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1872년에 국립공원(National Park) 제도를 세계 최초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미국의 국립공원은 모두 63개가 있다. 미국 본토(Lower 48)에 51개, 알래스카와 하와이에 10개, 그리고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미국령 사모아 등 해외 섬나라 자치령 국가에 2개가 있다. 이 외에도 국가 기념물이나 역사 유적지, 전사 유적지 등 총 423개의 중요시설을 지정하여 이들을 정부 기관인 <국립공원관리청, NPS: National Park Service>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들 시설은 국가에서 엄격하게 개발을 통제하고 철저한 규칙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국민뿐만 아니라 세계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고 편리하게, 그리고 공익을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운영하고 있다.

무려 연간 약 2억 3천 7백만 명(2020년 기준)의 여행자가 방문한다고 한다.

## 미국 Road Trip 준비, 그리고 출발~!

아내와 나는 2023년 5월 18일, 드디어 70세 이전 버킷리스트인 미국 본토에 있는 국립공원 51개를 모두 완주하기 위해서 6개월간의 장도에 올랐다.

이를 위해서 미국 영사관 인터뷰를 통해 장기간 여행 복수비자(B1/B2)를 발급받았고,



2년간의 철저한 준비와 계획 수립, 여행비용 마련, 체력단련과 건강검진 완료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미국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여행하는 중에 갈수록 심해지는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인하여 섭씨 40~50도를 오르내리는 심한 불볕더위와 가뭄, 빈번한 집중 호우와 홍수, 대형 산불 발생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장기간 여행이 무리라고 판단하여 불가피하게 원계획을 대폭 수정하게 되었다.

이번 여행은 미국 서부 지역의 국립공원만 둘러보고, 나머지 동부 지역은 다음에 다시 여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그래서 아쉽지만, 2023년 8월 8일, 87일 만에 여행길을 멈추고 일찍 귀국하게 되었다.

이번 미국 국립공원 여행은 출발하기 전부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정하여 이에 주안점을 두고 여행을 하였다.

첫째, 여행 방법은 내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여행하는 로드트립(Road Trip)을 한다. 가끔 보조운전자로 아내의 도움을 받는다.

- 구글 지도(Google Maps)를 이용하여 모든 목적지에 대한 주행 지도를 작성하고, WiFi 미수신 지역에서는 '가민(Garmin) GPS'를 네비로 이용한다.
- 가능한 한 고속도로보다는 미국 정부에서 아름다운 자동차 도로로 지정한 일명, '미국 명품 샛길(America's Byway)'을 우선하여 여유롭게 달린다.

둘째, 미국 자동차 여행은 장거리 운행에 따른 '안전'이 최우선이다.

- 하루에 수백 km를 운행하다 보면 피로가 쌓이고, 사고를 당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일일 주행거리는 최대한 400mile(약 644km)를 넘지 않는다.
- 자동차 기름(Gas)은 1/2 이하에서 무조건 주유하고, 과속 금지와 교통신호 준수 등 기본적인 교통 규칙을 철저히 지킨다.

셋째, 여행 중에 식사는 가능하면 매식보다는 월마트(Walmart), 한인 마트(H Mart) 등을 이용하여 음식 재료를 자체 조달하고, 취사도구를 준비하여 직접 조리하여 먹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넷째, 국립공원 내에서 숙박은 가능한 캠프장(Campground)을 사전에 예약하여 캠핑(텐트 야영 또는 차박)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경치가 빼어난 주요 트레일(Trail)을 선정

하여 모두 걷는다.

미국의 유명 국립공원 경내에 있는 주요 캠프장을 여름철(5월~8월) 성수기에 예약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다. 미국 정부에서 통합 관리하는 예약사이트인 'recreation.gov'에 들어가서 세계의 수많은 캠핑 여행지들과 치열한 예약 전쟁을 치러야 자리를 얻을 수 있다.

실제로 우리는 여행계획을 수립한 후 6개월 전부터 미국과의 시차 때문에 밤늦은 시간 또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들 캠프장 예약 개시 시간(현지 로컬 타임 아침 9시)에 맞춰서 사전 예약을 모두 마쳤다. 그리고 국립공원 내의 10여 km가 넘는 유명 트레일을 무난히 걷기 위해서 집 주변의 광고산 둘레길을 꾸준히 산행하면서 체력 단련을 열심히 하였다.

### 미국 국립공원 여행 종합 및 인사이트

아내와 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여 87일간 자동차(SUV, 사륜구동)로 총 18,294km를 주행하였다. 다음과 같이 미국 서부지역 11개 주의 25개 국립공원, 9개 국가 기념물과 국립휴양지, 9개 국유림과 18개의 주립공원, 그리고 모뉴먼트 밸리 등 3개의 인디언 유적지를 방문하였다.

이번 미국 국립공원 자동차 여행은 70세 이전의 버킷리스트를 실행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경이로운 대자연의 실체와 마주한 최고의 여행이었다. '여행은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떠나기 전에 여행지에 대한 정보와 사전 지식을 넓히고 간다면 더욱 알차고 의미 있는 여행이 될 것이다. 끝으로 이번 여행에서 느낀 몇 가지 소감 및 인사이트를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내가 직접 자동차를 운전하여 끝없이 펼쳐지는 미국의 광활한 대 자연을 달리는 순간, 더없이 자유롭고 가슴 벅찬 호연지기(浩然之氣)를 맛보았다. 세상 어디에서도 이러한 쾌감과 흥분을 느낄 수 있는 모험은 없을 것 같다.



미국 국립공원 여행 개요도

둘째, 천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미국 국립공원의 숲속을 거닐 때마다 한없이 평온해지고 건강한 힐링(Healing)의 기운을 듬뿍 받았다.

셋째, 미국의 국립공원 제도에서, 자연은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인류와 함께 공존하는 소중한 가치를 지닌 자산임을 깨닫게 되었다. 미래 자손만대까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지혜임을 알게 되었다.



크레이터 국립공원, 오리건주



모뉴먼트 밸리, 애리조나주



아치스 국립공원, 유타

넷째, 시도한 모험은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징표이며, 자연은 내가 건강할 때만 내 곁에 있어 준다는 단순하면서도 고귀한 진리를 깊이 깨달았다.

지난날 여러 차례의 해외여행을 통해서 다양한 인류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식견을 넓힐 수 있었다. 또한, 즐겁고 유쾌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행복한 시간을 추억으로 남길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여행처럼 대자연의 속살을 보면서 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고, 새로운 행복 에너지를 얻은 여행은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했다.

나는 이번 미국 국립공원 로드트립을 통하여 이러한 소중한 가치와 활기찬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고 무사히 돌아온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더욱 활기차고 역동적인 삶을 즐기기를 원하는 동료, 선후배님들께 미국의 아름다운 국립공원을 자동차로 둘러보는 로드트립을 한번 시도해 볼 것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면서 글을 마친다. ➡



김기일(30기)

## 정들면 고향

다다익선(多多益善)이란 말이 있다. 이는 사기(史記)의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 나온다. 한나라 유방(劉邦)이 천하통일 후 한신(韓信)을 초나라 왕으로 임명하고, 한신에게 군사가 얼마쯤 있으면 좋겠냐고 묻자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좋습니다’라고 한 말에서 유래한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대부분이긴 하다. 물질적 풍요의 누림이 사람의 품격으로 보이기도 하는 고도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다. 최대한 많이 갖고 남으면 버리지 하는 사고방식이 깊게 자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 상황이다.

궁핍(窮乏)의 미덕(美德)은 노자(老子)의 도덕경(道德經) 말미에나 나오는 못 가진 자들의 자기 위안쯤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그래도 하나만 있는 것이 좋은 것도 있다. 부모가 그렇고 고향이 그렇다. 고향은 아련하고 따뜻함이나 그 반대의 느낌을 줄 때도 있는 법이다.

수구초심(首丘初心), 여우도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태어난 굴 쪽으로 둔다는 말

이다. 미국 생활에 적응되었다고 할 만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고향에 마음이 가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되돌아보고 자신을 추스르는 곳이 고향이다. 고민과 삶의 아픔은 적을수록 좋다. 고향도 마찬가지로다. 고향은 하나여야 한다. 어찌 보면 신산한 떠돌이 삶에는 고향이 많다. 고향이 들인 경우는 부모님 세대 때 한국전쟁의 와중에 월남한 이들 외에는 별로 없을 것이다.

모국을 떠나 타국 살이로 전전한지 벌써 25년이다. 이곳 친구들은 고향을 그리워할 만한 나이가 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식 잘 키운 것으로 유세 아닌 유세를 떨었다. 성공한 삶을 자랑하는 것은 흠이 아니다. 만리타향에서 같은 동포가 자랑할 일이 있다면 좀 좋으랴. 떠나올 때 사연이야 자랑할 만한 것이 못되었겠지만 이곳에 터 잡고 살면서 성공한 자식 둔 것은 기꺼운 일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자랑의 대상도 바뀌었다. 지금은 만나면 손주 자랑이 경

쟁적이다.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자식이나 손주의 성장과 성공을 만들며 사는 사람들은 양손 엄지손가락 척하고 세워도 부족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여기도 다음 세대의 성공을 만들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곳에 살아가면서 아침 출근길에 여명을 깨우고 마시는 첫 들숨은 한결같이 냉랭했다. 마치 정신 줄 놓으면 험한 일 당할까 염려해 아내가 준비하는 정성스러운 냉수 한 사발 같다고나 할까.

이제는 이곳의 여러 가지를 나의 것, 고향처럼 받아들여야 한다. 마음을 단단하게 먹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자고 결심하니 마음 어딘가 남아있던 정이라는 감성이 새롭게 작동되기 시작한다.

감성의 밑바닥에 있는 정을 끌어올려 다시 고향을 만들기로 했다. 내가 사는 이곳은 버지니아주 애난데일(Annandale)이란 곳이다. 구글 지도에 한글로 입력해도 검색이 가능하지만 실질적 행정구역은

아니다.

시장이 근무하지도, 대표를 시의 이름으로 선출하지도 않고 오직 우편물을 받을 때 주소로 쓰일 뿐이다. 200년쯤 전에 이주해 살던 어떤 이에 의해 지어진 이름이고 아마 그 사람도 나같이 어디선가에서 이주해 왔을 것이다.

이곳에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기로 정한 이유는 항상 그리워하는 고향의 모습과 가장 많이 닮았기 때문이지 싶다. 뚜렷한 사계절에 화사한 봄과 쓸쓸한 가을의 느낌도 고향과 흡사하다. 이곳에 갑작스레 비라도 내리면 한국에 전화를 걸어 '장독 뚜껑 닫아라'라는 말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 정도다.

이른 봄 정원 한 귀퉁이 흙을 일구고 뿌려놓은 상추씨는 해가 바뀌면서 스스로 세를 넓혀간다. 이듬해는 몇 블록 떨어진 도로가까지 씨를 퍼트리며 무리 지어 상추가 자란다. 던지듯 심어둔 호박도 추석 무렵 거두어들여 채 썰어 말리면 한겨울의 요깃거리가 충분하다.

감나무도 잘 자란다. 이곳에 흔한 감나무는 심고 일 년이 지나면 향기 진한 홍시를 맺고 몇 년을 성장하면 냉동고를 가득 채울 수 있다.

미나리와 부추는 잔디 정리하며 얻는 수고의 대가인데 비결은 토양에 있는 듯하다. 땅을 한 치만 뒤집어도 땅속에는 지렁이와 곤충들이 그득하다. 비옥한 토양





위에 농사 대신 잔디 걱정을 하는 것이 미안하기도 하다.



봄이 되면 집집마다 한 그루쯤은 있는 벚나무가 화사하게 꽃망울을 터트리며 일대를 향기와 함께 뒤덮는다. 백악관 주변과 강가를 아울러 세계에서 손꼽히는 벚꽃 관광지로 정평이 나 있다. 집 뒷마당의 벚나무 한 그루는 무관심 속에서도 매년 꽃을 피우고 바람에 흩날려 이웃 경계까지 퍼져 나간다.

여름에 내리는 비는 적절하고 가을 공기는 건조하여 단풍이 장관이다. 봄으로써도 황금빛으로 물든 나무들은 웨스트버지니아까지 수십 킬로미터에 걸쳐 자연의 광활함을 드러낸다.

서고동저(西高東低)의 지형으로 계절의 변화에 따라 대지의 색깔도 변한다. 서

쪽 고지대로부터 내려온 겨울은 쉐난도(Shenandoah) 산기슭의 하얀 구름과 첫눈이 더해지면서 한 해를 마감한다.

이곳은 고층 건물이 드물다. 눈을 뒤집어쓰고 오는 겨울이면 동화 속 난쟁이들이 집집마다 튀어나올 것 같은 분위기다. 눈길에는 여름 동안 가족이 늘어난 새끼여우들의 발자국이 선명하다. 폭설로 먹이 구하기가 어려워진 부엉이가 구성지게우는 새벽에는 꽃시늬 한 쌍의 흔적도 집앞 눈 위에 찍힌다.

그럴 즈음이면 벽난로에서 태우는 참나무의 구수한 냄새가 골목길을 휘돌아 나간다. 화목이 타는 냄새는 고향의 초가에 소여물 끓이는 외양간 풍경을 데리고 온다. 이래저래 떠나온 곳이 그리워지는 이곳이 이제는 나의 고향 애난테일이다.

집을 나서서 10분쯤 걷다 보면 2차선을 벗어나 4차선 도로를 만나는데 그 도로의 명칭이 참 아름답다. 작은 실개천이 돌아드는 곳(Little River Turn Pike), 이름이 말해주듯 작은 개울이 마을을 감싸돈다.

워싱턴 외곽 순환 도로와 접하는 교통밀집 지역에 접한 개천이 송어 낚시로 유명한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봄이면 몇 주간은 루어 낚시하러 온 장화 신은 조사들이 낚싯줄을 휘두르면서 만들어내는 열은 무지개를 볼 수 있다.

시내 방향으로 들어서면 10킬로미터



이상이 한국의 거리를 닮았다. 길게는 50년쯤 되었을 것 같은 상호의 순댓국 가게부터 은행, 정비소, 병원, 슈퍼, 빵집 등의 한글 간판이 늘어섰다. 늦은 시간에 가끔 만나는 미국인이 오히려 외국인 같아 보일 정도다.

지금 한국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런저

런 소문이 목욕탕에서부터 퍼지기 시작하는 것도 이곳으로 떠나오기 전 한국과 흡사하다. 오랜 기간 보이지 않던 복덕방 이씨가 뉴욕으로 이주했느니, 정비소 최 씨의 딸이 명문 의대에 입학했느니 하는 소식이 사우나 스팀 속에서 퍼져 나간다.

자연이 주는 향기가 묵향처럼 옷 끝에 배어나고 이웃 간에 나누는 정이 시집간 누이에 대한 그리움처럼 묻어나는 곳이다.

푸른 군복과 함께 겹쳐지며 떠오르던 지나간 추억들, 그 잊을 수 없는 추억에 질척이던 긴 밤들이 지나고 나는 다시 애잔한 고향 하나를 가슴에 더 품고 산다.

두 개의 고향을 가진 삶의 신산함은 그런 삶을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으리라는 생각도 해본다. 사람 사는 곳은 거기가 다 거기다. 이곳 애난데일도 고향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두 번째 고향이다. ➡

은퇴 후 예비역 회원의, 풍요로운 생활을 위한 쓸쓸하고 확실한 선택은

# 군인공제회 목돈수탁저축입니다.



**현역·예비역 모두 군인공제회 회원가입이 가능 합니다!**

\* 홈페이지(www.mmaa.or.kr),  
모바일앱 로그인후 회원가입가능

##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 여유자금 관리를 위한 현명한 선택

- 가입 대상** 현역 회원, 예비역 회원  
\* 군인공제회 현재 회원 또는 회원가입 자격이 있어야 가입 가능
- 가입 금액** 100만원 ~ 10억원(원 단위로 가입)
- 금리** 5.20%(2년) / 5.00%(1년)  
(세전, 일반과세, 만기지급식 기준)
- 가입 기간** 6개월, 1년, 2년 선택
- 가입 방법**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 모바일, Fax(02-2190-2084), 이메일(deposit@mplus.or.kr), 방문

☑ 예금형 목돈수탁저축 시뮬레이션(이자) (24. 3. 1. 가입기준, 만기지급식, 세전)

구분	6개월(4.35%)	1년(5.00%)	2년(5.20%)
1억원	2,180,959원	5,000,000원	10,400,000원
3억원	6,542,877원	15,000,000원	31,200,000원
7억원	15,266,712원	35,000,000원	72,800,000원

※ 금리는 가입 후 만기까지 확정금리이며, 만기 후 재가입 시 공시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비과세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 포함 5,000만원까지 가입 가능(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 현역/예비역 회원저축 (적립형)



### 연복리 적금의 새로운 선택

- 가입 대상** 현역 회원, 예비역 회원  
\* 군인공제회 현재 회원 또는 회원가입 자격이 있어야 가입 가능
- 가입 금액** 월 5만원 ~ 1,000만원(1만원 단위로 가입)
- 금리** 5.00%  
(세전, 일반과세, 연복리 적용)
- 가입 기간** 3년, 5년, 7년, 10년 선택
- 가입 방법**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 모바일, Fax(02-2190-2083), 이메일(deposit02@mplus.or.kr), 방문

☑ 현역/예비역 회원저축(적립형) 시뮬레이션(원리금 총액) (24. 3. 1. 가입기준, 세전)

구분	3년	5년	7년	10년
30만원	11,655,656원	20,429,247원	30,101,669원	46,499,548원
100만원	38,852,187원	68,097,491원	100,338,897원	154,998,492원
200만원	77,704,375원	136,194,982원	200,677,794원	309,996,984원

※ 만기 시 예금형 목돈수탁저축으로 전환 가입신청 가능  
※ 가입일, 매월 실제 수납일, 지급기간에 따른 변동금리 적용에 따라 실 지급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연금형 목돈수탁저축



### 목돈을 연금처럼 분할수령 [24.1부 신규 출시]

- 가입 대상** 현역 회원, 예비역 회원  
\* 군인공제회 현재 회원 또는 회원가입 자격이 있어야 가입 가능
- 가입 금액** 5천만원 ~ 10억원(원 단위로 가입)
- 금리** 5.00%  
(매년 5.00%, 매월 4.88%, 세전)
- 가입 기간** 5~30년(5년 단위), 매년 또는 매월 분할 지급
- 가입 방법** 군인공제회 홈페이지 • 모바일, Fax(02-2190-2084), 이메일(deposit03@mplus.or.kr), 방문

☑ 연금형 목돈수탁저축 시뮬레이션(월 수령액) (24. 3. 1. 가입기준, 매월지급식, 세전)

구분	5년	10년	20년	30년
1억원	1,843,969원	1,030,708원	619,007원	480,998원
3억원	5,531,895원	3,092,098원	1,856,971원	1,442,995원
7억원	12,907,747원	7,214,880원	4,332,949원	3,366,988원

※ 가입일, 지급일, 지급회차별 원리금 차이 및 소득세법 변경 등으로 실지급액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 성무인 저술 도서

”



조승균(31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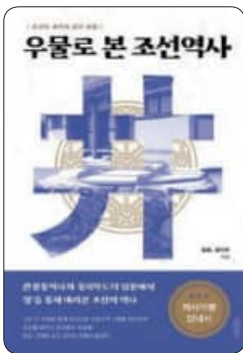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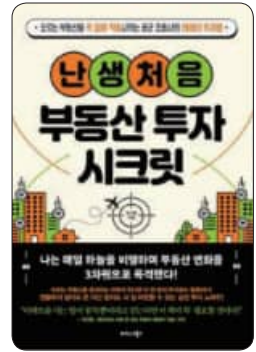


제31차 총동창회는 2024년 6월 10일 공군사관학교 개교 75주년을 맞이하여 모교 학술정보원(구 도서관)에 서가를 기증하고, 동문들이 그동안 저술한 도서를 기증받아 비치하였다. 많은 동문들이 현역 시절 또는 전역 후에 인문에 관심을 두고 시, 소설, 에세이 등을 저술하였으며, 학교에서 강의하는 동문들은 강의 교재용 또는 연구한 내용을 담은 전문 서적 등을 저술하여 성무인의 역량을 보여 주었다. 이에 총동창회에서는 개인적으로 총동창회 또는 모교에 기증하였던 것이 생도들에게 집약적으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는 아쉬움을 확인하고 학술정보원과 협의하여 동문서가를 마련한 것이다.

총동창회에서 5월 한 달의 단기간 내에 동기생 회장단을 통해 기부받은 책은 1기 정해영 동문부터 69기 김범수 동문까지 약 58명의 저서 103권이 되었다. 이에 6월 10일 개교기념일에 맞추어 참석 가능한 22명의 동문작가와 함께 기증식을 가졌다. 이날 기증식에는 공승배 교장(39기)을 비롯한 지휘관 참모들과 함께 동문 작가를 보고 싶다는 생도들도 참석해서 의의를 높였다.

동문 저서 중에 최근에 발간된 재밌고 특이한 책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69기 김범수 동문은 ‘하늘은 나를 향해 열려 있어’란 책은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비행 훈련을 받고 있는 빠듯한 과정 속에서도 4년 간의 고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했던 생도 생활을 진솔하게 기록한 글이다. 57기 최현욱 동문은 1985년생으로 전투기 조종사로 근무하면서 결혼 10년 차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 100만 30대 요즘 아빠의 한 사람으로

서 군 생활과 가정의 균형점을 찾고자 노력한 것을 '85년생 요즘 아빠' 제목으로 책을 내었다. 또 46기 박지청 동문은 “나는 매일 하늘을 비행하며 부동산 변화를 3차원으로 목격했다”라고 하면서 오르는 부동산을 꼭 집어 적중시키는 공군 조종사의 레이더 투자법을 담은 '난생처음 부동산 투자 시크릿'이란 책을 저술하였다.



그 외에도 34기 김훈 동문은 2023년에 아버지와 딸의 대화 형식으로 우물을 통해 시대를 거슬러 올라 조선의 역사를 서술한 '우물로 본 조선 역사'란 책에 이어 올해에는 '하늘 영화로 하늘을 보다'라는 항공우주 관련 영화를 항공기 발달 시기를 따라 소개하는 책을 발간하였다. 그리고 또 다른 책으로는 몇 날을 기다려 한 찰나를 담은 사진 전문가로 미국사진협회 인증작가가 된 21기 금기연 동문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월간 '산' 잡지에 연재된 사진과 글을 모아 책으로 엮어 기증하였다.

의미 있는 서적으로는 2022년 1월 11일 경기도 화성 야산에 추락해 순직한 64기 고심정민 소령을 추모하기 위해 동문시인의 작품을 포함해 85편을 모아 발간된 추모시집이 있다. 또 군사정책 및 전략에 관해 평생을 연구한 3기 고이종학 동문을 추모하기 위해 제자들의 연구논문을 종합하여 '사제동행 논문집'이 2024년 올해 발간되었다.







그 외에도 2024년 신간 도서로 시골을 떠나 도시의 어느 골목길에 스며들어 기억에서 사라져 버린 벗들을 소환하는 글을 모은 27기 이덕대 동문의 두 번째 에세이집 '내 마음속 도서관'이 있다.

이들 동문 작가의 저술 도서는 본 책의 부록 #2에 있다.

총동창회는 이번 동문서가 및 저서 기증식을 준비하면서 성무지의 전신인 신문형 소식지 1호부터 27호까지 디지털화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를 종합한 인쇄본을 책자형과 함께 동문서가에 함께 전시하였다.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는 소식지는 1996년 제2차 총동창회가 임기를 마치며 총동창회 이름을 따라 '오성지(五星誌)'라는 제목으로 처음 발간하였다. 제2호는 '공사교총창회지'였다가 3호부터 '공사총동창회지'라는 이름으로 2003년 7월에 27호까지 일 년에 2~3회 발간하면서 동문들의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다가 2004년 1월 제11차 총동창회에서 '동창회지'란 이름으로 책자형 소식지를 발간하였고, 2005년 제31호부터 올해 제53호까지 성무인을 상징하는 '성무(星武)'지를 발간하여 왔다.

이번 신문형 성무지를 디지털작업 하면서 느낀 것은 그동안 선배 동문들께서는 매년 총동창회 임원이 바뀌는 속에서도 동문들의 친선 도모와 모교 및 공군 발전을 위해 그 의지를 면면히 이어 굳게 결속된 모습으로 노력하였다는 것이다. 올해 개교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이러한 선배들의 노력에 제31차연도 총동창회 임원들도 둘 하나를 더 없었다(참고로 31기 기생회 명칭이 '한돌'임)는 자부심을 가져 보았다.

이번 성무인 작가들과 함께 동문서가 및 도서 기증행사를 하면서 느낀 것은 동문 작가들이 모이는 문인회를 결성하여 친선을 도모하고 시, 수필, 소설, 사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성무문예상을 만들어 동문들의 문학 실력을 뽐내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는 것이다.



# “ 동문 · 지회 동정 ”

## ■ 10기 십철회

요즘 우리 사회에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우리 십철회(10기생 동기회) 회원들도 적극 호응하며 지난 2024년 4월 1일 전 동기생들의 결의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 기념재단에 일백만 원을 희사하였습니다.



## ■ 18기 흑매회

흑매, 기생회 성격과 잘 어울리는 닉네임이다. 현역 시에는 높이 날아 하늘을 지켰고 나이 들어서도 산을 좋아해서 등산 모임이 활발하다. <흑매등산회>는 60대 중반부터 매달, 14년째 이어오는 산행에서 우정을 다지며 국가와 군을 위한 단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또 용인지역을 중심으로 동기생 미망인들과 함께 하는 걷기 모임도 있으며, 골프 모임까지 합하면 동기생 대부분이 운동모임에서 만나 땀 흘리며 친목을 돈독히 하고 있다.

70대 후반에도 건강을 지키며 우정을 쌓아가는 동기생이 노후 삶에서 소중한 자산이다.



2024. 6월 예술의 전당 앞에서

## ■ 19기 태성회



2024. 9월 전남 비금도 '별들의 정원' 앞에서

전남 신안군에서는 국가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공사 19기 이성울(중령), 육사 30기 이성출(대장), 해사 30기 이성식(소장) 삼형제의 충의를 기억하고, 기리고자 2024년 6월 28일에 비금도에 '별들의 정원'을 조성하고 제막식을 가졌다. 19기 태성회 동기생들은 9월 9일~10일에 "별들의 정원"을 방문하여 이성울 동기생과 그 형제를 축하하였다.

## ■ 23기 이계훈 공군전우회장 취임

제23차 총동창회장이자 제31대 공군참모총장을 역임한 이계훈(23기) 동문은 2024. 3. 27일 공군 호텔에서 열린 공군전우회 정기총회에서 제29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이계훈 회장은 앞으로 2년간 공군발전협회장을 겸임하면서 공군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높은 힘, 정예 우주공군'으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도록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 32기 신익현 LIG NEX1 사장 취임



LIG넥스원은 2024. 3. 25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신익현(32기) 동문이 대표이사로 공식 취임했다. 신익현 동문은 2007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실 행정관, 2010년 공군 제8전투비행단장, 2013년 합동참모본부 전력기획처장 등을 지냈으며, 2017년 LIG넥스원에 합류하였다. 이후 LIG넥스원의 전략기획전문위원, 감시정찰사업부장, C41STAR(지휘통제통신·감시정찰·표적획득)사업본부장, C41STAR사업부문장 등을 지냈고 지난 1월 1일부터 사장직을 수행하였다.

### ■ 32기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취임

이건완(32기) 동문이 2024. 5. 3일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으로 취임하였다. 이건완 동문은 공군작전사령관, 공군참모차장, 공사교장 등 주요 직위를 거쳤으며, 청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로 재직하였다. 능력과 신망 있는 신임 이건완 소장은 국방 과학 분야 발전에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43기 부승찬 제22대 국회의원 당선



부승찬(43기) 동문이 2024. 4.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용인시병에서 당선되었다. 부승찬 동문은 2010년 2월 소령으로 전역한 후 정치권에 투신하였다가 2018.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직과 국방부 대변인을 역임한 바 있다. 부 의원은 국회에서 국방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활약하고 있다.

### ■ 56기 김도형 팬텀 비행대장

2024년 6월 7일 수원 제10전투비행단에서 F-4E 팬텀 퇴역식이 거행되었다. 공군은 팬텀 퇴역에 앞서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여 대국민 홍보를 통해 퇴역식을 준비하였는데, 씨밀레 56기 김도형 동문이 그 중심에 있었다.

제153전투비행대대 비행대장 김도형 동문은 팬텀시간만 2,000시간이 넘는 공군의 마지막 팬텀 베테랑 조종사로서 퇴역 비행 임무를 직접 완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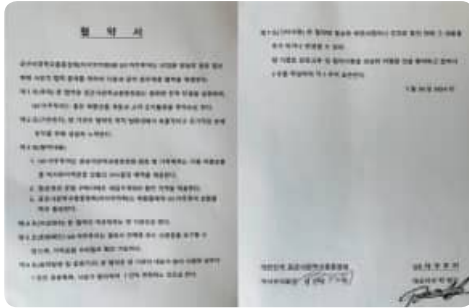
55년간 우리나라 영공을 수호한 1등 공신으로서 맹활약을 한 'F-4 팬텀'의 마지막 임무인 전국 국토 순례 편대비행을 김 동문이 이끌었는데, F-15K 권오철 동문이 에스코트를 하였고, 남해에선 전승현 동문이 KF-21 편대로 남해안을 함께 하며 고별과 세대교체의 의미를 더했다.



## ■ 미서부지역회 동정



미서부지역회장 심인태(30기)



미서부지역회는 지난 1월 28일 US아주투어와 협조하여 동문 및 가족에게 10% 할인 협약을 체결하였고, 9월 말 기준으로 4명의 동문 가족이 이용하였다.

4월 6일에는 총영사관과 대한인국민회 주관 행사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5주년 기념식에 동문 2명이 참석하여 의미를 되새겼다. 그리고 8월 4일에는 한국공군 기원에 재정 지원한 '김종림' 애국지사 묘역(미 서부 리들리)을 참배하였다.

그동안 미서부지역회를 맡아 동문 소식과 공군 홍보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해왔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후 대면 모임이 급격히 적어져 사회 네트워크 서비스망을 통한 공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였다.

먼저, '22. 8. 1. 한국공군 홍보 방송 인터뷰를 하였고, 2023년에는 참전 선배님들을 모시고 한국전 증전과 한미동맹 70주년 공군주관행사를 하였으며, 이때 한국계 미연방 하원의원인 영 김 (Young Kim)으로부터 한반도 평화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공로가 큰 온성철(4기), 최병열(5기), 서용석(5기) 3명의 동문이 감사장을 받았다.

미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은 공군 기원의 상징적인 장소로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꼭 알리고 싶다. 특히 월로우스 비행학교와 관련된 조종사 양성에 관한 이야기는 인터넷에 공군에서 올린 글이나 관심보다 일반인의 관심이 다 많게 느낄 정도이다. 이것에 관해선 기회가 되면 이곳을 방문하셨을 때 대화하기로 하고 이만 미서부지역의 최근 활동 내용 이야기를 마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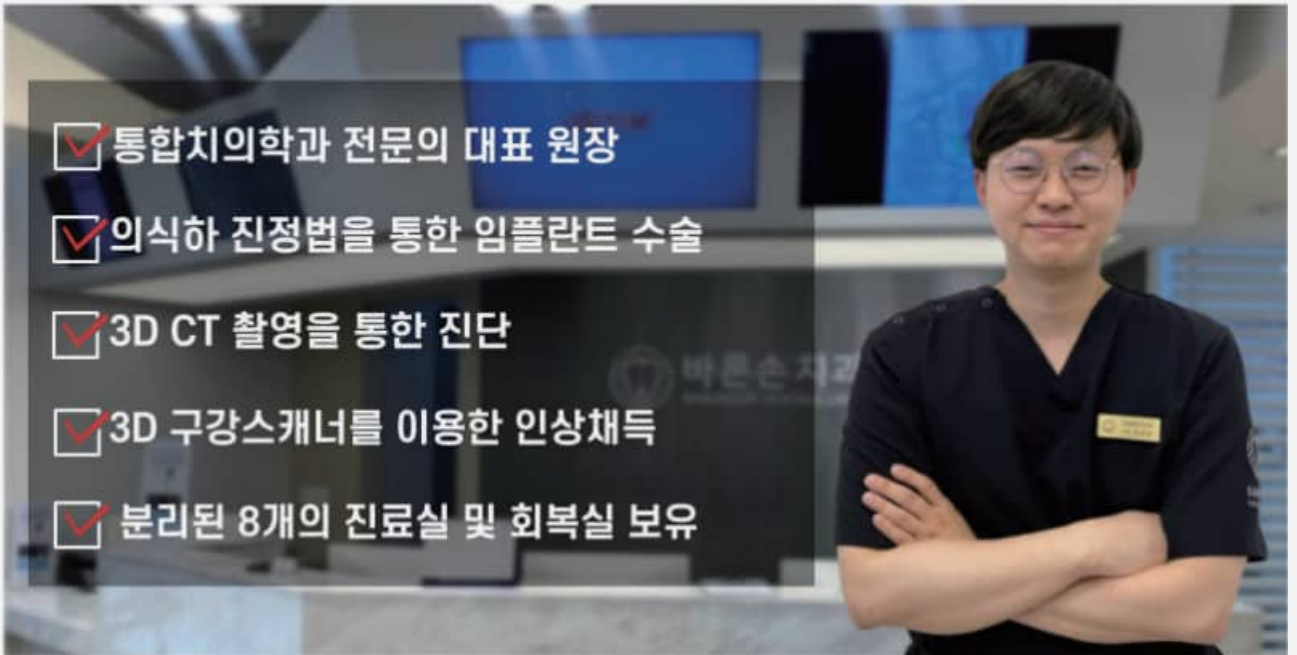
2023년 공군전우회가 미연방하원의원 영 김으로부터 받은 감사장





# 바른손치과의원

BARUNSON DENTALCLINIC



- ☑️ 통합치의학과 전문의 대표 원장
- ☑️ 의식하 진정법을 통한 임플란트 수술
- ☑️ 3D CT 촬영을 통한 진단
- ☑️ 3D 구강스캐너를 이용한 인상채득
- ☑️ 분리된 8개의 진료실 및 회복실 보유



**진료과목** 치 주 과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존과 치과보철과

### 진료시간

월 화 수 금 AM 9:00 ~ PM 6:00  
 목요일 (야간) AM 9:00 ~ PM 8:00  
 점심 시간 PM 12:30 ~ PM 2:00  
 저녁 시간 PM 5:30 ~ PM 6:00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휴진

### 진료내용

임플란트 사랑니발치 의식하진정법



### 오시는길



바른손치과의원

롯데마트

고암근린공원

홍성역

위 치 : 홍성읍 조양로 237 은영빌딩 3층  
 (홍성 의료원 맞은편 콩나물 국밥 3층)

### 예약문의

041) 631 - 2822 ~ 3

홍성의료원

대왕감자탕



# 총동창회·연구소 알림

## 제 30차 총동창회 운영 현황

### 회원현황

- 임관 총 인원 : 10,884명
- 현재 인원 : 9,855명
- 예비역 인원 : 5,778명

### 적립기금(평생회비) 현황

2023. 12. 31 기준

구분	수입	지출	비고
인수 기금	1,243,234,347		29차년도
30차 증식	회비	281,200,000	
	예금 이자	45,474,212	45,474,212
적립 총액	1,524,434,347	45,474,212	잔액 : 1,478,960,135

### 성무 장학기금 현황

2023. 12. 31 기준

구분	수입	지출	비고
인수 기금	122,076,504		29차년도
30차 증식	모금	35,578,752	
	예금 이자	48,960,438	
장학기금 지급액		31,000,000	총 28명 지급
적립 총액	206,615,694	17,800,000	잔액 : 175,615,694

### 2023년 주요 추진사업

1. 71기 졸업생도 축하 : 특강 및 총동창회장상 시상, 졸업선물 전달('23.2.22.)
2. 불우이웃 돕기 : 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23.3.8), 청운보육원 후원('23.3.20.)
3. 초청 간담회 : 자문위원('23.3.16.), 예비역 이사('23.3.30.), 현역 이사('23.4.24.)
4. 항공안전단 격려 방문('23.4.3), 공군사관학교 기념 식수('23.4.15.)
5. 졸업 및 임관기념 행사('23.6.10.) : 21, 31, 41, 51, 61기

6. 성무 장학금 전달 ('23.6.28.)
7. (사)성무안보연구소 제3회 안보학술세미나 개최 ('23.7.6.), 공익법인 지정('23.10.4.)
8. 친목행사 : 테니스대회('23.5.9.), 라이딩 동호회 행사('23.5.13./10.14.), 바둑대회('23.6.20.), 당구대회('23.8.26), 걷기행사('23.10.24.)
9. 성무지(52호) 발간 ('23.10.30.)
10. 순조회 초청행사('23.6.1./12.8.) : 총동창회 주관 호국보훈의 달 초청 오찬 및 후원 선물 증정, 공군전우회와 공동주관 연말 오찬 및 전회원 선물 증정

**제 31차 총동창회 운영 임원**

- 회장 : 정석환
- 감사 : 이상호, 정재형
- 부회장 : 유병길(선임), 강경한, 김남호, 김용덕, 김종명, 신재현, 이선희, 이수완, 이준희
- 사무총장 : 조승균
- 후원 : 공사 31기 동기생 일동



# 평생회비 납부 안내

## 평생 회비 입금 계좌

우리은행 319-239049-01-001  
 국민은행 485501-01-343421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 평생 회비란?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적립기금으로써, 회원 전원이 평생에 한 번 분담하는 회비이며 1인 당 20만 원입니다.

납입하신 회비는 총동창회 연간 운영에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본 기금의 연간 이자는 성무 장학기금으로 적립하여 회원 유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원금은 은행에 계속 적립하여 향후 총동창회관 등의 건립에 사용할 예정으로 미납 회원들은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평생회비 납부현황

평생회비 완납기수 1~35기, 52기, 57기, 59기, 61기, 63기, 64기, 65기, 66기, 69기, 70기, 72기

## 31차년도 평생회비 납부자 현황

기간 : '23.10.11~'24.9.30

기수	현재 인원	납부 인원	미납 인원	납부자 명단
36	253	135	118	김만진, 박용일
37	255	142	113	김규수, 김금순, 김성환, 김진표, 박연관, 박한주, 성일환, 손창인, 이관우, 이만길, 이병근, 이창환, 이현범, 정윤철, 정종근, 정형석, 조용현, 천성문, 최희준, 추병대, 한은철, 한인수, 한태수, 함영호, 황원기
38	233	103	130	김승희(명예), 이상학, 조준원(명예)
39	220	89	131	김복수, 이정재, 이흥규
40	241	45	196	김종원, 심영택, 이정근, 진영우
41	242	57	185	김병규, 김일환, 박성준, 신현호, 오경석, 유제현, 이기호, 하상룡, 홍성은
42	275	76	199	김도우, 김세연, 배상우, 배준기(명예), 윤장환, 최민규(명예)

43	271	40	231	김태연, 최성근
44	221	65	156	
45	220	21	179	김건환, 김기호, 김종욱, 문영주, 박종한, 이길영, 이진만, 조철환
46	227	18	209	박지청, 여현준, 정현욱
47	201	65	136	김정민, 이준호, 정우상
48	192	125	67	김형기, 송영수, 윤진섭, 이진길
49	200	69	131	박병일, 서영길, 이성훈
50	193	54	139	강성민, 노남선, 박병민, 송재경, 송제현, 송준호, 양성주, 오창록, 이지원, 조 선, 최우석
51	203	78	125	김도형
53	211	6	205	
54	192	12	180	김인성, 이경주, 이상욱, 이종길, 최진은
55	186	34	152	
56	155	34	121	전승현
58	134	8	126	오혜령
60	148	25	123	안기현
62	145	1	144	
66	136	135	1	
67	148	2	146	
68	158	3	155	
71	188	101	87	
72	166	166	0	166명 동기회 대납
비고	4		26기 양재철(명예), 26기 주일종(명예), 명예회원 이범욱, 명예회원 박종관	
합	현재인원 : 10,243		납부인원 : 6,399	미납인원 : 3,844





# 총동창회 발전기금 납부 안내

발전기금 입금 계좌

국민은행 485501-01-377192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지난 7월 10일 22기 동기회인 쌍매회에서 임관 50주년 행사를 마치고 총동창회에 기부해준 것을 기반으로 발전기금 모금을 확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총동창회 회칙을 개정하고 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앞으로 임관행사 기수 뿐만 아니라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발전을 위해 기부하실 개인이나 업체 또는 단체의 후원을 기대합니다.

발전기금 납부현황 (2024. 9. 30. 기준, 단위:만원)

(개인 : 1명, 단체 : 2, 총계 : 250만 원)

기수	인원	성명 (금액)
22		22기 동기회(200)
31	1	조승균(20)
단체	1	공사동창회 미서부지회(30)



# 성무장학사업 안내

**목적** 회원 유자녀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여 부모님 추모 및 성무가족으로서의 자긍심 고취, 학업에 전념 지원

**대상** 공사 총동창회 회원 유자녀 (초, 중, 고, 대학생)  
※ 공본 '하늘사랑 장학재단' 수혜자 제외

**금액** 대학생(200만 원), 고등학생(100만 원), 중학생(70만 원), 초등학생(50만 원)

## 기금 적립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의 후원금 (평생회비 기금 이자 및 사업비 잔액)
- 성무지 발간 광고비 중 제비용을 제한 잔액
- 동문 개인 및 기업 등 단체에서 장학기금으로 기탁한 기부금 등

## 성무 장학금 신청 방법

- 관련 서류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총동창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kafaaa.or.kr) 성무장학기금
  - 보낼 곳
    - 우편 : 06947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36길 92, 태성관 3층 공사총동창회
    - 이메일 : 04airfa@hanmail.net (추후 관련 서류 원본은 우편 제출)
- ※ 각 기생회장/총무는 해당인원 여부 파악 및 안내 요망

## 성무 장학기금 기탁 하신 분 (2024. 9. 30. 기준, 단위:만원)

(개인 : 193명, 단체 : 7, 총계 : 16,513만 원)

기수	인원	성명 (금액)
1		
2	1	박재성(100)
3	1	백낙승(100)
4	1	온성철(10)
5		
6		6기 동기회(200)
7	1	한주석(100)

## 성무장학사업 안내

8		
9		
10	12	10기 산우회(300) : 강위훈, 권영락, 김완수, 김윤제, 김태석, 김한용, 서진규, 송중호, 이헌재, 임승욱, 장풍길, 한정복
11	1	이광학(100)
12	1	박춘택(100)
13		
14	1	이억수(100)
15	2	김덕훈(100), 김주식(10)
16	3	김익래(100), 김회동(20), 임정빈(10)
17	5	강희간(100), 고영섭(30), 김익창(10), 이문호(10), 이한호(100)
18		
19	5	민주동(20), 박창용(4), 이달호(10), 정성진(20), 정하섭(20)
20	5	김성일(100), 김정기(30), 손준영(30), 이재명(100), 한광성(30)
21	7	김창욱(100), 김태욱B(100), 배민섭(10), 배창식(30), 신문식(30), 유근국(10), 이광영(30)
22	5	김은기(100), 민형기(10), 오원용(20), 이영하(20), 정 양(20)
23	5	23기 동기회(200), 김광정(300), 이계훈(50), 유연도(10), 이정욱(20), 장창연(10)
24	6	24기 동기회(1,000), 김득환(50), 이준우(20), 임호순(30), 최재희(30), 최종용(30), 황원동(30)
25	15	김용전(10), 김찬환(30), 김홍진(30), 류홍규(10), 손명환(10), 송명진(20), 윤상주(10), 윤학수(20), 이귀형(10), 이성재(50), 임종호(20), 장희태(20), 최미락(30), 하왕규(10), 이승구(100)
26	6	권영한(100), 박기순(20), 배총영(50), 송길수(10), 오중기(50), 하대용(20)
27	5	김수은(10), 백흥중(50), 이희명(20), 한정열(30), 황태익(50)
28	14	강영철(5), 김도호(100), 김주연(30), 김학수(30), 안재모(30), 유길형(59), 윤 우(20), 이상욱(10), 이석원(30), 임종춘(20), 지윤규(10), 최병주(30), 최차규(70), 홍성표(40)
29	16	김철우(30), 김홍온(100), 남승우(30), 박성기(30), 박재복(50), 서부종(30), 안준기(30), 양철환(150), 이경달(40), 조병호(100), 조평현(50), 차종환(60), 최용준(50), 최정근(100), 한봉완(50), 문병규(30)
30	21	강구영(50), 고영문(10), 김광희(100), 김성용(45), 김정근(3), 박성희(3), 신호재(3), 심인태(135), 심재천(3), 우정규(13), 이권우(3), 이용곤(52), 이학주(86), 정경두(365), 정명환(3), 정의길(3), 정중구(105), 조보근(160), 조영봉(20), 최영훈(20), 황기영(3)
31	10	강경한(80), 고종봉(51), 박재준(1,000), 박양기(100), 이상호(50), 이선호(50), 이왕근(50), 정석환(140), 조승균(90), 채관석(20)
32	7	김영수(50), 남동우(20), 박승룡(10), 신익현(100), 원인철(10), 이성형(10), 허창희(40)

33	5	김동욱(30), 박광필(10), 이병권(10), 정영철(10), 최현국(30)
34		
35		
36	4	김보현(500), 남영진(110), 박영준(10), 박문덕(90)
37	1	정장용(20)
38	2	김정한(30), 최재혁(30)
39	1	김재권(26)
40	1	오제정(10)
41	2	박기완(40), 정진광(10)
42	3	김태우(31), 김현준(55), 백도석(48)
43	2	정재식(10), 최성근(20)
44	3	고준기(116), 곽병창(10), 최영호(10)
45	1	이형섭(10)
46	3	고휘석(155), 서정민(10), 한천희(10)
47	1	박형준(13)
49	2	권광수(33), 김선태(3)
52	1	황헌모(5)
59	1	오병준(200)
기업, 단체	4	공군전우회 LA지회(91), 공사동창회 미서부지회(60), 록히드마틴(30,030), 보잉(13,167)
일반	2	윤종호(70), 이봉근(20)



**성무 장학기금 기탁 계좌**  
 국민은행 485501-01-349902  
 예금주 : 공군사관학교총동창회  
 국민은행 485537-01-005489  
 예금주 : (사) 성무안보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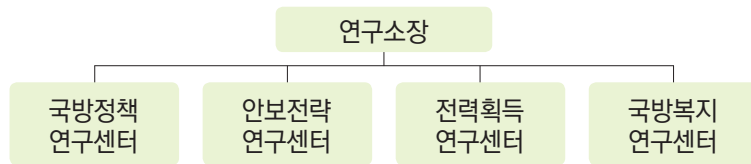
※ (사)성무안보연구소는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써 기부금영수증 발급(세액공제 가능)을 희망하실 경우에는 (사)성무안보연구소 계좌로 기탁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무안보연구소 운영 안내

## 설립 목적

- 미래지향적인 국방정책과 군사분야에 대한 정책 연구를 통해 국가 안보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부설 연구기관(2021. 7월 설립)

## 조 직



## 주요 활동

- 학술세미나 개최
- 국방 관련 연구과제 수행
- 성무장학사업
- 국방정책 및 군사분야 컨설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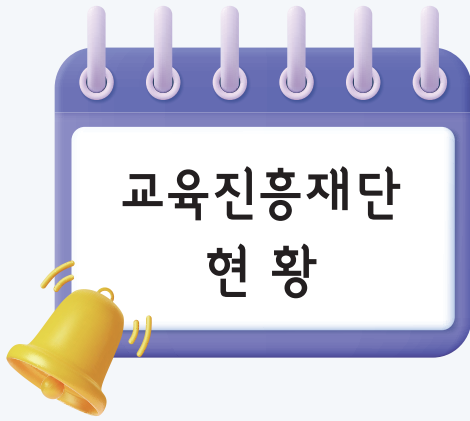
## 참여 안내

-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 기금화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출연하실 수 있습니다. (분할 출연 가능)

국민은행 485537-01-373053  
예금주 : (사)성무안보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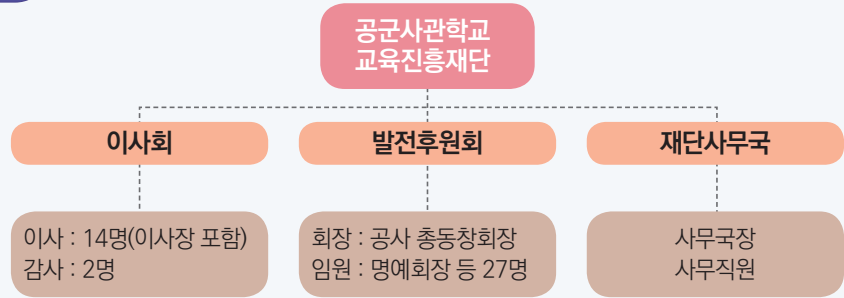
-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으로써 기부금 영수증(세액공제) 발급 가능합니다.
- 기탁 후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전화(02-823-1091) 또는 이메일(04airfa@hanmail.net) 통보





### 교육진흥재단

- 재단 명칭 : “재단법인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1996. 06. 재단설립(충청북도교육청 허가 제12-376)]
- 설립 목적 : 공군사관학교 생도교육 및 학교발전을 위한 교육진흥사업에 기여함
- 조직 편성



### ■ 발전기금 기부 및 집행 현황

〈'23. 12. 31. 기준〉

발전기금 기부현황 (출연자별)			발전기금 집행현황(누적현황)		
구 분	금액 (억 원)	비 고	구 분	세 부 내 용	금액 (억 원)
기업 및 단체	45.3	• 삼성테크윈(주) • 삼양화학공업(주) • (주)부영 등 87개 단체	생도 국내·외 교육 훈련 및 교류	• 해외항법훈련 • 안보현장 견학(역사탐방) • 외국 사관학교 견학 및 내교	35.6
동문	54.4	• 학교동문 1,859여 명 70개 단체 (동기회 등)	생도 학술·문화·체육 활동	• 각종 대외학술대회 참가 • 교내 학술 및 경진대회 • 융합캡스톤 교육연구 • 우수생도 격려 및 성무제 지원	12.9
학부모 및 후원자	14.4	• 학부모/후원자 등 464여 명	교수/훈육관 학술연구 활동	• 교수학술교류 및 세미나 • 국외연수 지원 • 훈육관 리더십 워크샵 등	1.3
			학교발전 지원	• 생도 생활관, 체육시설 등 환경개선 • 생도교육 유공자 격려 등	4.2
합계	114.1	총 2,325여 명 160개 단체	합계	-	54.0

### ■ 교육진흥재단 안내

- ▶ 공군사관학교 발전기금 인터넷 홈페이지 : <http://kafaf.or.kr>
- ▶ 출연 문의 : 공군사관학교 교육진흥재단 사무국 (전화) 043-290-6120, 6123

## 부록 #1 : 자랑스러운 공사인 수상자 현황

연도	기수	주요 공적	
2005	4기 홍재학		<b>전 한국항공우주연구소 부이사장</b> •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 공헌 • 인공위성 아리랑 제1호 개발 공헌
2006	20기 이재명		<b>전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b> • 최초 국산개발 훈련지원기 KT-1/O-1 개발 공헌 • 최초 군용기 감항 인증 체계 구축
2010	2기 이곤		<b>현 한국서학회 명예회장</b> • 한글 서예작가(한국 서학회 이사장 20년 역임) 로서 한글의 우수성과 아름다움 전파에 선구적 역할
	19기 김구섭		<b>현 안보경영연구소 이사</b> • 한국국방연구원(20년)으로서 국방정책 연구로 국가안보에 기여 • 제10대 국방연구원장으로서 3군의 균형적 발전과 합동성 강화 연구에 기여
2011	10기 강위훈		<b>전 국과연 항공사업 본부장</b> • ADD에서 KT-1 계획 및 선행개발 연구 기여 • 중국 연변 과학기술대학교 교수로서 동북아 교류협력 증진 및 발전
2012	7기 곽영달		<b>전 14대 국회의원</b> • 제14대 국회의원으로서 국가안보 및 공군발전에 기여
	17기 이한호		<b>전 공군참모총장</b> • 순직 조종사 추모비 건립 공헌 • 국방개혁대책위원으로서 국방개혁추진 성과
	17기 이문호		<b>전 공사 총동창회 사무총장</b> • 순직 조종사 추모비 건립 공헌 • 국방개혁대책위원으로서 국방개혁추진 성과
2013	38기 고)오충현		<b>공군 대령, 제18전비단 105전투비행대대장</b> • 순직 후 우국충정이 담긴 생전일기가 공개되며, 열사봉공과 희생정신의 참 군인으로서 귀감이 됨
2014	18기 전영훈		<b>현 골든이글공학연구소 소장</b> •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으로서 T-50, A-50 개발 공헌
2016	25기 류홍규		<b>전 사랑의 밥차 대표</b> • 장애우, 노약자를 위한 국내외 봉사과 헌신적인 삶을 실천 (봉사기간 8,025시간)
	47기 김진웅		<b>공군 중령, 공본 기참부 KF-X사업팀</b> • 일본 방위대학교 최초 석.박사 과정에서 연속 2회 최고 연구자상 수상

연도	기수	주요 공적	
2019	30기 심인태		<b>현 미주 공사동문회 서부지회장</b> • 미주 공사동문회 서부지회장(06년~현재)으로서 동문들의 단합과 동문회 발전에 기여 • 교포사회에서 안보 단체행사 주관으로 안보의식 고취
2020	1기 이희근		<b>전 공군참모총장</b> • 한국전쟁 당시 89회 출격 • 제15대 참모총장 재직 시 1차 율곡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공군 전력 증강에 이바지
	27기 최동환		<b>현 (주)선진건설 회장</b> • 공사 발전기금 1억 7천만 원 후원, 모교 발전에 기여
	56기 김기천		<b>공군 소령, 공군 항공의료원 항공의무과장</b> • 대구지역 코로나-19 확산 시 대구기지 파견 역학조사 임무 수행 • 대구기지 감염병 확산 차단 기여
2021	5기 이재우		<b>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상임 석좌교수</b> • 한국전산원 초대 부원장, 한국 정보보호진흥원 초대 원장 역임 • 세계 정보보호 전문가 TOP10 선임 • 국내 정보보호 분야의 주춧돌 역할
	14기 박종선		<b>현 고려대 산업경영공학부 겸임교수</b> • 대학교 산업경영 공학분야 후진 양성 • 공군 KTX-2 개발에 공헌
2022	30기 이용곤		<b>전 한라일보 사장</b> • 군 출신 최초 신문언론사(한라일보) 대표이사직 수행 • 공사 발전기금(2억), 하늘사랑 장학재단 기부금(1억) 유치 공로
	32기 정광선		<b>전 방위사업청 한국형전투기사업 단장</b> • 공군 주요 무기체계 전력화 기여 • 공군 KF-21 개발에 공헌
	54기 안준현		<b>공군 소령, 52전대 작전계획과 표준화평가담당</b> • 탁월한 기량의 시험비행조종사로서 KF-21 시제기 최초 비행임무를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수행
2023	3기 이종학		<b>전 서라벌군사연구소장</b> • 국내 최초 군사학 체계를 학문으로 정립, '군사학의 태두'로 평가 • 문교부 승인 첫 군사학 정교수 • 공사 및 군사학발전기금(43억원상당) 기부 공로
	26기 이대열		<b>전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체계개발단장</b> • KT-1, KA-1, 국산항공무장(KGGB) 개발, 전력화 기여공군 KF-21 개발 공헌
	32기 원인철		<b>전 제42대 합동참모의장</b> • 항공우주력 종합발전계획 '에어포스 퀴텀5.0' 수립성공적인 국방개혁 2.0 추진

## 부록 #2 : 동문작가 기증 도서 현황

순번	기수	이름	도서 제목
1	1	정해영	훨훨 날아가며 생각하며 기도하며 1, 2
2	2	박재성	누가 패강인가 박재성
3	2	박재성	늙은 전투조종사의 가슴은 아직도 뜨겁다
4	3	이종학	60대 이후의 인생전략
5	3	이종학	군사명언의 지혜를 찾아서
6	3	이종학	서라벌에서 온 편지
7	3	이종학	풍석 이종학 교수 추모 사제동행 논문집
8	3	백락승	화염의 언덕을 넘어 하늘로
9	4	박웅진	박웅진시전집1, 2, 3, 4, 5권 (각 5권)
10	8	서진태	사생과 개념 한국전쟁
11	10	이은봉	하늘을 향해
12	10	백승웅	오늘이 더 행복한 이유
13	10	강위훈	항공인의 에세이집(1)
14	10	강위훈	연구개발 40년 일정
15	12	박덕희	항공전역-번역
16	14	이건일	중국인민해방군 정치사업사
17	14	이건일	공사당 선언
18	14	이건일	군벌1
19	14	이건일	군벌2
20	14	이건일	중국의 통치문화
21	14	이건일	중화민족주의
22	14	이건일	모택동 대 장개석
23	14	이건일	유장상법
24	14	김현	전투조종사
25	15	최성열	하늘에서는 땅을, 땅에서는 하늘을
26	15	박영남	박영남 회고록 - 하늘을 날던 비행기 할배
27	17	장호근	6.26전쟁과 정보실패
28	17	장호근	미공군의 한국전쟁 항공작전
29	17	장호근	예방외교
30	17	이문호	고맙다 세상
31	18	석현수	주관적 산문쓰기
32	18	석현수	거리두기 시대
33	18	석현수	25시는 없다

순번	기수	이름	도서 제목
34	18	전영훈	T-50 끝없는 도전
35	18	정용진	일선 조종사 이야기
36	19	이영순	하늘 깊은 곳에 바위가 되고 싶다-시집
37	19	이영순	하늘이 받아준 사람
38	19	이계오	여론조사의 이해
39	19	이계오	표본조사론
40	19	박창용	사랑의 빛
41	19	이달호	간 큰 도전
42	20	최수길	아, 그리운 하늘이여!
43	21	변희룡	일상생활의 기상학
44	21	변희룡	이야기로 간추린 천기천기(天機天氣)
45	21	금기연	산티아고 기행기
46	24	강임구	길은 물어도
47	24	강임구	흐르는 물길따라
48	24	강임구	달는 발길마다
49	24	박상묵	걱정말아요 군대
50	24	박상묵	비행생활과 안전
51	25	송기준	민간항공조종사 운항입문지침서
52	25	송기준	에어버스 안정비행기법
53	25	송기준	검은개나리(소설)1-4권
54	25	송기준	독도를 사수하라
55	26	은진기	나는 하늘로 출근한다
56	26	김진호	날아라 메추리
57	27	이덕대	감나무 가지에 걸린 달빛으로 자라기
58	27	이덕대	내 마음속 도서관
59	28	김도호	카펫의 빛과 그림자
60	29	이두희	사잇길
61	29	이두희	조종사는 가슴의 날개로 난다
62	30	장조원	하늘의 과학
63	30	장조원	하늘에 도전하다
64	30	장조원	비행의시대
65	31	강호석	1차 세계대전의 항공전역
66	31	강호석	펜타곤 전쟁
67	31	강호석	항공력시대의 개막
68	32	최재승	파일럿의 진로탐색비행
69	32	최재승	스카이 챌린지



순번	기수	이름	도서 제목
70	32	최재승	파일럿의 건축학 개론
71	32	최재영	동그란 무지개를 보셨나요
72	32	김동수	겸손한 스트레스 오만한 치유
73	33	한고희	구름위의 지휘관 파일럿
74	33	한고희	파일럿의 특별한 비행일지
75	34	김규호	부모라는 항구
76	34	김규호	100차선 희망
77	34	김학준	전략의 원천
78	34	김학준	합동성 이론과 실제
79	34	유재림	비행착각
80	34	임도한	한국 현대 생태시 연구
81	34	김훈	우물로 본 조선역사
82	34	김훈	하늘 영화로 하늘을 보다
83	36	박영준	섬의 세계사
84	37	김광진	제복과의 대화
85	37	이두형	중국공군
86	37	이두형	등소평 전략사상강화
87	37	이두형	중국군사력 현대화의 발전과 도전
88	37	이두형	21세기 세계군사와 중국국방
89	37	이두형	항공무선통신사
90	38	조준원	가짜 뉴스를 다루는 법
91	38	조준원	언론소송과 판결
92	39	김승규	무기가 바꾼 세계사
93	43	부승찬	권력과 안보
94	46	박지청	항공기 조종사 진로지침서
95	46	박지청	부동산 투자 시크릿
96	47	오충원	한국전쟁일기
97	47	오충원	아틀라스 세계항공사
98	47	오충원	보이드(BOYD)
99	56	최현욱	85년생 요즘 아빠
100	64	심정민	그대 햇불처럼-추모시집
101	69	김범수	하늘은 나를 향해 열려 있어
102	작가	차인숙	나다 유치곤
103	명예	이범욱	현존재의 사유
104	명예	이범욱	래거시 = Legacy

# 편집 후기

2023년 10월경 '24년도 공사 총동창회장으로 취임할 정석환 동기의 전화가 걸려왔다. 공사 31기 회장단의 요청으로 「성무」 53호의 편집장을 맡아달라는 부탁이었다. 나는 아무런 고민 없이 'YES'라고 답하였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교육센터장으로서의 여건을 고려한다면 NO라고 답해야 맞았을 것이다. 그러나 단번에 YES라고 답한 것은 내가 공군사관학교 출신이기 때문이다. 공사 출신으로 1년 단위로 발간되는 「성무」 53호의 편집장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안되며 거절하는 순간 공사(空士)인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자기모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숙명으로 받아들여 YES라고 답했다.

막상 YES라고 대답을 해놓고 보니 30기 선배님들이 「성무」지 52호를 너무 잘 만들어 놓았기에 심리적으로 부담이 되었다. 작심 끝에 “동문으로부터 최소한 욕을 먹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기준을 정하고 31기 동기생들이 열과 성을 다해 「성무」 53호를 제작하려 함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고자 결심하였다.

활주로에 놓인 전투기가 전력 출격에 의한 우렁찬 소리가 어둠을 헤치고 새벽을 여는 것처럼, 31기 동기생 모두가 성원을 보내주시고 총동창회 임원들이 9개월간 각고의 노력을 경주한 결과 「성무」지 53호라는 옥동자가 세상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할 수 있다.

고백하건데, 편집장으로 회장단 동기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성무」 53호 제작은 31기 동기 전체의 자존심이 걸려있기에 어쩔 수 없었음을 너그롭게 이해하여 주시기 바란다. 공사31 한돌도 75년 공군사관학교의 거대한 톱니바퀴 가운데 「성무」 53호라는 칸(기어)에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고 역사의 뒀안길로 되돌아가면서 외쳐본다. 하늘에 살면서 하늘에 목숨을 바치는 영혼의 기지 공군사관학교여 영원하라고 .....

## 기고 안내

『성무』지는 연1회 발행되고 있습니다.

수필, 여행기, 체험기, 취미활동 그리고 회원들과 나누거나 전하고 싶은 유익한 내용 등 다양한 글들을 보내주십시오.

제54호 성무지 원고는 2025년 7월 마감할 예정입니다.

많은 기고를 부탁드립니다.

**발행일** 2024. 10. 31

**발행인** 정석환

**편집인** 이준희(위원장), 강경한, 김남호, 김용덕, 김종명, 신재현, 유병길, 이상호, 이선호, 이수완, 정재형, 조승균

**발행처** 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 (사) 성무안보연구소

**주 소** (우)06947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36길 92

**연락처** 02-823-1091

**이메일** 04airfa@hanmail.net

**홈페이지** www.kafaaa.or.kr, www.srins.re.kr

**편집·제작** 대한기획인쇄 02-754-0765

빙그레는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B**빙그레





# PROVEN PERFORMANCE

Trent 700 - Powering the RoKAF KC-330

롤스로이스는 세계를 선도하는 최첨단 산업기술 기업으로,  
지난 반세기 이상 대한민국 육해공군의 350여대 항공기에 엔진을  
공급 및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롤스로이스는 자주국방의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www.rolls-royce.com/korea](http://www.rolls-royce.com/korea)

The appearance of U.S. Department of Defense (DoD) visual information  
does not imply or constitute DoD endorsement.





# 공군과 함께하는 KB국민은행이 되겠습니다



- 군인연금 수령은행 지정/변경 시 ☎ 02-3146-6498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KB국민은행 고객센터 ☎ 1588-9999



# Korea Best Bank

## 국민은행이 공군과 함께합니다

전 부문 1위



국가고객 만족도 NCSI  
은행권 최다 17회 달성

브랜드  
평판부문

고객수  
은행부문

시중은행  
국내영업망

인터넷뱅킹  
M/S

퇴직연금 DC  
/IRP 적립금

스마트뱅킹  
M/S

오픈뱅킹  
가입자수

원화예수금  
M/S

원화대출금  
M/S

ESG  
경영평가

시중은행  
기부 부문

(2023.12월 말 기준)



797개

시중은행  
최다 점포



4,329개

전국최다  
자동화기기



3,337만

최다  
거래고객



2,644만

최다 인터넷뱅킹  
가입자 수



2,091만

최다 스마트폰뱅킹  
가입자 수

(2023.12월 말 기준)



마음의 고향 성무대!  
 서울과 청주 성무대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언제 보아도 정겹다.